외국장편소설

삼총사

(상)

알렉싼드르 듀마
현상룔 역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1(2012)

머 리 말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이름이 비록 《OS》나 《IS》로 끝나기는 하지만 그들이 결코 신화속의 인물이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하고저.

한해전에 나는 로야르도서관에서 루이14세의 서술에 필요한 자료를 찾던중 우연히 암스테르담에 있는 삐에르 루쥬의 책방에서 발행한 《다르따냥의 회상기》를 발견하게 되였다.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당시의 대부분 작가들이 길고 짧은 차이는 있으나 오래동안 바스띠유감옥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자기의 저작을 다른 나라에 가져다 발행하군 했던것이다. 그 책의 표제에 나는 호기심이 동하였다. 그래서 나는 관장의 허락을 얻어 그 책을 빌려다가 집에서 여념없이 읽었다.

여기서 나는 구태여 그 흥미있는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론할 생각은 없으며 단지 과거의 사실들에 평가를 내릴줄 아는 독자들에게 그 책을 소개하고저 할뿐이다. 그 책에서 독자들은 문장가들이 그려낸 많은 인물들의 초상을 찾아볼수 있을것이다. 비록 초상들이 병영의 문이나 술집 담벽들을 배경으로 하여 그려져있기는 하지만 독자들은 거기서 루이13세나 오스트리아의 공주 안느, 리슐리에나 마자랑 그밖에 당시의 많은 궁신들과 앙끄뗄(18세기 프랑스의 력사학자—역자주)의 책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알아보게 될것이다.

하지만 괴벽스러운 작가들은 따로 광범한 독자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점들에 흥분하기도 하는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회상기를 보고 감탄할것이 틀림없는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책의 훌륭한 내용에 감

탄하면서도 아마 지금까지 누구도 관심하지 않았을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다르따냥은 회상기에서 자기가 총사대에 입대하는 영예를 지니려고 처음 총사대 대장 뜨레빌각하를 배알하러 갔을 때 명성이 자자한 총사대에 아또스, 뽀르또스, 아라미스라는 이름으로 복무하고있는 세 젊은이를 대기실에서 보았다고 쓰고있었다.

나는 그것들은 모두 가명으로서 만일 당자들이 울분이나 생활고때문에 총사대의 수수한 만또를 입던 날 스스로 지어낸것이 아니라면 다르따냥이 그들의 존귀한 이름들을 감출 목적에서 가져다붙인것이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그날부터 나는 당시의 저작들에서 이렇듯 나의 호기심을 끄는 그 괴상한 이름들의 자그마한 자취라도 찾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내가 들춰본 책들은 목록만도 옹근 한책이 잘될것이다. 그것은 매우 교훈적일수는 있으나 아마 독자들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을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숱한 시간만 허비하고 아무 소득도 없는데 실망하여 그만 그 일에서 물러서려고 하던 참에 우리의 벗인 저명한 박식가 뽈랭 빠리스의 도움으로 목록번호 《4772》인가 《4773》인가의 원고를 찾아냈다는것을 독자들에게 말할뿐이다. 그 표제는 《루이13세 말기부터 루이14세 초기까지의 일련의 중대사건에 관한 라 패르백작의 회상기》이다.

마지막희망을 걸고있는 이 원고의 20페지에서 아또스, 27페지에서 뽀르또스, 31페지에서 아라미스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우리들의 기쁨이 어떠했겠는가를 독자들은 가히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력사과학이 그토록 높은 발전수준에 이른 오늘날에 와서 여태껏 그 누구도 모르고있던 원고를 발견했다는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되였다. 우리는 즉시 원고의 출판을 허락해줄것을 당국에 청원하였다. 자기의 저작을 가지고 프랑스 아까데미회원으로 되지 못할 경우 (십중팔구 그렇게 될것이지만) 아무때든 남의 저작이라도 가지고 어문학아까데미회원이 되려는 심산에서였다. 청원은 기꺼이 수락되였으며 우리는 우리들의 정부가 문인들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고 떠벌여대는자들의 말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사람들앞에 폭로하는것이 자기들의 응당한 의무라고 생각

하는바이다.

우리는 이제 적절한 제명을 달아 그 귀중한 원고의 첫 부분을 독자들앞에 내놓으면서 그것이 우리가 확신하고있듯이 훌륭한 성과를 거둔다면 두번째 부분 (두번째 부분이란 이 소설의 속편인 《20년후》를 말함—역주)도 인차 마저 발표하겠다는것을 약속하여둔다.

교부 역시 어디까지나 아버지이므로 소설을 읽고 만족감을 느끼든 지루감을 느끼든 그것은 라 패르백작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라는것을 독자들은 알아주기 바란다.

그럼 이제부터 본론에 넘어가기로 하자.

제 1 부

제 1 장

아버지의 세가지 선물

1625년 4월의 첫 월요일 서사시 《장미꽃이야기》의 저자가 태여난 멍은 신교도들이 도시를 제2의 라 로쉘(대서양연안에 있는 도시, 한때 국왕의 중앙집권화정책을 반대하여 싸운 신교도들의 마지막거점이였다. ㅡ역자주)로 전변시키기라도 할듯이 법석 끓었다. 아낙네들이 중앙거리쪽으로 달려가고 아이들이 집집의 문간에서 고아대고있었으며 이에 놀란 일부 시민들이 부랴부랴 갑옷을 떨쳐입고 좀더 위세를 돋구기 위하여 누구는 총으로, 누구는 창으로 무장을 갖추고 프랑 므니에려관쪽으로 달려갔다. 려관앞에서는 호기심에 끌려 새까맣게 모여온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어대고있었다.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났다.

당시에 이러한 소동은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었으니 어느 도시건 그러루한 사건을 자기의 넌대기에 올리지 않는 날이 거의나 없었던것이다. 고관대작들이 저들끼리 싸우고 국왕이 주교와 싸웠으며 에스빠냐인들이 국왕과 전쟁을 하였다. 혹은 은밀하게, 혹은 내놓고, 혹은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벌어진 이러한 싸움들외에도 누구하고나 싸우는 거지와 신교도들, 방랑자와 하인들이 또 있었다. 시민들은 도적과 방랑자, 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드물지 않게는 령주를 대상으로 하여 싸웠다. 하지만 에스빠냐인이나 주교에게 맞서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이런 뿌리깊은 습관으로 하여 시민들은 1625년 4월의 첫 월요일에 법석이는 소리가 들리고 황적색기발도, 주교 리슐리에공작의 부하들이 입는 제복도 눈에 띄지 않자 프랑 므니에려관을 향하

여 줄달음쳤던것이다.
  그들은 거기에 이르러서야 소동이 일어난 원인을 알게 되였다.
  거기엔 한 젊은이가 있었다. 여기에 그의 초상을 그려보이겠다. 독자들은 18살 되는 돈 끼호떼, 투구도 갑옷도 없으며 본래의 파란색이 지금은 색이 바래여 밤색과 하늘색의 중간색이 된 털저고리를 입은 돈 끼호떼를 상상해보시라. 검실검실하게 된 기름한 얼굴, 슬기의 표징인 툭 불거진 관골, 설사 베레모는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그런데 젊은이는 깃털 비슷한것으로 장식을 한 베레모를 쓰고있었다.) 가스꼰뉴사람을 첫눈에 가려볼수 있게 하는 확실한 표징인 류달리 발달한 턱근육, 시원스럽고 총기가 흐르는 눈, 가느다란 매부리코, 키는 아이로 치면 너무 크고 어른으로 치면 좀 작은편인 젊은이이다. 만일 가죽으로 만든 칼띠에 매달려 그가 걸을 때마다 주인의 장딴지를 툭툭 치는 긴칼과 그를 태우고 걸을 때마다 갈기털을 곤두세우는 말만 아니라면 세상물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를 먼길을 떠난 농사군의 아들로 치부했을것이다.
  우리의 젊은이는 말을, 그것도 뭇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큼 훌륭한 말을 가지고있었다. 열두서너살쯤 되는 베아른산 거세마인데 누런 털에 꼬리는 털이 다 빠지고 발굽은 퉁퉁 부어있었다. 말은 기수가 고삐를 당기는 수고를 덜수 있게 대가리를 무릎마디아래까지 처뜨리고 잰걸음을 옮기기는 하였지만 그런대로 하루에 90리요(길이의 단위, 1리요는 약 4.5키로메터)는 넉근히 축낼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우점은 유감스럽게도 말의 볼품 없는 외양과 괴이한 털빛갈때문에 말끔히 가리워지고말았으며 당시는 누구라없이 모두가 자기야말로 말을 볼줄 아노라고 자부하던 때인지라 그가 15분전에 보장씨문을 지나 도시에 들어섰을 때 이 베아른의 거세마는 매우 나쁜 인상을 주었으며 그래서 그 주인까지도 경멸의 대상으로 되였다.
  자기가 경멸의 대상으로 되고있는데다가 그런 말을 타고다니는 자기가 제아무리 능숙한 기수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우습강스럽게 보이겠는가 하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는 사정으로 하여 젊은 다르따냥(이것은 제2의 로씨난떼를 타고있는 제2의 돈 끼호떼의 이름이였다.)은 더더욱 밸이 꼴렸다. 아버지에게서 그 말을 선물로 받을 때 그가 땅이 꺼지게 긴 한숨을 내쉰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그

는 그런 말은 기껏해서 20리브르밖에 값이 나가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주면서 아버지가 하던 말은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것임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내 아들아!》 가스꼰뉴의 귀족은 앙리4세가 죽는 날까지 고치지 못한 순 베아른사투리로 말하였다. 《아들아, 이 말은 열세해를 이 집에서 살아왔고 그동안 내내 우리에게 충실했다. 이걸 명심하거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팔지 말고 늙어서 죽는 날까지 영광속에 편히 살도록 해주어라. 그리고 만일 궁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오랜 가문이니 얼마든지 그렇게 될수 있다고 본다만 너자신과 친근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귀족의 명예를 고이 지키도록 하여라. 〈친근한 사람들〉이란 너의 친척들과 벗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왕과 주교를 내놓고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아라. 지금세월에 귀족은 다만 용맹으로써만(애오라지 용맹으로써만이라는것이다!) 출세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느니라. 한순간이라도 겁을 먹는다면 행운이 마련해주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릴수 있다. 넌 아직 어리고 두가지리유로해서 즉 가스꼰뉴사람이고 내 아들이기때문에 용감하지 않으면 안된다. 후환을 생각지 말고 모험을 찾아서 하거라. 나는 너에게 검술을 배워주었다. 너에게는 무쇠같은 두다리와 강철같은 손아귀가 있다. 건덕지만 있으면 싸우고 결투도 하여라. 지금은 결투가 금지되여있으니 결투를 하려면 두갑절 용감해야 한다. 아들아, 난 너에게 15에뀌의 돈과 말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충고밖에 줄것이 없구나. 네 에미가 거기에다 집시녀자한테서 얻은 무슨 고약의 묘방을 또 줄게다. 그 약은 효험이 신통해서 심장만 아닌 다음에는 그 어떤 상처나 다 낫는다. 이 모든걸 가지고 가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내 한가지만 더 보태자고 한다. 다른게 아니고 네게 본보기가 될 사람을 하나 알선하자는거다. 물론 나야 아니지. 난 한번도 궁전에서 일해본적이 없고 의용군으로서 신앙을 위한 싸움에 참가했을뿐이니까.… 그래서 난 한때 이웃으로 지낸적이 있는 뜨레빌씨를 소개하자는거다. 어렸을 때 그는 우리의 국왕 루이13세와 함께 노는 영광을 지녔더랬지. 그들의 놀음은 왕왕 싸움으로 번져지군 하였는데 그런 경우에 왕쪽에서 언제나 우세를 보이는것은 아니였지. 그래서 국왕은 드문히 주먹찜질을 당하군 하였고 그것으로 해서 뜨레빌씨에 대해 커다란 존경과 우애심을 품게 되였단다. 그후 빠리에 처음 갔을 때 뜨레빌씨는 다른

사람들과 다섯번을, 선왕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지금의 왕이 성년이 될때까지는 일곱번을(전쟁과 원정은 셈에 치지 않고도), 그리고 그때로부터 오늘까지는 백번도 더 다른 사람들과 싸움판을 벌렸단다. 그 사람이 왕이 제일 신임하는 총사대 대장으로 된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지. 천하에 무서운것이 없다는 주교까지도 총사대를 무서워한단다. 그리고 뜨레빌씨는 1만에뀌나 되는 년봉을 받는단다. 대단한 벼슬자리를 차지하고있지. 그 사람도 너처럼 첫걸음을 떼였다. 이 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거울로 삼고 그가 행동하는대로 하거라.》

아버지는 말을 마치자 아들에게 자기의 칼을 내여주고 두볼에 입을 맞추면서 앞날을 축복해주었다.

아버지의 방에서 나온 젊은이는 신통력을 가졌다는 고약의 처방을 가지고 문밖에서 기다리고있는 어머니를 만났다. 아버지의 충고대로 한다면 앞으로 그가 자주 쓰게 될 약이였다. 어머니와의 작별은 아버지와의 작별보다 오래고 따뜻하였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기의 외아들을 사랑하지 않기때문이 아니였다. 다르따냥로인은 남아였으며 감정에 사로잡히는것은 남아답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러나 다르따냥부인은 녀자이고 어머니였다. 부인은 슬피 울었다. 그리고 젊은 다르따냥의 명예를 위해서 인정하는바이지만 그는 앞날의 총사답게 끝까지 참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끝내는 격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눈물을 좔좔 흘렸다.

젊은이는 아버지의 세가지 선물 즉 돈 15에뀌와 말, 뜨레빌앞으로 쓴 편지를 몸에 지니고 그날로 길을 떠났다. 아버지의 충고는 셈에 넣지 않기로 한다.

그처럼 소박하게 행장을 갖추고나선 다르따냥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쎄르반떼스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그대로였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필자로서의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의 초상을 그리면서 그를 아주 성공적으로 돈 끼호떼에 비유하였었다. 돈 끼호떼가 풍차를 거인으로, 양무리를 대군으로 보았다면 다르따냥은 사람들이 보내는 일체 미소를 모욕으로, 일체 시선을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다나니 따르브로부터 멍까지 가는 동안에 내내 주먹을 부르쥐고 있었으며 하루에 적어도 열번은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다. 그렇지만 그의 주먹이 누구의 턱주가리를 박산내거나 칼이 칼집에서 뽑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말의 꾀죄죄한 주제꼴이 길 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자아낸것은 사실이나 어마어마하게 큰칼이 말의 옆구리를 툭툭 치고 그우에서는 궁지감때문이라기보다 분노로 하여 두눈이 이글거리고있었으므로 길손들은 웃음을 눌러참았으며 어쩌다 즐거움이 조심성을 디디고 올라설 때면 옛날의 탈바가지처럼 얼굴의 한쪽 절반만으로 웃으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다르따냥은 위풍과 격한 성미를 고이 그대로 간직한채 불운한 도시 멍에 당도하였다.

프랑 므니에려관 대문앞에 이른 그는 혼자 말에서 내렸다. 주인이고 하인이고 마부고 등자를 잡아주며 거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2층의 열려진 창문안에 키가 크고 틀스러운 귀족이 하나 보일뿐이였다. 거만하고 무뚝뚝하게 생긴 그 귀족은 공손한 자세로 서있는 두 동행자에게 무슨 말인지 하고있었다.

다르따냥은 버릇대로 그들이 자기 소리를 하는것이라고 대바람에 단정하고 바싹 귀를 강구었다. 이번에 그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거나 절반만 틀렸었다. 그들은 그가 아니라 그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있었던것이다. 귀족은 말의 장점들을 하나하나 꼽는 모양인데 두 상대방은 이미 앞에서 말한것처럼 그를 매우 존대하였으므로 말끝마다 폭소를 터뜨리군 하였다. 가벼운 미소마저 우리 주인공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는것을 념두에 둔다면 그처럼 요란한 너털웃음이 그의 심리에 어떻게 작용하였겠는가 하는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다르따냥은 우선 감히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의 얼굴부터 똑똑히 보고싶어 그에게 거만한 눈길을 못박았다. 나이는 마흔쯤 되였는데 검은 눈은 날카롭고 코는 크고 검은 코수염을 매끈하게 다스리고있었다. 자주색조끼에 자주색끈이 달린 자주색바지를 받쳐입었는데 흔히 볼수 있는 장식적삼을 내놓고는 그에게서 아무런 장식물도 찾아볼수 없었다. 그리고 조끼도 바지도 비록 새것이기는 하지만 먼길을 가면서 오래동안 궤속에 처박아두었던것처럼 온통 주글주글하였다. 다르따냥은 예리한 관찰자의 눈으로 이 모든것을 재빨리 포착하였다. 어쩌면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 앞으로 매우 큰 작용을 놀게 되리라는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을수도 있었다.

다르따냥이 자주색조끼를 입은 그 사람을 뚫어지게 노려보고있던 바로 그때 그 사나이는 베아른산 말을 두고 매우 신랄하고 의미심장한 소견을 말하고있었다. 다른 두사람은 배를 그러안고 웃어대고 이야기

하는 사람의 얼굴에도 그의 성미에 어울리지 않게 엷은 미소 비슷한 것이 얼핏 스치였다. 이쯤 되고보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다르따냥에게 진짜모욕이 가해진것이였다.

독같이 성이 난 다르따냥은 베레모를 눈덕까지 내려쓰고는 귀족들에게서 보아온 거동을 본따서 한손으로는 칼자루를 잡고 다른 한손은 허리에 얹었다. 각일각 커가는 분노로 하여 그는 점점 더 분별을 잃었으며 끝내는 거만스러우면서도 점잖은 말로 자기의 도전을 감추려던 애초의 생각과는 어긋나게 그만 무례한 손세와 함께 거치른 말을 내뱉아버리고말았다.

《여보시오, 나으리.》 그는 소리쳤다. 《당신 말이요! 옳소, 옳소. 그 덧창문뒤에 숨어있는 당신 말이요! 미안하지만 무엇이 그리도 우스운지 말좀 해주시지요. 나도 함께 웃어보게!》

그 사람은 말에게서 그 주인에게로 천천히 눈길을 옮겼다. 그처럼 류별난 비난이 자기에게 던져진것인줄을 인차 알아차리지 못한것 같았다. 그러다가 사태를 명백하게 깨닫게 되자 그는 이마살을 가볍게 찌프리고 이슥토록 덤덤히 있다가 빈정대듯이 건방지게 대꾸하였다.

《존경하는 나으리, 난 당신과 이야기하는게 아닌데요.》

《하지만 난 당신과 이야기하고있단 말이요.》 거만함과 깍듯함, 정중성과 경멸이 한데 뒤섞인 그 대답에 젊은이는 약이 바짝 올라 부르짖었다.

그 사나이는 한동안 다르따냥을 쳐다보다가 창가에서 물러나 슬렁슬렁 밖으로 나와 다르따냥과 두어걸음 되는 곳에서 말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섰다. 다르따냥은 그가 다가오자 한뽐나마 되게 칼을 뽑았다.

《이 말은 본래 누런색이였을거요.》 그 사나이는 서슬이 시퍼래서 서있는 다르따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창가에 그대로 남아있는 두사람에게 계속 말하였다. 《식물계에는 이런 색이 흔하지만 말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지.》

《말을 비웃는건 그 주인을 감히 비웃지 못하겠으니까 그러는거야.》 다르따냥은 악에 받쳐 소리쳤다.

《난 좀해서 웃는 성미가 아닙니다요.》 그 사나이가 말하였다. 《당신도 내 얼굴표정을 보면 그걸 알수 있을텐데요. 그러나 내가 웃고싶을 때 웃을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보유하고싶군요.》

《하지만 난》 다르따냥은 고함쳤다. 《내가 바라지 않을 때 당신

이 웃는걸 허용할수 없단 말입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나으리.》 사나이는 한결 더 태연한 어조로 물었다. 《할수 없지요. 충분히 리해됩니다.》
그리고는 삑 돌아서서 려관대문쪽으로 향하였다. 다르따냥은 아까 올 때 안장을 얹은 말 한필이 거기에 매여있는것을 본 생각이 났다.
그러나 건방지게 자기를 비웃어댄 사람을 순순히 놓아줄 다르따냥이 아니였다. 그는 칼을 쭉 뽑아들고 그에게로 달려가면서 뒤에 대고 소리쳤다.
《돌아서시오. 나으리, 돌아서란 말이요. 난 당신을 뒤에서 치고싶진 않으니까요.》
《날 친다구요?》 사나이는 팩 돌아서서 놀라움과 경멸에 찬 눈으로 청년을 쳐다보면서 부르짖었다. 《이런 변 봤나. 친애하는 나으리, 당신은 머리가 돈게 아닌가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혼자소리처럼 덧붙였다.
《참 딱한노릇이군. 그리고 지금 국왕께서는 자기의 총사대에 받아들일 용사들을 사방에서 물색하고있는데 당신이야말로 더없는…》 그가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르따냥이 얼마나 드세찬 공격을 들이댔던지 상대방이 하도 날쌔게 몸을 피했으니망정이지 그렇지만 않았던들 그의 롱질은 그의 일생에서 마지막것으로 되고말았을것이다. 사나이는 사태가 심각하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칼을 뽑아쥐자 적수에게 허리를 굽혀보인 다음 방어태세를 취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두 동행자가 려관주인과 함께 몽둥이, 부지깽이를 들고 다르따냥에게 달려들어 뭇매를 안기기 시작하였다. 이 뜻하지 않은 공격이 결투의 흐름방향을 돌려놓았다. 적수는 다르따냥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매를 막으려고 돌아선 틈을 타서 뽑았던 칼을 도로 태연하게 칼집에 꽂았다. 하마트면 직접 무대의 등장인물로 될번 했던 그가 이제는 목격자로서 즉 그로서는 아주 천연스럽게 수행할수 있는 역을 맡게 되였다.
《가스꼰뉴것들은 정말 야단이라니! 어서 저놈을 저 갈색말등에 올려놓아주라구. 제 갈길이나 가게.》
《내가 네놈을 죽여버리기 전엔 어림도 없다. 겁쟁이같은 자식.》 다르따냥은 계속 매를 안기고있는 세 적수와 힘자라는껏 맞서싸우면서 부르짖었다.

《가스꼰뉴의 허풍선이 같은것!》 그 사나이는 두덜거렸다. 《내 명예를 걸고 말하지만 가스꼰뉴놈들은 어쩔수가 없어! 할수 없지. 이놈에게 톡톡히 맛을 보이라구. 그게 소원이라는데야 재간이 있나. 맥이 진하면 제 입으로 살려달라고 할테지.》

그러나 사나이는 자기가 지금 어떤 악바리를 대상하고있는지 아직 모르고있었다. 용서를 빌 다르따냥이 아니였다. 그래서 싸움도 몇초동안 더 계속되였다. 그러나 드디여 다르따냥이 맥이 진하였다. 몽둥이에 맞아 두동강이 난 칼을 떨어뜨렸다. 다음번타격이 이마를 쳤다. 그는 쓰러졌다. 피투성이가 되고 거의 의식을 잃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려관주인은 말썽이 생길것이 무서워 하인을 시켜 부상자를 부엌칸에 들여다눕히게 하고 두루 응급처치도 해주게 하였다.

한편 사나이는 창문가의 제자리로 되돌아가서 군중들을 못마땅하게 내려다보고있었다. 보매 군중들이 매우 비위에 거슬리는 모양이였다.

《그래 그 손님은 어떻게 지내시오?》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그는 문안을 하러 온 려관주인에게 물었다.

《나리님은 별고 없으신지요?》

《아무일 없소. 그런데 난 그 젊은이가 어떤지 알고싶단 말이요.》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요.》 려관주인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아주 정신을 잃었지요.》

《정말인가?》 사나이가 물었다.

《정신을 잃기 전에 그는 마지막힘을 모아 나리님을 찾고 욕설을 퍼붓고 하면서 끝까지 결판을 내자고 윽윽하던걸요.》

《거 악마로군!》 사나이는 큰소리로 말하였다.

《아니올시다, 나리님.》 려관주인은 비양하듯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대꾸하였다. 《우리는 실신한 그의 몸을 뒤져보았는데요. 그의 보퉁이에는 적삼이 한벌, 돈지갑에는 11에뀌가 있었을뿐이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는 정신을 잃으면서 내처 을러대는게 아니겠나요. 이번 일이 빠리에서 벌어졌더라면 나리님께서는 자기의 실책을 두고 한탄했을것이라구요. 아무때건 후에 그런 날이 꼭 올것이라구요.》

《그렇다면 그는 혹시 변복을 한 왕자가 아닐가?》 사나이는 랭랭하게 말하였다.

《저는 나리님께서 조심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이런 말씀 올리는

겁니다요.》 려관주인이 말하였다.
《그가 헛소리를 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가?》
《아무렴요. 불렀지요. 그는 제 호주머니를 두드리며 그냥 이렇게 외우던걸요. 〈이제 뜨레빌각하가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이런 모욕을 당한걸 알면 가만있지 않을테니 어디 두고보자.〉 이렇게요.》
《뜨레빌각하라구!》 사나이는 흠칫하며 말하였다. 《자기 호주머니를 두드리면서 뜨레빌각하의 이름을 불렀다구?… 존경하여마지않는 주인, 그 젊은 사람이 실신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의 호주머니를 들여다보지 않았을수가 없다고 난 생각하는데 그래, 그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소?》
《총사대 대장 뜨레빌각하앞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정말이 아니문요.》
워낙 눈치가 무딘 려관주인은 자기가 그 말을 할 때 사나이의 얼굴표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는 아까부터 문설주에 기대고있던 창가에서 물러서면서 불안스럽게 미간을 찌프렸다.
《악마!》 그는 이새로 내뱉았다. 《과연 뜨레빌이 이 가스꼰뉴내기를 내게다 붙여놓았단 말인가? 이런 햇병아리같은것을! 하긴 나이야 어떻든 찌르면 찔리는게지. 그리고 아이들은 의심을 덜 받으니까. 하치 않은 장애물때문에 대사를 망치는수도 있지.》
사나이는 점도록 생각에 잠겼다가 말하였다.
《여보 주인, 그 미친 놈을 내게서 떼버려줄수 없을가. 그놈을 죽여버리자니 내 량심이 허락치 않구.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여기서 그의 얼굴에 랭혹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내 일에 방해가 된단 말이야. 그놈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2층에 있는 우리 집사람의 방에요. 지금 붕대를 감아주는 참이지요.》
《물건들과 보퉁이는 몸에 지니고있는가? 조끼를 벗지 않았는가?》
《조끼도 보퉁이도 아래층 부엌칸에 그냥 있지요. 그렇지만 그 젊은 미치광이가 나리님에게 방해가 된다면야…》
《방해가 되구말구. 그놈이 당신네 려관에서 소란을 피워서 다른 사

람들을 못살게 굴게거던. 당신은 자기 방으로 가서 계산서를 만들고 내 하인에게도 알려주오.》

《아니, 나리님께서 벌써 떠나가신다는겁니까요?》

《그거야 당신도 이미 알고있었지. 내가 말에 안장을 얹으라고 이르지 않았는가 말이요. 그래 내 지시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건가?》

《집행이야 됐지요. 나리님, 믿으십시오. 말은 안장을 지워서 대문앞에 대기시켜놓았습니다요.》

《좋아, 그렇다면 내가 말한대로 하라구.》

(어랍쇼, 이것 봐라!) 려관주인은 생각하였다. (이 어른이 코흘리개녀석에게 겁을 먹은게 아니야?) 그러나 사나이의 위협적인 눈길이 그의 생각을 중등무이시켰다. 그는 굽석 절을 하고 물러나왔다.

(제발 밀레디—유럽대륙에서 영국의 부인들에 대하여 붙이는 존칭어—가 이 협잡군의 눈에 띄지 말아야 할텐데.) 사나이는 생각하였다. (밀레디는 이제 금시 올게거던. 이미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걸. 차라리 내가 말을 타고 맞받아가는게 낫겠군. 뜨레빌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사나이는 계속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부엌으로 향하였다.

한편 려관주인은 사나이가 다름아닌 바로 그 젊은이때문에 할수없이 떠나가는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마누라의 방으로 올라갔다.

다르따냥은 이미 정신을 차렸었다. 주인은 다르따냥더러 그가 귀현을 건드렸기때문에 이제 경찰이 달려들수 있으니 불편한 몸이지만 얼른 일어나 떠나가는것이 좋겠다고 설유하였다. 아직 정신이 멍한데다 조끼도 없이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맨채로 다르따냥은 주인이 슬슬 떠미는대로 계단을 내려갔다. 그런데 부엌문턱을 넘어서서 우연히 창문쪽에 눈길을 던지던 다르따냥은 자기의 적수가 커다란 노르망디산 말 두필을 메운 려행마차의 발판앞에 서서 누군가와 태연스럽게 이야기하고있는것을 띄여보았다.

상대방의 머리가 마차의 창문안으로 들여다보이는데 스물두셋쯤 되여보이는 젊은 녀자였다. 우리는 다르따냥이 그 어떤 사람의 얼굴이든지 얼핏 보고도 그 특징을 제꺽 포착하는 재간이 있다는것을 이미 말한바 있다. 그가 보기에 녀자는 젊고 아름다왔다. 다르따냥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남부프랑스에서는 좀처럼 볼수 없는 미인이라는것으로 하여 더욱더 황홀해졌다. 살결은 눈같이 희고 담갈색머리칼은 타

래를 지어 어깨까지 길게 드리웠으며 파란 눈은 아련하고 입술은 장미색을 띠고 두손은 석고처럼 하얬다. 그 녀자는 사나이와 무슨 이야기인지 열심히 하고있었다.

《그러니까 주교님의 분부는 나더러…》 부인의 말이였다.

《… 곧 영국으로 돌아가라는겁니다. 그래서 공작이 런던을 뜨기만하면 지체 말고 알려달라는거지요.》

《그밖의 다른 분부는요?》

《그건 이 함속에 있으니 해협을 건너가서 열어보도록 하시오.》

《알겠어요. 그럼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이신가요?》

《난 빠리로 돌아가렵니다.》

《그 무례한 애숭이녀석의 버릇을 가르치지 않구요?》

사나이가 막 대답을 하려는 순간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있던 다르따냥이 문간에 나타났다.

《버릇은 그 무례한 애숭이녀석자신이 필요한 놈에게 가르칠것이요.》 그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가 버릇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놈이 이번엔 뺑소니치지 못할걸.》

《뺑소니를 못 친다구?》 사나이가 미간을 쪼프리면서 물었다.

《부인이 보는 앞에서야 감히 뺑소니치지 못할테지.》

《참아요.》 사나이가 자기의 칼자루를 잡는것을 보고 밀레디가 소리쳤다. 《참아야 해요. 잠시라도 지체하면 만사를 그르칠수 있어요.》

《옳은 말이요.》 사나이는 말하였다. 《어서 가보십시오. 나도 내 갈길을 가겠으니까요.》

사나이가 밀레디에게 고개를 숙여보이고 말안장에 뛰여오르자 마부는 말잔등에 사정없이 채찍을 후려댔다. 사나이와 밀레디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속력껏 내달렸다.

《그럼 돈은요, 돈은 누가 물구요?》 려관주인은 아부재기를 쳤다. 그 사나이가 셈도 치르지 않은채 훌쩍 달아나버리는것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주인이 그에 대하여 품었던 호감은 극도의 경멸감으로 변하였다.

《건달군아, 돈을 물어주라!》 사나이는 멈춰서지 않은채 자기 하인에게 소리쳤다. 하인은 려관주인의 발치에 은전 몇잎을 내던지고 자기 주인을 뒤따라 말을 내몰았다.

《겁쟁이! 너절한 놈! 저래가지고도 귀족이라구!》 다르따냥도 자기대로 그 하인을 따라 내달으면서 소리쳤다.
하지만 젊은이는 그러한 충격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도 몸이 허약하였다. 그는 귀가 윙윙거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눈이 아찔아찔하여 열걸음도 못 가서 길바닥에 쓰러지고말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줄곧 《겁쟁이! 겁쟁이! 겁쟁이!》하고 웨쳐대고있었다.
《정말 겁쟁이입니다!》 려관주인이 다르따냥에게 다가가 이 가련한 젊은이의 비위를 맞추려고 발라맞추듯 말하였다.
《옳소. 무서운 겁쟁이요.》 다르따냥이 속삭이듯 말하였다. 《하지만 그 녀자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이요!》
《그 녀자라니 누구 말인가요?》 려관주인이 물었다.
《밀레디 말이요.》 다르따냥은 속살거리고는 또다시 까무라쳤다.
(둘을 놓쳐버린건 별수가 없는거고) 려관주인이 중얼댔다. (그대신 이 사람은 며칠 묵을것이라고 믿어. 어쨌든 11에뀌는 내 기어이 옭아내고야말테다.)
그 11에뀌는 다르따냥의 지갑에 남은 돈의 전부라는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려관주인은 손님이 하루에 1에뀌씩 물면서 열하루동안 앓아누울것으로 타산하고있었지만 그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있었다. 다르따냥은 이튿날 새벽 5시에 일어나 제발로 부엌으로 내려가 몇가지 초약(구체적인 명세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과 그밖에 포도주와 빠다, 사과를 청해다놓고 어머니에게서 받은 약방문대로 고약을 만들어가지고 의사의 신세는 지지 않고 제 손으로 험상한 상처들에 붙였다. 고약의 효험이 신통한데다 곁에 의사가 없었던 사정과도 관계되겠지만 다르따냥은 그날 저녁으로 일어났으며 이튿날에는 상처들이 씻은듯이 가셔졌다.
그런데 다르따냥이 식사료법을 엄격히 지키느라고 하루동안에 약간 소비한 포도주와 빠다와 사과 그리고 려관주인의 말대로 하면 예상했던 량의 세갑절을 처리했다는 말의 먹이값을 물려고 호주머니를 뒤져보니 거기에는 헌 비로도지갑과 거기에 들어있는 돈 11에뀌밖에 없었다.
뜨레빌씨앞으로 쓴 편지가 간곳이 없어졌다.
처음에 젊은이는 참을성있게 꼼꼼히 편지를 찾아보았다. 바지와 조

끼의 주머니를 스무번도 더 뒤집어보고 자기의 보퉁이를 거듭거듭 더듬어보았다.

그러나 편지가 잃어졌다는것이 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명백해지자 그는 얼마나 독이 올랐던지 하마트면 또다시 고약을 쓰는 사태가 빚어질번 하였다. 젊은 손님이 불그락푸르락하면서 만일 편지를 찾아서 가져다바치지 않으면 려관을 몽땅 짓부셔버리겠다고 호통치는 바람에 주인은 몽둥이로, 마누라는 비자루로, 그리고 하인들은 이미 어제 써먹은 일이 있는 막대기들로 무장을 갖추고 나왔던것이다.

《내 편지, 소개신!》 다르따냥은 고함쳤다. 《내 편지를 가져오란 말이야, 이 개놈들아. 안 가져오면 네놈들을 꿩새끼처럼 꼬챙이에 꿰서 불고기를 해버릴테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공갈은 한가지 사정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것처럼 그의 칼은 먼저번싸움에서 두동강이 났던것인데 그는 그 일을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있었던것이다. 그래서 그가 칼이라고 뽑아든것은 길이가 한뼘정도밖에 안되는 한쪽토막뿐이였다. 려관주인이 감쪽같이 칼집에 꽂아놓고 나머지 한토막은 불고기꼬챙이를 만들양으로 감추었던것이다.

만일 려관주인이 손님의 요구가 정당하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정쯤은 성미가 불같은 젊은이를 저지시키지 못했을것이다.

《하긴 그렇군요.》 려관주인은 몽둥이를 내리우면서 말했다. 《편지가 어디로 사라졌을가요?》

《그렇단 말이요. 그 편지가 어디 있는가 말이요?》 다르따냥은 고함쳤다. 《내 똑똑히 말해두는데 그건 뜨레빌각하에게 가는 편지고 그러니 꼭 나져야 한단 말이요. 만일 나지지 않으면 뜨레빌각하는 그걸 무조건 찾아내게 할테니 똑똑히 알아두오.》

이 위협에 려관주인은 완전히 넋을 잃었다. 국왕과 주교 다음으로 군인들과 시민들의 입에 많이 오르는것이 뜨레빌각하의 이름이였던것이다.

하긴 《회색대사》라고도 불리우는 죠세프신부가 또 있기는 하나 리슐리에의 심복인 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귀속말로만 외울뿐이였다.

려관주인은 몽둥이를 내던진 다음 마누라에게는 비자루를, 하인들

에게는 막대기를 버리라고 손짓을 하고나서 스스로 앞장에 서서 편지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 편지에 그렇게도 귀중한것이 들어있었던가요?》 수색에서 헛물을 켜자 그는 물었다.

《여부가 있소!》 궁중에 들어가 출세의 길을 여는데서 그 편지에 희망을 걸고있던 가스꼰뉴의 청년은 부르짖었다. 《내 재산전부가 거기에 들어있었소.》

《에스빠냐증권인가요?》 주인은 불안스럽게 물었다.

《국왕의 개인금고에서 돈을 받게 되여있는 증권이지.》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그 편지의 도움으로 국왕에게 복무하는 길에 들어설것을 기대하고있던 그는 다소 모험적인 이런 대답을 줄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저런.》 려관주인이 랑패스레 부르짖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요. 돈도 일없어. 중요한건 그 편지요. 난 그 편지를 잃느니보다 차라리 금화 천삐스똘을 잃는편을 택하겠소.》

그는 《2만삐스똘》이라는 수자를 부를수도 있었지만 젊은이의 겸손성이 그를 제지하였다.

불현듯 한가닥 밝은 빛이 온 방안을 부질없이 살살이 뒤지고 돌아가던 려관주인의 뇌리에 비쳐든것 같았다.

《편지는 절대로 잃어진게 아닙니다.》 그는 부르짖었다.

《무슨 소리요?》 다르따냥이 부르짖었다.

《아무렴요. 당신은 그걸 도적맞혔습니다.》

《누가 훔쳤다는거요?》

《어제 만났던 그 귀족이요. 그는 당신의 조끼가 놓여있는 부엌에 내려갔댔으니까요. 그는 거기에 혼자 있었습니다. 내 장담하지만 이건 그의 작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오?》 다르따냥은 못미더운듯이 물었다.

그는 그 편지가 자기 한사람에게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으며 다른 그 누가 거기에 눈독을 들일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것이다. 려관에 든 손님이나 하인들가운데는 그 편지로 무슨 리득을 볼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였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그 뻔뻔스러운 귀족이 의심된다는거지?》 다르따냥은 물었다.
《틀림이 없다니까요.》 려관주인이 확언하였다. 《내가 그에게 당신은 뜨레빌각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당신에게는 그의 앞으로 쓴 편지까지 있더라고 말했더니 그는 안절부절하면서 나더러 그 편지가 어데 있는가고 묻더군요. 대답을 듣자 즉시에 당신의 조끼가 있는 부엌으로 내려가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적은 그놈이요.》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난 뜨레빌각하께 이 일을 고소할테요. 그러면 각하는 또 국왕에게 고소할게고!》
그리고나서 호주머니에서 2에뀌를 틀스럽게 꺼내서 려관주인에게 내밀었다. 려관주인은 모자를 벗어들고 대문까지 나와 그를 바래웠다. 거기서 그는 자기 말등에 뛰여올라 더이상 아무 일도 없이 빠리의 쌩 땅뚜안느문까지 무사히 갔다. 거기에서 다르따냥은 말을 3에뀌에 팔아버렸는데 그가 전 로정을 타고오면서 혹사했다는것을 념두에 둔다면 그만해도 값을 썩 잘 받은셈이였다.
다르따냥이 돈을 받고 말을 넘겨주었을 때 장사군은 자기가 그처럼 엄청난 값으로 흥정을 마친것은 말의 류다른 털색갈에 마음이 끌렸기때문이였다고 젊은이에게 말했던것이다. 그리하여 다르따냥은 겨드랑이에 보퉁이를 끼고 걸어서 빠리로 들어갔으며 한참을 헤매던 끝에 자기의 빈약한 돈주머니에 어울리는 방을 하나 겨우 얻을수 있었다. 방은 고미다락 비슷한것으로서 룩셈부르그궁전에서 가까운 포쑤아이르거리에 있었다.
방세를 물자 다르따냥은 제창 자기 방에 들어박혀 그날 나머지시간을 전부 일에 바쳤다. 우선 어머니가 거의 새것이나 다름없는 아버지의 조끼에서 뜯어내여 아들에게 몰래 준 금줄을 조끼와 바지에 대였다. 그다음은 패라이강안으로 내려가 자기 칼에 새 날을 맞추었다. 그리고나서 루브르궁전으로 간 그는 총사 한사람을 만나자 뜨레빌각하의 저택이 어디 있는가고 물었다. 알고보니 저택은 그가 세방을 얻은 곳에서 매우 가까운 비여 꼴롱비에거리에 있었다. 그는 이것을 자기가 성공할수 있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였다.
그다음 멍에서의 자기의 처신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였으며 과거에 대한 긍지와 현재에 대한 믿음,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을 부풀리면

서 자리에 누워 굳잠에 곯아떨어졌다.
그는 알쭌한 시골내기답게 아침 9시까지 내처 잤으며 일어나서는 아버지의 말을 믿는다면 나라에서 세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인 명망높은 뜨레빌각하를 찾아떠났다.

제 2 장

뜨레빌씨 저택의 대기실

뜨루아빌(이것이 본래의 그의 이름으로서 가스꼰뉴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있으며 뜨레빌이란 그가 빠리에 와서 스스로 붙인 이름이였다.)씨는 아닌게아니라 다르따냥과 꼭같이 자기의 인생행로를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서 피천 한잎 가진것이 없이 용맹과 분별, 기지만을 밑천으로 시작하였던것이다. 그런데 그런 밑천이 아버지의 유산밖에 바라볼것이 없는 가스꼰뉴의 젊은 가난뱅이귀족들로 하여금 돈을 물쓰듯 하며 풍청거리는 뻬리구르나 배리의 귀족들보다 더 큰것을 이룩할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남다른 용맹과 신비스러운 행운으로 하여 그는 칼부림이 그칠새 없던 그 당시에 궁중출세의 사다리를 두단, 세단씩 건너뛰며 꼭대기까지 치달아오를수 있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그는 선왕 앙리4세를 잊지 못하는 루이13세의 벗이였다. 뜨레빌씨의 아버지는 카톨릭동맹을 반대하는 전장에서 앙리4세에게 충성을 다하였으며 평생토록 돈이 모자랐던 앙리4세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빠리함락후 우명과 사자를 뜨레빌가문의 문장에 그려넣을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대단히 큰 영예이지만 재산을 늘여주는것은 없었다. 그리하여 앙리의 충성스러운 전우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물려준 유산이란 칼과 좌우명이 전부였다. 이 유산과 오점없는 가문의 이름으로 하여 뜨레빌씨는 젊은 왕자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였으며 거기서 그는 자기의 칼로써 용맹을 떨쳐 가문의 좌우명에 변함없이 충실하였다. 그리하여 나라에서 손꼽히는 검객으로 알려져있던 루이13세는 자기 친구들가운데서 누가 결투를 하게 되면

립회인으로는 우선 자기를, 다음으로는 뜨레빌씨를 택하라고 권고하군 하였다.

루이13세는 뜨레빌씨에게 비록 임금다운, 리기주의적인것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우정을 품고있었다. 그것은 소란스럽던 그 세월에 고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뜨레빌씨와 같은 기질의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많이 두려고 하였기때문이였다. 《용맹》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을 사람은 많을수 있지만 《충성》을 좌우명으로 내세울만 한 자격을 갖춘 귀족은 많지 못했을것이다. 그러나 뜨레빌은 그만한 권리가 있었다. 그는 충실한 사냥개처럼 이것저것 재지 않고 맹목적으로 복종할줄 아는 희한한 기질의 소유자였으며 거기에다 총명과 억센 손까지 가지고있었다. 그의 두눈은 왕이 그 누구에게 노여움을 품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살피고 손은 장본인을 처벌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루이13세가 뜨레빌을 총사대 대장으로 임명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주교는 주교대로 그런 면에서 국왕에게 짝지지 않았다. 루이13세가 선발된 무사들을 끌어들이는것을 보자 제2의 국왕, 보다 정확하게는 프랑스의 실권자 역시 자기의 근위대를 두기로 결심을 하고 총사들을 그러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두 통치자는 서로 경쟁하듯이 프랑스의 방방곡곡에서 지어는 해외에서까지 무예에 뛰여난 사람들을 모아들였다. 리슐리에주교와 루이13세가 저녁에 장기를 두다가 서로 자기네 무사들이 제일이라고 옥신각신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저마끔 자기 부하들의 품성과 용감성을 자랑하였으며 말로는 결투와 싸움을 금지하면서도 은근히 자기의 호위병들을 싸움에로 부추겼다. 자기의 무사들이 이기면 하늘을 찌를듯 한 기쁨을, 지면 하늘이 무너지는듯 한 슬픔을 느끼였다. 그런 싸움에 직접 참가하여 대체로는 이기고 더러는 지기도 한 어떤 사람의 회상록을 보아도 그것은 사실이였다.

뜨레빌은 자기 통치자의 약한 고리를 알고있었으며 그것으로 하여 항구적인 우정이라는것을 결코 몰랐던 왕에게서 항시적이고 변함없는 총애를 받을수 있었다. 언젠가 그는 주교가 보는 앞에서 총사들의 대렬을 사열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주교는 그의 도전적인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올라 허연 코수염을 푸들푸들 떨었었다. 뜨레빌은 적들의 부담, 아니면 자기 동포들의 부담으로 살아야 했던 당시의 전쟁묘리를 환히 터득하고있었으며 그의 부하들은 철저히 그 한사람에게만 복무

하는 싸움군들로 꾸려져있었다.

국왕, 보다 정확하게는 뜨레빌씨의 총사들은 되는대로 옷을 입고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여가지고 얼근히 취해서 코수염을 꼬아붙이고 칼을 절컥거리며 주막집이며 유흥장, 오락장들을 돌아다녔으며 길가에서 주교의 근위병들을 만나면 장난질삼아 우정 집적거렸다. 그다음엔 꼭 걸죽한 익살과 함께 칼부림이 시작되였다. 그들쪽에서 치명상을 입는 때도 있었으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복수를 해주리라는 확신을 안고 쓰러졌다. 그러나 대체로는 그들이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놓군 하였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살인죄로 감옥귀신이 될 걱정은 조금도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뜨레빌씨가 가만히 있을리 없고 반드시 빼내줄것이였다. 그들은 뜨레빌씨를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비록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덤비는 왈패들이긴 하였지만 그앞에서는 흡사히 선생앞에 선 소학생처럼 벌벌 떨었다. 그의 말 한마디면 가타부타없이 복종하였으며 그에게서 조그마한 질책이라도 받으면 잘못을 씻기 위하여 생명도 버릴 각오가 되여있었다.

뜨레빌씨는 이 위력한 공간을 처음에는 왕과 그의 측근들을 위하여, 다음에는 자신과 자기의 벗들을 위하여 리용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충실한 부하들이 제공해주는 방조의 대가로 그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아먹었다고 비난한 자료는 당시의 그 어느 회상록에도 지어는 적들의 회상록에도 나와있지 않다. (그런데 문인들속에도 무인들속에도 그에게는 적이 많았다.) 난다긴다 하는 음모군에 짝지지 않을만큼 권모술수에 능하였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성실하였다. 그런우에 그는 힘겨운 출정과 고달픈 군인생활에도 불구하고 도락이라면 오금을 쓰지 못하여 녀자들의 치마꼬리를 따라다니면서 경우에 따라 찬가도 지어 바칠줄 아는 활량이였다. 그가 얼마나 많은 녀자들을 쟁취하였는가에 대해서는 20년전에 바쏭삐에르의 정사에 대한 소문이 나돌았던만큼이나 뒤소문이 자자했는데 그것은 결코 무근거한것이 아니였다. 총사대 대장은 경탄과 공포와 존경의 대상이였으며 행복과 성공의 상상봉에 올라있었다. 루이14세가 자기의 눈부신 광휘속에 궁정의 뭇행성들을 삼켜버렸다면 둘도 없는 태양이였던 그의 아버지는 자기의 빛발을 모든 총사들, 모든 측근들에게 다 나누어주었다. 국왕과 주교가 아침마다 베푸는 접견외에도 빠리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끄는 200

가지나마 되는 아침접견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뜨레빌씨의 아침접견이 사람들을 제일 많이 끌었다.

비여 꼴롱비에거리에 있는 그의 저택마당은 여름에는 아침 6시부터, 겨울에는 아침 8시부터 총사대의 야영지를 방불케 했다. 필시 위세를 돋우는데 필요한 인원수를 항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교체되는 50～60명의 완전무장한 총사들이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마당을 오고갔다.

현대의 건축가라면 옹근집 한채를 들여앉힐만큼 넓은 층계들로는 그 어떤 은혜를 베풀어줍시사고 찾아온 청원자들, 총사대에 들어갈것을 열망하는 시골귀족들, 자기 상전들의 편지를 가지고 온 갖가지 제복차림의 종복들이 오르내렸다. 대기실의 벽을 따라 벌려놓은 긴걸상들에는 주인의 부름을 받고 온 선발된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기실에서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한편 뜨레빌씨는 대기실에 잇닿은 집무실에서 손님을 맞아 소청을 듣고 분부를 내리고 루브르궁전의 로대에 나와선 국왕과도 같이 창가에 다가서서 자기 부하들과 그들의 무장상태를 검열하였다. 다르따냥이 처음 찾아간 날 그곳 광경은 대단히 어마어마하였으며 시골내기의 눈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시골내기란 곧 우리의 가스꼰뉴젊은이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 고장 사람들은 당시 어떤 일에도 좀처럼 당황하지 않는것으로 유명했던것이다. 대가리가 네모진 못들을 다닥다닥하게 박은 육중한 대문을 지나자 그는 마당안을 오락가락하거니, 서로서로 소리쳐 찾거니, 옥신각신 다투거니, 놀음놀이를 하거니 하는 무장한 사람들의 무리속에 휘말려들었다. 이 뒤설레이는 인파속을 뚫고나간다는 것은 장교와 고관 또는 아름다운 녀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였다.

우리의 젊은이는 엄청나게 긴칼을 여윈 다리에 꼭 눌러붙이고 손은 모자전에서 떼지 않고 얼굴에는 자기의 당황함을 감추려고 애쓰는 시골사람의 어줍은 미소를 띤채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복작거리는 혼잡속을 헤치고 나갔다. 사람들을 한패거리 지나칠 때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군 하였으나 그때마다 그들이 자기의 뒤모습을 살펴본다는 것을 명백히 느꼈으며 지금까지 늘 자부심에 넘쳐있던 그는 난생처음 옹색하고 창피스러운감을 느꼈다.

층계앞에 이르렀을 때는 사태가 더 험악하였다. 총사 넷이 아래쪽

몇개 단을 차지하고 서서 놀음놀이로 칼을 휘두르고있고 층계앞에는 여라문명의 총사들이 자기들도 놀이판에 끼여들려고 몰켜서서 차례를 기다리고있었다. 네명가운데 한명은 칼을 뽑아들고 서서 다른 세사람이 층계를 올라가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고있고 그 세사람은 재치있게 칼을 휘둘러대며 그에게 공격을 들이대고있었다. 다르따냥은 처음에 그것이 끝이 무딘 격검용칼인줄만 알았었다. 그러나 놀음군들의 얼굴들에 상처들이 있는것을 보고는 곧 그것이 시퍼렇게 날을 세운 진짜칼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상처가 새로 생겨날 때마다 관중은 두말할것 없고 그 당자까지도 껄껄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한단 우에 서있는 총사는 적수들의 공격을 솜씨있게 막아내고있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물러나고 총사대 대장과의 접견차례는 이긴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조건을 걸고 벌리는 놀음이였다. 5분되나마나한 사이에 세사람이 다 타격을 받았다. 한사람은 팔을, 다른 한사람은 턱을 또 한사람은 귀를 상하였다. 반면에 방어하던 사람은 한군데도 다치지 않았다. 그러한 솜씨로 하여 그는 조건부대로 접견차례를 세사람 건너뛰게 되였다. 좀처럼 놀라지 않는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좀처럼 놀란 티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젊은 주인공이였지만 그런 놀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사람들의 성미가 불같은 그의 고향에서는 결투를 청하려면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했다. 네 총사가 보여준 그런 호기는 가스꼰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것이였다. 그는 마치도 갈리버가 잘못 걸려들어 무서운 곡경을 치르었다는 그 유명한 거인국에 뛰여든것 같은 느낌이였다. 그런데 목표물까지는 아직 멀었다. 층계우의 쉼단이 아직 있고 대기실이 또 있었다. 쉼단에서는 사람들이 칼부림이 아니라 녀자들에 대한 횡설수설로, 대기실에서는 왕궁에 대한 횡설수설로 흥을 돋구고있었다. 쉼단에서 다르따냥은 얼굴이 새빨개졌으며 대기실에서는 몸서리를 쳤다. 자기의 풍부하고도 대담한 상상력으로 하여 가스꼰뉴에서 젊은 하녀들은 물론 때로는 그들의 젊은 마님들에게까지 위험한 존재였던 다르따냥은 그처럼 매혹적인 정담을 머리속에 단 한번도 지어 열에 뜬 환각속에서도 그려낼수 없었을것이다. 여기서는 요란한 인물들이 화제에 오르고 주옥같은 세부들이 그에 곁따르고있는것으로 하여 이야기들이 각별한 신랄성을 띠고있었다. 쉼단에서는 이렇게 그의 단정한 품성이 타격을 받았다면 대기실에서는 주교에 대한 그의 존경심이 뒤흔들렸다. 다르따

냥은 온 유럽땅을 공포속에 몰아넣은 정치를 시비질하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주교의 사생활까지도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고관대작들이 그의 뒤생활을 파고들려다가 화를 입었는가 하는것은 다르따냥도 알고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경모하는 그 위대한 인간이 여기서는 뜨레빌씨네 총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있었다. 어떤 축들은 그의 휘여진 다리와 굽은 허리를 비웃고 또 어떤 축들은 그의 정부 애기용부인과 조카딸 꽁발래부인에 대한 노래를 불렀으며 또 다른 축들은 주교의 시동들과 호위병들을 조롱하였다. 다르따냥에게는 이런것들이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 야만적인짓들로 생각되였다.

주교를 비웃는 그러한 신랄한 풍자속에 우연히 국왕의 이름이 말려드는 때가 간혹 있었는데 그런 때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가벼운 입을 얼른 막아버리는것만 같았다.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소리가 벽을 뚫고 뜨레빌씨의 집무실까지 새여들지 않았을가 두려운듯이 황급히 그쪽을 돌아다보았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피뜩 던져지는 암시를 받고 화제는 다시금 주교에게로 돌아가 목소리들이 다시 높아지고 주교의 행실이 낱낱이 드러나는것이였다.

(이 사람들은) 다르따냥은 치를 떨면서 생각하였다. (바스띠유감옥에 끌려가 목매달리는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런데 나도 같은 신세가 될것이다. 나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죄다 들었으니 한패당으로 볼게 아닌가. 주교를 존경하라고 그리도 절절히 당부하시던 아버님께서 내가 이런 이단자들의 무리속에 섞여있는것을 알면 뭐라고 하실가?)

그래서 다르따냥은 감히 이야기판에 끼여들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몸이 귀가 되여 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훈시를 매우 존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부정하는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방향으로 쏠리고있었다.

생판모를 웬 젊은이가 총사의 무리속에 나타난것을 보고 하인이 다가와 무슨 일로 왔는가고 그에게 물었다. 다르따냥은 공손히 자기 소개를 하고 뜨레빌씨와 한고향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 각하를 만날수 있게 힘써달라고 부탁하였다. 하인은 차례가 되면 그의 청원을 전하겠노라고 거드름스러운 투로 말하였다.

불안스럽던 마음이 곧 진정되자 다르따냥은 주위사람들의 복장이며 얼굴들을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활기를 띤 어느 한 무리에서는 거만한 얼굴에 모두의 시선을 끄는 류별난 복장을 한 장대한 체구의 총사가 중심을 이루고있었다. 그는 제복이 아니라 어지간히 색이 날고 해여진 하늘색조끼를 입고 그 우에 금실로 수를 놓아 맑은 날 한낮때의 해빛처럼 번쩍거리는 사치스러운 칼띠를 메고있었다. 빨간 비로도만또가 어깨에 화려하게 걸쳐져있고 그 앞자락사이로 퍼그나 긴칼이 달려있는 눈부신 칼띠가 들여다보였다. 그는 방금전에 위병근무를 교대하였는데 일부러 기침을 하면서 그만 감기에 걸렸노라고 하소연을 하는것이였다. 만또는 그래서 할수없이 입은것이라고 코수염을 꼬아올리면서 으시대듯이 설명하였다. 사람들 특히 다르따냥은 금실로 수놓은 그의 칼띠를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난들 재간이 있나.》 총사는 말하였다. 《류행인걸. 이게 쓸데없는 랑비인줄이야 나도 알지만 신식을 따라야 하거던. 그리고 부모들이 준 돈도 어떻게든 없애야 할게 아닌가 말이야.》

《이보라구, 뽀르또스.》 옆에서 한사람이 부르짖었다. 《그런 소릴 우리가 믿을줄 아나? 그 띠가 뭐 손이 큰 아버지덕택이라구! 지난번 일요일 쌩－또노레성문근처에서 베일을 쓰고 자네하구 같이 거닐다가 나한테 들킨 그 부인이 선사한게 아닌가 말이야?》

《아니, 내 명예를 걸고 귀족으로서 말하네만 난 이걸 내 돈으로 샀네.》 이름을 뽀르또스라고 하는 그 사나이가 대답하였다.

《그럴테지.》 다른 총사가 끼여들었다. 《내가 이 새 지갑을 산것과 꼭같이 말이네. 나도 이걸 정든 님이 나의 낡은 지갑에 넣어준 돈으로 샀으니까.》

《아니래두 그러누만.》 뽀르또스가 반박하였다. 《내가 이걸 12삐스똘에 샀다는걸 증명해보일수도 있네.》

감탄의 목소리들이 울리였으나 역시 의심은 아직 남아있었다.

《내 말이 맞지, 아라미스?》 뽀르또스가 한 총사에게 물었다.

그 총사는 뽀르또스와 완전히 대조되는 형의 인물이였다. 젊은 사람으로 나이는 스물두세살 되였는데 순박하고 귀염성스러운 얼굴에 눈은 까맣고 발기우리한 볼에는 가을복숭아처럼 솜털이 보르르하였다. 가쯘하게 다스린 가느다란 코수염이 웃입술에 그늘을 던지고있었다. 손은 피줄이 부풀어오를가봐 저어하듯 잠시도 내리울줄 몰랐다. 가끔 그는 부드럽고 투명한 빛을 잃지 않게 하려는듯이 귀방울을 쥐여뜯군

하였다. 말은 뜨직뜨직 적게 하고 허리를 자주 굽혀보였으며 아름다운 이발을 드러내며 소리없이 웃는다. 그는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발을 세심히 돌보는것 같았다. 뽀르또스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여 수긍하였다.

이렇게 되자 칼띠에 대한 모든 의심은 말끔히 날아가버린것 같았다. 다들 황홀한 눈으로 계속 바라다보면서도 시비는 더 하지 않았으며 이야기는 점차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샬래씨의 마부가 했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총사가 누구에게라없이 모두거리로 물었다.

《그가 뭐라고 했게?》 뽀르또스가 거드름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브류쎌에서 자기는 주교의 충실한 개 로슈포르를 만났다는거지. 로슈포르는 카프친승처럼 변장을 하고 (카프친승들은 두건이 달린 만또를 입었다—역자주) 래그씨를 감쪽같이 속여넘겼다는거야.》

《감쪽같이 속여넘겼단 말이지.》 뽀르또스가 되받았다. 《그게 사실인가?》

《아라미스에게서 들은 소리네.》 그 총사가 대꾸하였다.

《정말?》

《그 일이야 자네도 알지 않나, 뽀르또스》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내 어제 자네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말이야. 그 이야긴 다시 건드릴 필요가 없어.》

《다시 건드릴 필요가 없다!》 뽀르또스가 부르짖었다. 《그렇게 생각하나? 다시 건드릴 필요가 없다! 참참, 자네 결론은 너무 일러! 아무렴! 주교는 한 귀족의 뒤를 밟고있어. 그는 배신자, 강도같은 놈을 시켜 그의 편지들을 훔치게 하고 그 편지들에 근거해서 마치도 샬래씨가 왕을 암살하고 왕비를 오를레앙공작과 결혼시키려 한듯이 얼토당토 않은 죄명을 들씌워 그를 죽여버리려고 꾀하고있단 말이네! 이 수수께끼의 열쇠를 누구도 찾지 못하고있지. 그런데 자네는 방금 어제 수수께끼를 던져놓고 오늘은 우리가 미처 정신을 차릴새도 없이 그걸 다시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한단 말일세!》

《어찌겠나. 자네 소원이 정 그렇다면 좋도록 하세나.》 아라미스가 참을성있게 말하였다.

《내가 샬래씨의 마부였다면》 뽀르또스가 부르짖었다. 《그놈의

로슈포르 버릇을 가르쳤겠어.》
《그다음엔 붉은 공작(주교 리슐리에를 가리킴—역자주)이 자네 버릇을 가르치구.》 아라미스가 침착하게 말하였다.
《붉은 공작이라… 아주 좋소, 아주 좋아! 〈붉은 공작〉이란 말이지!》 뽀르또스가 손벽을 치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소리쳤다. 《붉은 공작— 아주 귀맛이 좋아. 그 기막히는 별명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힘쓸테니 걱정말라구. 우리 아라미스는 기지가 참 대단하거던! 여보게, 자네가 자기의 천직을 따를만 한 기회를 못 가졌던것이 유감이네. 참, 멋들어진 신부가 되였을건데.》
《허, 그건 내 당분간 미루고있을뿐이야.》 아라미스가 받았다. 《아무때건 난 신부가 될테니까. 그날을 내다보고 난 신학공부를 계속하고있단 말이네.》
《이 친구야 뜻을 이루고야말테지.》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아무때 되든 되고말고.》
《멀지 않았어.》 아라미스가 대꾸하였다.
《이 사람은 옷장안의 총사제복뒤에 걸려있는 그 법의를 다시 걸칠날만 기다리고있다네.》 한 총사가 부르짖었다.
《그래서 바라는건 뭔가?》 다른 총사가 물었다.
《왕비께서 나라의 왕위계승자를 낳아주길 바라는거지.》
《여보게들, 그런 롱담은 필요없어.》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다행히도 왕비님께선 그 일을 해내실만 한 년세이시니까.》
《듣자니 영국의 버킹함공작이 프랑스에 와있다더구만.》
《아라미스, 친구, 그 말은 틀렸어.》 뽀르또스가 말허리를 꺾었다. 《자넨 기지가 도를 넘어서 가끔 탈선하거던. 뜨레빌씨가 그 소릴 들었다간 자네 무사치 못했을거야.》
《자넨 날 가르치자는건가, 뽀르또스?》 유순하던 그의 눈에 돌연히 번개불이 번쩍하였다.
《친구.》 뽀르또스가 대꾸하였다. 《총사도 좋고 신부도 좋네만 동시에 두가지 다 될수야 없잖나. 자네는 아무 접시에다 다 손을 댄다고 일전에 아또스가 하던 말을 명심하라구. … 아니아니, 우리 다투지는 말자구. 그런대야 리될건 없으니까. 자네하고 아또스와 나 세사람이 맺은 약속이 있지 않나. 자네는 애기용부인의 집에 드나들면서 부인에게 치근거리고 쉐브레즈부인의 4촌동생 부아 뜨라씨부인을 찾아

다니며 부인의 총애를 받고있단 말이네. 아 여보게, 자넨 자기의 행운을 자랑하고 다니지 말게. 그걸 듣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자네가 신중하다는건 온 천하가 다 아는 일이거던! 자넨 입이 무거운 사람이니 왕비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땐 자기의 그 미덕을 극력 살리게. 왕이나 주교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네만 왕비님은 신성한분이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좋은 소리만 해야 하네.》

《뽀르또스, 자네 나르씨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자부심이 매우 강한 청년—역자주)만큼이나 우쭐대는군.》 아라미스가 쏘아붙였다. 《내가 아또스의 충고외에 남의 훈시질에는 질색이라는걸 자넨 알지 않나. 자네로 말한다면 이보라구 친구, 자네의 그 지나치게 현란한 칼띠는 자네의 인품을 별로 높여주지 않아. 난 필요하다면 신부가 될것이네. 하지만 아직은 난 총사이고 따라서 총사로서 하고싶은 말을 다 하네. 지금 난 자네가 신물이 난다는걸 말하고싶네.》

《아라미스!》

《뽀르또스!》

《왜들 이러나!… 왜들 이러나!》 다른 사람들이 소리쳤다.

《뜨레빌각하께서 다르따냥씨를 기다리십니다!》 하인이 집무실 문을 열고 알리는 바람에 그들의 말소리는 끊어졌다.

그때 문은 열려진채로 있었으므로 모두들 대번에 잠잠해졌다. 가스꼰뉴의 젊은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한 대기실을 가로질러 총사대 대장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처럼 기이한 언쟁에 말려드는것을 제때에 피할수 있게 된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다.

제 3 장

접 견

뜨레빌씨는 기분상태가 매우 나빴으나 이마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젊은이를 깍듯이 맞아 미소를 띠고 그의 인사를 받았다. 청년의 베아른말씨는 자기의 청년시절과 고향에 대한 회억을 불

러일으켰다. 추억이란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것이다. 뜨레빌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량해를 구하듯이 다르따냥에게 손을 들어보이고는 문께로 가서 연거퍼 세번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면서 명령조로부터 노성으로 넘어갔다.

《아또스! 뽀르또스! 아라미스!》

우리가 이미 낯을 익혔으며 이름을 각각 뽀르또스, 아라미스라고 하는 두 총사가 당장에 동료들에게서 떨어져나와 집무실에 들어왔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꽉 닫겼다. 좀 굳어진듯 하면서도 자부심과 복종심이 동시에 넘치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다르따냥은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다르따냥에게는 그 두사람이 그 어떤 반신처럼, 그들의 우두머리는 금시라도 천둥번개를 일으킬 쥬피터신처럼 보였다.

두 총사가 들어가고 문이 닫기자 그들을 찾는 소리에 쑥 잦아들었던 요란한 말소리는 새로운 화제를 찾아 다시 되살아났다. 뜨레빌씨는 사열식에라도 나선것처럼 숨을 죽이고 꼿꼿이 서있는 그들앞을 아무말없이 서너번 왔다갔다하다가 갑자기 그들앞에서 뚝 멈춰서서 노기를 띤 눈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군들은 전하께서 나더러 뭐라고 하셨는지 아는가? 그것도 방금 어제 저녁에?》

《모릅니다.》 두 총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던끝에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각하.》

《아무쪼록 각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라미스가 지극히 정중한 태도로 말하고 깊숙이 허리를 굽혀보였다.

《전하께서는 이제부터 자기의 총사들을 주교의 근위대에서 뽑아오겠다고 하셨네.》

《주교의 근위대에서요? 그럴법이 어디 있습니까?》 뽀르또스가 부르짖었다.

《자기의 포도주는 시큼털털해서 진짜포도주를 섞어넣기로 작정하신거지.》

두 총사는 귀밑까지 빨개졌다. 다르따냥은 몸둘바를 몰라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싶었다.

《아무렴!》 뜨레빌씨는 열을 올렸다. 《전하로서야 그럴수밖에 있

겠나. 총사제씨들이 궁전에서 제구실을 못하고있으니 말이네! 주교는 어제 저녁 장기를 두는 자리에서 내 비위가 상할만큼 슬픈 어조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겠나. 그 빌어먹을 총사들이, 그놈의 망나니들이 (그가 얼마나 비양스럽게 말하는지 난 밸이 왈칵 뒤집혔댔네.) 그리고는 그 삵괭이의 눈으로 나를 힐긋거리면서 말하기를 그놈의 용사들이 페루거리의 주막에 정해진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처박혀있었다고 말이네. 그래서 순찰을 돌던 그의 근위병들이(그는 내 얼굴에 대고 너털웃음을 터뜨릴것만 같았네.) 밤의 안정을 파괴하는 그들을 부득이 단속하지 않을수 없었노라고 말이네, 이거야 어디! 군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나? 총사들을 체포하다니! 군들도 그 무리에 끼여있었거던. 아니라고 뻗대지 말라구. 그것들은 군들을 알아봤고 주교는 군들의 이름을 말했네. 다 내탓이지, 내가 사람들을 뽑아들이니까. 아라미스, 군도 그렇지. 무엇때문에 군은 군한테 그렇게도 어울리는 법의를 마다하고 총사의 조끼를 입게 해달라고 나에게 졸라댔나 말이야. 그리고 뽀르또스… 군의 그 화려한 칼띠에는 밀짚칼을 매달아야 하지 않을가? 그리고 아또스, 아또스가 왜 안 보이는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각하.》 아라미스가 서글프게 말하였다. 《그는 앓습니다, 몹시 앓습니다.》

《앓는다? 몹시 앓는다? 그래 어디가 아프다는건가?》

《각하, 혹시 천연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뽀르또스가 이렇게 대답하고 자기의 말을 끼워넣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굴에 온통 마마자국이 생길수 있습니다.》

《천연두?… 잘도 둘러대는군, 뽀르또스! 그 나이에 천연두라구!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은 부상당했든가 죽든가 했어. 내가 그걸 똑똑히 알수만 있다면 그저!… 제길! 제군, 난 내 사람들이 어스크레한 곳에서 빈둥거리고 거리바닥에서 싸움질을 하고 시꺼먼 뒤골목에서 칼부림질하는걸 바라지 않네. 그리고 난 내 사람들이 주교의 근위병들의 웃음거리가 되는걸 바라지 않네. 근위병들은 조용하고 단정하고 날랜치들이네. 그들은 체포될짓을 하지 않거니와 체포되지도 않을거네. 난 그걸 확신하네! 그들은 한걸음 물러서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걸세. 목숨이 아까와서 달아나고 줄행랑치는건 전하의 총사들만이 할수 있는짓이야!》

뽀르또스와 아라미스는 분이 치밀어 몸을 우들우들 떨었다. 그들은

뜨레빌이 이렇게 말하는것은 자기들을 뜨겁게 사랑하기때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고있었으니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던들 그를 목눌러 죽였을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들은 주단우에서 신발뒤축을 딱 마주치고 피가 지도록 입술을 깨물면서 칼자루를 으스러지게 틀어잡고있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은 아또스, 뽀르또스, 아라미스를 호출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뜨레빌씨의 목소리로 미루어 그가 대노하였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여라문명 되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못이겨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문에 바싹 붙어섰는데 그들은 분김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열쇠구멍으로 새여나오는 뜨레빌씨의 모욕적인 말들을 한마디한마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였다. 대기실 나들문으로부터 현관에 이르기까지 온 집안이 악마구리끓듯 하였다.

《그렇네! 전하의 총사들이 주교의 근위병들에게 꼼짝 못하고 체포되고있단 말이네.》 부하들못지 않게 악에 받친 뜨레빌씨가 계속하였다. 또박또박 내던지는 그의 말마디들은 칼날처럼 그들의 가슴에 박혀들었다. 《그렇단 말이네! 주교의 근위병 여섯이 전하의 총사 여섯을 체포하는 판이네! 기가 막혀서! 그래서 난 결심했네. 이길로 당장 루브르궁전에 가서 사표를 내자는거네. 전하의 총사대 대장직을 내놓고 주교의 근위대 대장으로 되겠네. 거부당하면 빌어먹을, 신부가 될테네!》

그 소리에 문밖의 웅성거림은 폭풍으로 변하였다. 여기저기서 저주의 목소리들이 울렸다. 《너절하다!》, 《신도 그의 천사들도 다 벼락을 맞아라!》, 《지옥에 떨어져 뒈지라!》 이런 함성들이 터져올랐다. 다르따냥은 몸을 숨길만 한 휘장 같은것이라도 어디 없을가싶어 두리번두리번 살폈다. 책상밑에라도 기여들어가고싶어 못 견딜 지경이였다.

《옳습니다, 각하》 뽀르또스가 더 참지 못하고 부르짖었다. 《사실 우리는 여섯 대 여섯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길모퉁이뒤로부터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린 미처 칼을 뽑아들새도 없이 둘씩이나 쓰러졌고 아또스는 어찌나 심하게 다쳤던지 죽은것이나 별로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번씩이나 일어나려고 해보았지만 두번 다 쓰러지고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항복하다니요? 그것들은 우리들을 강다짐으로 질질 끌고갔습니다. 도중에

우리는 슬쩍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또스로 말하면 놈들은 그가 죽은줄만 알고 사건현장에 그대로 내버려두었던겁니다. 일은 그렇게 된것입니다. 억울합니다, 각하! 싸움마다 다 이긴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위대한 폼페이우스도 파르살라싸움에서 졌고 프랑쑤아1세도 역시 빠비에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리고싶은건》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나는 근위병 한놈을 바로 그의 칼을 빼앗아 찔렀습니다. 내 칼은 싸움이 시작돼서 인차 부러져나갔던것입니다. 그놈이 죽었는가 아니면 그저 찔리기만 했는가 하는것은 각하께서 좋도록 판단하십시오.》

《그건 내가 몰랐댔군.》 뜨레빌씨가 한결 누그러져서 말하였다. 《내 보건대 주교는 좀 보탠것 같아.》

《그렇지만 각하, 제발 부탁입니다.》 아라미스는 뜨레빌씨의 노여움이 풀린것을 보자 담이 커져서 청을 댔다. 《제발 부탁인데 아또스가 부상당했다는 말을 그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사실이 국왕에게 알려지면 그는 절망에 빠질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는 매우 중합니다. 어깨로부터 가슴팍까지 내리찍혔으니까요. 그래서 과연…》

바로 그찰나에 휘장 한끝이 들리면서 고상하고 아름답기는 하나 백지장처럼 새하얀 얼굴의 총사가 문가에 나타났다.

《아또스!》 두 총사가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아또스!》 뜨레빌이 뒤따라 웨쳤다.

《각하께서 절 찾으신다기에》 아또스는 뜨레빌에게 말하였다. 목소리는 비록 가냘프기는 하여도 아주 침착하였다. 《우리 친구들이 당신께서 날 찾으신다고 알려주기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분부를 주십시오, 각하!》

이렇게 말하고나서 깨끗한 옷을 언제나와 같이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 총사는 확고한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왔다. 뜨레빌은 그 장한 기개에 깊이 감동되여 마주달려나갔다.

《내 방금 이 사람들에게도 말했지만》 뜨레빌이 말하였다. 《난 나의 총사들이 필요없이 목숨을 내대고 모험하는것을 금지하네. 전하께선 용감한 사람들을 중히 여기시는데 그분께서 총사들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들이라는것을 알고계시기때문이지. 그 손을 이리 주게, 아또스!》

그리고는 아또스가 그처럼 따뜻한 감정들의 발현에 미처 응대할 사이도 없이 뜨레빌은 그의 오른손을 덥석 잡고 있는 힘껏 꽉 움키였다. 그처럼 자제력이 강한 아또스가 아파서 몸을 부르르 떨고 얼굴이 상상도 할수 없을만큼 파래지는것도 보지 못하는것 같았다.

문은 방싯이 열린채로 있었다. 아또스가 부상당한 사실을 극비에 붙이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일을 알고있었으므로 모두들 그의 출현에 깜짝 놀랐다. 총사대 대장의 마지막말에 만족하여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두세사람은 감격이 북받쳐올라 휘장짬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뜨레빌은 그처럼 무엄한 행동에 대하여 틀림없이 불호령을 내렸을것이지만 그때 불시에 자기가 잡고있는 아또스의 손이 경련을 일으키듯이 가드라드는것을 느끼고 얼굴을 쳐다보니 그는 실신하기 직전이였다. 아픔을 감추려고 안깐힘을 쓰던 아또스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풀썩 바닥에 쓰러지고말았다.

《의사!》 뜨레빌이 소리쳤다. 《내 의사든 전하의 의사든 제일 용한 의사를, 빨리 의사를, 빌어먹을, 나의 용감한 아또스가 죽는단 말이야!》

뜨레빌의 고함소리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몽땅 문이 열린채로 있는 집무실로 우르르 쓸어들었다. 모두들 부상자를 둘러싸고 부산하게 돌아갔다. 그러나 만일 저택안에 의사가 있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노력은 허사로 끝나고말았을것이다. 의사는 사람들을 비집고 의식이 없는 아또스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주위가 복작거려 진찰을 제대로 할수 없으므로 우선 환자를 옆방으로 옮겨야겠다고 한사코 우기였다. 뜨레빌은 문을 열고 친히 앞에 서서 걸으면서 자기 동무를 안고가는 뽀르또스와 아라미스에게 길안내를 하였다. 그뒤를 의사가 따르고 의사가 들어서자 문이 닫겼다.

그렇게 되자 언제나 려객들의 공포를 자아내던 뜨레빌씨의 집무실은 순간에 대기실의 별실로 변하였다. 모두들 큰소리로 떠들어대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온갖 험악한 표현을 마구 써가며 주교와 그의 근위병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잠시 지나서 뽀르또스와 아라미스가 돌아왔다. 환자곁에는 뜨레빌과 의사만이 남았다. 마침내 뜨레빌씨도 돌아왔다. 그의 말에 의하면 환자는 의식을 차렸으며 의사는 아또스가 심한 출혈로 하여 허약해진것이니 아무 걱정할것이 없다고 하였다는것이였다.

그다음 뜨레빌이 손짓을 하자 다르따냥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러나갔다.

다르따냥은 접견을 받기로 되여있다는것을 잊지 않고있었으므로 가스꼰뉴사람특유의 완강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남았던것이다.

모두가 나가고 문이 닫긴 다음 돌아서던 뜨레빌은 젊은 청년과 정면으로 마주서게 되였다. 방금 있은 소동으로 하여 그의 생각은 헝클어져있었다. 그는 그 검질긴 청원자가 바라는것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다르따냥이 자기 이름을 말하자 뜨레빌은 과거와 현재가 대번에 떠올랐다.

《안됐구만, 고향친구.》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난 젊은이를 까맣게 잊었댔구만. 나삐 생각말라구. 총사대 대장이란 한가정의 아버지나 같아. 다만 여느 아버지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걸머지지. 대원들이 모두 다 자란 자식들이기는 하지만 난 국왕과 그리고 특히는 주교각하의 지시를 집행해야 하거던. …》

다르따냥은 미소가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 미소에 뜨레빌씨는 자기앞에 서있는 젊은이가 결코 머저리가 아니라는것을 알아차리고 제창 본문제로 넘어갔다.

《전에 난 군의 아버지를 무척 사랑했다네.》 그는 말하였다. 《그래 그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가? 얼른 말하게, 난 시간이 없네.》

《각하.》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제가 따르브로부터 여기 빠리까지 올라오면서 기대한것은 각하께서 잊지 않고계시는 그 우정을 생각해서 저에게 총사의 만또를 입을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것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시간동안에 모든것을 목격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분에 넘치는 혜택이 아니겠는가 걱정됩니다.》

《그건 사실 그래, 젊은이.》 뜨레빌씨가 말하였다. 《하지만 군에겐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것처럼 또는 그런체 하는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거네. 그런데 거기에는 전하께서 정해주신 한가지 원칙이 있다는걸 군에게 말해주지 않을수 없구만. 몇번 전장에서 검열되지 않은 사람, 한번도 큰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 또는 우리보다 좀 격이 떨어지는 다른 부대에서 이태동안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총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네.》

다르따냥은 묵묵히 허리를 굽혔다. 소원을 이룬다는것이 얼마나 힘

든 일인가를 알게 되니 더욱더 총사대제복을 입고싶었다.
《그렇지만…》 뜨레빌은 동향인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려는듯 날카로운 시선을 그에게 박았다. 《나의 옛친구인 군의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젊은이, 내 군을 위해 힘 좀 써보려네. 우리 베아른청년들속에는 잘사는 사람이 적고 내가 고향을 떠난 이후에도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줄로 아네. 군이 가지고온 돈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들걸…》
다르따냥은 긍지스럽게 몸을 쭉 폈다. 누구에게도 구차스럽게 손을 내미는 일은 없을것이라는 결의를 보여주는것이였다.
《됐네, 됐어. 젊은이.》 뜨레빌은 뒤를 달았다. 《아주 장해. 내가 빠리로 올 때 호주머니엔 4에뀌밖에 없었지만 누구든지 감히 나더러 루브르궁전을 돈으로 살만 한 처지가 못된다고 떠벌이는자가 있었다면 누구건 상관없이 결투를 했을거네.》
다르따냥은 고개를 더 높이 쳐들었다. 말을 판 덕분에 그는 뜨레빌이 인생의 첫걸음을 떼던 때보다 4에뀌나 많은 돈을 가지고 출세의 길에 들어서고있는것이였다.
《그러니까 말이네》 총사대 대장은 계속하였다. 《군이 얼마나 큰 돈을 가지고있던간에 그걸 잘 건사해야 하네. 그리고 또 군은 검술을 완성해야 하네. 귀족이라면 그래야 하거던. 내 오늘 당장 왕실 아까데미원장에게 편지를 쓸테네. 그러면 그는 래일부터 돈 한푼 받지 않고 군을 받아줄거네. 이걸 사절하지 말라구. 우리의 젊은 귀족들 지어는 가장 지체높은 돈많은 귀족들도 거기 들어간다는게 여간만 힘들지 않다네. 말을 타고 격검을 하고 춤추는 법을 배우라구. 유력한 사람들과 사귀구 이따금 나를 찾아와서 그새 지내는 형편을 알려주고 필요한 도움을 청하라구.》
궁정의 책략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다르따냥이였지만 이와 같은 대우에서 풍기는 랭기를 감촉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참!》 그는 부르짖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소개신이 지금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요?》
《옳은 말이네!》 뜨레빌이 받았다. 《난 군이 우리 베아른사람들에게 그렇게도 요긴한 그 유일한 마술열쇠도 없이 그처럼 먼길을 떠나왔다는것이 그저 놀랍기만 하거던.》
《편지야 있었지요, 아주 감동적으로 쓴 편지가 말입니다.》 다르

따냥은 부르짖었다. 《그런데 어떤 놈이 몰래 훔쳐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멍에서 있은 일을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고 낯모를 귀족의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였다. 그의 이야기에서 풍기는 열기와 진실성이 뜨레빌을 매혹시켰다.

《참 이상하군…》 뜨레빌은 생각에 잠기며 말하였다. 《그러니까 군은 큰소리로 내 이름을 말했다는거지?》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지요. 하지만 난들 어찌겠습니까! 각하의 성함은 길을 오는 동안 나에게 하나의 방패로 될수 있었거던요. 제가 그 힘을 얼마나 입었는지 각하께서는 아마 상상도 못하실겁니다.》

아부는 당시에 하나의 류행이였으며 뜨레빌은 그 어떤 왕이나 주교 못지 않게 아첨에 민감하였다. 그래서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오르는것을 억누를수 없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곧 사라졌다.

《좀 물어보자구.》 그는 멍에서 있었던 일로 화제를 돌렸다. 《그 귀족의 관자노리에 가벼운 흠자리가 없던가?》

《있었습니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같았습니다.》

《미끈하게 생겼던가?》

《예.》

《키가 크고?》

《그렇습니다.》

《머리는 까맣고?》

《옳습니다, 옳습니다. 꼭 그대로입니다. 각하께서 그놈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아무때건 그놈을 찾아내기만 하면… 맹세하지만 전 그놈을 지옥에 가서라도 기어코 찾아내고야말것입니다. …》

《그놈이 웬 녀자를 기다리댔다구?》 뜨레빌이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어쨌든 어떤 녀자를 기다렸다가 만나서 몇마디 주고받은 다음에야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나?》

《그놈은 무슨 함을 주면서 말하기를 그안에는 자기가 그 녀자에게 주는 지시가 들어있는데 런던에 가서만 열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영국녀자던가?》

《그놈은 그 녀자를 밀레디라고 불렀습니다.》
《그놈이야!》 뜨레빌이 속살거렸다. 《그놈이 맞아! 그런걸 난 또 그놈이 아직 브류쎌에 있는줄만 알았지.》
《각하.》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그놈이 어디서 온 누군가 하는걸 제발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더 부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총사로 받아달라는것도 말입니다! 난 만사 젖혀놓고 그놈과 먼저 결산을 지어야겠으니까요.》
《젊은이, 그놈을 단단히 주의해야 하네!》 뜨레빌이 부르짖었다. 《길거리에서 그놈과 맞다들면 얼른 다른쪽으로 건너가라구. 부질없이 그놈을 건드리지 말라구. 그건 닭알로 바위를 치는 격이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다르따냥이 받았다. 《그놈을 보기만 하면 전…》
《어쨌든 당분간은 그놈을 찾아내지 말것을 나는 충고하네.》 뜨레빌이 말하였다.
갑자기 뜨레빌은 어딘가 모르게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입을 다물었다. 자기 아버지의 편지를 훔쳤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 청년의 불같은 증오심… 그 증오심뒤에 그 어떤 음흉한 간계가 숨어있지 않는지 누가 알겠는가? 주교가 이 젊은이를 파견한것이 아닐가? 그는 자기 뜨레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타난것이 아닐가? 다르따냥이라고 자칭하는 이 사람은 총사대에 침투하여 신임을 얻은 다음 날 잡으려고 노리는 밀정이 아닐가? 그런 실례는 많다. 그는 더욱더 주의깊게 다르따냥을 살펴보았다. 지혜롭고 능청스러우며 지나치게 겸손한 그의 얼굴표정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이 사람이 가스꼰뉴내기인것은 나도 안다.) 뜨레빌은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 뛰여난 솜씨를 지금 내앞에서처럼 교묘하게 주교를 위해서 써먹을수도 있지 않겠는가 한번 떠보아야 한다. …)
《젊은이.》 그는 뜨직뜨직 말하였다. 《난 자기의 옛친구의 아들앞에(왜냐하면 난 그 편지건을 전부 나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받아들이기때문이지.) 군이 나의 태도에서 대뜸 감촉한 랭담성에 대해 잘못을 빌고싶네. 그래서 내 우리 정치의 비밀을 자네에게 털어놓으려네. 국왕과 주교는 자별한 사이라네. 얼핏 보기엔 그들사이에 마찰이 있는것 같지만 그건 다 얼뜨기들을 업어넘기는 속임수라네. 난 자기의 동향친구가, 잘생기고 매혹적이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그런 수의 희

생물이 되여 화를 입는걸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네. 그 덫에 걸려서 신세를 망친 사람이 적지 않다네. 난 이 두 전능한 주인에게 다같이 충실하다는것을 명심하게. 나의 한걸음한걸음은 국왕과 함께 프랑스가 낳은 가장 걸출한 천재들중의 한사람인 주교님에게 복무하기 위한것이네. 이걸 똑똑히 알아두게. 그래서 일부 귀족들이 드문히 그러는것처럼 집안사람들이나 친구들의 영향으로 하여 또는 야심으로 하여 주교에게 악을 품고있다면 우린 서로 헤여지자구. 그 어떤 정황에서도 난 군을 기꺼이 도와주겠네만 총사대에 받아들이진 않겠네. 아무튼 나의 이와 같은 솔직성이 자네를 나의 벗으로 만들어주었으면 하네. 내가 젊은 사람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보긴 군을 내놓고는 이게 처음이기때문이네.》

(만일 주교가 이 여우같은 놈을 내게다 들이밀었다면) 뜨레빌은 생각하였다. (그놈도 내가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뻔히 알고있으니만큼 나의 신임을 얻는데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를 마구 헐뜯는것이라고 이놈에게 불어넣었을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깜찍한 녀석은 내가 뭐라고 했건 관계없이 자기가 주교를 혐오한다는것을 나에게 납득시키려들것이다.)

그러나 일은 뜨레빌이 예상했던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되였다. 다르따냥은 매우 솔직한 태도로 말하였던것이다.

《각하.》 그는 순박하게 말하였다. 《제가 빠리에 온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저의 아버님께서는 자신께서 프랑스의 3대인물로 간주하시는 국왕전하와 주교님 그리고 각하, 이 세분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말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다르따냥은 뜨레빌을 세사람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으로 꼽았다. 그런다고 일이 망쳐질수는 없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래서》 그는 말을 이었다. 《저는 주교님을 깊이 존경하며 그분의 모든 처사에 머리를 숙입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것처럼 각하께서 저를 솔직하게 대해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각하께서 우리들의 견해가 같다는것을 알게 되셨으니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입니다. 만일 각하께서 저를 조금이라도 꺼리셨다면(그것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일이지요.) 이런 말을 한 저는 각하께서 보시는앞에서 죽어버리고말았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각하께서는 저의 솔직성을 평가하시게 될것이고 저에 대한 각하의 호감은 저에게 있

어서 제일 귀중한것입니다.》

뜨레빌은 놀랐다. 그와 같은 통찰력, 그와 같은 진실성에는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의심을 완전히 털어버릴수는 없었다. 다른 젊은 사람들에 비한 이 젊은이의 우점이 많이 드러날수록 더욱 더 경계하게 되는것이였다.

《군은 성실한 인간이지.》 그는 다르따냥의 손을 잡으면서 말하였다. 《그렇지만 방금 약속한것외에 나는 군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구만. 우리 집 문은 자네를 위해 언제든지 열려있을거네. 앞으로 아무때건 찾아오느라면 유리한 기회도 맞다들수 있을것이니 군은 반드시 소원을 이룩하게 될걸세.》

《달리 말하면》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각하께서는 제가 그런 영광을 지닐만 한 당당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그 말씀이겠지요. 좋습니다.》 그는 가스꼰뉴사람특유의 스스럼없는 태도로 덧붙였다. 《각하께서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나머지는 자기 혼자 처리할 일인것처럼 굽석 절을 하고 물러가려고 하였다.

《잠간…》 뜨레빌이 그를 불러세웠다. 《내가 아까데미원장앞으로 편지를 써주마고 약속했더랬지. 혹시 내게서 그런걸 받기에는 자네가 너무 도고한걸가?》

《그런게 아닙니다, 각하.》 다르따냥이 대꾸하였다. 《그리고 편지가 아버지의 편지와 같은 운명에 빠지지 않도록 명심하겠다는것을 각하앞에 맹세합니다. 저는 편지가 임자의 손에 정확히 가닿도록 소중히 건사할것이며 저에게서 그걸 훔치려고드는자는 절대로 무사치 못할것입니다.》

이런 희떠운 소리에도 뜨레빌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있던 창가에 젊은이를 남겨두고 책상에 가앉아 약속한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아무 할일없는 다르따냥은 무슨 행진곡박자에 맞추어 창유리를 똑똑 두드리면서 한사람 또 한사람 저택에서 나와 거리의 모퉁이뒤로 사라져가는 총사들을 눈여겨 살피고있었다.

뜨레빌씨는 편지를 다 쓰자 봉한 다음 일어서서 다르따냥에게로 다가와 봉투를 내밀었다. 그런데 다르따냥이 봉투를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뜨레빌은 그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분노에 휩싸여

사납게 고함을 치면서 밖으로 달려나가는것을 보았다.
《어림도 없다, 이놈아! 이번엔 내 손에서 못 빠져나간다!》
《누군가?》 뜨레빌이 물었다.
《그놈, 도적놈 말입니다!》 다르따냥은 그냥 내달리면서 대답하였다. 《아, 개자식!》 이렇게 소리지르며 그는 문밖으로 사라졌다.
《미친 녀석이군!》 뜨레빌이 중얼거렸다. 《어쩌면…》 그는 천천히 덧붙였다. 《모략이 실패한걸 깨닫고 도망치려고 꾸민 술책인지도 모르겠지만.》

제 4 장

아또스의 어깨, 뽀르또스의 칼띠, 아라미스의 손수건

미친 사람처럼 한달음에 대기실을 꿰질러 문밖에 나선 다르따냥은 정신없이 계단쪽으로 내달리다가 뜨레빌의 집무실에 달린 옆문으로 나오던 총사와 힘껏 부딪쳤다. 총사는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
《미안합니다.》 다르따냥은 계속 달리면서 사과하였다. 《미안합니다. 난 시간이 급해서요.》
그가 미처 다음쉼단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무쇠같은 손이 그의 칼띠를 잡아 붙들어세웠다.
《시간이 급하다구요?》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해쓱해진 총사가 부르짖었다. 《그래 그걸 구실로 날 들이받고는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로 굼때버리겠다? 그렇게는 안될걸. 젊은이, 당신은 뜨레빌각하가 오늘 우리를 호되게 책망했다고 해서 자기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아니요? 잘못 생각했소. 젊은이, 당신은 뜨레빌각하가 아니란 말이요.》
《이거 딱하군요. …》 다르따냥은 붕대를 다시 감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또스를 알아보고 대답하였다. 《정말이지 난 어망결에 실수한것이고 또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지요.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난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거듭 말하는데(이것도 필요이상인것 같습니다만) 난 시간이 급합니다, 시간이 급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날 놓아주시오. 지체시키지 말아주시오.》

《여보시오.》 아또스가 칼띠를 놓아주면서 말하였다. 《당신은 례절을 통 모르는구만. 당신이 촌구석에서 왔다는게 대번에 알리오.》

이미 층계를 세단 내려섰던 다르따냥이 아또스의 그 말에 걸음을 멈추었다.

《주제넘게!》 그는 내뱉았다.《내가 촌구석에서 왔건 안 왔건 당신한테서 몸가짐을 배울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똑똑히 들어두시오.》

《그야 두고봐야지!》 아또스가 응대하였다.

《아, 내가 이렇게 바쁘지만 않다면》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내 한사람을 뒤쫓을 일만 없다면…》

《걱정마시지요. 찾아다니지 않고도 날 만날수 있을테니까.》

《어디 가면 되겠는지 말해주지 않겠소?》

《데쇼수도원옆.》

《몇시에?》

《12시.》

《12시? 좋소. 가겠소.》

《내가 기다리지 않게 해주오. 15분만 늦어도 난 당신의 귀때기들을 모조리 베여버릴테니까.》

《좋습니다.》 다르따냥은 소리쳤다. 《10분전 12시에 도착하지요.》

그리고나서 그는 그 사나이를 아직 따라잡을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얼빠진 사람처럼 줄달음을 쳤다. 그 사나이는 천천히 걷고있었으니 그닥 멀리 가지는 못했을것이였다.

그런데 대문앞에서 그는 순찰병과 이야기하고있는 뽀르또스를 보았다. 그 두사람사이에는 한사람이 능히 빠져나갈만큼 넓은 공간이 있었다. 다르따냥은 그만한 공간이면 넉넉할것으로 생각하고 두사람사이를 살처럼 빠질 심산으로 곧바로 달려갔다. 그런데 다르따냥은 바람을 그만 타산에 넣지 못하였다. 다르따냥이 두사람사이를 지나가려는찰나에 공교롭게도 뽀르또스의 길다란 만또자락이 바람에 부풀리면서 다르따냥의 발이 거기에 걸채여버렸다. 뽀르또스는 만또와 떨어지지 말아야 할 딱한 사정이라도 있었던지 손으로 잡고있던 만또자락을

놓아줄 대신에 자기쪽으로 잡아당기였다. 그 바람에 다르따냥은 몇고패 맴을 도는듯싶더니 비로도만또속에 아주 휘감겨들고말았다.
총사가 퍼부어대는 욕설을 들으면서 다르따냥은 밑으로 빠져나오려고 만또의 주름을 소경처럼 더듬어찾았다. 그는 우리가 이미 우에서 이야기한바있는 그 화려한 칼띠를 못쓰게 만들지 않을가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걱정이였다. 눈을 떠보니 자기는 뽀르또스의 두어깨박죽사이에, 다시말하여 바로 칼띠에 코를 박고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걸 어쩐단 말인가. 이 세상에서 번드르르한것이 대체로 그런것처럼 뽀르또스의 칼띠는 앞쪽만 금실이 번쩍거릴뿐이고 뒤쪽은 보통의 들소가죽이 아닌가. 무서운 대포쟁이 뽀르또스는 통채로 다 금실로 수놓은 칼띠는 마련할 형편이 못되므로 앞쪽만이라도 금실로 수놓은것을 갖추었던것이다. 꾸며낸 감기타령도 만또를 벗지 못하는것도 거기에 원인이 있는것이였다.
《이런 성화라구야!》 자기 뒤잔등에 붙어서 옴지락거리는 다르따냥을 떼여버리려고 모지름을 쓰면서 뽀르또스가 울부짖었다. 《정신이 나가지 않았소? 사람들에게 막 덮쳐들면서…》
《미안합니다.》 다르따냥이 거인의 팔꿈치밑으로 얼굴을 내밀면서 말하였다. 《난 시간이 너무 급해서요. 한사람을 뒤따르는중인데…》
《누굴 뒤따를 땐 집에다 눈을 떨궈두고 다니오?》 뽀르또스가 고함을 쳤다.
《아니요. …》 다르따냥은 발끈하여 말했다. 《아니지요. 그리고 나의 눈은 나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것까지도 볼수 있게 해주는걸요.》
그 말뜻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몰라도 뽀르또스는 머리끝까지 성이 났다.
《여보시오.》 그는 으르릉거렸다. 《당신에게 경고하오만 총사들을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리게 되오.》
《뼈도 못 추린다?》 다르따냥이 물었다. 《말씀이 지나치지 않을가요?》
《적수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는데 습관된 사람의 말이요.》
《그럴테지요! 당신이 누구에게도 자기 뒤잔등을 드러내보이지 않는다는건 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나서 젊은이는 자기의 야멸찬 롱말에 스스로 흡족하여 깔깔 목청껏 너털웃음을 치며 발걸음을 옮기였다.

뽀르또스는 통분하여 그에게 덤벼들 차비로 나왔다.
《이따가 봅시다, 이따가!》 다르따냥은 그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그 만또를 벗었을 때!》
《좋소, 그럼 1시에 룩셈부르그궁전뒤에서.》
《좋구만, 1시요!》 다르따냥은 굽인돌이로 꺾어들면서 대답하였다.
하지만 그가 달려가는 거리에도, 그의 눈길이 미치는 다른 거리에도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그 사나이의 걸음이 아무리 더디다 하여도 지금쯤은 멀리 벗어났거나 어느 집에 들어갔을수 있는 것이였다. 다르따냥은 길손마다 붙잡고 물어보고 나루터까지 내려가보고 쎈느거리를 훑어보고 라 끄루아 루쥬도 살펴보았으나 허사였다. 그렇기는 하나 이번추격에서 얻은것도 없지 않았다. 이마에 땀을 흘리는데 따라 심장은 점점 식어들었던것이다.
그는 자기가 겪은 일들을 두고 명상에 잠기였다. 많은 일을 겪었는데 죄다 불쾌한것들뿐이였다. 시간은 11시밖에 안되였었다. 그런데 이 아침에 그는 벌써 뜨레빌의 불만을 사게 되였다. 다르따냥이 간다온다 소리도 없이 달아나버린걸 그가 불손한 행동으로 간주하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그밖에 그는 어리석게도 자기같은 사람은 세명쯤 능히 숨통을 끊어버릴수 있는 두사람과 결투를 약속하였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누구보다도 높이 우러르면서 깊이 존경하는 총사들이였다.
일은 난감하게 되였다. 아또스에게 죽을것은 뻔하다고 생각하였기때문에 뽀르또스와의 대결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워낙 사람이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것이므로 그는 설사 치명상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럭저럭 목숨을 부지할수 있을것이라고 믿기 시작하였으며 그렇게 되자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런 실책을 저지른 자신을 타매하게 되였다.
(난 얼마나 미련한 놈인가! 그 불행하고 용감한 아또스는 어깨를 상했는데 난 바로 그 어깨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그가 왜 그 자리에서 날 요정내지 않았는지 그저 놀랍기만 하다. 그에게는 그만한 권리가 있었다. 그는 얼마나 아팠겠는가. 뽀르또스로 말하면 그 사람하고야 해볼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마음이 우울한 속에서도 웃음이 터지는것을 어쩔수 없어 혹시 자기가 실성한 사람처럼 혼자 웃어대는것을 보고 다

른 사람들이 모욕을 느끼지 않겠는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깔깔 웃었다.

(뽀르또스로 말하면 그 사람과는 해볼만 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난 우둔하거던. 사람을 그렇게 들이받고(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 남의 만또밑에 기여들어 보지 말아야 할것을 보고! 내가 만일… 내가 만일 그 저주받을 칼띠를 걸고들지만 않았더라도 그는 분명 나를 용서했을것이다. 나는 물론 넌지시 암시했을뿐이지만 그 암시가 얼마나 멋있었던가! 아! 이놈의 가스꼰뉴내기는 지옥의 기름가마속에서도 혀바닥을 날름거릴거야. 이보라구 친구, 다르따냥.) 그는 자기자신에게 간곡히 타일렀다. (앞으로 요행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그때엔 그 누구보다도 례절바르게 처신해야 해. 이제부터는 누구나가 너를 찬양하고 귀감으로 삼게 해야 해. 점잖고 례절이 밝아야 한다고 해서 겁쟁이가 되라는건 아니야. 아라미스를 보라! 그는 얼마나 량순하면서도 의젓한가! 그런 아라미스를 감히 겁쟁이라고 부를 사람이 있겠는가? 절대로 없을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모든 면에서 그를 본보기로 삼을것이다. … 아, 마침 저기 아라미스가 있군!) 줄곧 혼자소리를 하면서 애기용저택앞에까지 이른 다르따냥은 그 집앞에서 국왕의 두 근위병과 이야기를 하고있는 아라미스를 띄여본것이였다. 아라미스쪽에서도 다르따냥을 보았다. 그는 오늘 아침 뜨레빌씨가 이 청년이 있는 자리에서 노발대발했던 일을 잊지 않고있었다. 총사들을 그렇게도 호되게 질책하는것을 본 사람이 그에게는 달갑지 않았으며 그래서 일부러 못 본체 하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례절을 지키는데서 본보기가 되리라는 단순한 생각에만 사로잡혀있던 다르따냥은 그쪽으로 다가가 상냥한 미소를 띠고 깍듯이 허리굽혀 인사를 하였다.

다르따냥은 자기가 불청객이라는것을 알아차리지 못할만큼 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르따냥은 풋낯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야기판에 뛰여들었을 때 그 옹색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류사회의 묘방을 아직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고있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날 방도를 찾지 못하여 쩔쩔매고있을 때 문득 아라미스가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필시 부주의한탓이겠지만 그것을 밟는것이 얼핏 눈에 띄였다. 다르따냥은 사태를 수습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손수건을 발밑에서 가까스로 뽑아들었다.

《자요, 당신의 손수건입니다.》 그는 더없이 깍듯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걸 잃어버린다면 참말로 아쉬울테지요.》

손수건은 아닌게아니라 곱게 수를 놓았고 한쪽귀퉁이에는 왕관과 문장이 새겨져있었다. 아라미스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되여 다르따냥의 손에서 손수건을 나꿔챘다.

《옳지, 옳지.》 한 근위병이 빈정댔다.

《이제는 이 엉큼한 아라미스도 부아 뜨라씨부인과 사이가 나쁘다고 우겨대지 못하겠지. 그 아름다운 부인이 이 사람에게 자기의 손수건을 선사할 정도로 살뜰하니까 말이야.》

아라미스는 골수에 사무친 원쑤라도 대하듯이 다르따냥에게 증오에 찬 눈길을 던지고는 곧 여느때의 살가운 어조로 넘어갔다.

《여보게들, 그런게 아니라네.》 그는 말하였다. 《이 손수건은 내것이 아니라네. 이 선생이 무슨 생각으로 군들을 내놓고 나에게 이걸 주는지 통 모르겠거던. 이 호주머니에 있는 나의 손수건이 그걸 잘 증명해줄걸세.》

이러면서 그는 호주머니에서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보였다. 꼭같이 하르르한 아마천(당시에 아마천은 매우 비쌌던것이다.)으로 만든 우아한 손수건이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임자의 이름글자를 새긴것외에 아무런 장식도 문장도 없다는것뿐이였다. 다르따냥은 벙어리가 되여버렸다. 자기의 실책을 깨달은것이였다. 그러나 아라미스의 친구들은 그가 아무리 설득시키려 해도 그의 말에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한 친구가 부러 정색을 하고 말했다.

《사실이 자네가 말하는대로라면 그 손수건을 이리 주게. 군도 알다싶이 부아 뜨라씨는 나의 친구이니만큼 누구든 다른 사람이 그의 처에게 속하는 물건을 자랑거리로 내두르는걸 난 바라지 않는단 말이네.》

《그건 무리한 요구네.》 아라미스가 대꾸하였다. 《그리고 난 군의 요구에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그 근거가 타당치 못하기때문에 거기에 응할수가 없네.》

《사실말이지》 다르따냥이 소심스럽게 끼여들었다. 《난 손수건이 아라미스씨의 주머니에서 떨어지는건 보지 못했습니다. 아라미스씨가 밟고있기에 난 그의 손수건인줄만 알았던거지요.》

《잘못 알았지요.》 자기의 잘못을 씻으려는 다르따냥의 진정은 알

은체도 않고 아라미스는 쌀쌀하게 말하였다. 《그건 그렇고》 아라미스는 부아 뜨라씨와의 친교관계를 내세우는 근위병을 보고 계속하였다. 《여보게 친구, 부아 뜨라씨와 막역한 사이라고 하는 군 못지 않게 나 역시 그와 절친한 사이인것이고 손수건은 내 호주머니에서 떨어지듯이 군의 호주머니에서 떨어질수도 있었단 말이네.》

《그런 일은 없을거네.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네.》 근위병이 부르짖었다.

《군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면 난 량심을 걸고 장담하네. 이렇게 되면 우리 두사람가운데 한사람은 거짓말을 하는것으로 되지. 그렇지, 몽따랑? 차라리 우리 그걸 서로 나누어가지는게 어때?》

《손수건을?》

《그럼.》

《거참 멋있어!》 다른 두 근위병이 소리쳤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재판이야. (고대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두 녀자가 아이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옥신각신하자 그럴것없이 아이를 량쪽이 꼭같이 나누어가지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되자 아이의 친어머니는 자기가 못 가져도 좋으니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사정하였다. 모든것이 명백해진 솔로몬은 아이를 친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역자주) 아라미스, 군은 정말 명철해!》

젊은 사람들은 와― 웃음을 터뜨리고 일은 누구에게나 명백한것처럼 그것으로 끝났다. 이윽고 이야기는 끝나고 그들은 서로서로 뜨겁게 악수를 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여져갔다.

(저 고상한 사람과 화해하자면 이때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한옆에 서있던 다르따냥은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다르따냥은 더는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갈길을 가고있는 아라미스를 부랴부랴 뒤쫓아갔다.

《여보시오.》 다르따냥은 그를 뒤따라가며 말하였다. 《아깐 참 안됐습니다만…》

《존경하는 선생.》 아라미스가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실례의 말 같지만 그건 고상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였소.》

《뭐라구요, 선생!》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당신 생각은…》

《내 생각은 선생… 당신은 얼뜨기가 아니고 따라서 비록 가스꼰뉴에서 왔다 해도 누군가가 손수건을 짓밟을 때엔 그럴만 한 까닭이 있

다는것쯤 알고있어야 한다는거요. 빠리거리가 제길, 아마천손수건으로 포장된건 아니니까.》

《여보시오, 당신은 공연히 사람을 깔보고드십니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그의 격하기 쉬운 성미가 선의를 누르고 일어서기 시작한것이였다. 《난 사실 가스꼰뉴에서 왔고 그 사실을 당신이 알고있는 이상 나는 가스꼰뉴사람들이 그닥 참을성이 없다는것을 구태여 상기시키지 않겠습니다. 가스꼰뉴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일단 사죄를 하고나면 그것으로 자기 할바를 두갑절로 넘쳐했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여보시오, 난 당신과 다툴 언턱거리를 만들자고 그런 말을 한건 전혀 아니요. 난 정말이지 그 무슨 싸움군이 아니고 총사로 있는건 당분간이요. 정 어쩔수 없는 때에나 싸움을 하는것이고 그나마도 언제나 마지못해 억지로 하오. 그러나 이번엔 문제가 심각하지. 당신이 명예를 훼손시킨 어떤 부인에 대한 문제니까.》

《명예를 훼손시킨거야 당신이지요!》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손수건을 나에게 준단 말이요?》

《어쩌면 당신은 그 손수건을 떨어뜨린단 말입니까?》

《내 이미 말한바이지만 다시한번 말하지. 그건 내 호주머니에서 떨어진게 아니란 말이요.》

《그렇다면 당신은 두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는군요. 나는 손수건이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떨어지는걸 똑똑히 봤으니까요.》

《허허, 가스꼰뉴사람의 말본새가 그게 다구만! 아무래도 당신에게 처신하는 법을 배워줘야 할가보오!》

《그렇다면 난 당신을 아침례배 드리는 일이나 보게 되돌려보내야겠군요. 신부님! 자, 칼을 뽑아드시지요. 당장이요.》

《아니아니 친구, 여기서만은 제발! 여기가 애기용의 저택앞이라는걸 그래 당신은 모른단 말이요? 여기엔 주교의 사람들이 욱실거린단 말이요. 당신이 주교에게 내 머리를 가져다 바칠 작정으로 오지 않았는지 누가 알겠소? 그런데 난 내 머리를 끔찍이도 아낀단 말이요. 내 머리는 어깨우에 꽤 든든하게 붙어있는줄 아오. 그래서 난 당신을 죽여버리는데 반대가 없으니 걱정마시오. 그러되 당신이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죽음을 자랑할수 없는 외딴 곳에서 조용히 죽이고싶단 말이요.》

《좋도록 하시지요. 하지만 너무 과신하지 말고 그 손수건을 걷어 넣으시오. 그게 당신것이든 아니든간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은 가스꼬뉴에서 왔지요?》 아라미스가 비양조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스꼬뉴사람은 대체로 조심성때문에 결투를 미루는 법이 없지요.》

《여보시오, 조심성이란 총사에겐 가당치 않다는걸 나도 알고있소. 하지만 성직자에겐 그게 필요한거요. 그런데 난 림시로 총사가 된것만큼 조심하는편을 좋아하오. 2시에 뜨레빌각하의 댁에서 당신과 만나는 영광을 지니고싶소. 거기서 결투에 적합한 장소를 말해줄테요.》

두사람은 인사를 하고 헤여졌다. 아라미스는 룩셈부르그궁전쪽으로 뻗은 거리를 따라서 가고 다르따냥은 벌써 시간이 어지간히 늦은것을 알고 데쇼수도원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할수 없지.) 그는 혼자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다만 한가지 위안은 죽더라도 총사의 손에 죽는다는 그것이다.)

제 5 장

국왕의 총사들과 주교의 근위병들

다르따냥은 빠리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적수의 립회인에게 모든것을 맡기기로 결심하고 자기는 립회인이 없이 아또스와의 결투장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약성은 일체 드러내보이지 않으면서 그 용감한 총사에게 할수 있는껏 사죄를 하기로 미리부터 굳게 결심하고있었다. 그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것은 원기왕성하고 젊음이 넘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하여 허약해진 적수와 대결할 때 빚어질수 있는 엄중한 결과를 우려하였기때문이였다. 만일 그가 진다면 적수는 두갑절로 득의양양할것이며 만일 이긴다면 자기를 너절한

인간이라고 비난하며 자기의 승리가 너무 손쉽게 이루어졌다고들 떠벌일것이였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모험을 좋아하는 주인공의 성격을 원만하게 그려보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은 다르따냥이 여느 사람들과는 좀 류다른 인간이라는것을 포착하였을줄로 믿는다. 그는 자기는 죽음을 피할수 없다고 혼자 속으로 되뇌이면서도 그보다 덜 용감하고 덜 침착한 사람처럼 불가피한 죽음에 순순히 복종할수는 없었다. 그는 이제 싸우게 될 적수들의 성격상차이를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기였으며 그러자 사태는 점차 명백해졌다. 그는 그 엄한 얼굴과 고상한 품위에서 좋은 인상을 받은 아또스에게는 사죄를 함으로써 그의 벗이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뽀르또스는 칼띠를 가지고 기를 꺾어놓을 생각이였다. 만일 그 자리에서 죽지만 않는다면 모두에게 그 일을 까밝힐것인데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야기한다면 뽀르또스는 친구들과 동무들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수 없을것이였다. 그 능청스러운 아라미스로 말한다면 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설사 차례가 그에게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르따냥은 쎄자르가 폼페이우스의 병사들과 대적하는 부하들에게 가르친것처럼 그의 숨통을 끊어놓든가, 아니면 그가 그처럼 자랑하는 아름다운 얼굴에 타격을 가하여 칼자리를 내줄 결심이였다.

그밖에 다르따냥의 마음속에는 국왕과 주교, 뜨레빌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말라던 아버지의 충고를 따르려는 확고한 결의가 그대로 살아있었다. 하여 그는 데쇼수도원을 향하여 걸어간것이 아니라 달려갔다. 그것은 창문유리가 다 깨여져나간 빈 건물로서 주위에는 메마른 풀밭이 펼쳐져있는데 그 풀밭은 가끔 쁘레 오 끌레르끄광장의 역할을 대신하군 하였다. 다시말하여 거기서는 흔히 시간을 다투는 사람들이 결투를 벌리군 하였던것이다.

다르따냥이 수도원곁의 풀밭에 이르렀을 때 마침 12시종이 울렸다. 아또스는 5분전에 와서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니 다르따냥은 흠잡을데없이 정확하였으며 가장 엄격한 결투심판관도 그를 시비할수 없었을것이다.

아또스는 뜨레빌의 주치의가 새로 붕대를 감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그냥 쑤시는 모양인지 돌우에 앉아서 여느때의 침착하고 의젓한 태도로 적수를 기다리고있었다. 다르따냥을 보자 그는 일어나서 정

중하게 몇걸음 마주나왔다. 다르따냥쪽에서는 깃털이 땅에 끌리도록 모자를 벗어들고 적수에게 다가갔다.
《여보시오.》 아또스가 말하였다. 《난 나의 립회인으로 내세울 친구 두사람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띄웠는데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 오지 않는구만. 왜 늦어지는지 정말 모를 일이거던.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난 립회인이 없습니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난 방금 어제 빠리에 왔기때문에 뜨레빌각하를 내놓고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던요. 옛날에 그분과 친분이 두터웠던 나의 아버지가 줄을 놓아주셨지요.》
아또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뜨레빌각하밖에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분밖에 없지요.》
《거참, 맹랑하군!》 아또스는 자신에게 하는 소리인지 상대방에게 하는 소리인지 모르게 말하였다. 《참 맹랑해! 그렇지만 만일 내가 당신을 죽인다면 난 어린애 잡아먹는 짐승같은 놈으로 세상에 알려질게 거던.》
《그렇지야 않지요!》 다르따냥은 당당하게 받았다. 《부상을 당한 그 괴로운 몸으로 나와 대결하는만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말이지 매우 괴롭소.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당신까지 날 들이받아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소. 하지만 이런 경우에 다들 그렇게 하듯이 난 왼손으로 칼을 쓸테요. 그렇다고 안심하지는 마오, 난 두손을 다 꼭같이 자유롭게 쓴단 말이요. 오히려 당신에겐 불리할수 있소. 훈련되지 못한 사람에겐 왼손잡이가 말짼 법이니까. 이런 사정을 당신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걸 난 유감으로 생각하오.》
《선생.》 다르따냥이 대꾸하였다. 《당신은 더 이를데없이 친절하시군요. 이에 나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그 말에는 나도 당황하지 않을수 없구만요.》 아또스가 말하였다. 《당신만 반대가 없다면 우리 다른 이야기나 합시다.… 아, 당신이 얼마나 드세게 날 들이받았던지 어깨가 막 불로 지지는것 같소!》
《당신만 허락하신다면…》 다르따냥이 주밋주밋 입안의 소리를 하였다.

《무엇이요?》

《상처에 귀신같이 말 잘 듣는 고약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떠나올때 어머니가 준것인데 직접 써보았지요.》

《그래서?》

《내 장담하는데 더도 말고 사흘이면 당신은 씻은듯이 나을것입니다. 그래서 사흘후 상처가 다 아문 다음에 당신과 칼을 겨루는 영광을 베풀어주신다면 그이상 고마울데가 없겠습니다.》

다르따냥의 그 말에서는 머리가 저절로 숙어지게 하는 친절성과 함께 의심할 여지도 없는 용감성을 말해주는 그의 진심이 그대로 느껴졌다.

《이건 진정으로 하는 말이지만》 아또스가 말하였다. 《그 제안은 썩 마음에 드는구만.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는건 아니고 그 말에서는 귀족의 고결한 품위가 십리밖에서까지 느껴진단 말이요. 칼대제의 시대에는 무사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했지. 무사라면 누구나 그 본을 따라야 할거요. 하지만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칼대제의 시대에 살고있지 않거던. 우리는 존경하여마지않는 주교님의 시대에 살고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아무리 비밀을 지키느라고 하여도 사흘동안이면 우리가 결투하려 한다는것이 다 드러나고말지.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계획은 파탄이요.… 그건 그렇고 이놈의 건달군들은 아주 안 나타날셈인게군!》

《선생, 만일 시간이 급하시다면》 방금전에 결투를 미루자고 아또스에게 제안하던 때와 꼭같은 진정을 담아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시간이 급하고 지금 당장 나와 결판을 내고싶으시다면 어서 뜻대로 하시지요.》

《그 말 역시 마음에 꼭 드는군.》 아또스가 흔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미련하지 않고 고상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요. 이것 보오, 난 당신과 같은 기질의 사람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난 후날 당신을 만나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고싶소. 난 급히 갈데가 없으니 내 친구들을 마저 기다립시다. 그게 도리에 맞을것 같으니까… 옳지, 저기 한치가 오는것 같군!》

아닌게아니라 이때 워지라르거리어구에 뽀르또스의 거인같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다르따냥이 부르짖었다. 《뽀르또스가 당신의 립회인이란 말인가요?》
《그렇소, 왜 달갑지 않은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립회인도 저기 오는군.》
다르따냥이 아또스가 가리키는쪽을 돌아다보니 그것은 아라미스가 아닌가.
《아니!》 그는 먼저번보다 한결 더 놀라는 어조로 부르짖었다. 《다른 립회인이라는건 아라미스인가요?》
《아무렴요, 당신은 그래 우리가 서로 떨어져있는 법이 없으며 총사들속에서도 그렇고 근위병들속에서도 그렇고 궁정에서도 그렇고 거리바닥에서도 그렇고 우리를 아또스, 뽀르또스, 아라미스 혹은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세 친구라고 부르는걸 과연 모른단 말이요?… 하긴 당신이야 닥스라든지 또 뭐라든지 하는데서 왔으니까…》
《따르브에서 왔습니다.》 다르따냥이 바로잡아주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구체적인것까지야 모를수도 있지요.》
《정말이지》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당신들의 별명은 참말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번일이 소문나게 되면 그것은 당신들의 친교는 성격상차이점이 아니라 반대로 그 공통점에 기초하고있다는 좋은 증거로 될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뽀르또스는 손을 들어 아또스에게 인사를 보내고 고개를 돌리다가 다르따냥을 보자 깜짝 놀라 굳어졌다.
《어랍쇼…》 그는 목소리를 길게 뽑았다. 《이건 뭐라는건가?》
《난 이 선생과 결투를 하게 된다네.》 아또스가 다르따냥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그런데 나도 바로 이 선생과 결투를 해야 하니 말이네.》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하지만 그건 1시로 약속이 되여있지요.》 다르따냥이 안심시키듯이 말하였다.
《나도 이 선생과 결투를 약속했는걸.》 아라미스가 다가와서 말하였다.
《그건 2시지요.》 다르따냥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또스, 자네 무슨 일로 결투를 하나?》 아라미스가 물었다.

《대답하기가 좀 뭣하긴 한데》 아또스가 말하였다. 《이 선생이 내 아픈 어깨를 냅다 들이받았다네. 그래 자네는?》

《나야 그저 결투를 하니까 하는거지.》 뽀르또스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대답했다.

아무것도 놓치는 법이 없는 아또스가 다르따냥의 입술에 알릴듯말듯 얼핏 미소가 스치는것을 포착하였다.

《우리는 옷문제때문에 좀 다투었던것입니다.》

《그럼 자넨 아라미스?》

《난 한가지 신학문제에서의 견해상 불일치때문이지.》 아라미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르따냥에게 눈을 끔뻑하였다. 결투하는 진짜리유를 비밀에 붙여달라는것이였다. 아또스가 다르따냥의 입술에 또다시 미소가 스치는것을 보았다.

《그게 정말인가?》 아또스가 물었다.

《그럼요, 우린 성 오귀스땡에 대한 한가지 문제에서 견해가 서로 달랐던거지요.》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확실히 이 친구는 총명해.) 아또스는 생각하였다.

《그럼 여러분, 당신들이 이렇게 다 모였으니》다르따냥은 말하였다. 《이제부터 난 당신들에게 용서를 빌고저 합니다.》

《용서》라는 말에 아또스는 얼굴이 흐려지고 뽀르또스는 입가에 쓴웃음이 스쳐가고 아라미스는 설레설레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여러분, 당신들은 내 말을 잘못 리해했습니다. 》 다르따냥이 머리를 번쩍 들고 말하였다. 이때 해빛이 머리우에 내리비쳐 그의 섬세하고도 담찬 얼굴에 그늘을 던졌다.

《내 말은 만일 내가 세분을 다 만족시켜드리지 못할 경우에 용서해달라는것입니다. 아또스씨가 제일먼저 나를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뽀르또스씨, 당신에게 진 빚을 갚을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라미스씨, 당신에게 진 빚은 없어지는것으로 될게 아닙니까. 자 여러분, 다시한번 용서를 빕니다.… 그럼 시작해볼가요?》

이 말과 함께 가스꼰뉴의 젊은이는 용감하게 칼을 쭉 뽑아들었다.

그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때 그는 프랑스왕국의 총사들이 몽땅 달려든다고 해도 무섭지 않을것 같았다.

12시 15분이였다. 해는 중천에 걸려있어 결투장소로 택한 풀밭으

로 뙤약볕이 내리쪼이고있었다.

《덥구만.》 아또스가 칼을 마주 뽑아들며 말하였다. 《그런데 난 조끼를 벗을수 없으니 야단 아닌가. 피가 그냥 나오는것 같은데 이 젊은이가 자기탓도 아닌 피를 보고 놀라지나 않겠는지 걱정이거던.》

《여보시오.》 다르따냥이 받았다. 《그 피가 내탓이건 다른 사람의탓이건간에 어쨌든 당신처럼 용감한 귀족의 피를 보게 된다면 난 몹시도 가슴이 아플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조끼를 입은채로 맞서겠습니다.》

《참 멋있어!》 뽀르또스가 부르짖었다. 《하지만 입치레는 그만 하면 됐어! 우리들이 차례를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잊지 말라구. …》

《뽀르또스,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겠거든 자기 혼자의 이름으로 하라구.》 아라미스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나로 말하면 이 두사람의 말이 매우 훌륭하고 고상한 귀족에게 꼭 어울린다고 보네.》

《자, 그럼 시작해볼가요.》 아또스가 위치를 차지하면서 말하였다.

《난 당신의 그 말을 기다렸댔습니다.》 다르따냥이 그와 칼을 맞대며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칼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미처 울리기도 전에 주교의 근위병들 한무리가 쥐싸끄의 인솔하에 수도원모퉁이에 나타났다.

《주교의 근위병들이다!》 뽀르또스와 아라미스가 동시에 소리쳤다. 《칼을 거두게, 칼을 거두라구!》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두 적수의 자세를 보면 모든것이 명백하였던것이다.

《여, 총사들.》 쥐싸끄가 부하들에게 자기를 뒤따르라고 고개짓을 하고 그들에게로 다가오면서 소리쳤다. 《여기서 결투할 차비인가? 국왕전하의 명령을 모르나?》

《근위병여러분, 당신들은 너무 친절하구만요.》 아또스가 격분하여 말하였다. 이틀전에도 그들은 쥐싸끄에게 덮치웠던것이다. 《만일 우리가 당신들이 결투하는걸 보았다면 정말이지 절대로 훼방을 놓지 않았을거요. 제발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그러면 당신들도 공짜로 재미나는 구경을 할수 있을테니까.》

《여러분.》 쥐싸끄가 말하였다. 《참말 안됐지만 그건 안될 말입니다. 우리에겐 의무가 첫째니까요. 칼을 거두고 우릴 따라오시오.》

《여보시오, 존경하는 선생.》 아라미스가 쥐싸끄의 약을 올리면서

말하였다. 《우린 당신의 그 지극히 친절한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싶지만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일이 못된단 말입니다. 뜨레빌각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제 갈길이나 가보시지요. 그게 당신들에게 제일 땅수일테니까.》

아라미스의 비양조에 쥐싸끄는 악이 받쳤다.

《복종하지 않겠다면》 그는 부르짖었다. 《우리는 칠테요.》

《이것들은 다섯이고》 아또스가 소곤거렸다. 《우린 셋뿐이네. 또 질판이야. 아니, 우린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해. 져가지고서야 무슨 낯으로 대장각하를 뵙겠나 말이야.》

아또스, 뽀르또스, 아라미스는 한데 뭉쳐서고 쥐싸끄는 부랴부랴 부하들을 정렬시켰다.

다르따냥은 오래 생각할것도 없었다. 그는 결심하였다. 그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 닥쳐온것이였다. 국왕과 주교, 둘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했으며 일단 택하게 되면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할것이다. 싸움판에 뛰여든다는것은 법을 어긴다는것을 의미하고 목숨을 내댄다는것을 의미하고 국왕이상으로 전능한 주교의 원쑤가 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다르따냥은 이 모든것을 순간에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명예를 위해서 말하거니와 그는 단 한순간도 동요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는 아또스와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실례의 말씀이지만 당신들의 계산은 잘못되였습니다. 당신들은 셋뿐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넷인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당신은 총사가 아니지요.》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그 말은 옳습니다.》 다르따냥은 수긍하였다. 《나는 총사의 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총사입니다. 나는 총사가 된 심정입니다. 난 이걸 알고있고 그렇기때문에 나는 총사로서 행동합니다.》

《비키라구, 젊은이!》 다르따냥의 손짓이며 얼굴표정으로 미루어 그의 의도를 알아차린 쥐싸끄가 소리쳤다. 《자넨 물러가도 돼, 우린 말리지 않을테니까. 목숨을 아끼라구! 냉큼.》

다르따냥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군은 정말 훌륭해.》 아또스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다.

《빨리! 결심을 하시오.》 쥐싸끄가 소리쳤다.

《빨리 무슨 방도가 있어야겠어.》 뽀르또스와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이 젊은 친구가 의협심이 많거던.》 아또스가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르따냥이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는것이 걱정되였다.

《우린 부상자까지 합쳐서 셋이고 거기에다 어린애나 다름없는 젊은이가 하나 더 있지. 그렇지만 저것들은 우리가 넷이였다고 떠벌일걸세.》

《그렇다구 물러설텐가!》

《거야 안되지.》 아또스가 말하였다. 다르따냥은 그들이 주저하는 까닭을 알아차렸다.

《여러분.》 그는 말하였다. 《두고보십시오, 명예를 걸고 맹세하지만 우리가 만일 패한다면 난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용감한 젊은이, 이름은 뭔가?》 아또스가 물었다.

《다르따냥입니다.》

《자, 그럼 아또스, 뽀르또스, 아라미스, 다르따냥, 앞으로!》 아또스가 소리쳤다.

《어떻게 됐나, 여보게들.》 쥐싸끄가 물었다. 《이젠 결심이 됐나?》

《죄다 결심이 됐소.》 아또스가 대답했다.

《어느쪽으로?》 쥐싸끄가 물었다.

《우린 당신들을 치자는거요.》 아라미스가 한손으로는 모자를 살짝 쳐들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뽑으면서 말하였다.

《그렇단 말이지. … 엇선단 말이지!》 쥐싸끄가 부르짖었다.

《엇서지 못할건 뭐야! 어때, 무서운가?》

이리하여 아홉사람은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일정하게 조심하는것은 잊지 않았다.

아또스는 주교의 총애를 받는 까위자끄와 싸우고 뽀르또스는 비까라와 맞섰으며 아라미스는 두명과 대적하게 되였다.

다르따냥으로 말한다면 그는 쥐싸끄를 상대하게 되였다.

가스꼰뉴청년의 심장은 흉벽이 터져나갈 지경으로 세차게 뛰였다.

공포때문이 아니라(그는 꼬물만큼도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흥분때문이였다. 그는 전술과 위치를 스무번나마 바꾸어가면서 성난 호랑이처럼 싸웠다. 쥐싸끄는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칼의 명수》였으며 경험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래고 빠른 적수의 공격을 막기에 땀을 빼고있었다. 다르따냥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법을 무

시하고 사면팔방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털끝만치라도 상할세라 빈틈없이 방어를 하였기때문이다.

끝내 쥐싸끄는 참을성을 잃어버렸다. 애숭이로 여겼던 적수를 도무지 감당해낼수 없는것으로 하여 부아통이 뒤집힌 그는 그만 분별을 잃고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기 시작하였다. 다르따냥은 경험은 어리지만 그대신 리론은 잘 알고있었으므로 동작의 속도를 바짝 높이였다. 아퀴를 지어버리기로 결심한 쥐싸끄는 적수에게 치명상을 입힐 작정으로 칼을 힘껏 내찔렀다. 그러나 다르따냥은 날쌔게 타격을 막아내고 쥐싸끄가 허리를 펴는 순간에 흡사 뱀과도 같이 그의 손밑에서 빠져나오면서 자기의 칼로 그에게 맞구멍을 내버렸다. 쥐싸끄는 밑둥잘린 나무처럼 풀썩 꺼꾸러졌다. 자기의 적수를 처리해버린 다르따냥은 불안스러운 눈길로 전장을 얼핏 둘러보았다.

아라미스는 적수 하나를 이미 제껴버렸으나 두번째 적수가 그를 바싹 죄고있었다. 하지만 형세는 역시 아라미스쪽이 유리하였으며 아직 별다른 일은 없었다.

비까라와 뽀르또스는 재치있게 싸우고있었다. 뽀르또스는 이미 팔을 상하고 비까라는 허벅다리를 상하였다. 어느쪽이나 다 치명상은 아니였으므로 두사람은 더욱더 기승스럽게 격검솜씨를 시위하고있었다.

아또스는 까위자끄에게 두군데나 상처를 입어 각일각으로 얼굴이 피기를 잃고있었으나 그러면서도 단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있었다. 그는 단지 칼을 다른 손에 옮겨잡아 지금은 왼손으로 싸울뿐이였다.

다르따냥은 당시의 결투법칙에 따라 자기편가운데 한사람을 도와줄 권리가 있었다. 자기의 방조가 누구에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겠는지 몰라 망설이고 서있던 그는 문득 아또스와 눈길이 마주쳤다. 그 눈길이 모든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었다. 아또스는 죽을지언정 살려달라고 빌붙을줄 모르는 사람이였다. 그러나 그는 눈길로써 지원을 부탁했다. 다르따냥은 그런 눈치를 알아차리고 앞으로 불쑥 나서서 까위자끄의 측면으로 달려들며 소리쳤다.

《근위병나으리, 이쪽으로! 당신을 죽여버릴테요.》 까위자끄는 돌아섰다. 때마침이였다. 희한하리만큼 강의한 덕분으로 지금껏 간신히 지탱해오던 아또스가 한쪽무릎을 꺾고 털썩 주저앉았다.

《개판이군!》 그가 소리쳤다. 《그 자식을 죽이지 말라구, 젊은이.

내 몸이 다 추선 다음에 묵은 빚을 계산할게 있네. 그저 칼만 떨궈버리라구. … 그렇지. … 잘해! 잘해!》

까위자끄의 칼이 스무발자국나마 되게 멀리 날아가 떨어지는것을 보고 아또스가 환성을 질렀다. 다르따냥과 까위자끄가 동시에 그쪽으로 내달았다. 한사람은 칼을 도로 잡기 위하여 또 한사람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였다.

몸이 날랜 다르따냥이 먼저 달려가 칼날을 발로 밟았다.

까위자끄는 아라미스의 손에 죽은 근위병에게 달려가 그의 칼을 집어들고 다르따냥에게 덤벼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잠간동안에 이미 한숨을 돌린 아또스와 마주쳤다. 다르따냥이 자기의 원쑤를 죽여버릴가봐 우려되여 아또스는 다시 싸움에 나서기로 한것이였다.

다르따냥은 자기가 방해를 놀면 그것은 곧 아또스에 대한 모욕으로 된다는것을 깨달았다. 아닌게아니라 까위자끄는 얼마 못 가서 꺼꾸러졌다. 아또스의 칼이 그의 가슴팍을 찌른것이였다.

바로 그 시각 아라미스는 쓰러진 적수의 가슴팍에 칼끝을 들이대고 항복을 받아내고있었다. 뽀르또스와 비까라가 계속 싸우고있었다. 그런데 비까라는 죽지 않는 한 절대로 꺼꾸러지지 않는 억센 사나이였다. 이러나저러나 빨리 끝내야 하였다. 순찰대가 나타나 성한 사람이건 상한 사람이건, 국왕의 사람이건 주교의 사람이건 가림없이 모조리 체포할수 있었다. 아또스와 아라미스, 다르따냥은 비까라를 에워싸고 항복을 요구하였다. 비까라는 허벅다리에 부상을 입은 몸으로 상대측 전체를 상대로 하면서도 항복은 한사코 거절하였다. 그러나 쥐싸끄가 한쪽팔꿈치에 의지하여 몸을 엉거주춤 일으키고 그더러 항복을 하라고 소리쳤다. 비까라는 다르따냥과 마찬가지로 가스꼰뉴내기였다. 그는 들은체도 않으면서 껄껄 웃기만 하였다. 그는 계속 칼을 휘둘러대면서 한편으로 땅우의 한점을 칼끝으로 가리켰다.

《바로 여기서》 그는 성서의 한구절을 흉내내여 외워댔다. 《바로 여기서 다 죽고 혼자 살아남은 비까라는 죽으리로다.》

《자네 혼자서 넷을 무슨 수로 당해. 명령이야, 항복하라구.》

《명령이라면 사정이 다르지요. 당신은 나의 상관이고 난 복종할 의무밖에 없으니까.》

이 말과 함께 한발자국 물러서자 그는 자기의 칼을 두동강내버렸다. 적수에게 넘겨주지 않으려는것이였다. 그는 칼토막을 수도원담장너머

로 집어던지고 팔짱을 끼더니 주교를 찬양하는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하였다.

용감성이란 비록 상대가 원쑤라고 할지라도 존경심을 자아내기마련이다. 총사들은 근위병의 용감성에 칼을 들어 경의를 표하였다. 다르따냥은 그들이 하는대로 따라하고는 근위병들가운데서 유일하게 몸이 성한 비까라와 함께 쥐싸끄와 까위자끄 그리고 아라미스의 칼에 부상을 당하고 목숨만은 건진 근위병을 수도원현관으로 날라갔다. 나머지 근위병 한사람은 이미 알고있는것처럼 죽었었다. 그리고나서 그들은 상대편의 칼 다섯자루가운데서 네자루를 전리품으로 빼앗아가지고 기쁨에 넘쳐 뜨레빌각하의 저택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팔을 끼고 맞다드는 총사들마다 말을 걸면서 거리가 좁다하게 걸어갔다. 그 광경은 마치도 개선행진과도 같았다. 다르따냥은 환희에 넘쳐있었다. 그는 량쪽에 아또스와 뽀르또스를 정답게 끼고갔다.

《내 아직은 총사가 아니지만》 뜨레빌의 저택앞에서 그는 새로 만난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적어도 견습생쯤은 된다고 생각하는게 어떨가요?》

제 6 장

프랑스국왕 루이13세

이번사건은 대소동을 일으켰다. 뜨레빌씨는 말로는 자기의 총사들을 나무랐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기뻐하였다. 그렇지만 시간을 놓쳐서는 안되였다. 당장 국왕에게 보고해야 하였다. 하여 그는 서둘러 루브르궁전으로 갔다. 하지만 한발 늦었다. 주교가 먼저 와서 국왕과 조용히 만나고있었던것이다. 국왕은 바쁘기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만날수 없다는 전갈이 나왔다. 할수없이 뜨레빌은 저녁에 국왕이 노름을 하는 시간을 택하여 찾아갔다. 무서운 가난뱅이였던 왕은 오늘 노름이 잘돼서 기분상태가 매우 좋았다.

《이리 오시오, 대장.》 국왕은 멀리서부터 그를 띄여보고 말하였

다. 《내 당신을 책할수 있게 가까이 오시오. 그래 주교님이 당신네 총사들의 일로 내게 푸념을 하러 왔던걸 아오? 그는 얼마나 분했던지 날 만나고 가서는 아예 자리에 누워버렸소. 도대체 뭔가 말이요. 당신네 총사들은 그런 망나니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 일이 재미없게 번져진다는것을 감촉한 뜨레빌이 대답하였다. 《그와는 정 반대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착하고 새끼양처럼 온순하고 전하를 위하는 일에서만 칼을 뽑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교님의 근위병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집적거리는데야 그들인들 어찌겠습니까. 그 가엾은 젊은이들은 총사대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자기를 지키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총사대장, 내 말 듣소.》 왕이 부르짖었다. 《내 말 듣소! 아무래도 난 당신을 그 총사대 대장직에서 떼고 그 자리에 슈메로부인을 앉혀야 할가보오. 원래는 그 녀자에게 수도원원장을 시켜주마고 약속을 했댔지만 말이요. 내가 당신의 말을 믿으리라고는 생각도 마오. 사람들은 나를 공정한 루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두고보면 알게 될게요.》

《전하, 저는 전하께서 바로 공정하신분이신줄 알기때문에 참을성있게 조용히 전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오, 조금만.》 왕은 말하였다. 《난 오래 기다리게는 하지 않을테니.》

노름판의 형세는 이때쯤에 와서 왕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그는 돈을 떼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꽁무니를 사릴(무엄한 표현을 용서하시라.) 차비를 하였다. 몇분후 왕은 일어나서 자기앞에 놓여있는 돈을(거의 전부가 따낸 돈이였다.) 호주머니에 쓸어넣으면서 말하였다.

《비어빌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앉소. 난 뜨레빌씨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소. 그렇지, 내앞에 80루이가 있었댔지. 당신도 그만큼 대라구, 잃은 사람이 섭섭치 않게. 뭐니뭐니 해도 공정성이 첫째거던!》

그리고는 뜨레빌을 돌아다보았다.

《그러니까》 왕은 뜨레빌과 함께 창가로 걸어가면서 말하였다. 《당신의 말은 주교의 근위병들이 당신의 총사들을 먼저 건드렸다는거지?》

《그렇습니다. 전하, 거야 뻔하지요.》

《그렇다면 이번일은 대체 어떻게 일어났다는거요? 말해보시오, 당신도 심판관은 량쪽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걸 알고있을테니까.》

《참 어처구니없지요. 이번사건의 전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세 총사들인 아또스와 뽀르또스 그리고 아라미스(그들의 이름은 전하께서 이미 여러차례 치하하신적이 있어 잘 알고계시는것이고 또 그들은 내 장담하지만 전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만) 나의 그 세 총사가 바로 오늘 아침 내가 그들의 보호에 맡긴 가스꼰뉴청년과 함께 쌩－재르맹에서 산보를 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데쇼수도원옆의 풀밭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쥐싸끄가 까위자끄와 비까라, 그밖에 두 근위병을 달고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무리로 나타난것은 분명히 전하의 어명을 어기자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옳거니, 이제야 알겠군.》 왕은 말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결투를 할 차비였단 말이지?》

《전하, 저는 그들을 고발하자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무장을 갖춘 다섯사람이 그 으슥한 수도원옆에 올 때에야 목적이 무엇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당신 말이 옳소. 뜨레빌, 당신 말이 옳아!》

《그런데 나의 총사들을 보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저들사이의 개인적인 적의가 부대들사이의 적의에게 밀려난것입니다. 전하께서도 아시다싶이 오직 전하께만, 오직 전하 한분에게만 충실한 총사들이 주교님에게 충실한 근위병들에게는 눈에 든 가시거던요.》

《옳아, 뜨레빌, 옳단 말이요.》 왕은 서글피 말하였다. 《우리 프랑스에 서로 앙숙인 두 파가 있다는건 가슴아픈 일이요. 이 나라에 령수가 둘이라는건 매우 가슴아픈 일이거던. 그러나 그것도 다 끝장나게 되오. 뜨레빌, 끝장나게 된단 말이요. … 그러니까 당신 말은 근위병들이 총사들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는거지?》

《일은 십중팔구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확언은 할수 없습니다. 진상을 밝힌다는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것은 전하께서도 아실것입니다. 그건 공정한 루이로 불리우실만큼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전하가 아니고서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옳은 말이요. 뜨레빌, 그런데 그 자리엔 당신의 총사들만이 아니

였지. 어린애나 다름없는 청년이 있었지.》
《그렇습니다. 전하, 그리고 부상자도 한명 있었습니다. 결국 부상자도 포함한 총사 세명과 아이 하나가 주교님의 가장 뛰여난 근위병 다섯과 대적하였고 지어 그가운데 넷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구만!》왕은 희색이 만면하여 부르짖었다. 《통쾌한 승리요!》
《그렇습니다. 전하, 아주 통쾌한 승리지요.》
《넷가운데 하나는 부상을 입었고 하나는 어린애나 마찬가지라고 했겠다!》
《그는 청년으로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얼마나 훌륭히 싸웠겠습니까. 그래서 전하께 꼭 소개하고싶었댔습니다.》
《이름은 뭔데?》
《다르따냥이라고 합니다. 전하, 저의 옛친구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하의 아버님을 따라 의용병으로 전쟁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소년이 잘 싸웠단 말이지? 뜨레빌, 그걸 좀 자세하게 얘기하오. 내가 전쟁이며 결투이야기를 좋아한다는것을 당신도 알지 않소.》
그리고나서 왕은 틀지게 몸을 젖히고 코수염을 꼬아붙였다.
《전하.》 뜨레빌은 말을 이었다. 《이미 말씀드린것처럼 다르따냥은 아직 어린애나 다름이 없고 또 총사가 아니기때문에 여느 시민들처럼 옷을 입고있었습니다. 주교님의 근위병들은 그가 몹시 어리고 총사대원도 아닌것을 보고 자기들이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물러가라고 일렀습니다. …》
《그것 보란 말이요.》 왕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들이 먼저 달려들었거던.》
《옳은 말씀입니다. 전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러가라는 그들의 말에 청년은 자기는 마음속으로는 총사이고 전하께 충성을 다하려는 사람이므로 총사들과 함께 있겠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기특하군!》 왕은 소곤거렸다.
《그는 실지로 그들과 함께 싸웠던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참말로 훌륭한 무사를 하나 얻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교님이 노발대발하리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쥐싸끄에게 안긴것은 바로 그였기때문이지요.》
《그가 쥐싸끄를 찔렀다구?》 왕은 부르짖었다. 《그가? 어린애가?

그럴수가 없어, 뜨레빌!》
《죄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쥐싸끄는 전프랑스적으로 손꼽히는 검객이란 말이요.》
《옳습니다. 전하, 그는 자기보다 우세한 적과 맞섰던것입니다.》
《난 그 청년을 만나보고싶소. 뜨레빌, 그 청년을 만나보고싶단 말이요.》
《전하께서는 언제쯤 그를 만나주시겠습니까?》
《래일 낮 12시에, 뜨레빌.》
《그 사람 하나만 데리고올가요?》
《아니, 네사람을 다. 난 그들 네사람에게 동시에 치사를 하고싶소. 충실한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거고 충실한 사람은 치하를 받아 마땅한거요.》
《그럼 저희들은 낮 12시에 루브르궁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작은 문으로. 뜨레빌, 작은 문으로 해서, 주교가 알아서 좋을건 없거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하.》
《알겠지만 뜨레빌, 칙명은 어디까지나 칙명이거던. 결투는 금지되여있단 말이요.》
《그렇지만 전하, 이번싸움은 여느 결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것이였습니다. 그건 무장충돌이였습니다. 그들 다섯명이 나의 총사 세명과 다르따냥 네사람을 공격했으니까요.》
《그건 옳소.》 왕이 말하였다. 《하지만 어쨌든간에 작은 문으로 해서 오시오.》 뜨레빌의 얼굴에 미소가 피여올랐다. 그는 학생이 스승에게 반발하게 하는데 드디여 성공하였던것이다. (9살때에 즉위한 루이13세는 이때 25살이였으며 리슐리에는 그의 고문관이였음—역자주) 그것은 결코 작은것이 아니였다. 그는 왕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어전을 물러나왔다.
세 총사는 그날 저녁으로 왕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는 전갈을 받았다.
그들은 이미전부터 여러번 왕을 만나보았으므로 그닥 흥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르따냥은 이것을 앞날의 성공을 약속해주는 좋은 전조로 보고 자기의 그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밤새도록 화려한 꿈속에 잠겨있었다. 그리고 아침 8시에는 벌써 아또스의 집에 가있

었다.
다르따냥이 갔을 때 아또스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서려는 참이였다. 접견은 12시로 예견되여있었으므로 아또스는 뽀르또스, 아라미스와 룩셈부르그궁전 마구간곁의 주막에 가서 공던지기를 하기로 약속이 되여있었다. 다르따냥은 그가 함께 가자고 청하므로 비록 그런 놀음은 할줄 몰랐지만 동의하였다. 겨우 9시였으므로 그는 12시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였던것이다.
뽀르또스와 아라미스는 먼저 와서 이미 공던지기를 하고있었다. 그 어떤 운동에서나 특별히 재간이 뛰여난 아또스는 다르따냥과 함께 맞은편자리를 차지하고 도전하였다. 그러나 그는 비록 왼손을 썼지만 자기의 상처가 이런 운동을 하기에는 아직 때가 너무 이르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다나니 다르따냥이 혼자서 대적하게 되였다. 뽀르또스와 아라미스는 그가 공던지기를 거의나 해본적이 없다는것을 알고 점수는 따지지 않고 그저 공을 던져넘기기만 하였다. 뽀르또스가 억센 손으로 던진 공이 하마트면 다르따냥의 얼굴에 맞을번 하였다. 다르따냥은 공이 옆으로 스쳐지났으니망정이지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다면 왕의 접견을 받는 일은 틀어지고말았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얼굴을 상해가지고는 궁전에 나타날수 없을것이기때문이였다. 그런데 그의 장래는 그 접견에 달려있었던것이다. 그는 뽀르또스와 아라미스에게 깍듯이 허리를 굽혀보이고나서 그들과 겨룰수 있을만큼 준비가 된 다음에 다시 계속하자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바줄을 넘어가 구경군들속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일이 안되려니 구경군들속에 주교의 근위병이 하나 있었다. 그는 방금 어제 자기 동무들이 당한 패배에 속이 뒤집혀나 기어이 앙갚음을 하리라고 윽윽하던 참이였다. 그는 이때라고 생각하였다.
《이 애가》 그는 옆사람에게 지껄였다. 《공에 얻어맞을가봐 겁을 먹은게 분명해. 보아하니 견습총사인것 같군.》
다르따냥은 뱀에게라도 물린것처럼 홱 고개를 돌려 함부로 혀바닥을 놀려대는 그 사람을 쏘아보았다.
《왜 그러나?》 근위병은 조롱하듯이 코수염을 비비꼬며 말하였다. 《어디 실컷 보라구. 내 말이 뭐가 잘못됐다는건가?》
《당신의 말뜻은 너무도 명백하니 해명할것도 없습니다.》 다르따냥은 대꾸하였다. 《날 따라오기 바랍니다.》

《언제 말인가?》 근위병이 여전히 비양조로 물었다.
《지금 당장이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것 같은데.》
《난 그따위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공연한짓이요! 내 이름을 듣는다면 당신은 이렇게까지 급하게 굴진 않을거요.》
《그래, 이름이 뭡니까?》
《배르나쥬인줄 아뢰오!》
《그렇다면 배르나쥬씨.》 다르따냥은 침착하게 대꾸하였다. 《난 문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가시지요. 나으리, 내 뒤따라갈테니요.》
《우리가 나가는걸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너무 덤벼치진 말구요. 우리들의 일에는 목격자가 재미없으니까요.》
《좋아.》 자기의 이름이 아무런 반응도 불러일으키지 않은데 놀란 근위병이 말하였다.
배르냐쥬의 이름은 사실 다르따냥 한사람을 내놓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왕과 주교의 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벌어지는 싸움판들에 거의 빠지는 일이 없기때문이였다.
뽀르또스와 아라미스는 놀음놀이에 여념이 없고 아또스는 그들의 놀음을 구경하는데 정신이 팔려있었으므로 그가 나가는것을 보지 못하였다. 다르따냥은 약속한대로 문앞에서 멈춰섰다. 뒤미처 근위병이 나왔다. 다르따냥은 12시로 예정된 왕과의 접견에 늦어질가봐 마음이 조급하였다. 둘러보니 거리는 텅 비여있었다.
《정말이지》 그는 적수에게 말하였다. 《아무리 배르나쥬라고 해도 당신은 운수가 좋은줄 아시오. 풋내기같은 견습총사와 맞다들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마시오. 난 힘자라는껏 싸울테니까요. 자, 해봅시다.》
《그런데 이거…》 근위병이 말하였다. 《장소가 씨원치 못한것 같구만. 쌩―재르맹수도원이나 뽀레오 끌레르끄광장쪽이 낫지 않을가.》
《그 말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유감스럽게도 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각 12시에 누굴 만나기로 되여있거던요. 그러니 자, 시작합시다. 어서요.》
그런 요구를 두번다시 곱씹게 할 배르나쥬가 아니였다. 당장에 그

의 손에서 칼이 번쩍하더니 그는 공격에로 넘어왔다. 그는 다르따냥을 한낱 애숭이로만 알고 놀래워놓을 잡도리로 나왔다.

그렇지만 다르따냥은 어제 이미 좋은 경험을 쌓았다. 그는 승리에 대한 신심과 이제 왕의 접견을 받는다는 긍지감에 넘쳐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결심이였다. 쟁강소리와 함께 칼들이 서로 엇갈리였다. 다르따냥은 딱 버티고 서서 끄떡도 않았다. 상대방은 한걸음 물러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물러서면서 칼이 약간 기울어진 틈을 타서 다르따냥은 앞으로 내달으면서 적수의 어깨를 찔렀다. 그리고는 즉시 한걸음 물러서면서 칼을 추켜들었다. 배르나쥬는 그쯤은 아무렇지도 않노라고 소리치면서 무작정 달려나오다가 도리여 다르따냥의 칼에 찔렸다. 그러나 그가 쓰러지지도 항복도 하지 않고 자기의 친척 하나가 근위병으로 근무하고있는 라 뜨레무이의 저택쪽으로 뒤걸음질치기 시작하였다. 자기의 마지막번 타격이 얼마나 드센것이였는지 몰랐던 다르따냥은 완강하게 죄여들어갔으며 필시 끝장을 내고야말았을것이다. 그런데 거리의 소음을 공던지기를 하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다. 아까 자기들의 동료 하나가 다르따냥과 몇마디 주고받고 하다가 그를 뒤따라나가는것을 본 두 근위병이 칼을 뽑아들고 밖으로 달려나와 다르따냥에게 덤벼들었다. 바로 그때 아또스와 뽀르또스, 아라미스도 달려나와 자기들의 젊은 친구를 공격하고있는 두 근위병에게 달려들었다. 근위병들은 돌아서서 그들과 맞서게 되였다. 바로 그 순간 배르나쥬는 쓰러졌다. 둘이서 네사람을 대적하게 된 근위병들은 고함을 쳤다.

《라 뜨레무이의 사람들, 모두 나오라!》

그 소리에 라 뜨레무이의 저택에 있던 사람들이 몽땅 쓸어나와 네 총사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자 총사들도 소리쳤다.

《총사들, 모두 나오라!》

총사들의 호소는 반응이 좋았다. 총사들이 주교의 원쑤라는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있었으며 주교에 대한 적의로 하여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동정을 받았다. 때문에 아라미스가 표현한바 붉은 공작에게 복무하지 않는 다른 련대의 근위병들은 이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총사들의 편을 들었다. 그때 마침 데제싸르의 련대 근위병 셋이 여기를 지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가운데 두사람은 총사들을 도우러 달려오고

나머지 한사람은 뜨레빌의 저택쪽으로 줄달음치면서 소리쳤다.
《총사들, 모두 나오라! 모두 나오라!》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뜨레빌의 저택마당에는 총사들이 우글우글하였다. 그들이 자기 동무들을 도우려고 부랴부랴 달려나왔다. 일대 혼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총사들편이 우세를 보였다. 주교의 근위병들과 라 뜨레무이의 사람들은 저택마당으로 퇴각하여 상대편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얼른 대문을 닫아버렸다. 중태에 빠진 배르나쥬는 이미 집안으로 날라간 뒤였다.
총사들과 그 응원자들의 흥분은 극도에 이르렀다. 라 뜨레무이의 사람들이 왕의 총사들을 공격한데 대한 보복으로 저택에 불을 질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였다. 누군가가 내놓은 그 제의에 모두들 환성을 올렸다. 다행히도 그때 종이 11시를 알렸다. 다르따냥과 그의 친구들은 이제 왕의 접견을 받게 된다는것을 상기하였다. 그들은 이처럼 멋들어진 놀이판을 놓친다는것이 여간만 아쉽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한껏 흥분한 머리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역시 돌 몇개는 대문을 때렸다. 대문은 끄떡도 없었다. 이에 군중은 열이 좀 식었다. 거기다가 두령들은 이미 군중에게서 물러나와 뜨레빌의 저택으로 향하였다. 거기서는 이번 소동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뜨레빌이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빨리 루브르궁전으로!》 그는 말하였다. 《잠시도 지체하여서는 안돼. 주교가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선손을 써야 하네. 이번 일을 어제 있은 일의 연장으로 꾸며서 두 사건을 하나로 맞물리자구.》
뜨레빌은 네사람을 대동하고 루브르궁전으로 서둘러갔다. 그런데 가보니 천만뜻밖에도 왕은 쌩－재르맹숲으로 사슴사냥을 나가고 없다는것이였다.
《전하께서는 오늘사냥을 어제부터 계획하셨댔나?》
《아니올시다.》 시종이 대답하였다. 《오늘 아침에 도포수가 와서 아뢰기를 밤에 사슴 한마리를 몰아다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처음에 안 가겠노라 하시더니 아무래도 그런 즐거움을 물리치지 못하시겠던지 떠나가시더군요.》
《전하께서는 떠나기 전에 주교를 만나지 않으셨소?》 뜨레빌이 물었다.

《만나신줄로 압니다.》 시종이 대답하였다. 《오늘 아침 저는 문앞에 주교님의 마차가 서있는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어딜 가시는가고 물었더니 쌩－재르맹으로 간다는 대답이였습니다.》

《한발 늦었군.》 뜨레빌이 말하였다. 《여보게들, 난 저녁에 전하를 만나뵈올테네. 군들은 전하앞에 얼씬하지 않는게 좋아.》

옳은 말인것 같았다. 더구나 그것은 왕을 속속들이 알고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였다. 네 친구는 가타부타하지 않았다. 뜨레빌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 다음지시를 기다리라고 일렀다.

집으로 돌아온 뜨레빌은 선손을 떼운것이 분하여 참을수 없었다. 그는 하인을 시켜 라 뜨레무이에게 편지를 보내서 주교에게 복무하는 근위병을 집에서 내쫓고 감히 총사들에게 덤벼든 자기 사람들을 징계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베르나쥬와 친척벌이 되는 자기의 마부에게서 사건의 전말을 이미 들어서 알고있던 라 뜨레무이는 총사들이 자기 집사람들을 공격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므로 불평은 뜨레빌이나 총사들이 아니라 자기가 말해야 할것이라는 대답을 보내왔다. 두 귀족이 자기 주장만 고집한다면 말싸움은 언제 가도 끝나지 않을것이였다. 그러나 뜨레빌이 모든것을 명백히 밝힐 방도를 생각해냈다. 그는 직접 라 뜨레무이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두 귀족은 깍듯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친분관계는 없어도 호상 존경하는 그들이였다. 둘이 다 명예가 있고 대범한 사람들이였다. 라 뜨레무이는 신교도로서 궁전에 드나드는 일이 드물다보니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대하는데서 선입견이라는것을 몰랐다. 그러나 이번만은 뜨레빌을 맞는 태도가 비록 정중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때보다는 쌀쌀하였다.

《라 뜨레무이씨.》 총사대 대장이 말하였다. 《우리는 서로 자기쪽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있지요. 그래서 나는 사건의 진상을 둘이서 함께 밝혀보자고 온것입니다.》

《좋습니다.》 라 뜨레무이가 대꾸하였다. 《그렇지만 똑똑히 말씀드리는데 모든 잘못은 당신네 총사들에게 있다는것을 나는 잘 알고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제의를 물리치기에는 너무나도 사려깊고 공정한분인줄 아는데요.》

《말씀하시지요. 어디 들어봅시다.》
《배르나쥬씨의 몸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부와 친척이 되는 사람 말입니다.》
《매우 위독합니다. 팔에 입은 상처는 조금도 위험할것이 없지만 두번째 타격에 페를 다쳤거던요. 의사의 말은 거의나 가망이 없다는겁니다.》
《그 사람이 의식은 있는가요?》
《의식은 아주 똑똑합니다.》
《말은 할수 있는가요?》
《힘이 드는대로 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서 머지않아 그를 불러주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있은 사실을 그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합시다. 나는 그가 자기 신상에 있은 일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심판관이 되게 하자는것이고 나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라 뜨레무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였다. 그러나 그이상 더 합리적인 방안은 찾기 어렵다는것을 깨닫고 동의하였다.
두사람은 배르나쥬가 누워있는 방으로 내려갔다. 두사람이 들어서는것을 보자 배르나쥬는 몸을 일으키려고 애쓰다가 기진맥진하여 의식을 잃고 뒤로 벌렁 자빠져버렸다.
좀 지나서 그는 정신을 차렸다. 뜨레빌은 자기가 나서면 환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비난을 받을것 같아서 라 뜨레무이더러 직접 물어보라고 권하였다.
일은 뜨레빌이 예상했던 그대로 되였다. 생명이 경각에 이른 지금 배르나쥬는 사건의 진상을 감출수 없었다. 그는 실지로 있은 그대로 죄다 말하였다.
뜨레빌이 바라는것은 그것뿐이였다. 그는 배르나쥬에게 하루속히 완쾌할것을 축원한 다음 라 뜨레무이와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 즉시 네사람에게 사람을 띄워 점심식사에 청하였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야기는 주교의 근위병들이 두번 연거퍼 당한 참패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그런데 두번에 걸치는 싸움에서 주인공은 다르따냥이였으므로 모든 찬사는 그에게 집중되였다. 아또스와 뽀르또스, 아라미스는 진정한 벗으로서 그리고 그런 영광을 이미 여러번 지녔던 사람들로서 다르따냥에게 기꺼이 양보하였던것이다.

6시가 되자 뜨레빌은 루브르궁전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접견을 받기로 예정되였던 시간이 지났으므로 작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네사람과 함께 응접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왕은 아직 사냥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반시간쯤 기다렸을 때 갑자기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면서 왕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르따냥은 가슴이 활랑거렸다. 앞으로의 그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왕이 들어가게 될 문을 지켜보았다.

루이13세가 문간에 나타났다. 왕은 먼지가 뽀얗게 앉은 사냥복에 목이 긴 장화를 신고있었다. 손에는 채찍이 들려있었다. 첫눈에 다르따냥은 벼락이 쏟아지리라는것을 감촉하였다.

왕의 기분상태가 매우 나쁘다는것을 알면서도 궁신들은 그가 가는 길옆에 쭉 늘어섰다. 왕의 응접실에서는 사람들이 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차라리 그의 노한 시선을 받으려고 한다. 때문에 세 총사는 자기들의 등뒤에 애써 숨는 다르따냥과는 반대로 서슴없이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왕은 아또스와 뽀르또스, 아라미스를 잘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생면부지의 사람들인것처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이 앞을 지나쳐버렸다. 뜨레빌로 말한다면 그는 왕이 자기를 바라다볼 때 얼마나 태연하게 그 눈길을 받았던지 왕쪽에서 먼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다음 왕은 뭐라고 알지 못할 소리를 웅얼웅얼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개판이군.》 아또스가 싱긋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은 훈장이고 뭐고 글렀어.》

《여기서 10분쯤 기다리고있게.》 뜨레빌이 말하였다. 《그때까지 내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집으로 가게. 더 기다린대야 소용없으니까.》

네 친구는 10분, 15분, 20분을 기다렸다. 그래도 뜨레빌이 나타나지 않는것을 보자 그들은 속이 한줌만 해서 궁전을 나왔다.

뜨레빌은 크게 마음을 도사려먹고 왕의 서재로 들어갔다. 왕의 기분상태는 나빴다. 왕은 걸상에 앉아서 채찍손잡이로 장화를 툭툭 치고있었다. 뜨레빌은 당황하지 않고 태연스럽게 그의 안부를 물었다.

《말이 아니요, 말이 아니란 말이요.》 왕은 대답하였다. 《갑갑해 못 견디겠소.》

《무슨 말씀이신지!》 뜨레빌이 부르짖었다. 《전하께서 갑갑하시단 말씀입니까? 전하께서는 오늘 사냥을 즐기지 않으셨는가요?》

《참 재미있었지. 더 말할게 있나!》 왕이 게두덜거렸다. 《모든게 점점 망태기란 말이요, 정말이지! 짐승들이 이젠 발자국을 안 남기는지, 개들이 냄새를 맡지 못하는지 통 알수가 없거던. 우린 큼직한 엄지사슴을 6시간이나 따라다니던 끝에 거의다 잡게 돼서 쌩 씨몽이 금시 뿔나팔을 입에 가져다대려는 참인데 갑자기 개들이 옆으로 벗어나서 조꼬만 새끼사슴에게 달려들지 않겠소. 난 매사냥을 집어치운것처럼 몰이사냥은 집어치울테니 두고보시오. 여보시오 뜨레빌, 난 정말 운이 나쁜 왕이거던. 겨우 한마리 남았던 매마저 사흘전에 죽어버렸단 말이요.》

《전하의 그 심정 리해됩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전하께서 아직 매, 새매들을 퍼그나 많이 가지고계신줄 아는데요?》

《그것을 길들일 사람이 있어야지. 매사냥군들은 하나, 둘 다 없어지오. 매사냥묘기를 아는건 이젠 나 혼자뿐이요. 나까지 없으면 그땐 다요. 덫이요, 함정이요, 옹노요 하는 따위를 가지고 짐승잡이를 하게 될거요! 나라도 후비들을 키울수 있겠지만… 주교님이 에스빠냐가 어떻소, 오스트리아가 어떻소, 영국이 어떻소 하면서 잠시라도 가만히 놔둬야 말이지! 참 주교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뜨레빌씨, 당신은 왜 그 모양이요.》

뜨레빌은 바로 이것을 기다리고있었다. 왕과 알고지내는지가 오랜 그는 왕의 이러한 푸념질은 자기의 용기를 돋구기 위한 서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진짜로 하고싶은 말은 이제부터 시작될것이였다.

《제가 전하앞에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뜨레빌이 짐짓 놀란 얼굴로 물었다.

《당신은 그래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오?》 왕은 뜨레빌의 물음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면서 말하였다. 《그래, 당신네 부하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온 거리바닥이 들썩하게 소동을 일으키고 온 빠리를 불바다로 만들짓을 하게 내버려두라고 당신을 총사대 대장자리에 앉힌줄 아오? 그런데도 당신은 그 일에 대해서 찍소리 한마디 없단 말이요. 하긴 내가 당신을 공연히 나무라는지도 모르지. 범

인들은 지금쯤 이미 철창속에 갇힌 신세가 되고 당신은 그것들이 재판받았다는걸 내게 보고하자고 왔을테지.》

《아닙니다, 전하.》 뜨레빌은 침착하게 말하였다. 《저는 전하께서 재판해주실것을 청원하려고 왔습니다.》

《누굴 재판한다는거요?》 국왕이 부르짖었다.

《거짓말쟁이를 말입니다.》 뜨레빌이 대답하였다.

《한다는 소리가!》 왕이 부르짖었다. 《당신의 그 때려죽일 총사들, 아또스, 뽀르또스, 아라미스가 그 베아른의 애녀석이랑 같이 가엾은 베르나쥬에게 달려들어 탕치듯 하고도 그런 소리요? 그 사람은 지금 마지막숨을 쉬고있을게요. 그놈들은 라 뜨레무이공작의 집을 에워싸고 집을 불살라버리려고 했단 말이요. 전쟁을 하는 때라면 그 집은 신교도들의 소굴이니까 그래도 별일없겠지만 지금과 같은 태평세월에는 영향이 아주 나쁘단 말이요. 자, 말해보오. 그래, 이 모든걸 부정할 작정이요?》

《도대체 누가 그따위 허튼소릴 합니까?》 뜨레빌이 여전히 태연자약하게 말하였다.

《누가 말했는가구? 그야 내가 편히 잠을 잘 때 밤을 새우는 사람,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국내외의 모든 일, 프랑스와 유럽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대신해서 도맡아 보아주는 사람이지 누구겠소?》

《전하께서는 분명 하느님을 념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것 같은데요.》 뜨레빌이 말하였다. 《왜냐하면 전하보다 높이 계신분은 하느님뿐인줄 알기때문입니다.》

《아니요. 나는 이 나라의 기둥, 나의 유일한 종, 유일한 벗인 주교님을 두고 하는 말이요.》

《주교님은 결코 교황이 아니지요.》

《당신은 뭘 말하자는거요?》

《이 세상에 깨끗한분은 교황 한분뿐이고 주교들은 그만큼 깨끗하지 못하다는것이지요.》

《당신은 그가 안팎이 다르고 날 속인다는거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거겠소? 그러면 그렇다고 털어놓고 말하시오.》

《그런게 아닙니다. 전하, 제 말은 그분자신이 속히웠다는겁니다. 저의 말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거짓보고를 했다는 그겁니다. 저의 말은 주교님께서 총사들에 대해서 편견이 심한데다 심보가 고약한 사람

들의 말을 믿고 너무 성급하게 총사들에게 불평을 쏟아붓는다는 그것입니다.》

《불평은 라 뜨레무이공작에게서 나온거요.》

《전하, 그게 사실이라면 공작은 공명정대한 그답지 않게 그 일에 너무 신경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공작을 고상하고 성실한 인간으로 알고있으며 그의 말이라면 인정할 각오가 되여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건?》

《그건 전하께서 그를 불러들여서 물어보시되 그 자리에 제3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공작이 물러간 다음에는 즉시 전하께서 저를 만나달라는것입니다.》

《그렇단 말이지!》 왕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당신은 라 뜨레무이의 말이면 믿겠다는거지?》

《그렇습니다.》

《그의 판단을 따르겠다는거지?》

《그렇습니다.》

《그의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겠지?》

《그렇습니다, 전하.》

《라 쉐네!》 왕이 소리쳤다. 《라 쉐네!》

문밖에 서있던 시종이 들어왔다.

《라 쉐네.》 왕이 말하였다. 《빨리 사람을 띄워 라 뜨레무이씨를 불러오라구. 당장 오늘 저녁으로 그 사람과 할 이야기가 있어.》

《전하께서는 라 뜨레무이씨를 만나보신 다음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으시겠다는것을 약속해주실수 있습니까?》 뜨레빌이 물었다.

《아무도 안 만날테요.》 왕이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래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몇시에 올가요?》

《아무시간이건 상관없소.》

《그렇지만 너무 일찍 오면 주무시는 전하께 방해가 되지 않을가 념려됩니다.》

《내가 자는데 방해된다? 그래 내가 잠을 자기나 하오? 이젠 난 잠

이라는걸 모르오. 드문드문 약간 졸뿐이요. 일찍 와도 일없소. 7시라도 좋으니까. 그렇지만 당신네 총사들이 잘못했다면 무사치 못할줄 아시오.》

《만일 나의 총사들이 잘못했다면 당자들을 전하의 손에 맡길터이니 마음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더 하실 말씀은 없겠습니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없소, 없소. 사람들이 날 공정한 루이라고 부르는건 공연한게 아니요. 그럼 래일 만나자구.》

《하느님께서 전하를 보살펴주실것입니다!》

왕이 잠을 못 잔다고 하지만 뜨레빌은 이날 밤 그보다 더 잠을 못잤다. 그는 그날 저녁으로 사람을 띄워 세 총사와 그들의 친구더러 6시반 정각에 자기 집에 모이라고 전하였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무런 약속도, 아무런 담보도 주지 않았으며 그들의 운명이 그자신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위태롭다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작은 문안에 들어서자 그는 네사람에게 거기서 기다리라고 일렀다. 만일 그들에 대한 왕의 노여움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면 그들을 슬그머니 돌려보낼수 있는것이며 왕이 그들을 만나주겠다면 불러들이면 되는것이였다.

뜨레빌이 왕의 응접실에 들어서자 시종 라 쉐네는 어제 저녁 자기가 찾아갔을 때 라 뜨레무이는 집에 없어 만날수가 없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궁전에 들어올 형편이 못되였으므로 이제야 겨우 와서 한창 왕을 만나는중이라고 알려주었다. 뜨레빌은 기뻤다. 이제는 누가 중간에 끼여들 우려가 없는것이였다. 10분쯤 지났을 때 뜨레빌은 서재의 문이 열리고 라 뜨레무이가 거기서 나오는것을 보았다. 공작은 곧바로 그에게로 다가갔다.

《뜨레빌씨.》 공작은 말하였다. 《전하께서는 저를 불러 우리 집 근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세세히 물으셨습니다. 나는 전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으며 나는 당신에게 사죄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말씀드렸지요. 이왕 이렇게 만난김에 사죄하는바이니 앞으로 언제나 나를 벗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작님.》 뜨레빌이 말하였다. 《나는 원래 당신의 성실성을 깊이 믿었기때문에 다른 비호자는 내세우고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지요. 프랑스에 당신과 같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

는데 대하여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하오, 훌륭해!》 문간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왕이 부르짖었다. 《그런데 뜨레빌, 저 사람이 자기를 당신의 벗이라고 하니 말 좀 해주오. 나도 저 사람의 벗이 되고싶은데 저 사람은 내게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고 말이요. 거의 3년을 얼씬 안하다가 내가 찾아서야 왔단 말이요.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에게 말해주오. 이건 왕의 입으로 할 말이 못되니까 말이요.》
《감사합니다. 전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싶은건(이건 뜨레빌씨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만) 노상 전하의 주위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충성스러운것은 아니라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작, 당신은 죄다 들었구만? 차라리 잘됐소, 잘됐어!》 왕이 한발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다. 《그건 그렇고 뜨레빌, 당신의 총사들은 어디 있소? 내가 그들을 데려오라고 한지도 벌써 사흘째요. 어째서 말을 듣지 않소?》
《그들은 아래 있습니다. 전하, 라 쉐네를 시켜 불러오도록 해주십시오.》
《당장 오라고 하오. 이젠 8시가 다되여오는데 9시엔 만날 사람이 있거던. … 공작은 가봐도 되겠소. 그리고 이제부턴 종종 찾아와야 하오. 자, 들어갑시다, 뜨레빌.》
공작은 인사를 하고 문께로 향하였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세 총사와 다르따냥이 라 쉐네의 안내로 나타났다.
《용사들, 이리 오라구.》 왕이 말하였다. 《내 군들을 욕 좀 해야겠어.》
세 총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면서 다가갔다. 다르따냥은 뒤에서 따라갔다.
《참 기가 막혀서! 군들 넷이 이틀동안에 주교의 근위병 일곱을 해제끼다니!》 왕은 말하였다. 《이건 너무 많거던, 너무 많아. 이 상태로 나가다간 주교가 석주일후엔 자기 근위병들을 새로 꾸린다는 말이 나오겠어, 그리고 난 나대로 엄명을 내리게 될게고. 한사람쯤이면 내 상관 않겠지만 이틀사이에 일곱이라니 이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전하께서도 보시는바와 같이 이들은 죄스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면서 전하의 용서를 빌고있는것입니다.》

《죄스러운 마음으로 뉘우친다구? 흥…》 왕은 믿어지지 않는듯이 말하였다.

《난 이 사람의 능청스러운 상판을 믿지 못하겠어. 특히 가스꼰뉴 사람처럼 생긴 저 젊은이… 선생, 이리 좀 나오시지요!》

다르따냥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얼굴빛이 파랗게 질려서 앞으로 나갔다.

《이게 뭔가? 군은 청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거야 어린애, 완전한 어린애가 아니요! 이런 어린애가 쥐싸끄를 꺼꾸러뜨렸단 말이요?》

《그리고 배르나쥬에게도 두번이나 멋들어진 타격을 안겼습니다.》

《정말이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또스가 께끼였다. 《이 사람은 저를 까위자끄의 손에서 구원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였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전하를 찾아뵙는 영광을 지니지 못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아른젊은이는 그야말로 악마로군. 작고하신 부왕께서 즐겨 말씀하셨던것처럼 말이요. 그런 판에서는 조끼를 한두벌만 아니게 해뜨리고 칼도 몇자루 잘 부러뜨려야 할게요. 그런데 가스꼰뉴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못살거란 말이요. 안 그렇소?》

《그렇습니다, 전하.》 뜨레빌이 말하였다. 《그 고장 산에서는 아직까지 금광이 나지지 않고있습니다. 부왕의 옥좌를 지켜 그처럼 헌신적으로 싸운 가스꼰뉴사람들의 공적을 봐서는 하느님께서 마땅히 그와 같은 기적을 창조해주었어야 할것이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가스꼰뉴사람들이 부왕의 아들인 나를 옥좌에 앉힌셈이군. 안 그렇소? 그래… 라 쉐네, 40삐스똘쯤 나오지 않겠는지 내 호주머니를 몽땅 뒤져보고 있으면 가져오라구. 그동안 젊은이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초지종을 말해보오.》

다르따냥은 왕을 만나뵙는다는 기쁨으로 온밤 잠 못이루던 일이며 접견을 세시간 앞두고 친구들을 찾아갔다가 그들과 함께 주막으로 갔던 일이며 자기가 얼굴에 공이 맞을가봐 걱정하는것을 배르나쥬가 눈치채고 이기죽거리다가 하마트면 목숨을 잃을번 했던 일 그리고 그 일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라 뜨레무이가 애매하게 집을 구워먹을번 했던 일 등 전날에 있은 일들을 세세히 이야기하였다.

《옳구만! 공작이 말하던 그대로군! 가련한 주교! 이틀동안에 일곱

명을, 그것도 제일 아끼던 사람들을!… 이젠 그만하면 됐어. 알겠소? 됐단 말이요! 임자들은 페루거리에서 얻어맞은 앙갚음을 한셈이야, 그것도 과남할만큼! 그러니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전하께서만 만족하시다면 저희들도 만족합니다.》 뜨레빌이 말하였다.

《난 만족하오.》 왕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라 쉐네의 손에서 금화 한줌을 쥐여 다르따냥의 손에 놓아주었다. 《자, 이것이》 왕은 말을 이었다. 《내가 만족하다는 증거요.》

당시에는 긍지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 귀족이 왕에게서 돈을 받고도 조금치도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렇기때문에 다르따냥은 왕에게서 받은 40삐스똘을 서슴없이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을뿐아니라 왕에게 백배 사례까지 하였다.

《됐어, 됐어.》 왕이 벽시계를 쳐다보고나서 말하였다. 《그만 됐어. 이제 8시반이니 모두들 돌아가도 돼. 내 아까 9시에 누굴 만나야 한다고 했댔지. 군들의 그 충성심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오. 난 앞으로도 그걸 잊지 않을것이요.》

《전하.》 네 친구가 입을 모아 부르짖었다. 《저희들은 전하를 위해서라면 이 한목숨 아끼지 않겠습니다.》

《좋아, 좋아! 그러나 목숨은 아끼는게 좋아. 그편이 나를 위해서도 좋아… 뜨레빌…》 그들이 물러나올 때 왕은 나직이 말하였다.

《당신의 총사대엔 빈 자리가 없고 또 시험기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총사대에 받지 않게 되여있으니까 이 젊은이를 당신의 매부 데제싸르의 근위대에 넣도록 하오. … 아, 주교님이 오만상이 될걸 생각하면 난 지금부터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소. 그는 분해서 펄펄 뛰겠지만 난 상관없소. 난 공정하게 행동했으니까.》

뜨레빌은 어전에서 물러나와 자기의 네 총사들을 찾아갔다. 그가 갔을 때 그들은 다르따냥이 받은 40삐스똘을 서로 나누어가지는 참이였다.

주교는 왕이 예견한바 그대로 분이 치밀어 한주일동안이나 투전놀이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거나말거나 왕은 그를 만날 때마다 매혹적인 미소로써 맞이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묻군 하였다.

《주교님, 당신의 충실한 근위병들인 그 가엾은 배르나쥬랑 쥐싸끄들은 어떻게들 지내는지요?》

제 7 장

총사들이 안고있는 비밀

루브르궁전에서 돌아온 다르따냥이 왕에게서 받은 40삐스똘가운데서 자기 몫으로 차례진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가고 물었을 때 아또스는 뽐드 뺑에 가서 한상 푸짐하게 먹자고 하였고 뽀르또스는 하인을 하나 두라고 했으며 아라미스는 련인을 하나 얻으라고 하였다.

주연은 그날로 차려지고 하인은 시중을 들었다. 주연상은 아또스가 주문하고 하인은 뽀르또스가 주선하였다. 그는 삐까르디출신인데 뽀르또스가 그날의 주연에 쓰려고 데려온것이였다. 뽀르또스는 쁠랑쉐(하인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가 라 뜨르넬다리우에서 강물에 침을 뱉으면서 퍼져나가는 파문을 재미나게 구경하고있는것을 띄여보았다. 뽀르또스는 그러한 행동은 관찰력이 있고 진중하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길게 알아보지도 않고 끌고왔다는것이다. 름름하게 생긴 귀족을 섬기게 되는줄 알고 선뜻 따라섰던 쁠랑쉐는 그 무슨 무슈끄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하인의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을 보고 다소 실망하였다. 뽀르또스는 자기가 비록 큰 집을 쓰고살지만 하인을 둘씩이나 둘 형편이 못되니 그는 다르따냥에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다소 섭섭했던 쁠랑쉐는 자기 주인이 차린 주연을 시중들고나서 그가 값을 치르느라고 호주머니에서 금화를 줌으로 꺼내는것을 보고는 자기에게 복덕방이 차례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자를 만나게 해준 하느님에게 감사를 드렸다. 주연이 끝나고 식탁에 남은 료리로 그새 주렸던 창자를 실컷 채울 때까지도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있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여 주인의 잠자리를 펼 때 그의 아름다운 꿈은 산산이 깨여지고말았다. 침실과 전실로 되여있는 집안에 침대는 하나뿐이였다. 쁠랑쉐는 다르따냥의 침대에서 걷어온 깔개를 전실에 깔고 잤으며 그때로부터 다르따냥은 깔개가 없이 지내게 되였다.

아또스 역시 매우 독특하게 훈련시킨 하인이 있었다. 이름은 그리모라고 하였다. 그의 점잖은 주인은 입이 매우 무거웠다. 그가 뽀르또스며 아라미스와 절친한 사이가 된지도 대여섯해가 잘되는데 그동안에 두사람은 그가 미소짓는것을 한두번만 보지 않았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의 말마디는 짤막하고 표현적이였다. 그는 언제나 필요한 말만 하였으며 아무런 분석도 치레도 할줄 몰랐다. 그는 본질적인것만 말하였으며 구구하게 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서른살 되나마나한 나이에 체격도 마음씨도 훌륭하였으나 그에게 련인이 있다는 말은 누구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는 녀자동무이야기를 절대로 꺼내는 법이 없었으나 그러면서도 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것을 방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그가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가끔 비통한 말이나 침울한 의견만 툭툭 던지는것으로 보아 그러루한 이야기가 그에게는 매우 불쾌하다는것을 쉽게 알수 있었다. 진중하고 무뚝뚝하고 과묵한 성격은 그를 거의나 로인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는 간단한 손짓이나 입술의 가벼운 움직임으로써 자기의 요구를 알아차리고 집행하도록 그리모를 길들여놓았다. 그는 정부득이한 경우에만 그리모와 말을 하였다. 주인을 진심으로 따르고 그의 지혜를 례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범처럼 무서워하는 그리모는 제딴에는 그의 요구를 정확히 알아맞혔다고 생각하고 기껏 잘하느라고 한노릇이 아또스의 뜻과 반대되게 하는 때가 있었다. 그런 때면 아또스는 어깨를 으쓱 추고는 조금치도 성을 내지 않은채 그리모를 쥐여박군 하였다. 그런 때에야 그는 몇마디씩 말을 하였다.

뽀르또스는 우리가 이미 알고있는바와 같이 아또스와 완전히 대조적이였다. 그는 말이 많은데다가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공정하게 말해서 그는 누가 제 말을 듣건말건 관계치 않았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말을 듣는 즐거움을 위해서 말하는것이였다. 그는 학문을 제외하고는 입에 올리지 않는 문제가 없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학문은 어렸을 때부터 학자들에게 혐오감을 느껴왔기때문에 질색이라는것이였다. 그의 외모는 아또스만큼 위엄스럽지 못하였으며 아또스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은 그들이 서로 알게 된 첫시기 뜨문히 뽀르또스의 신경을 자극하였다. 그리하여 뽀르또스는 다양한 옷가지로 그를 눌러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아또스가 총사대의 수

수한 만또를 걸치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한걸음 나서기만 하면 그는 대번에 으리으리하게 차려입은 뽀르또스를 뒤전으로 밀어버리고 응당한 자리를 차지하고마는것이였다.

뽀르또스는 뜨레빌씨의 대기실이나 루브르궁전의 총사대병실에서 자기가 녀자들을 쟁취한 이야기를 들썩하게 늘어놓는것으로 자기위안을 삼았다. 아또스에게는 그런 자랑거리가 없는것이였다.

옛날속담에 《그 주인에 그 하인》이라고 하였거니와 이제 우리는 아또스의 하인 그리모로부터 뽀르또스의 하인 무슈끄똥에게로 말머리를 돌리기로 하자. 그는 노르망디출신인데 본래이름은 보니파씨였다. 그런것을 주인이 그런 이름은 평화적인 냄새가 풍긴다고 하여(보니파씨란 성실한 인간이라는 뜻이다.—역자주) 그보다 훨씬 귀맛이 좋은 무슈끄똥(권총이라는 뜻—역자주)이라는 이름으로 고쳐버렸던것이다. 그는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조건부, 호화롭게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조건부로 뽀르또스에게 왔었다. 그밖에 그는 부업을 하여 기타 생활상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게 매일 2시간의 자유시간을 줄것을 요구하였다. 뽀르또스는 그 요구에 동의하였다. 그는 자기의 낡은 옷가지들과 예비만또를 무슈끄똥에게 내주어 조끼를 지어입게 하였다. 재봉사가 헌털뱅이들을 솜씨있게 고쳐깁고 뒤집고 하고 그의 마누라가 명백히 뽀르또스의 귀족적인 습관을 떼주려고 애를 쓴 덕분에 자기의 주인을 따라가는 무슈끄똥은 위풍이 당당하였다.

아라미스로 말하면 그의 성격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묘사하였다고 생각하며 그 발전은 그의 친구들의 성격발전과 마찬가지로 차차 고찰하게 될것이므로 여기서는 그의 하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하자. 그 하인의 이름은 바쟁이라고 하였다.

그의 주인은 아무때건 신부가 될것을 바라고있었으므로 모든 교직자의 하인들이 그러하듯이 바쟁은 언제나 검은 옷을 입고있었다. 배리출신으로 나이가 서른다섯에서 마흔살쯤 되는데 유순하고 조용한 성격에 몸은 뚱뚱하였다. 한가한 때에는 성경책을 읽었으며 필요한 때에는 비록 가지수는 적지만 구미가 당기는 식사를 마련할줄 알았다. 그밖의 일에서는 벙어리에, 소경에 귀머거리였으며 그의 충실성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수 있었다.

이만하면 세 주인과 그 하인들에 대하여 대충이나마 인식을 가지게 되였으니 이제는 그들의 집으로 옮겨가기로 하자.

아또스는 룩셈부르그궁전에서 지척인 페루거리에서 살았다. 그는 알뜰하게 거둔 자그마한 방 두칸을 세내여 쓰고있었는데 아직은 늙지도 않았고 꽤 아름다우며 부질없이 그에게 정찬 눈길을 보내군 하는 녀주인이 내준것이였다. 지난 시기의 진귀한 유물들이 그 검소한 거처의 벽들에 드문드문 보였다. 그가운데서 프랑쏘아1세시대의것이 틀림없는 장식이 요란한 칼은 보석을 박은 자루만도 200삐스똘나마 나갈것이였다. 그러나 아또스는 그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것을 저당잡히거나 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뽀르또스는 오래전부터 이 칼에 군침을 흘리고있었다. 그는 그 칼을 차지할수만 있다면 자기 일생의 10년쯤 내놓는것도 마다하지 않았을것이다.

한번은 그가 어떤 공작부인을 만나러 가면서 아또스더러 그 칼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아또스는 묵묵히 호주머니들을 뒤져서 돈지갑이며 보석이며 금사슬따위들을 몽땅 털어서 뽀르또스에게 내밀었다. 그러면서 아또스는 말하기를 그 칼은 벽에 든든히 붙여놓았기때문에 주인이 이 집을 떠날 때에만 내리울수 있다는것이였다. 그 칼 말고도 앙리3세때의 한 귀족의 초상화가 주목을 끌었다. 눈이 부시게 차려입고 가슴팍에는 쌩－때스프리훈장이 달려있는데 어딘가 아또스와 비슷한데가 있었다. 이것은 대귀족이 아또스의 선조라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끝으로 매우 정교하게 세공을 하였으며 칼이며 초상화에 있는것과 같은 문장이 새겨져있는 금궤가 자기의 우아함을 자랑하며 벽난로우에 두드러지게 놓여있다. 금궤의 열쇠는 아또스가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렇지만 어느날 아또스는 뽀르또스가 있는 자리에서 궤를 연적이 있었는데 뽀르또스가 보니 그안에는 편지와 문서들밖에 없었다. 련애편지와 집안관계문서들인것 같았다.

뽀르또스는 비여 꼴롱비에거리에 있는 크고 겉보기에 화려한 집을 빌려쓰고있었다. 친구들중 한 사람과 그앞을 지날 때면 그는 언제나 고개를 쳐들고 하인의 제복을 단정하게 입은 무슈끄똥이 창가에 서있는 자기 집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하군 하였다. 《이게 내 집일세.》 하지만 집안에 들어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누구를 집안으로 청하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며 그러다나니 누구도 그 번드르르한 외관뒤에 실지로 어떤 재보가 숨겨져있는지 표상을 가질수 없었다.

아라미스는 객실과 식당칸, 침실로 되여있는 자그마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다른 두칸과 마찬가지로 아래층에 있는 침실은 창문이 시원하고 록음이 짙은 자그마한 정원쪽으로 나있는데 빼곡이 들어선 나무들때문에 안을 엿볼수 없게 되여있었다.

다르따냥이 거처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는것은 우리들이 이미 아는것이고 그의 하인 쁠랑쉐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되였다.

다르따냥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것처럼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매우 강하였다. 그는 아또스, 뽀르또스, 아라미스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있는 힘을 다하였다. 한것은 그들이 그러한 가명으로 귀족인 자기들의 본래이름을 감추고있었기때문이였다. 특히 아또스는 한마일밖에서도 진짜귀족이라는것이 알렸다. 다르따냥은 뽀르또스에게는 아또스와 아라미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라미스에게는 뽀르또스가 누구인가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뽀르또스는 유감스럽게도 자기의 과묵한 친구에 대해서 풍문으로 얻어들은것밖에 아는것이 없었다. 돌아가는 말로는 그는 사랑문제로 커다란 불행을 겪었으며 누군가의 너절한 배신행위가 그 점잖은 사람의 일생을 망쳐놓았다고들 하였다. 그러나 그 배신행위의 구체적인 내막은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뽀르또스도 본명은 다른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뜨레빌 한사람만이 아는것이였으나 그밖의 그의 생활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다. 우쭐대기 좋아하고 수다스러운 그는 수정처럼 속속이 꿰비쳐보였다. 그가 제 자랑하는 소리를 그대로 다 곧이 들었다가는 큰코 다칠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아라미스는 얼핏 보기에 아무 비밀도 없는 사람같지만 실은 온통 수수께끼투성이였다. 다른 두사람과 관계되는 물음에는 극히 드물게 대답을 하고 자기와 직접 관계되는 물음에는 애당초 입을 열지 않았다. 어느날 다르따냥은 아라미스에게 한참동안 이 말, 저 말 시키던끝에 뽀르또스가 그 어떤 공작부인을 정복했다는 소문이 나돈다는 말을 듣자 그 자신의 애정관계의 비밀을 뽑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말하였다. 《당신은 남들이 남작부인이며 백작부인이며 공작부인들과 관계를 가지고있는데 대해서 그렇게도 말을 잘하는데 그래 당신 자신은?…》

《미안하네.》 아라미스는 다르따냥의 말허리를 꺾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는건 뽀르또스자신이 그런 말을 지껄여대기때문이고 그 자

신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했기때문이네. 하지만 다르따냥, 내가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면 또는 그가 나를 믿고 조용히 말해준것이라면 정말이지 나만큼 비밀을 지켜줄 참회승도 없을거네.》

《나도 그걸 의심치 않습니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나는 당신도 가까이 사귀는 귀족부인들이 더러 있을줄을 아는데요. 우리 두사람을 인연 맺어준 그 고운 손수건이 그걸 증명해 준단 말입니다.》

아라미스는 성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겸손한 태도로 상냥하게 말하였다. 《친구, 난 장차 신부가 될 사람이니까 속세의 향락을 멀리한다는것을 잊지 말아주게.

군이 본 그 손수건은 내가 선사받은것이 아니고 내 친구 한사람이 잊어버리고 간것이였네. 난 그 친구와 그가 사랑하는 부인이 말밥에 오르지 않게 하느라고 그 손수건을 감추었던거네. … 나로 말한다면 그런 면에서 가장 현명한 아또스를 본받아서 련인이 없는것이고 또 둘 생각도 없다네. 그 사람도 나처럼 련인이 없거던.》

《하지만 당신이야 총사지 신부는 아니란 말입니다.》

《친구, 총사는 림시라네. 주교가 말하는것처럼 총사는 마지못해 된거고 마음속으로는 신부야. 아또스와 뽀르또스가 내게 무슨 일거리를 주자고 이 일에 끌어들였지. 내가 막 승복을 입으려고 하는 참인데 그만 자그마한 불상사가 일어났거던. … 하지만 그건 군에게 흥미가 없을게고 난 괜히 군의 귀중한 시간만 빼앗을테니까.》

《아닙니다. 아주 흥미있는걸요!》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그리고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거던요.》

《그렇지만 난 이제부터 성서를 읽어야 한다네.》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그리고나선 애기용부인에게서 부탁받은 시를 써야 하고 그다음엔 쌩—또노레거리에 가서 쉐브레즈부인에게 줄 연지를 사야 한다네. 보다싶이 자넨 급한 일이 없지만 난 매우 바쁘다네.》

이렇게 말하고나서 아라미스는 따뜻이 그의 손을 잡아주고나서 헤여져갔다.

다르따냥은 애를 많이 썼지만 새로 사귄 세 친구에 대해서 그이상은 더 알아낼 길이 없었다. 그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는 앞으로 알수 있을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그들의 과거에 대하여 돌아가는

말을 믿을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당분간 아또스는 아킬레우스로, 뽀르또스는 아약스로, 아라미스는 요셉으로 가정하였다.

총체적으로 젊은이들은 즐겁게 지냈다. 아또스는 노름을 좋아하였으나 노상 운수가 나빴다. 그런데 그는 자기는 동무들에게 돈을 마구 꾸어주면서도 그들에게서는 단돈 한푼 빌리는 일이 없었다. 혹시 노름을 위해서 돈을 꾸는 경우에도 이튿날 아침 6시엔 어김없이 그 사람에게 하인을 띄워서 빚을 갚군 하였다.

뽀르또스는 노름을 드물게 하였다. 그래서 돈을 따게 되면 기고만장해서 우쭐했다. 만일 떼우게 되면 온데간데없이 며칠이고 사라졌다가 해쓱하고 수척한 얼굴로 호주머니가 불룩하게 돈을 얻어가지고 다시 나타났다.

아라미스는 노름에 손을 전혀 대지 않았다. 그는 제일 시시한 총사에 제일 따분한 술동무였다. 쩍하면 가서 할 일이 있다는것이였다. 주연이 한창 절정에 올라 모두들 이야기에 열이 오르고 취흥에 떠서 두세시간 더 앉아있으려는 판에 그는 시계를 쳐다보고는 벌떡 일어나서 입가에 상냥스런 미소를 띠고 한 신학자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여있노라면서 서둘러 물러가는것이였다. 또 어떤 때는 집에 가서 론문을 써야겠으니 제발 붙잡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기도 하였다.

그런 때 아또스는 그 고상한 얼굴에 어울리는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으며 뽀르또스는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서 아라미스는 기껏해서 시골신부밖에 못될것이라고 장담을 하였다.

다르따냥의 하인 쁠랑쉐는 자기 몫으로 차례지는 행운을 존엄성있게 받아들였다. 그는 하루에 30쑤씩 받고 한달내내 새처럼 즐거운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군 하였으며 주인에게는 살뜰하고 세심하였다. 포쑤아여르거리의 집우에 먹구름이 몰려들자, 다시말하여 왕에게서 받은 40삐스똘이 거의 동이 나게 되자 쁠랑쉐는 우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하였다. 아또스는 그의 넉두리를 구역질나는것으로, 뽀르또스는 버르장머리 없는짓으로, 아라미스는 가소로운짓으로 여기였다. 아또스는 다르따냥에게 그따위 사기군은 내쫓고말라고 권유하였고 뽀르또스는 단단히 혼뜨검을 내주라고 일렀으며 아라미스는 주인이란 자기에 대한 찬사외에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엄숙히 언명하였다.

《글쎄 당신들이야 아무렇게나 말할수 있지요.》 다르따냥이 받았다. 《아또스, 당신은 그리모와 함께 벙어리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일

체 말 한마디 못하게 하니 싫은소리 들을 걱정이 없을테지요. 그리고 뽀르또스, 당신은 사치스럽게 사니까 무슈끄똥은 당신을 하느님처럼 떠받들게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라미스, 당신은 언제나 신학공부에 빠져있으니 그 온순하고 신앙심이 깊은 하인 바쟁은 당신을 깊이 존경할게거던요. 그렇지만 발판도 없고 총사도 아니고 근위병도 아닌 나로서야 어떻게 쁠랑쉐에게 애착심과 공포심, 존경심을 불어넣는단 말인가요?》

《문제가 심각하군.》 세 친구가 대꾸하였다. 《이건 내적인 문제, 가정내부의 일이야. 하인이라는건 녀자들처럼 처음부터 신발을 바로 신겨야 한다네. 똑똑히 알아두라구.》

다르따냥은 깊이 생각한끝에 만일을 생각해서 매로 가르칠것을 결심하였으며 무슨 일에서나 그런것처럼 아주 직심스럽게 그 일을 해냈다. 한바탕 두들겨패고나서는 자기의 허락이 없이 밖에 나가는것은 절대 엄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알아둘건》 다르따냥은 덧달았다. 《나도 운이 트일 날이 꼭 온다는거야. 이제 좋은 때를 만나면 너도 팔자를 고치게 돼. 그러니 내 곁에 그냥 남아있으란 말이야. 난 네가 제 신세 망쳐먹는걸 그대로 내버려두기에는 너무도 마음이 무던한 주인이니까. 너를 절대로 놓아주진 않겠단 말이야.》

세 총사는 다르따냥의 능숙한 외교적수완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쁠랑쉐 역시 깊이 감동되여 나가겠다는 말을 더는 내비치지 못하였다.

네 젊은이는 함께 어울려 지내기 시작하였다. 시골에서 처음 빠리에 올라와 전혀 생소한 세계에 뛰여든 다르따냥은 친구들의 습관을 그대로 따랐다.

겨울에는 아침 8시에, 여름에는 6시에 일어나 뜨레빌을 찾아가서 암호를 알아보고 정황이 어떤지 낌새를 보았다. 다르따냥은 비록 총사는 아니였지만 놀라우리만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순찰근무를 수행하는 친구들을 매번 따라다니다나니 항시적으로 순찰을 하였다. 총사들의 병실에서는 누구나 그를 알고있었으며 모두들 그를 착실한 동무로 간주하였다. 첫눈에 그에게 반하여 진정으로 그에게 호감을 품고있던 뜨레빌은 왕앞에서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 총사 역시 자기들의 젊은 친구를 끔찍이 여기였다. 그들 네사람

을 하나로 이어주는 우의와 하루에도 몇번씩 반드시 만나야 할 사정으로 하여(결투라든가 사업상용무라든가 오락 같은것으로 하여) 그들은 온종일 서로서로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람들은 룩셈부르그궁전으로부터 쌩—쉴삐스광장 또는 비여 꼴롱비에거리로부터 룩셈부르그궁전에 이르는 거리에서 서로서로 찾아다니는 그들을 아무때나 만날수 있었다.

한편 뜨레빌의 약속은 점차로 실현되여갔다. 어느날 왕은 데제싸르에게 다르따냥을 그의 근위대에 예비병으로 받으라는 분부를 내렸다. 근위대제복을 입은 다르따냥은 맹랑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근위대제복을 총사대의 만또와 바꾸어입을수만 있다면 자기 인생가운데서 10년을 떼여버린다 해도 마다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뜨레빌은 견습기간 2년만 거치면 그 소원을 풀어주겠노라 약속하였다. 그리고 다르따냥이 왕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맞다들리던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특출한 공을 세우게 되면 견습기간은 단축될수도 있다고 하였다. 뜨레빌에게서 이런 약속을 받은 다르따냥은 그 이튿날로 임무수행에 착수하였다.

이제는 아또스와 뽀르또스, 아라미스가 다르따냥을 도와 함께 순찰근무를 수행할 차례가 되였다. 결국 데제싸르는 그날부터 다르따냥 한 사람이 아니라 네사람을 대원으로 받은셈이 되였다.

제 8 장

궁중음모

이 세상 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것처럼 왕에게서 받은 40삐스똘도 바닥이 나고말았다. 네 친구는 손가락을 빨게 되였다. 처음 한동안은 아또스가 제 돈으로 친구들을 먹여살렸다. 그다음은 뽀르또스가 맡아나섰다. 그는 버릇대로 자취를 감추었다가 나타나더니 두주일동안 네사람의 급한 목을 막아냈다. 그다음은 아라미스의 차례였다. 그는 신학관련책들을 팔아서 약간의 돈을 마련하였다.

그 돈마저 떨어지자 언제나와 같이 뜨레빌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뜨레빌은 그들에게 줄 급료가운데서 얼마간을 전불로 내주었다. 그러나 그 돈으로도 오래 부지할수는 없었다.

그 돈마저 거의 들장이 나게 되자 가까스로 일여덟삐스똘을 긁어모아가지고 뽀르또스를 노름판에 보냈다. 그런데 그날 뽀르또스는 운수가 나빴다. 그 돈을 몽땅 떼우고 남에게서 빌렸던 20삐스똘까지 날려버렸다.

이제는 입에 풀칠도 못할 지경이 되였다. 주린 창자를 안고 하인들과 함께 한끼 먹여줄만 한 친구들을 찾아 이 거리, 저 거리, 이 병영, 저 병영을 헤매고 다니는 그들을 언제든지 볼수 있었다. 아라미스의 말에 의하면 형편이 넉넉하던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음식대접을 하면서 돈을 사방에 뿌리고 다닌것은 자기가 어려운 때에 보답을 받기 위해서였던것이다.

아또스는 네번 초대되였는데 매번 자기 친구들과 그 하인들을 함께 데리고 갔다. 뽀르또스는 여섯번 초대되였는데 역시 자기 친구들을 잊지 않았다. 아라미스는 여덟번 초대되였다. 그는 독자들도 알고있는 것처럼 소리는 적게 내면서 많은것을 하였다.

다르따냥은 수도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가스꼰뉴출신의 신부의 집에서 아침 한끼, 근위대 기수의 집에서 점심 한끼를 대접받았을뿐이였다. 그는 자기 부대를 통채로 전부 끌고가서 신부의 두달분 쵸콜레트를 말끔히 없애버렸다. 기수도 상다리가 부러질만큼 푸짐하게 대접해주었다. 그러나 뿔랑쉐의 말마따나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어쨌든 그 한끼뿐이였던것이다.

다르따냥은 아또스와 뽀르또스, 아라미스를 따라다니면서 그만큼 진수성찬을 대접받고도 자기는 겨우 점심을 한끼반(신부네 집에서 먹은 아침은 점심 반끼에 맞먹을것이였다.)밖에 마련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여간만 옹색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짐으로 된다고 생각하였다. 순진한 그는 자기가 그들을 한달동안이나 먹여준 일은 까맣게 잊고있었다. 근심으로 가득찬 그의 머리는 맹렬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젊고 용감하고 지혜롭고 결패있는 자기들 네 젊은이는 얼근한 상태로 산책을 하거나 검술을 닦거나 엉뚱한 장난질이나 할것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목표를 내세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닌게아니라 그들같은 사람들 넷이면, 친구를 위해서라면 돈주머니로부터 시작하여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여있는 사람들, 언제나 서로서로 돕고 함께 토론하여 결정한 그 어떤 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 넷이면, 공동으로든 개별적으로든 그 어떤 원쑤도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주먹이 넷이면 공개적으로든 직선적인 방법으로든 우회적인 방법으로든 지략으로든 완력으로든 그 아무리 힘든 목표도 능히 이룩할수 있는것이였다. 다르따냥은 친구들이 진작 그런 생각을 못한것이 그저 놀랍기만 하였다.

다르따냥이 머리를 싸매고앉아 아르키메데스의 지레대처럼 지구라도 문제없이 들어올릴 네사람의 그 비상한 힘을 효과적으로 써먹을 방도를 모색하고있는데 갑자기 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다르따냥은 쁠랑쉐를 깨워 문을 열라고 분부하였다.

쁠랑쉐를 깨웠다는 말에 독자들은 혹시 벌써 밤이 되였거나 아직 날밝기 전인줄로 생각할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천만에! 방금 낮 4시가 지난 때이다. 두시간전에 쁠랑쉐는 주인을 찾아와서 점심을 달라고 청을 드렸는데 그때 다르따냥은 《잠이자 밥》이라는 속담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그렇게 되여 쁠랑쉐는 잠으로 점심을 에웠던것이다.

쁠랑쉐는 수수한 옷차림을 한 사나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쁠랑쉐는 식후다과 대신으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벌어지겠는지 알고싶었으나 방문객은 다르따냥에게 비밀을 요하는 중대사를 이야기해야겠노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다르따냥은 쁠랑쉐를 내보내고 손님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침묵이 흘렀다. 주인과 손님은 먼저 얼굴부터 익혀두려는듯 서로 상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고있었다. 마침내 다르따냥이 어서 말하라는 뜻으로 허리를 굽신하였다.

《모두들 말하기를 다르따냥씨는 용감한분이라고 하더군요.》 방문객이 입을 열었다. 《그래 나는 명망이 높은 그분에게 비밀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하였던것입니다.》

《어서 말씀하시지요, 어서요.》 다르따냥은 먹을알이 있는 일이라는것을 륙감으로 느끼며 말하였다.

방문객은 또다시 잠간 침묵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 집사람은 왕비님의 시녀로 일하고있습니다. 예쁘고 령리하게 생겼지요. 그 사람에게 장가를 든지도 벌써 3년이 되였습니다. 지

참금은 보잘것이 없었지만 그대신 왕비님의 복장관으로 있는 라 뽀르뜨씨가 그 사람의 교부여서 뒤를 돌봐주거던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요?》 다르따냥이 재촉하였다.
《그런데 말이지요.》 방문객이 말하였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사람이 어제 아침 궁전에서 나오다가 랍치당했단 말입니다.》
《누가 랍치했는가요?》
《글쎄 누구라고 꼭 찍을수는 없습니다만 의심이 가는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찾아다니던 사람이지요.》
《제길!》
《하지만 내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사랑문제보다도 정치적문제가 더 크게 관계되여있다고 생각된단 말입니다.》
《사랑문제보다도 정치적문제라…》 다르따냥은 생각에 잠기여 되받아외웠다.
《당신의 추측에는 뭡니까?》
《내 추측하는걸 그대로 말씀드려서 일없겠는지 모르겠군요.》
《여보시오.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물으려고 하지 않았다는걸 알아두시오. 당신스스로가 날 찾아왔지요. 당신스스로가 나에게 비밀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지요. 그러니 좋을대로 하시오. 당신은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난 안 들어도 무방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정직한분이신것 같으니 난 당신을 믿겠습니다. 내 생각에 거기에는 우리 집사람의 사랑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보다 훨씬 높은 어떤 부인의 사랑관계가 원인으로 되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렇단 말이지요! 혹시 부아 뜨라씨부인이 아닙니까?》 다르따냥은 자기가 궁전 내부실정에 환한듯이 보이려고 부르짖었다.
《그보다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습니다.》
《애기용부인?》
《더 높이요.》
《쉐브레즈부인?》
《훨씬 더 높이요.》
《하지만 그이상 높다면야…》

《옳습니다. 바로 맞혔습니다.》 방문객은 공포에 질려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상대는?》
《공작이지 누구겠습니까.》
《공작?》
《그러문요.》 방문객은 아까보다 더 낮은 소리로 웅얼거렸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그 모든걸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원… 누구에게서 들었는가구요!》
《예. 누구에게서 들었는가 말입니다. 날 철저하게 믿든가 아니면… 당신은 알만하겠지요.》
《그건 내 녀편네한테서 들은 소리입니다. 바로 나의 녀편네한테서요.》
《그럼 그 녀자는 어디서 들었답니까?》
《라 뽀르뜨씨한테서요. 내 아까 그 사람을 왕비님의 심복인 라 뽀르뜨씨의 교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바로 그 라 뽀르뜨씨가 우리 집사람을 왕비님의 시녀로 넣어주었던겁니다. 전하께서 배척하고 주교가 감시를 하고 모두가 등을 돌리는 그 가엾은 왕비님께서 곁에 믿을만 한 사람을 하나 두고계시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알만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흘전에 날 찾아왔습니다. 집사람이 시녀로 들어갈 때의 조건의 하나가 한주일에 두번 날 찾아볼수 있다는것이였던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것처럼 집사람은 날 무척 사랑했댔지요. 그래 그 사람이 날 보러 왔다가 왕비님께서 요즘 몹시 불안해 하신다는 말을 해주었던겁니다.》
《정말입니까?》
《그럼요. 우리 집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주교님이 전에없이 왕비님을 괴롭히며 못살게 군다는겁니다. 그는 싸라방드춤건을 걸고 그러는거지요. 싸라방드춤건이 뭔지야 물론 아실테지요?》
《알구말구요! 내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르따냥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체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한 정도가 아니라 보복인거지요!》
《정말 그럴가요?》
《그래서 왕비님께서는 추측하시기를…》

《왕비님께서 어떻게 추측하신다는겁니까?》

《왕비님께서는 버킹함공작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주교님이 편지를 보냈으리라는거지요.》

《왕비님의 이름으로?》

《예, 공작을 빠리로 꾀여들이자는거지요. 그래서 그가 도착하면 함정에 몰아넣는단 말입니다.》

《있을법한 일이군요.》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그런데 당신의 부인을 랍치한 사람을 알고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는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이름은 모릅니다. 내가 아는건 단지 그가 주교의 총애를 받고있으며 주교에게 개처럼 충실하다는것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본적은 있겠지요?》

《예, 집사람이 어느날 나에게 가리켜보이더군요.》

《그 사람을 알아볼수 있는 무슨 특징은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은 거만하게 생겼는데 머리칼은 검고 얼굴은 검실검실하고 눈은 날카롭고 이발은 하얗지요. 그리고 관자노리엔 칼자리가 있구요.》

《관자노리에 칼자리라구요!》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거기에다 하얀 이발, 날카로운 눈, 검실한 얼굴, 까만 머리, 거만한 생김새, 멍에서 본 그놈이다!》

《멍에서 보았다구요!》

《그렇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이 일에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은 아주 멋있게 될겁니다. 만일 당신의 원쑤이자 나의 원쑤라면 난 당신의 몫까지 합쳐서 복수할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데서 그놈을 찾을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놈이 어디서 사는지 전혀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어느날 내가 집사람을 루브르궁전까지 바래주었는데 집사람이 막 들어가려는 참에 그놈이 안에서 마주 나오더군요. 그때 집사람이 그놈을 가리켜보이더군요.》

《안타깝군요, 안타까와요!》 다르따냥은 중얼거렸다.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막연하단 말입니다. 당신의 부인이 랍치되였다는건 누가

알려주었는가요?》
《라 뽀르뜨씨가요.》
《자세한걸 말해주던가요?》
《자세한건 그도 모르더군요.》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들은것이 없습니까?》
《더러 있기야 있지요. 뭔가 하면…》
《뭡니까?》
《아니, 없습니다. … 내가 혹시 입을 망탕 놀렸다가…》
《당신은 또 그 소리군요. 하지만 이젠 물러서기엔 때가 늦었으니 그리 아시오.》
《내가 물러서다니, 천만의 말씀을!》 손님은 스스로 용기를 북돋으려는듯 부르짖었다. 《보나씨에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지요. …》
《그건 당신의 이름입니까?》
《예, 나의 성이지요.》
《그건 그렇고, 당신은 방금 〈보나씨에의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고 했는데요. … 이거 말씀도중에 안됐습니다만 당신의 이름이 어쩐지 귀에 익단 말입니다.》
《그럴수 있지요. 난 이 집 주인이거던요.》
《허, 그랬댔군요!》 다르따냥은 엉거주춤 일어나서 허리를 굽신하며 말하였다. 《당신이 이 집 주인이란 말이지요?》
《그러문요, 그러문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에서 벌써 석달째 사시면서 아마도 중요한 일들때문에 몹시 분망하신 탓이겠지만 집세 무는걸 잊고계시는걸 보면서도 제가 한번도 빚독촉을 하지 않았으니만큼 당신께서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깊이 존경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보나씨에씨!》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이건 진심의 말입니다만 나는 그와 같은 호의를 매우 감사히 여기고있으며 나로서 당신에게 무슨 도움을 드릴 일이 있다면 기꺼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자고 찾아온것입니다. 보나씨에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만 난 당신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계속하십시오. 마저 들어봅시다.》
방문객은 호주머니에서 종이장을 꺼내여 다르따냥에게 내밀었다.
《편지군요!》 젊은이는 부르짖었다.

《오늘 아침에 받은겁니다.》

다르따냥은 편지를 펼쳐들고 창가로 갔다. 날이 어둡기 시작했던것이다. 손님도 뒤따랐다.

《보나씨에, 처를 찾지 말라.》 다르따냥은 읽어내려갔다. 《필요없이 되면 돌려보내줄것이다. 만일 찾으려들기만 하면 그때엔 넌 다산 목숨인줄 알라.》

《명백하군요.》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하지만 이건 공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난 그 공갈에 간담이 서늘해지는걸요. 난 군인이 아니고 바스띠유감옥이 무섭단 말입니다.》

《흠… 나도 바스띠유감옥은 당신만큼이나 싫어하지요. 칼을 휘둘러댈 일이라면 사정이 다르지만…》

《그래도 난 당신에게 기대가 컸더랬습니다.》

《정말인가요?》

《난 당신이 그처럼 훌륭한 총사들과 함께 다니는걸 보았고 또 그들은 뜨레빌각하의 총사들이라는걸 다시말하여 주교님의 원쑤라는걸 알고있거던요. 그래서 난 당신과 당신의 친구분들은 가엾은 왕비님을 지켜주시면서 동시에 주교님에게 골탕을 먹여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댔지요.》

《그야 물론이지요.》

《그리고 난 또 생각하기를 당신은 석달째 방세를 물지 않았고 난 한번도 독촉을 하지 않았으니만큼…》

《예, 예. 그 이야기는 아까 다 들은것이고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동안을 우리 집에 더 계시든 방세독촉은 하지 않을것이고…》

《고맙습니다!》

《그밖에 또 나는 당신께서 어찌어찌해서 돈에 궁색하시다면 50삐스똘을 내드릴 작정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나씨에씨, 당신은 돈이 많으신게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는 정도지요. 잡화상을 해서 년수입이 이삼천에뀌 될만큼 자본을 만들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름난 항해가 쟝 모깨의 항해에 얼마간 투자를 했구요. 그래

서 당신도 아시겠지만… 아니, 저게 뭐야?》 보나씨에가 갑자기 소리쳤다.
《무슨 일입니까?》 다르따냥이 물었다.
《저기, 저기.》
《어디 말입니까?》
《당신네 창문 맞은쪽거리에… 만또를 휘감은 사람이!》
《그놈입니다!》 다르따냥과 보나씨에가 각기 자기들의 원쑤를 알아보고 거의 동시에 소리쳤다.
《이놈, 이번에야…》 다르따냥이 소리쳤다. 《이번에야 내 손에서 빠져달아나지 못할걸!》
그리고는 칼을 뽑아들고 방에서 뛰쳐나갔다.
층계에서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아또스, 뽀르또스와 맞다들었다. 그들이 길을 비키자 다르따냥은 그들 사이를 쏜살같이 내달았다.
《군은 어딜 가나?》 두 총사가 그의 뒤에 대고 물었다.
《멍에서 만났던 그놈입니다!》 다르따냥은 소리쳐 대답하고 사라져버렸다.
다르따냥은 자기가 그 사나이와 만났던 일이며 아름다운 녀자가 나타났던 일, 사나이가 그 녀자에게 어떤 중요한 편지를 맡기던 일을 친구들에게 한두번만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또스는 다르따냥이 아버지의 편지를 부주의로 잃어버린것이라고 간주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귀족이란(다르따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분명히 귀족이였다.) 편지를 훔치는것과 같은 너절한짓을 절대로 할수 없는것이였다.
뽀르또스는 그것을 녀자쪽에서 요구하였거나 남자쪽에서 요구한 련인들의 밀회장면이며 다르따냥과 그의 누런 말이 그 자리에 나타나 방해를 놀았을뿐이라고 보았다.
아라미스는 거기에는 필시 그 어떤 비밀이 숨어있으므로 차라리 파고들지 않는것이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르따냥의 입에서 튀여나온 소리를 듣자 그것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를 대번에 알아차렸다. 그들은 다르따냥이 그 사나이를 따라잡든 놓쳐버리든 어쨌든 집에는 돌아오리라는 생각으로 계속 층계를 올라갔다.
둘이 다르따냥의 방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텅 비여있었다. 집주인

은 다르따냥과 그 사나이사이에 기필코 일어나게 될 충돌이 얼마나 무서운 후과를 빚어낼지 모르므로 이런 때는 꽁무니를 사리는것이 상수라고 판단한것이였다.

제 9 장

다르따냥의 성격은 드러나다

아또스와 뽀르또스가 예견한대로 다르따냥은 반시간이 지나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사나이가 마치 요술이라도 부리듯이 가뭇없이 종적을 감추는 바람에 놓쳐버린것이다. 다르따냥은 칼을 뽑아든채 부근의 거리들을 샅샅이 훑었으나 비슷한 그림자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나중에는 그 사나이가 숨어배겼을것이 틀림없는 집의 문을 두드렸으나 허사였다. 열번, 스무번을 두드려도 아무 응대가 없었다. 웬 소동인가 하여 제 집문간에 나타나거나 창밖으로 얼굴을 내민 이웃사람들은 문을 꼭 닫아맨 그 집에는 벌써 여섯달째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노라고 하였다.

다르따냥이 이 집, 저 집의 문을 두드려대며 이 거리, 저 거리 뛰여다니는 사이에 아라미스도 그의 집으로 왔으므로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세사람을 다 만날수 있었다.

《그래 어떻게 됐나?》 땀바가지에 오만상이 되여 방에 들어서는 다르따냥을 보고 세 총사가 입을 모아 물었다.

《어떻게 되긴요!》 다르따냥은 침대에 칼을 내던지면서 부르짖었다. 《그놈은 귀신이 틀림없습니다. 그놈은 그림자처럼, 허깨비처럼, 유령처럼 사라져버렸군요!》

《자넨 유령이라는걸 믿나?》 아또스가 뽀르또스에게 물었다.

《난 직접 내 눈으로 본것만 믿는데 난 유령이라는걸 한번도 본 일이 없거던. 그러니 유령이라는건 믿지를 않네.》 뽀르또스가 대답하였다.

《성서는》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우리에게 유령을 믿을것을

요구한다네.》

《실지는 어떻든간에, 그가 사람이든 귀신이든간에, 실재하는 존재든 그림자든간에, 환영이든 현실이든간에 그놈은 내 손에 죽기 위해서 태여난 놈입니다. 그놈이 달아나는통에 난 100삐스똘 또는 그 이상 되는 벌이를 놓쳐버렸습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 뽀르또스와 아라미스가 입을 모아 부르짖었다.

언제나와 같이 군말을 피하는 아또스는 의아쩍게 다르따냥을 쳐다보았다.

《쁠랑쉐.》 몇마디라도 귀동냥해보려고 빠끔히 열린 문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있던 하인에게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이 집주인 보나씨에씨한테 내려가서 보쟝씨포도주를 반타스 보내달라고 하라구, 난 그게 제일 입에 맞으니까.》

《옳지, 이것 봐라!》 뽀르또스가 부르짖었다. 《군은 집주인한테서 무제한 신용대부를 받고있나보군그래.》

《그렇습니다.》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오늘부터지요. 그러니 마음 놓으시오. 만일 그 사람의 포도주가 맛없으면 다른걸 가져오라구 하면 되지요.》

《마시는건 좋지만 망탕 허비해서야 안되지.》 아라미스가 훈시조로 말하였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우리들가운데서 다르따냥은 제일 령리하거던.》 아또스가 이렇게 말하고는 버릇대로 침묵에 잠기였다.

《그건 그렇다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뽀르또스가 물었다.

《우리도 그 비밀을 좀 알자구, 친구.》 아라미스가 덧달았다.

《거기에 녀자의 명예문제만 제기되지 않는다면 말이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비밀을 철저히 고수하는게 옳을것이네만.》

《념려마시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아무의 명예도 손상될것이 없으니 내 죄다 말하지요.》

그리고 그는 자기와 집주인사이에 있은 이야기를 세세히 들려주고나서 그의 처를 랍치한 놈이자 바로 자기가 멍에서 충돌했던 그 사나이라는것을 덧붙여 말하였다.

《괜찮은 흥정판이군.》 아또스가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포도주를

한모금 맛보고는 질이 좋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말하였다.
《그 마음씨 어진 사람에게서 50～60삐스똘을 짜낼수 있을것 같아. 그 50～60삐쓰똘을 바라고 네사람의 모가지를 내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말일세.》
《잊지 말아야 할것은》 다르따냥이 부르짖었다. 《이건 랍치당한 어떤 녀성과 관계되는 일이라는겁니다. 그 녀성은 위험한 처지에 있고 모름지기 고문을 당할것인데 그 리유는 그 녀자가 자기 주인에게 충실하기때문이란 말입니다!》
《주의하라구. 다르따냥, 주의하라구!》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군은 보나씨에부인의 운명에 너무 마음을 쓰는것 같네. 녀자라는건 남자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생겨난 족속들이고 우리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라네.》
그 소리에 아또스는 입술을 깨물며 이마살을 찌프린다.
《보나씨에부인을 걱정하는게 아닙니다.》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나는 전하께서 배척하시고 주교가 괴롭히고 자기의 심복들이 하나둘 죽는걸 보고있는 왕비님때문에 그러는거지요.》
《왕비님께서는 무엇때문에 우리들이 제일 증오하는 에스빠냐인들과 영국인들을 좋아하시는가?》
《에스빠냐는 그분의 조국이니까요.》 다르따냥이 대꾸하였다. 《자기 조국의 사람들을 좋아하는거야 천백번 응당한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당신의 두번째 비난으로 말한다면 그분은 영국의 일반이 아니라 단 한사람의 영국인을 좋아한답니다.》
《솔직한 말로》 아또스가 말하였다. 《그 영국인은 사랑을 받을만하지. 외모가 그보다 더 고상한 사람을 나는 한번도 본적이 없어.》
《외모가 뛰여난것뿐이 아니지.》 뽀르또스가 덧붙였다. 《난 루브르궁전에 갔다가 그 사람이 보석을 마구 뿌리는걸 보았다네.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네만 나도 두어개 주었댔지, 후에 하나에 10삐스똘씩 받고 팔아먹었지만. 아라미스, 자넨 그 사람을 아나?》
《자네들만큼은 알지. 나도 아미앵공원에 그 사람을 붙잡으러 갔던 사람들중의 하나라네. 왕비님의 마부 뻬땅쥬씨의 마차를 타고 갔더랬지. 그때 난 아직 신학교 학생이였어. 그 일이 전하께는 불쾌했던 모양이더군.》
《이러나저러나간에》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버킹함공작이 어

디 있는지 안다면 난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왕비님한테로 손잡아 이끌고 갈텝니다. 주교가 괘씸해서도! 사실 우리들의 첫째가는 원쑤는 주교이니만큼 그놈을 골탕먹일수만 있다면 난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 다르따냥, 그 잡화상은》 아또스가 물었다. 《왕비님께서 가짜편지로써 버킹함공작을 여기로 꾀여들일가봐 걱정이시라고 하더란 말이지?》

《왕비님께서는 그게 걱정이시지요.》

《잠간…》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뭔가?》 뽀르또스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네. 계속하라구. 난 그때 일을 좀 더듬어보았댔네.》

《그래서 이젠 난》 다르따냥이 계속하였다. 《이젠 난 확신합니다. 그 녀자의 랍치는 우리들이 이야기한 그 사건들과 련결되여있고 버킹함공작의 빠리도착과도 련결되여있습니다.》

《이 가스꼰뉴친구 판단력이 여간 아니거던!》 뽀르또스가 탄성을 올렸다.

《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게 참 재미있거던.》 아또스가 말하였다. 《발음이 묘하단 말이야.》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구, 여보게들!》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아라미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구!》 친구들이 말하였다.

《어제 난 어느 한 신학자가 사는 호젓한 거리에 갔더랬지. 내가 론문을 쓰는 일때문에 이따금 만나서 토론을 하는분이라네!》

아또스는 피씩 웃었다.

《그는 외진 곳에 산다네.》 아라미스는 계속하였다. 《자기 취미와 직업상 요구때문이지. 그런데 내가 막 그 집 문을 나서는데…》

여기서 아라미스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아라미스는 마치도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친 사람처럼 갑자르는듯싶었다. 그러나 청중들의 눈길은 그에게 못박혀있고 모두들 긴장해서 뒤이야기를 기다리고있었으므로 물러서기에는 때가 늦었었다.

《그 신학자에게 조카딸이 하나 있는데…》 아라미스는 계속하였다.

《이것 봐라! 조카딸이 있단 말이지!》 뽀르또스가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아주 정숙한 부인이라네.》 아라미스가 계속하였다.
세 친구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자네들이 그렇게 웃어대면서 내 말을 믿지 않을래기면》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더는 아무것도 못 얻어들을줄 알게.》
《우린 이슬람교도들이 신을 믿듯이 자네를 믿고 송장처럼 조용할테네.》 아또스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 계속하지.》 아라미스가 다시 계속하였다. 《그 조카딸이 가끔 자기 삼촌을 찾아뵙거던. 어제 그 녀자는 우연히 나와 같은 시간에 왔더랬기에 난 그 녀자를 유개마차까지 바래주게 되였다네.》
《오라, 그렇단 말이지! 그 녀자에게, 그 신학자의 조카딸에게 유개마차가 있다는건가?》 혀바닥을 바로 건사할줄 모르는것이 기본 약점으로 되고있는 뽀르또스가 또다시 그의 말을 꺾었다. 《그것 참 매력있는 교제일세, 친구.》
《뽀르또스.》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내 이미 한번 자네한테 말해준적이 있지만 자넨 겸손성이 좀 부족하고 그것때문에 녀자들한테서 단단히 손해를 보고있네.》
《여러분, 여러분.》 이야기의 숨은 비밀을 알아채고 다르따냥이 부르짖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될수록 롱질은 삼가합시다. 계속하시오. 아라미스씨, 어서 계속하시오!》
《그런데 난데없이 큰 키에 머리가 까맣고 귀족같아 보이는 사람이… 가만… 다르따냥, 그 사람은 자네가 찾고있는 그 사나이 비슷하게 생겼댔어.》
《그럴수 있지요.》 다르따냥이 받았다.
《비슷해. 그 사람이 내게루 다가오더란 말일세. 뒤에는 대여섯사람을 거느리고 말이네. 다가와서는 아주 깍듯하게 〈공작〉하더니 또 〈그리고 부인, 당신도〉 하고 내가 모시고나온 부인에게 말하지 않겠나.》
《신학자의 조카딸에게 말이지?》
《좀 가만있으라구, 뽀르또스.》아또스가 소리쳤다. 《이거야 어디…》

《〈어서 마차에 오르시지요. 반항을 하거나 소동을 피우면 재미 없습니다.〉 하는게 아니겠나.》

《당신을 버킹함공작으로 잘못 보았군요.》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그랬던게야.》 아라미스가 대꾸하였다.

《그렇다면 그 부인은?》 뽀르또스가 물었다.

《왕비인줄로 알았던거지요.》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가스꼰뉴친구가 참 괜찮거던. 아무도 이 친구 눈은 속이지 못한단 말이네.》 아또스가 부르짖었다.

《아닌게아니라 아라미스는 키도 걸음새도 공작과 비슷하단 말이야. 그렇지만 총사의 복장이야…》

《난 커다란 만또를 입었댔으니까.》

《이 7월의 날씨에? 신학자께서 사람들이 자네를 알아볼가봐 떨던가?》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밀정이 자네의 외관에는 속을수 있겠지만 그 얼굴이야 어델 가겠나?》 아또스가 말하였다.

《난 커다란 모자를 쓰고있었다네.》 아라미스가 설명하였다.

《저런, 저런.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조심스럽지 않은가.》 뽀르또스가 빈정댔다.

《롱질로 시간을 허비하고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두 헤쳐가서 잡화상의 처를 찾는게 어떻습니까. 모든 비밀의 열쇠는 그 녀자에게 있습니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그런 비천한 녀자가? 군은 그래 그런 녀자에게서 뭘 걷어쥘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뽀르또스가 경멸하듯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 녀자는 왕비님의 심복인 라 뽀르뜨의 교녀입니다. 내가 아까 말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왕비님께서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비천한 녀자를 곁에 두고계실겝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눈에 띄기 쉬울게거던요. 주교는 눈치가 여간 빠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먼저 잡화상과 흥정을 하자구. 값은 높이 불러야 하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르따냥이 대꾸하였다. 《그 사람이 값을 치르지 않더라도 다른데서 받아낼수 있으니까요.》

다르따냥이 이렇게 말하고있는데 층계쪽에서 다급히 발소리가 들려오는가싶더니 문이 벌컥 열리면서 사색이 된 잡화상이 방안으로 뛰여

들었다.
《여러분, 나 좀 살려주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군인 넷이 날 붙잡으러 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뽀르또스와 아라미스는 벌떡 일어섰다.
《좀 가만 있으시오.》 다르따냥은 그들 두사람에게 반쯤 뽑아든 칼을 도로 꽂으라고 신호를 하면서 말하였다. 《좀 가만 있으시오. 이런 땐 덤비지 말고 침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야…》 뽀르또스가 반발하였다.
《다르따냥에게 다 맡기자구.》 아또스가 다르따냥을 두둔하듯이 말하였다. 《내 다시 말하지만 우리 넷가운데서 이 사람이 제일 총명하단 말이네. 아무튼간에 난 이 친구의 뜻을 따를테네. 자, 다르따냥, 자네 생각대로 하자구.》
바로 그때 네명의 군인이 문간에 나타났으나 칼을 가진 총사 넷을 보고는 감히 방안에 들어설념을 못하였다.
《자, 어서들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여기는 내 집이요. 우리는 모두 전하와 주교님의 충실한 종들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명령을 집행하는것을 방해하지 않을테지요?》 우두머리인듯 한 사나이가 물었다.
《원, 무슨 말씀을! 우린 필요하다면 도와드릴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소릴 하는거야?》 뽀르또스가 물었다.
《쉿, 입을 다물게.》 아또스가 그의 말을 막았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가련한 잡화상이 울상이 되여 중얼거렸다.
《우리가 붙잡히면 당신을 도와줄수 없단 말입니다.》 다르따냥이 나직이 말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막아나서면 당장 붙잡히고 말거던요.》
《그렇지만서두 내가 이대로…》
《여러분. 자, 어서요. 어서!》 다르따냥은 큰소리로 말하였다. 《우린 이 사람을 조금도 두둔해나설 까닭이 없습니다. 난 오늘 아침 처음으로 이 사람을 만났는걸요. 방세를 내라고 왔댔지요. 내 말이 맞지요, 보나씨에씨, 그렇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나에 대해서도, 이 친구들에 대해서도 말을 해선 안됩니다. 특히 왕비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라도 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았다간 당신도 우리도 모두 끝장입니다.》 다르따냥이 잡화상에게 소곤거렸다. 《여러분, 이 사람을 끌어가시오.》

다르따냥은 얼이 빠진 잡화상을 병사들쪽으로 떠밀었다.

《참 답답도 하지. 나한테 돈을 받으러 오다니… 나한테… 총사한테! 이따위놈 감옥에 처넣어주시오, 감옥에요. 할수 있는껏 오래 처박아두시오. 그동안이면 나도 돈이 생기겠으니까.》

병사들은 고맙다고 굽석거리면서 잡화상에게로 다가왔다. 그들이 나가려고 할 때 다르따냥이 우두머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하였다.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한모금씩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다르따냥은 보나씨에에게서 가져온 포도주를 잔 두개에 찰찰 넘치게 따랐다.

《이거 정말 황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성함은요?》

《보아르나르라고 합니다.》

《보아르나르씨!》

《당신의 건강을 바랍니다. … 그래 당신의 성함은?…》

《다르따냥이라고 불러주시오.》

《그럼 당신의 건강을 빕니다.》

《아니, 우선 전하와 주교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다르따냥은 사뭇 격정에 넘친 목소리로 말하였다.

상대방도 혹시 술이 나빴다면 다르따냥의 본심을 의심했을수도 있었겠지만 좋은 술이였으므로 그를 믿어버렸다.

《너절하게 그건 도대체 뭔가.》 우두머리가 나가고 저들끼리만 남자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이게 글쎄 무슨 꼴인가 말이야. 총사가 넷씩이나 있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찾아온 가엾은 사람을 붙잡아가게 내버려두다니! 귀족이라는 사람이 그따위 상것하고 잔을 찧지 않나!》

《뽀르또스.》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아까 아또스가 자네를 바보라고 했네만 나도 거기에 동감일세. 다르따냥, 군은 참 장해. 앞으로 혹시 자네가 뜨레빌각하의 자리에 올라앉게 된다면 그때엔 어떻게든 날 수도원장을 시켜주게나.》

《제길, 이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판국인지 알겠나!》 뽀르또스가

부르짖었다. 《자네까지 다르따냥이 잘했다는건가?》
《더 말할게 있나.》 아라미스가 대답하였다. 《잘했다고 생각할뿐 아니라 축하까지 보내는바이네.》
《그럼》 다르따냥은 뽀르또스에게 자기의 행동을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말하였다. 《이제부터 우리의 구호는 〈일심동체〉입니다. 좋습니까?》
《그렇지만》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손을 들어 맹세하세.》 아또스와 아라미스가 동시에 부르짖었다.
다른 친구들의 기세에 압도된 뽀르또스는 여전히 두덜두덜하면서도 손을 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르따냥이 제기한 구호를 외웠다.
《일심동체.》
《그럼 됐습니다. 인제 모두 제집으로들 돌아갑시다.》 다르따냥은 한평생 지휘를 하는데만 버릇된 사람같은 어조로 말하였다. 《그리고 단단히들 조심하시오. 이제부터 우리는 주교와 싸워야 하니까요.》

제 10 장

17세기의 쥐덫

쥐덫이란 결코 현대의 발명품이 아니다. 사회가 형성되여 경찰이라는것이 생겨나는것과 동시에 쥐덫도 발명되였던것이다.
독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거리에서 돌아가는 결말을 아직 모를것이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때로부터 15년나마 지난 지금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을 쓰기는 처음이므로 쥐덫이란 도대체 어떤것인가를 설명해야겠다.
가령 어떤 집에서 누가 죄를 지어서 체포되였다고 하면 그 일은 비밀에 붙여진다. 그리고 그 집에 경찰 네댓명을 잠복시켜놓고있다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관계없이 들여놓은 다음 문을 얼른 닫아버리고 붙잡아버리는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이삼일을 계속하면

그 집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거의 전부가 붙잡히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쥐덫인것이다.
그리하여 보나씨에의 집은 쥐덫으로 화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은 한사람도 남김없이 주교의 끄나불들에게 잡혀가서 문초를 받게 되였다. 물론 다르따냥의 방은 딴 문이 있어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런 화를 입을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다 그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세 총사뿐이였다. 그 세사람은 제각기 보나씨에부인의 종적을 찾아보았으나 아무런 보람도 없었던것이다. 아또스는 직접 뜨레빌을 찾아가서 묻기까지 하였다. 원래 입이 무거운 아또스로서는 희한한 일이였으므로 뜨레빌은 매우 놀랍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뜨레빌은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었다. 단지 며칠전에 왕과 왕비 그리고 주교를 만났을 때 주교는 어딘가 근심스러운 기색이고 왕은 불안에 싸여있었으며 왕비는 전날 밤잠을 자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울었는지 눈에 빨갛게 피가 진것을 보았을뿐이였다. 그러나 왕비는 결혼한 이후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울거나 하는것이 드문 일이 아니였으므로 뜨레빌은 거기에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았었다.
뜨레빌은 어쨌든간에 앞으로도 왕에게 특히는 왕비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이르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기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다르따냥은 한걸음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자기 방을 감시소로 삼았다.
창문에서는 그 집에 왔다가 덫에 걸려드는 사람들을 죄다 볼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루널을 몇장 뜯어내서 아래방과의 사이에는 얇은 천정널밖에 없었으므로 아래층에서 문초하는 소리를 그대로 죄다 들을수 있었다.
먼저 몸을 깐깐히 뒤져본 다음 문초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였다.
《보나씨에부인이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가?》
《보나씨에씨가 자기 처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던가?》
《그들부부가 무슨 비밀을 털어놓은것은 없는가?》
(만일 저것들이 뭔가 확실한것을 알고있다면 저런 식으로 문초를 할

리 없지 않은가.) 다르따냥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알자는것일가. 버킹함공작이 빠리에 와있는가 없는가, 공작이 왕비님을 이미 만났는가 아니면 인차 만나기로 되여있는가 어떤가를 똑똑히 알자는것일것이다.)

다르따냥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그것은 틀림없었다.

쥐덫은 좀처럼 철수되지 않고 다르따냥의 감시도 계속되였다.

보나씨에가 잡혀간 다음날 저녁 9시쯤 되여 그때까지 함께 있던 아또스가 뜨레빌을 만나야겠다면서 떠나가고 쁠랑쉐가 막 잠자리를 펴려고 하는데 누가 거리쪽으로 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뒤이어 문이 열렸다가 인차 도로 닫기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또 쥐덫에 걸린것이였다.

다르따냥은 마루널을 뜯어낸 자리에 가서 엎드려 귀를 기울였다.

고함소리가 들리고 뒤미처 신음소리가 났다. 그러나 아직 문초는 시작되지 않은것 같았다.

《이건 뭐야! 녀자가 아닌가!》 다르따냥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몸을 뒤지니까 저항을 하는구나. 폭력을 쓰는구나. 개자식들!》

언제나 진중한 그였지만 소동이 벌어지고있는 아래층으로 당장 뛰여내려가고싶은것을 억지로 참았다.

《난 이 집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요. 보나씨에의 처라구요. 저… 왕비님의 시중을 드는 사람 말이예요.》 불쌍한 녀인은 부르짖었다.

《보나씨에의 처라니!》 다르따냥은 입안의 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모두가 그렇게도 찾아헤매는 저 녀자가 고맙게도 저절로 내 손에 굴러들었구나.》

《우리가 기다리는건 바로 당신이였단 말이요.》 문초하는 사나이들이 대꾸하였다.

녀자의 목소리는 점차 죽어들어가고 우퉁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녀자가 남자 넷을 상대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있는것 같았다.

《놓아줘요. 놓아줘요.…》 녀자의 목소리가 토막토막 가까스로 들려왔다.

《입을 틀어막았구나. 이젠 어디로 끌고가겠지.》 다르따냥은 튕겨나듯 벌떡 일어섰다. 《쁠랑쉐, 내 칼! 아니, 여기 있구나.》

《나리님, 무슨 분부이십니까?》

《아또스, 뽀르또스, 아라미스를 불러오게. 세사람가운데 하나라도 집에 있을테니. 세사람이 다 있을수도 있어. 무장을 갖추고 빨리 달려오라구 하게. 아, 그렇지. 아또스는 뜨레빌각하를 만나러 갔지.》

《나리님은 그래 어디 가실 차비십니까?》

《난 창문으로 해서 뛰여내릴테네. 그편이 빠르지. 자넨 마루널을 제자리에 놓고 쓸어낸 다음 내가 가라는데로 달려가게.》

《그러다가 나리님은 잘못될수 있습니다.》

《닥쳐, 바보같으니.》 다르따냥은 창턱을 잡고 다행히도 그리 높지 않은 2층에서 한군데도 상하지 않은채 무사히 뛰여내렸다.

그다음 그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쥐덫에 걸려들지만 그런 쥐에게 덤벼드는 고양이야말로 된맛을 볼줄 알라.》

그가 문을 두드리기 바쁘게 집안에서 어지럽게 들리던 신음소리는 뚝 멎고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는것과 동시에 칼을 뽑아든 다르따냥은 방안으로 뛰여들었다. 문은 용수철이 달려있는지 저절로 닫겼다.

이윽고 같은 집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함소리, 어지러운 발소리, 칼이 부딪치는 소리,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웬 소동인가싶어 창밖으로 얼굴을 내민 이웃들은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검은 복장을 한 네사람이 쫓기는 새처럼 허겁지겁 안에서 달려나와 뿔뿔이 흩어져달아나는것을 보았다. 옷이며 만또쪼각들이 날개에서 뽑혀진 깃털처럼 방바닥과 책상모서리들에 널려있었다.

다르따냥은 별로 힘을 들인것도 없었다. 네사람가운데 무기를 가진것은 하나뿐인데 그나마도 방어에만 급급하였던것이다. 나머지 셋은 걸상이며 질그릇따위를 던지였으나 다르따냥의 칼에 몇군데 가볍게 찔리자 기가 질려버렸다. 몇분사이에 승부가 결정되였다. 그러루한 소동에는 익숙될대로 익숙된 빠리사람답게 아주 심드렁한 기분으로 창문을 열고 내다보던 린근의 사람들은 네사람이 달아빼는것을 보자 얼른 창문을 닫아버렸다. 그것으로 한 장면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였을것이다.

이젠 시간도 퍼그나 늦은데다 룩셈부르그궁전일대에서는 당시에도 지금처럼 모두들 일찍 잠자리에들 들었던것이다.

다르따냥은 보나씨에부인과 단둘이 되자 부인을 돌아다보았다.

그 녀자는 쏘파에 쓰러져 거의나 정신이 없었다. 다르따냥은 얼핏 부인을 살펴보았다.

나이는 스물대여섯살 되였는데 밤색머리에 눈이 파란 아름다운 녀인이였다. 가쯘한 이발, 발그레한 살결, 그러나 그 녀자를 귀부인으로 볼수 있는 점이란 그것뿐이였다. 손은 비록 희기는 하지만 곱지 못하고 발도 귀부인같은 맵시가 없었다. 다르따냥은 다행히도 그런 세세한것까지는 볼줄 몰랐다. 그리하여 부인의 모습을 살피다가 그 녀자의 발치에 눈을 주던 그는 손수건 하나가 거기에 떨어져있는것을 보았다. 여느때의 버릇대로 얼른 집어서 보니 얼마전에 그것때문에 아라미스와 결투까지 할번 했던 손수건에 있는것과 꼭같은 이름자가 한 귀퉁이에 새겨져있지 않는가.

이름자를 새긴 손수건에는 진저리가 났으므로 다르따냥은 말없이 손수건을 보나씨에부인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바로 그때 보나씨에부인은 정신을 차렸다. 눈을 뜨고 겁에 질린 눈으로 사위를 둘러보니 자기를 구원해준 사람이 하나 있을뿐 방안은 텅 비여있다. 그 녀자는 곧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내밀었다. 부인의 미소는 류달리 매혹적이였다.

《아, 당신이 절 구원해주셨군요. 참말 고마와요.》

《부인, 나는 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니 그런 말씀은 필요없습니다.》

《아니예요. 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랍니다. 그건 그렇고 그 사람들은 내게서 뭘 노렸을가요? 전 강도들인줄만 알았댔지요. 우리 주인은 왜 보이지 않을가요?》

《부인, 그자들은 강도들보다 더 위험한 놈들입니다. 그자들은 모두 주교의 끄나불들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어제 바스띠유감옥에 끌려갔는걸요.》

《어마나, 그이가 바스띠유감옥엘요?》 보나씨에부인은 놀라서 부르짖었다. 《아니, 그이가 무슨짓을 했다는건가요? 참,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그 젊은 녀인의 놀란 얼굴에는 무슨 까닭인지 얼핏 미소같은것이 스치였다.

《무슨짓을 했는가구요?》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그분의 죄라는것은 단지 한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같은 아름다운분

의 남편이라는 행복과 불행을 다같이 지녔다는 죄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알고계시는군요. …》
《나는 당신이 랍치되였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그 사람을 알고계시니 말씀 좀 해주세요.》
《마흔살안팎의 머리가 까만 사람이지요. 얼굴은 검실검실하게 타고 왼쪽관자노리에 허물이 있고.》
《맞아요, 꼭 맞아요. 그래 이름은요?》
《이름이요? 이름은 모릅니다.》
《우리 주인이 내가 랍치되였다고 말하던가요?》
《집주인은 그놈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알았지요.》
《그럼 랍치된 원인을 알고있던가요?》 보나씨에부인은 저으기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분은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설마하고 생각했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이는 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단 말씀이지요. …》
《원, 무슨 말씀을! 그분은 당신이 정숙한분이라는걸, 특히는 부인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자랑까지 하던걸요.》
또다시 알릴듯말듯 가벼운 미소가 아름다운 녀인의 장미빛입술에 스치였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대체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저는 우연히 혼자 있게 된 틈을 타서 도망쳤지요. 오늘 아침에 랍치된 리유가 어렴풋이 짐작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포를 바줄로 삼아서 창문으로 해서 내려왔지요. 주인이 집에 있는줄로만 알고 달려왔던거예요.》
《그분의 보호를 바라고요?》
《아니예요. 저는 가엾은 그이가 저를 막아줄 힘이 전혀 없다는걸 잘 아는걸요. 그저 좀 부탁하고싶은 일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자고 왔던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건 저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라서 말씀드릴수 없어요.》
《어쨌든》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나는 보잘것없는 근위병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여기는 비밀이야

기를 할만 한 곳이 못됩니다. 아까 쫓겨달아난 무리들이 다른 놈들까지 더 끌고 다시 올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나도 친구 세사람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띄우기는 했지만 그들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일리있는 말씀이예요. 당신생각이 옳아요.》

보나씨에부인은 몸을 바르르 떨면서 말하였다. 《그럼 피합시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부인은 다르따냥의 팔을 끼며 잡아끌었다.

《그런데 어디로 가실 작정입니까?》

《어쨌든 이 집에서 나가고 보자요. 그다음에 무슨 수가 나지겠지요.》

젊은 부인과 청년은 문도 닫지 않은채 꾼쑤아여르거리로부터 프쎄무씨어르프랭스거리로 나와 쌩－쉴쁘스광장에 이르렀다.

《이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을 어디로 모시고 가야 할가요?》 다르따냥이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저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라 뽀르뜨씨에게 알리려고 했댔지요. 라 뽀르뜨씨에게 물어보면 이 사흘동안의 루브르궁전사정도 알수 있고 제가 궁전에 들어가도 위험하지 않겠는지 어떤지도 알수 있을것 같아서요.》

《라 뽀르뜨씨에게 알리는 일이라면 내가 맡아도 되지요.》

《그래도 되기야 하겠지만 딱한건 궁전에서는 우리 주인의 얼굴을 알고들 있어서 그분이 아니면 들여놓지 않아요. 거기서는 당신을 모르기때문에 안 들여놓을게 분명해요.》

《그렇겠군요.… 그렇다면 혹시 루브르궁전의 작은 문에 있는 사람들가운데 누구든지 부인에게 충실한 사람이 없습니까? 암호를 듣고…》

보나씨에부인은 떠보는듯 한 눈매로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암호를 당신은 한번만 쓰고 잊어버려주시겠어요?》

《여부가 있습니까!》 다르따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고한 어조로 말하였다.

《좋아요. 전 당신의 말을 믿겠어요. 당신은 제가 보기에도 성실한 분 같아요. 성실성만 보여주시면 아무때건 보답을 받는 날이 있을거

예요.》
《나는 국왕전하를 위해서라면, 왕비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조건부도 없이 진심을 바쳐서 해내는 사람입니다. 나를 벗으로 알고 맡겨주십시오.》
《그런데 그사이 저는 어디서 기다려야 할가요?》
《라 뽀르뜨씨가 당신을 만나러 갈만 한데가 없습니까?》
《안돼요. 전 지금 아무나 망탕 믿어선 안돼요.》
《가만 계십시오.》 다르따냥이 그의 말을 막았다. 《우리가 이거 마침 아또스의 집 근처에 온것 같은걸. 옳지, 그렇군.》
《아또스란 누군가요?》
《나의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집에 돌아왔다가 절 보게 되면…》
《그 친군 집에 오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방안으로 모셔간 다음 열쇠를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서 돌아오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 걱정이 되시면 그 친구에게 내가 녀자손님을 한분 모시고와 그의 방을 잠간 빌려쓰고있다고 말해주지요.》
《그렇게 하면 저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수 있어요.》
《상관 있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지금의 우리 형편에서 체면 같은걸 생각하게 됐습니까?》
《그럼 그 친구분의 집으로 가자요. 어디예요?》
《페루거리입니다. 조금 가면 됩니다.》
《자, 빨리 가자요.》
두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다르따냥의 말대로 아또스는 집에 없었다. 여느때처럼 문지기에게서 열쇠를 받아들고 올라가서 보나씨에부인을 우리가 이미 알고있는 자그마한 방으로 안내하였다.
《조금도 걱정마십시오. 문을 안으로 걸고 기다려주십시오. 누가 와도 문을 열어선 안됩니다. 내가 돌아오면 세번 두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나서 다르따냥은 세번 두드려보였다.
힘껏 두번, 좀 사이를 두었다가 가볍게 한번.
《알겠어요. 이제는 제가 궁전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드릴 차

례예요.》 보나씨에부인은 말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궁전에 가시면 레쉘르거리쪽의 작은 문에 가서 제르맹이라는 사람을 찾으세요.》

《예, 그다음은요?》

《무슨 일인가고 꼭 물을것인데 그러면 〈뚜르와 브류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가 당신의 요구대로 움직일거예요.》

《뭐라고 요구해야 합니까?》

《왕비님의 시종 라 뽀르뜨씨를 불러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라 뽀르뜨씨가 나오면요?》

《저에게 좀 와달란다고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만날수 있을가요?》

《당신은 저를 다시 만나고싶으신가요?》

《그야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그 일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걱정마시고요.》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믿으세요.》

다르따냥은 허리를 굽혀보이고 련정이 넘치는 눈매로 녀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일별하였다. 층계를 달려내려가자 뒤에서 자물쇠를 거는 소리가 들렸다. 그길로 루브르궁전에 가서 작은 문에 들어섰을 때는 10시였다. 지금까지의 가지가지 일들은 전부 반시간사이에 일어났던 것이다.

모든것은 보나씨에부인이 말하던대로 되였다. 제르맹은 암호를 듣자 허리를 굽석하였다. 10분이 지나서 라 뽀르뜨씨가 문지방으로 나왔다. 다르따냥은 몇마디로 정황을 설명하고 보나씨에부인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라 뽀르뜨씨는 그 집 주소를 두번씩이나 확인하고나서 달리다싶이 나가더니 열걸음쯤 가서 되돌아섰다.

《젊은이, 내 충고할게 있소.》

《뭔데요?》

《오늘 있은 일때문에 젊은이에게 화가 미칠수 있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젊은이는 시간이 뜬 시계를 가지고있는 친구가 없소?》

《어째서 그러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면 곧바로 그 친구의 집으로 가오. 젊은이가 9시 반에 그 집에 있었다는걸 증명받을수 있게 말이요. 법관들은 그걸 부재증명이라고 한다오.》

다르따냥은 그 충고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뜨레빌의 저택으로 갔다.

그러나 객실에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아 그는 곧바로 뜨레빌의 집무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젊은 동향인이 매우 급한 일로 조용히 만나고싶어한다고 전하게 하였다. 뜨레빌은 5분후 다르따냥을 만나자 이렇게 늦은 때에 무슨 일인가고 괴이쩍게 물었다.

《미안합니다.》 혼자 있는 짬에 재빨리 시계를 45분이나 늦춰놓은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저는 지금이 겨우 9시 25분이니까 아직 찾아뵈여도 일없겠구나 생각했댔습니다.》

《아니, 9시 25분이라니, 그럴수가 있나.》 뜨레빌은 이렇게 말하면서 시계를 보았다.

《잘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옳소, 그렇구만.》 뜨레빌은 말하였다. 《그런걸 난 또 훨씬 더 늦은줄 알았댔지. 그건 그렇고, 무슨 일로 왔나?》

다르따냥은 왕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왕비의 처지가 걱정스럽다는것, 주교가 버킹함공작을 꾀여들일 모략을 꾸미고있다는것을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하는 태도가 너무도 침착하고 확신에 차있는데다가 자기도 주교와 왕, 왕비사이에 요즘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은것 같은 느낌을 받고있었던지라 뜨레빌은 다르따냥의 말을 믿지 않을수 없었다.

10시가 되자 다르따냥은 뜨레빌과 헤여졌다. 뜨레빌은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왕과 왕비에게 계속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객실로 돌아갔다. 다르따냥은 층계아래까지 내려가자 지팽이를 두고 온것이 생각나서 부랴부랴 뜨레빌의 객실로 되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시계가 떠진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시계바늘을 제대로 돌려놓았다. 그는 이제는 자기의 부재증명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편히 층계를 내려와 거리에 나섰다.

제 11 장

밀통이 시작된다

뜨레빌의 저택에서 나와 집으로 향한 다르따냥은 제일 먼 돌음길을 택하여 걸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이처럼 일부러 돌음길을 걸으면서까지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기도 하고 한숨을 짓기도 하고 혼자 싱글거리기도 하는 다르따냥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였을것인가?

그는 보나씨에부인을 생각하고있었다. 견습총사에게 있어서 그 젊은 부인은 련인의 최고리상이라고 할수 있었다. 아름답고 온통 신비에 싸여있으며 궁정의 어지러운 내막을 속속들이 알고있기때문인지 사랑스러운 얼굴에는 어째선지 시름겨운 빛이 떠돌고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매정스러워보이지는 않는 녀인—그것은 처음으로 이성에 눈을 뜬 그에게 있어서 물리치기 어려운 매력이였다. 그런데다 다르따냥은 몸뒤짐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악마들의 손에서 그 녀자를 구원해주었으므로 그 잊을수 없는 은혜가 그 녀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애틋한 감정에로 발전할수 있는 감사의 정을 느끼게 하였던것이다.

다르따냥은 공상의 나래를 펴고 그 부인이 사자를 시켜 밀회를 부탁하는 편지에 금사슬이며 금강석 같은것을 보내오는 모양을 머리속에 그려보고있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당시의 젊은 사람들은 왕에게서 돈을 받는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처럼 궁지를 중시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련인에게서 그런것을 받는것도 수치가 아니였다. 그리하여 련인들은 언제나 여러가지 귀중품들을 기념으로 주고받았다. 자기들의 불안정한 사랑을 그와 같은 불변의 기념품으로써 밀받침하려는것일수도 있으리라.

당시에는 출세를 위하여 녀자를 리용하는것마저 전혀 수치로 되지 않았다.

미모밖에 지닌것이 없는 녀자들은 그 미모를 선사품으로 내주었다.

《미인은 얼굴이 값이다》는 속담도 여기서 생겨난것이리라. 부유한 녀자들은 가지고있는 돈의 일부를 주었다. 무사도가 성행했던 그때 시대를 장식한 수많은 영웅들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만일 련인들이 그들의 말안장엽에 묵직한 돈주머니를 매달아주지 않았다면 결코 그런 무공을 세우지 못하였을것이다.

다르따냥은 빈털터리였다. 연약한 꽃과도 같고 복숭아의 솜털과도 같은 그의 촌뜨기라는 소심성의 껍데기는 세 총사가 불어대는 그닥 건전치 못한 바람에 의하여 산산이 날아나버렸다. 다르따냥은 빠리에서 사는것이 마치도 점령지에서 사는것과 같이 느껴졌다. 플랑드르에라도 있는것처럼 느껴졌다. 단지 그쪽에는 에스빠냐인들이 있다면 여기에는 녀자들이 있다는것이 다를뿐이였다. 그리고 그쪽에도 이쪽에도 싸워야 할 적이 있고 받아내야 할 징발금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따냥이 아직은 고상하고 깨끗한 감정의 지배를 받고있었다는것을 말해두어야 하겠다. 물론 잡화상은 자기에게 돈이 많다고 말은 했지만 그런 얼뜨기니만큼 돈궤열쇠는 처가 쥐고있으리라는것쯤 다르따냥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것은 보나씨에부인을 본 순간 그에게서 싹터오른 그 감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그의 심장속에 자라난 애정과는 거의 인연이 없었다. 《거의》라고 하는것은 아름답고 상냥하고 지혜로우며 게다가 부유한 젊은 녀자라는 생각은 사랑의 감정에 찬물을 끼얹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부채질을 하기때문이다.

부유한 생활은 미를 돋구기 위한 여러가지 귀족적인 기호, 취미와 련결되여있다. 하얀 고급양말, 비단옷, 레스 달린 숄 그리고 발에는 맵시나는 신발, 산뜻한 색갈의 리봉— 이 모든것은 못난 녀자를 아름답게 할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녀자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것이다. 아름다운 손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다. 녀자의 손이 고우려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고이 놀아야 한다.

다르따냥은 독자들도 잘 아다싶이 결코 백만장자가 아니였다. 언제든 그렇게 되고야말리라는 생각은 하고있으나 그것은 먼 앞날의 일이였다. 지금 당장은 사랑하는 녀인에게 녀자가 바라는 유일한 행복이

라고도 할수 있는 그 자질구레한 온갖 물건들을 사줄수 없는 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것이랴. 만일 녀자가 부자라고 한다면 남자쪽에서 선사하지 못하는것을 자기스스로 갖출수도 있을것이다. 그리고 녀자가 그러한 즐거움을 마음대로 누리는것은 대체로 남편의 돈이 있기때문이지만 남편은 그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거의 받지 못한다.

또한 다르따냥은 가장 살뜰한 련인으로 될 꿈을 꾸면서도 역시 벗들에 대한 의리에는 변함이 없었다. 모든 정신이 보나씨에부인에게 팔려있으면서도 자기의 벗들을 잊지 않았다. 아름다운 보나씨에부인을 생각하는 때에도 그 녀자를 아또스, 뽀르또스, 아라미스들과 함께 쌩－데니벌이나 쌩－제르맹시장에 데리고 다닐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자기가 손에 넣은 련인을 자랑할 작정이였다. 또 오래 거니느라면 허기가 질것인데 (그는 얼마전부터 거기에 생각이 미치게 되였다.) 그런 때면 풍성한 만찬을 베풀어 한쪽으로는 벗들의 손을 잡고 다른 한쪽으로는 련인의 발을 건드릴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기격의 재미도 맛볼수 있을것이였다. 그리고 처지가 정 궁색할 때에는 자기가 친구들을 살려줄수 있을것이였다.

그러면 다르따냥이 밀정들의 손에 넘겨준 보나씨에씨는 어떻게 하려는것일가.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를 큰소리로는 밀쳐버리면서도 귀속말로는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던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는 이 시각 그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있었다. 혹시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가있는 그곳에 그대로 있기를 바랐을뿐이였다. 사랑이란 이처럼 리기주의적인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독자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 다르따냥은 그를 잊을수 있고 그의 행방을 모른다는 구실로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작가는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다. 작가는 그가 가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있다. 그렇지만 당분간 우리는 사랑에 빠진 이 가스꼰뉴청년을 그대로 내버려두기로 하자. 그 잡화상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자.

다르따냥은 앞날의 사랑 한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밤의 어둠에 말을 걸고 뭇별들에 미소를 던지면서 걷고있었다. 마침 아라미스의 집 근처에 이르자 그는 거기에 잠시 들려서 오늘 뿔랑쉐를 시켜 급히 쥐덫으로 와달라고 하게 된 까닭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뿔랑쉐가 찾아갔을 때 아라미스는 모름지기 집에 있었을것이므로 틀림없이 포

쑤아여르거리로 달려갔을것이며 달려가보니 나머지 두 친구밖에 없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벙벙했을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마침 보나씨에부인에 대해 털어놓을수 있는 기회로도 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애오라지 그 생각뿐이였다. 첫사랑에 빠진 사람더러 진중하라고 요구하는것은 무리한 일이다. 첫사랑이라는것은 가슴속에 기쁨이 끓어넘쳐 그것을 털어놓지 않고서는 질식될 지경이 되는 그런 감정인것이다.

빠리의 거리는 어둠이 깃든지도 2시간이 지난 때여서 인적이 드물었다. 쌩-제르맹구역의 시계들이 일제히 11시를 쳤다. 기분이 상쾌한 날씨였다. 다르따냥은 워지라르거리쪽에서 바람에 실려 밤이슬에 젖은 정원들에서 풍겨오는 향기를 가슴가득히 들이키면서 지금의 아싸스거리의 골목길을 걷고있었다. 저 멀리 주막집들에서는 노래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골목길끝에 이르자 다르따냥은 왼쪽으로 꺾어들었다. 아라미스의 집은 까쎄뜨거리와 쎄르반도니거리사이에 있었다.

다르따냥은 까쎄뜨거리를 지나서 무성한 단풍나무와 포도넝쿨사이로 친구의 집이 보이는데까지 이르렀다. 바로 그때였다. 쎄르반도니거리쪽에서 사람의 그림자같은것이 나타났다. 만또로 몸을 감싸고있어 다르따냥은 처음에 남자인줄만 알았다. 그러나 작은 키며 주춤거리는 거동으로 미루어 녀자라는것을 곧 깨달았다. 그 녀자는 자기가 찾고있는 집을 정확하게 모르는듯 우를 올려다보기도 하고 가던 길을 되돌아서기도 하는것이였다. 다르따냥은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가서 도와주어야 할가보다.) 다르따냥은 생각하였다. (저 걸음새를 보면 젊은 녀자다. 예쁠지도 모른다. 틀림없다. 그런데 련인을 찾아가는 녀자가 아니고서야 이런 시각에 밤거리에 나다닐수 없지 않은가. 제길 남들의 밀회를 방해했다가는 공연히 원망만 살수 있다.)

이러는 사이에 젊은 녀자는 집채며 창문들을 훑으며 계속 걸어갔다. 그것은 별로 품이 드는 일이 아니였다. 그곳에는 집이 세채뿐이고 거리쪽으로 난 창문은 둘뿐이였다. 그가운데 하나는 아라미스가 살고있는 옆집의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라미스가 빌린 방의 창문이였다.

《옳지!》 다르따냥은 중얼거렸다. 그 신학자의 조카딸이라는것이 머리에 떠올랐다.

《멋있는걸! 이렇게 늦은 때에 저 아가씨가 그 친구의 집을 찾아헤맸다면 그건 정말 재미가 있고말고! 내 짐작이 틀린다면 이 손바닥에 장을 지질테다! 자 아라미스씨, 오늘은 내 당신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테요!》

다르따냥은 몸을 한껏 옹크리고 시커먼 벽의 우묵진 곳에 놓여있는 돌의자뒤에 숨었다. 젊은 녀자는 계속 걸었다. 젊은 녀자라는것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걸음걸이를 보고도 알수 있었지만 방금 울린 기침소리를 들어보아도 그는 녀자가 분명하였다. 다르따냥은 그 기침이 신호라고 생각하였다.

이윽고 안에서 같은 신호가 있었던지 아니면 끝내 필요한 그 집을 제 힘으로 찾아냈던지 그 녀자는 아라미스의 창문으로 다가가서 손가락을 꼬부려가지고 같은 간격으로 세번 똑똑똑 덧문을 두드렸다.

(아라미스의 창문이로구나. 여보시오, 위선자선생. 당신의 신학연구라는게 이런것이였군요.)

다르따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세번 두드리기 바쁘게 안쪽창문이 열리면서 창유리로 한줄기빛이 새여나왔다.

(그렇지, 안에서 기다리고있었구나. 이제 덧문이 열리고 녀자는 창문을 넘어서 들어갈테지. 흥, 잘해!)

그러나 놀랍게도 덧문은 열리지 않는다. 게다가 새여나오던 불빛도 사라져 모든것은 다시 어둠속에 잠겨버렸다.

다르따냥은 그것은 잠간일것이라고 생각하고 온몸이 귀가 되고 눈이 되여 기다렸다.

그의 짐작은 옳았다. 미구하여 안쪽에서 똑똑 두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녀자쪽에서 이번에는 한번 똑 두드리자 문이 열렸다.

다르따냥이 얼마나 걸탐스럽게 지켜보고 귀를 강구었겠는가 하는것은 과히 상상할수 있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불빛은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다르따냥의 눈은 이미 어둠에 익었고 또 세상사람들이 말을 하다싶이 가스꼰뉴사람은 고양이처럼 밤눈이 밝았다.

그리하여 다르따냥은 젊은 녀자가 호주머니에서 흰 물건을 꺼내여

다급히 펼쳐보이는것을 보았다. 손수건같았다. 펼쳐보이면서 녀자는 손수건의 한쪽귀퉁이를 가리켰다. 그것을 보는 순간 다르따냥의 머리속에는 보나씨에부인의 발치에 떨어졌던 손수건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그리고 그 손수건은 아라미스의 발치에 떨어져있던 손수건을 상기시켰다.

도대체 그 손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가?

지금 서있는 자리에서는 아라미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다르따냥은 창밑에 서있는 녀자와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라미스가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호기심이 부쩍 동한 다르따냥은 두사람이 손수건을 보기에 여념이 없는 틈을 타서 은페장소에서 나와 번개처럼 날쌔게 거리를 가로질러가서 감쪽같이 벽에 몸을 붙이고 섰다. 거기서는 아라미스의 방안이 구석구석까지 빤히 들여다보였다. 거기까지 달려간 다르따냥은 깜짝 놀라서 하마트면 소리를 지를번 하였다. 때늦은 방문객과 이야기하고있는것은 아라미스가 아니라 녀자였다. 다르따냥은 옷차림은 보았으나 얼굴은 볼수 없었다.

바로 그때 방안의 녀자가 다른 손수건을 꺼내더니 바깥에 서있는 녀자와 바꾸어가졌다. 그다음 두 녀자는 두세마디 주고받았다. 그리고는 창문이 다시 닫겼다. 창밖에 있는 녀자는 돌아서서 다르따냥의 앞을 지나가면서 만또의 두건을 눈우에 깊숙이 내려썼다. 그러나 때가 늦었다. 다르따냥은 보나씨에부인을 알아보았다.

보나씨에부인! 아까 손수건을 꺼내들었을 때 혹시 그 녀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뇌리를 스치기는 하였었다. 그러나 자기를 루브르궁전으로 데리고 갈수 있게 라 뽀르뜨씨를 불러달라고 부탁한 그 녀자가 11시반이나 되는 깊은 밤에 혼자서 빠리시내를 그것도 랍치될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다닐수 있으리라고야 누가 생각이나 할 일인가.

확실히 무엇인가 급한 일이 있은것이다. 25살의 애젊은 녀자에게 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사랑이다.

그러나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것은 자기자신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인가? 다르따냥은 이렇게 생각해보았다. 그는 이미 련인이 다 되기나 한것처럼 가슴속에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다.

보나씨에부인의 행처를 알아내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뒤를 밟는것이였다. 그 방법은 극히 자연스러운것이였으므로 다르따냥은 더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길을 택하였다.

그러나 그 녀자는 시꺼먼 담벽에서 그 조각상과도 같은 그림자가 떨어져나오고 발소리가 들려오는데 깜짝 놀라 악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다르따냥은 뒤를 따랐다. 만또로 몸을 감싸서 걸음이 제대로 안되는 녀자를 따라잡는것은 간단한 일이여서 다르따냥은 그 녀자가 접어든 거리의 3분의 1쯤 있는 곳에서 붙잡을수 있었다. 그 녀자는 힘이 진하였다기보다 공포심때문에 발을 놀릴수 없었던것이다. 다르따냥이 어깨에 손을 얹자 그 녀자는 한쪽무릎을 꿇고 앉으며 억눌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죽일테면 죽여요. 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테니요.》

다르따냥은 그 녀자의 허리를 안아 일으켜세웠다. 몸이 축 늘어진것으로 미루어 그 녀자가 금시 까무러칠 상태인것을 깨닫자 그는 당황하며 가지가지 따뜻한 말로 안심시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런 말은 보나씨에부인에게 아무런 작용도 미치지 못하였다. 친절한 말속에 무서운 악의가 숨어있을 때가 많은것이다. 그렇지만 목소리만은 속일수 없는것이다. 보나씨에부인은 목소리가 귀에 익은것 같아서 눈을 떴다. 지금껏 그렇게도 무서워했던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다르따냥인것을 알자 환성을 질렀다.

《아이, 당신! 당신이였군요! 정말 고맙군요.》

《그렇습니다. 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지켜드리라고 보내주신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저를 뒤따랐던가요?》 젊은 녀자는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며 물었다. 빈정대기 잘하는 버릇이 되살아났다. 원쑤인줄 알았던 사람이 자기 편인줄을 알게 된 순간부터 위구심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린것이다.

《아니지요. 솔직히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따르게 된것은 우연이지요. 내가 보느라니까 어떤 부인이 내 친구의 집 창문을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

《당신의 친구라구요?》

《그렇지요. 아라미스는 나의 친구들가운데 한사람인걸요.》

《아라미스라니요. … 그건 누군데요?》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아라미스를 모른다고 시치미를 뗄 작정이십니까?》

《그런 이름은 처음이예요.》
《그 집엔 처음 가보십니까?》
《그러챦구요.》
《그 집에 젊은 사람이 산다는것도 모르십니까?》
《몰라요.》
《그 사람이 총사라는것은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온게 아니라는거지요?》
《그래요. 당신도 보셨을텐데요. 나와 이야기한것은 녀자예요.》
《옳습니다. 그렇지만 아라미스가 아는 녀자겠지요.》
《그런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집에 사는 녀자가 아닙니까.》
《그런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녀자는 누군가요?》
《그건 나혼자만 관계되는 비밀이 아니라서…》
《보나씨에부인, 당신은 참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매우 신비스러운분입니다.》
《그것때문에 내 인품이 떨어진다는건가요?》
《무슨 말씀을, 오히려 그와는 반대지요. 더 매력적입니다.》
《그럼 어서 좀 부축해주세요.》
《자, 됐습니까? 이젠 어떻게 할가요?》
《절 좀 데려다주세요.》
《어디로?》
《제가 가자는데로.》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가보면 알아요. 당신은 문앞까지 함께 가시게 되니까요.》
《거기서 기다려야 하는가요?》
《안 기다려도 돼요.》
《그러니까 돌아올 땐 혼자라는겁니까?》
《글쎄, 그럴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어요.》
《당신을 바래줄 사람은 남자인가요, 녀자인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난 꼭 알아내고야말텝니다!》

《어떻게요?》
《기다렸다가 당신이 나오는걸 보면야…》
《그렇다면 잘 가세요. …》
《왜요?》
《당신같은 사람이 더는 필요없으니까요.》
《하지만 아까는 부인쪽에서 먼저…》
《제가 부탁한건 귀족의 도움이지 밀정의 감시는 아니였어요.》
《잠간만, 잠간만. 그 말씀 너무 가혹하십니다.》
《억지로 뒤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해야겠어요?》
《싱겁둥이.》
《그건 너무 표현이 약하군요.》
《할수 없군요. 당신 말씀대로 할수밖에 없군요.》
《진작 그렇게 나올것이지.》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만이 아닐가요?》
《정말 잘못을 깨달으셨어요?》
《나로서는 딱히 모르겠구만요. 단지 한가지 명백하게 아는것은 당신이 가는 곳까지 함께 갈수만 있다면 그밖의 어떤 일도 당신이 바라시는대로 하겠다는 그겁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헤여지지요?》
《그럼요.》
《내가 나오는걸 기다리지 않고요?》
《물론이지요.》
《약속하지요?》
《무사로서 약속합니다.》
《그럼 부축해줘요. 가자요.》
보나씨에부인은 다르따냥이 내민 손에 의지하여 절반은 웃고 절반은 공포에 떨면서 걷기 시작하였다. 두사람이 라 아르쁘거리끝까지 이르자 젊은 부인은 아까 워지라르거리에서도 그랬던것처럼 또다시 머뭇거리는 눈치였다. 그러나 무슨 표적이라도 알아본듯 그 녀자는 어느 한집의 문으로 다가갔다.
《자, 다 왔어요. 친절하게 데려다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왔으니 저로서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였다면 무슨 변을 당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약속을 지켜주실 때가 되였어요. 전 이

집을 찾아왔어요.》
《돌아가실 일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무서운건 도적뿐이예요.》
《그래 도적은 대수로울게 없다는겁니까?》
《그것들이 제게서 얻을게 뭐 있겠어요?》
《문장을 수놓은 그 고운 손수건은요?》
《그게 무슨 뚱딴지같은 말씀이예요?》
《당신의 발치에 떨어져있는것을 내가 주어서 호주머니에 넣어드렸더랬는데요.》
《무엇때문에, 무엇때문에 그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제가 신세 망치는걸 보고싶어 그러세요?》
《그것 보십시오. 당신에겐 아직도 위험이 따르고있단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당신은 그렇게도 질겁을 하거던요. 그 말을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 당신은 끝장입니다. 자, 부인.》 다르따냥은 상대방의 손을 꼭 그러쥐고 정열이 넘치는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며 말하였다. 《부인, 마음을 크게 먹고 나를 믿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보십시오. 나의 가슴은 당신에 대한 동정과 충실성으로 차넘치고있다는것을 당신은 모른단 말입니까?》
《알고있어요.》 보나씨에부인은 나직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 한사람의 비밀이라면 얼마든지 말씀드릴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비밀은 사정이 달라요.》
《좋습니다. 난 자체로 그 비밀을 알아낼것입니다. 그 비밀이 당신의 운명과 관계되는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비밀이기도 한것입니다.》
《명심해들으세요.》 젊은 녀인은 다르따냥이 저도 모르게 흠칫할 정도로 정색해서 말하였다. 《제가 하는 일에 그렇게 끼여들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일을 도울 생각은 하지 말아요. 저를 호의로 대해주시는줄 알기때문에 이렇게 간청하는거예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더는 저를 생각지 말아줘요. 당신에게 있어서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예요. 저를 애당초 만나지 않았던것으로 여겨주세요.》
《아라미스도 나처럼 해야 합니까?》 다르따냥이 발끈하여 물었다.
《당신은 벌써 두번째 그 이름을 드시지만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을 몰라요.》

《그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 창문을 똑똑 두드렸다는겁니까? 그만두시오. 내가 그렇게도 쉽게 속아넘어갈 사람인줄 압니까?》
《당신은 저에게 진실을 털어놓게 하려고 그런 허황한 이야기며 사람을 꾸며댄거예요.》
《난 꾸며낸 소리가 아닙니다. 허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친구 한분이 그 집에 산다는거지요?》
《그렇다니까요. 벌써 세번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내 친구의 집이고 그 사람은 아라미스라고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가지 일이 명백해질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만일 당신이 나의 활짝 열린 마음속을 들여다볼수 있다면》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그속에 불같은 호기심이 꽉 차있음을 볼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차넘치는것을 보고 그 호기심을 당장에 만족시켜줄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경계할 필요는 조금도 없으니까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서둘러 하는군요.》 녀인은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나는 사랑이 일찍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떴지요. 난 지금 스무살도 못됐거던요.》
녀인은 그를 넌지시 곁눈질해보았다.
《내 말 들어보시오. 난 이미전부터 비슷이 짐작하고있었습니다.》 다르따냥은 계속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석달전에 난 손수건때문에 아라미스와 결투를 할번 했더랬습니다. 그 손수건은 당신이 그 사람의 집에서 어떤 녀자에게 보여준 손수건과 같은것이고 표식도 꼭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그런 말씀에 난 아주 지쳐버리고말았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신중한분이시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붙잡혀서 그 손수건을 빼앗긴다면 야단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째서요? 거기 새겨져있는건 제 이름자예요. 꽁스땅스 보나씨에란 말이예요.》
《까미이드 부아 뜨라씨라고 해도 무방하겠지요?》
《그만 입을 다물어요. 더 말하지 말아요. 제가 위험하다는건 둘째

로 치더라도 당신자신이 위협하다는걸 알아야 할거예요.》
《내가요?》
《그렇다니까요. 당신자신이 위험하다니까요. 자칫하면 감옥신세를 질수 있어요. 저와 아는 사이가 되면 생명까지도 잃을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당신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군요!》 그 녀자는 두손을 모아쥐고 간청하였다. 《어때요. 무사의 명예로 알고, 귀족의 도리로 알고 제발 여기서 물러가주세요. 어쩌나, 벌써 12시를 알리는것 같아요. 약속한 시간이예요.》
《부인, 그것이 정 소원이라면…》 젊은이는 허리를 굽석하였다.
《저의 뒤를 밟지는 않겠지요?》
《이길로 집에 가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정직한분이라는것을 알고있어요.》 보나씨에부인은 한손을 다르따냥에게 내밀고 다른 한손은 초인종에 내밀면서 말하였다. 다르따냥은 녀자의 손을 잡고 거기에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아, 난 차라리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르따냥은 서글픈 어조로 솔직히 말하였다. 그런 어조는 세련된 인사치레보다 더 녀자를 감동시킨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수 있게 하며 감성이 리성을 누르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기때문인것이다.
《아니예요.》 보나씨에부인은 정겨운 목소리로 말하면서 다르따냥의 손을 꼭 쥐였다. 《저는 당신과 다르게 생각해요. 오늘에 이루지 못한것이라 해서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이루지 못한다는 법은 없거던요. 언제건 제가 자유로운 몸이 되기만 하면 그때에는 당신의 호기심을 만족시켜드릴수도 있을거예요.》
《나의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약속해줄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거기 대해서는 약속 못하겠어요. 그건 장차 제가 당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은요?》
《오늘은 그저 감사하다는 느낌뿐이예요.》
《아, 당신은 참말 매력이 있습니다.》 다르따냥은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당신은 나의 진정을 희롱하고계십니다.》

《아니예요. 저는 단지 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씨를 리용할따름이예요. 하지만 자기가 약속한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걸 알아두세요.》

《당신은 나를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자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 약속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안심하세요. 때가 오면 저는 반드시 당신을 생각할거예요. 그럼 어서 돌아가주세요. 돌아가시지요? 12시에 만나자는 약속이였는데 벌써 늦었어요.》

《겨우 5분 늦은걸요.》

《그래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분이 다섯세기에 맞먹을 때도 있어요.》

《사랑에 빠져있을 때 말이지요.》

《그래요. 제가 언제 사랑에 빠진 사람을 만나러 가는게 아니라고 말하던가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남자겠군요?》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그만해요. 이러다간 싸움이 벌어지겠군요.》 보나씨에부인은 초조한듯 시들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아니, 그만합시다. 난 물러가겠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진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리석은데도 없지 않지만.》

그리고는 그 녀자의 손을 억지다싶이 뿌리치고 달리다싶이 하여 떠나갔다. 보나씨에부인은 거기서도 역시 세번 똑똑 문을 두드렸다. 다르따냥이 거리모퉁이에 이르러 뒤돌아보니 문이 얼핏 열렸다가 도로 닫기고 잡화상부인은 자취를 감추었다.

다르따냥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뒤를 밟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한 이상 보나씨에부인이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집에 돌아갈 작정이였다.

(불쌍한 아또스.)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을것이다. 혹시는 집에 돌아갔을수도 있다. 집에 가서는 자기가 없는 사이에 어떤 녀자가 와있었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아또스의 집에 녀자라! 하긴 아라미스의 집에도 녀자가 있지 않았는가. 오늘은 온통 기괴한 일뿐이다. 어쨌든 난 이 모든것이 어떻게 결말을 보겠는지 몹시도 알고싶은걸.)

《야단났습니다. 야단났어요, 나리.》 쁠랑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르따냥은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이 큰소리로 혼자 중얼거리면서 어느새 자기 방으로 올라가는 층계앞 현관에 이르렀던것이다.

《야단났다는건 무슨 소린가? 넌 뭘 말하자는건가? 바보같으니.》 다르따냥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전부 재난뿐입니다.》

《무슨 재난?》

《첫째로 아또스가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다니? 아또스가? 무슨 일로?》

《나리님의 방에 있은탓으로요. 나리님으로 잘못 본거지요.》

《누가 잡아갔나?》

《나리님이 쫓아버린 그 검은 옷 입은자들이 병사들을 달고왔댔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을 똑똑히 밝히지 않았는가? 왜 자기는 그 일에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걸 말하지 않았는가?》

《우정 그랬지요. 내곁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자유로운 몸이 돼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의 주인이야. 그 사람은 사정을 다 알고있지만 난 아무것도 모르거던. 그러니 나를 그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잡아가면 그 사람은 그만큼 손쓸 시간을 얻게 되거던. 사흘 지나면 난 이름을 밝힐테니까. 그때엔 놈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을수 없을거야.〉 이러질 않겠습니까.》

《아또스, 장합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그래 그놈들은 어떻게 하던가?》

《그자들가운데서 네놈이 아또스님을 끌고갔습니다. 바스띠유인지 포를－레베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놈이 검은 옷을 입은자들과 함께 방안을 발칵 뒤지고 서류들을 몽땅 가져갔지요. 다른 두놈은 그사이에 망을 보고요. 일이 다 끝나자 놈들은 방안을 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문은 열어놓은채 가버렸습니다.》

《뽀르또스와 아라미스는?》

《집에 없더군요. 그래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올수 있지. 넌 내가 기다린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겠지?》

《그러문요.》

《좋아. 넌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 만일 그 사람들이 오거든 그새 있은 일을 알려주고 뽕 드 뺑주막집에서 기다리고있으라고 이르거라. 여기는 위험하거던. 감시를 받을수도 있단 말이야. 난 뜨레빌각하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그리로 갈테야.》

《알겠습니다, 나리.》 쁠랑쉐가 말하였다.

《넌 여길 뜨면 안돼. 무섭진 않겠지?》 다르따냥이 나가다가 되돌아와서 힘을 주듯이 물었다.

《무섭긴요. 나리는 아직 절 모르시는군요. 난 마음만 먹으면 용감해질줄 압니다요. 믿으십시오. 모든건 마음먹기탓이지요. 그런데다 저는 삐까르디출신인걸요.》

《그럼 됐어.》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넌 죽어도 뜨면 안돼.》

《알겠습니다요. 나리, 나리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해보이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아!) 다르따냥은 생각하였다. (나의 그 매질이 은을 내는걸. 맞갖잖으면 또 그 방법을 써먹어야지.)

그리고는 그날 하루종일 뛰여다니기에 지칠대로 지친 다리를 끌고 뜨레빌의 저택으로 향하였다.

뜨레빌은 집에 없었다. 그날은 그의 총사대가 루브르궁전에서 근무를 수행하게 되여있었으므로 거기에 간것이였다.

그를 꼭 만나야 하였다. 오늘 있은 일을 알려줘야 하였다.

다르따냥은 어떻게든 궁전에 뚫고들어가기로 결심하였다. 데제싸르의 근위대의 제복을 입으면 될수 있을것이였다.

그는 쁘띠 오규스땡거리를 지나서 강안도로를 따라 올라가 뽕 너프다리로 건늘 생각이였다. 피끗 배로 강을 건늘 생각이 떠올라 강기슭에 가서 기계적으로 호주머니를 만져보니 돈이 없었다.

게네고거리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는 도핀느거리 모퉁이에서 나타난 두사람을 보았다. 한사람은 남자, 한사람은 녀자였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를 놀라게 하였다. 녀자의 자태는 보나씨에부인을 련상시키고 남자는 아라미스와 신통히도 비슷하였다.

게다가 녀자는 다르따냥이 워지라르거리의 창문과 라 아르쁘거리의 나들문앞에서 기억에 똑똑히 새겨둔것과 꼭같은 검은 만또를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남자는 총사의 제복을 입고있었다.

녀자는 만또의 두건을 깊숙이 내리쓰고 남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있는것으로 보아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들은 다리로 들어섰다. 다르따냥도 루브르궁전으로 가야 하므로 역시 다리를 건너야 하였다. 다르따냥은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는 열걸음도 못 가서 녀자쪽은 보나씨에부인이며 남자쪽은 아라미스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되였다.

질투심에서 생겨나는 가지가지 의심이 가슴속에 다시 되살아났다.

그는 2중으로 기만당하였다. 친구에게 기만당하고 련인을 대하듯 사랑을 기울였던 녀인에게서 기만당하였다. 보나씨에부인은 아라미스를 모르노라고 딱 잡아떼더니 그때로부터 15분밖에 안되는 지금 아라미스의 팔을 끼고있는것이다.

다르따냥은 자기가 잡화상의 아름다운 부인을 알게 된지 겨우 3시간밖에 안되며 그 녀자는 랍치하려고 달려든 검은 옷을 입은 밀정들의 마수로부터 자기를 구원해준것을 고맙게 여길뿐 아무것도 약속한것이 없다는것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는 자기를 모욕당하고, 기만당하고, 우롱당한 련인처럼 느끼였다. 속이 부글거리고 얼굴에 피가 치몰리였다. 깨끗이 결판을 내리라고 결심하였다. 저쪽 두사람은 누가 뒤따른다는것을 눈치채고 걸음을 빨리 했다. 다르따냥은 달리다싶이 하여 길을 앞질러갔다가 곧 발길을 되돌려 다리전체를 비치고있는 가로등빛속에 드러나보이는 사마리아조각상앞에서 그들과 마주쳤다.

다르따냥이 멈춰서자 그들도 멈춰섰다.

《여보시오, 왜 그러십니까?》 총사가 한걸음 물러서며 물었다. 외국인의 말씨였다.

다르따냥은 자기의 추측이 틀렸다는것을 알았다.

《아라미스가 아니댔구만!》 그는 부르짖었다.

《그렇습니다. 아라미스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잘못 본것 같은데 난 용서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날 용서한다구요?》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였다. 《당신은 날 만날 일이 없으니 그만 지나가게 해주시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난 당신과 만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만나자는건 이 부인입니다.》

《이 부인을요? 모르는 사이겠는데요!》 외국인이 말하였다.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아는 사이입니다.》

《아이 참.》 보나씨에부인이 못마땅한 어조로 말하였다. 《전 당신이 귀족으로서, 무사로서 약속한다기에 당신의 명예를 믿어도 될줄 알았댔지요!》

《그렇지만 당신은, 부인, 당신은…》 다르따냥은 당황하여 웅얼거렸다. 《당신은 내게 약속을…》

《부인, 내 팔을 끼시오.》 외국인이 말하였다. 《우린 갈길이나 갑시다.》

다르따냥은 얼이 나간 사람처럼 팔짱을 끼고 두사람앞에 말뚝처럼 서있었다.

총사는 앞으로 나오면서 다르따냥을 옆으로 비켜치웠다. 다르따냥은 한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칼을 뽑아들었다. 외국인도 날쌔게 칼을 뽑았다.

《제발 좀 참아요. 밀로드! (영국귀족을 높여서 부르는 말—역주)》 보나씨에부인이 두사람사이에 뛰여들어 량쪽칼을 손으로 잡으며 소리쳤다.

《밀로드라니!》 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밀로드라니!… 이거 실례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설마…》

《버킹함공작이예요.》 보나씨에부인이 귀띔하였다. 《자칫하면 당신은 우리를 파멸에로 몰아갈수 있어요.》

《밀로드 그리고 부인, 용서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난 이 부인을 너무 사랑하던 나머지 그만 질투가 나서 말입니다… 밀로드, 당신께서도 사랑이라는것이 어떤것인지 아실테지요! 용서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이 한몸 아낌없이 바칠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당신은 훌륭한 청년이요.》 공작이 다르따냥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하였다. 《당신은 날 도와나서겠다고 하는데 그 심정을 알만 하오. 우리를 루브르궁전으로 안내해주시오. 그리고 누구든 우리를 따르는 놈이 있으면 없애버려주시오.》

다르따냥은 칼을 뽑아든채로 보나씨에부인과 공작을 스무걸음쯤 앞세우고나서 그뒤를 따라갔다. 기회만 맞다들면 고상하고 우아한 영국재상의 분부를 정확히 집행할 만단의 태세가 되여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날 저녁 우리의 젊은 영웅에게는 자기의 충실성을 행동으로 증명해보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보나씨에부인과 공작은 무사히 루브르궁전에 이르러 에쉘르거리 맞은켠에 있는 문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갈수 있었다. 다르따냥은 뽀르또스와 아라미스가 기다리고있는 뽕 드 뺑주막집으로 걸음을 다우쳤다.

그들에게 수고를 끼치게 된 사유를 말하지 않고 다만 처음에는 그들의 힘을 빌려야 할것 같아 불렀던것이나 혼자서 처리해버렸노라고만 하였다.

그러면 세 친구는 그만 각자 제집으로 돌아가게 내버려두고 우리는 루브르궁전의 미궁에 뛰여든 버킹함공작과 그 길잡이의 발자취를 따라가보기로 하자.

제 12 장

버킹함공작 죠지 윌리어즈

보나씨에부인과 공작은 무사히 궁전으로 들어갔다. 보나씨에부인은 누구나가 왕비의 시녀로서 얼굴을 알고있고 공작은 그날 궁전에서 근무를 서는 뜨레빌의 총사대제복차림이였던것이다. 그리고 제르맹은 왕비에게 무작정 충실했으므로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보나씨에부인이 자기의 애인을 끌어들였다고 뻗댈것이였다. 일은 그것으로 끝날것이였다. 그 녀자가 죄를 뒤집어쓰면 명예는 손상될것이지만 하잘것없는 잡화상의 녀편네이고보면 그 명예란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궁전에 들어서자 공작과 보나씨에부인은 돌담을 따라 스무걸음쯤 걸었다. 그다음 부인은 크지 않은 문의 손잡이를 돌렸다. 대체로 낮에는 열려있고 밤에는 닫아거는 문이였다. 문이 열리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주위는 캄캄하였다. 그러나 보나씨에부인은 궁전의 종복들만이 다니는 거기를 제 손금 보듯 환히 꿰들고있었다. 그 녀자는 문을 닫자 공작의 손을 잡고 몇걸음 더듬어나가 란간에 이르자 층계를 더듬어올랐다. 공작은 그 녀자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3층에 올라갔다. 거기서 보나씨에부인은 오른쪽으로 꺾어들어 동행자를 길다란 복도로 이끌고 가다가 한층을 내려가 몇걸음 더 가더니 열쇠를 틀어 문을 열고 공작을 등불빛이 환한 방으로 인도하였다.

《여기서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보나씨에부인은 소곤거렸다. 《이제 오실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 녀자는 도로 나가 문에 쇠를 잠그었다. 공작은 말그대로 감금되여버렸다.

버킹함공작은 그런 상태에서도 털끝만치도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는것을 말해두는바이다. 공작의 성격상 가장 훌륭한 특징의 하나는 모험을 즐기고 매우 랑만적이라는 그것이였다. 용감하고 대담하며 진취적인 그는 그와 비슷한 정황에서 목숨을 걸고 모험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는 자기를 여기로 달려오게 한 왕비의 그 편지가 가짜이며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흉계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런던으로 돌아갈 대신에 이 기회를 리용하여 반드시 왕비를 만나보아야겠다고 결심하였던것이다. 왕비는 처음에 그러한 요구를 딱 잘라 거절하였으나 그런 대답을 받은 공작이 절망한 나머지 무슨 무모한짓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가 두려워 당장 떠나가도록 타이르기도 할겸 만나주기로 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왕비가 그런 결심을 내린 날 저녁에 공작을 마중하여 궁전으로 안내하기로 되여있던 보나씨에부인이 랍치되였던것이다. 이틀동안 그 녀자가 어떻게 되였는가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으며 일은 거기서 중단되여버렸다. 그러나 보나씨에부인이 도망을 쳐서 라 뽀르뜨를 만났기때문에 일은 다시 진척되여 만일 랍치되지만 않았더라면 사흘전에 해냈을 일을 드디여 끝낼수 있었던것이다.

혼자 남은 공작은 거울로 다가갔다. 총사의 만또는 그에게 곧잘 어울렸다.

이제 서른다섯에 나는 공작은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귀족으로 알려져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왕의 총애를 받는데다 거만의 재산을 가지고있어 거의 절대적이라

고 할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온 나라를 제 마음대로 쥐락펴락할수 있었던 버킹함공작 죠지 윌리어즈는 수백년이 지난 뒤의 후세사람들도 경탄해마지않을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었다.

언제나 자신심에 넘쳐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속박하는 법도 자기만은 어쩌지 못한다고 확신하고있는 그는 어떤 목표를 내세우기만 하면, 자기의 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쳐다볼 엄두도 못 내리만큼 높고 눈이 부시는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하여 곧바로 나갔다. 그러한 기질로 하여 그는 아름답고도 범접하기 어려운 안느 도뜨리슈왕비에게 접근하고 그의 마음을 휘여잡을수 있었던것이다.

죠지 윌리어즈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것처럼 거울앞에 가 섰다. 총사의 모자에 짓눌려버린 아름다운 금빛머리를 매만지고 코수염을 꼬아붙였다. 그는 기다리고기다리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한없는 기쁨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자부심과 희망에 넘쳐 싱긋이 웃었다.

바로 그때 휘장뒤에 숨겨진 문이 열리면서 녀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공작은 거울에 비친 그 녀자를 보았다. 그는 탄성을 올렸다. 그는 왕비였다.

안느 도뜨리슈는 그때 나이가 스물대여섯살이여서 한창 아름다움이 무르녹을 시기였다.

거동을 보면 실로 왕비나 녀신에게 어울리는것이였다. 록보석같은 두눈은 아름다움의 극치인듯싶고 그지없이 부드러우면서도 위엄이 있었다. 오스트리아왕실의 모든 후손들이 그런것처럼 앞으로 약간 나온 아래입술도 조꼬만 앵두빛입에 손상을 주지 못하였다. 그 녀자는 웃을 때면 더없이 우아하였으나 때에 따라서는 극도의 경멸감을 표현할줄도 알았다.

살결은 비로도처럼 부드럽고 팔과 어깨는 놀라우리만큼 아름다와 당시의 모든 시인들이 그것을 구가하였다.

끝으로 어렸을 때에는 금발이였다가 점차 밤빛으로 변한 머리칼은 얼굴을 우아하게 둘러싸고있는데 그 얼굴은 발그레한 빛이 좀 적고 코의 선만 좀더 섬세하다면 흠잡을데없이 아름답다고 할만 하였다.

버킹함공작은 넋이라도 잃은듯 굳어져버렸다. 무도회나 야회, 경기장 같은데서도 안느 도뜨리슈가 지금처럼 아름다와보인적은 한번도 없었다. 지금 그 녀자는 수수한 흰색비단옷차림으로 시녀 에스떼파니와

함께 들어왔다. 왕의 질투와 리슐리에의 박해에도 쫓겨나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에스빠냐인시녀였다.

안느 도뜨리슈는 앞으로 걸어나왔다. 버킹함공작은 왕비의 발밑에 꿇어앉아 그 녀자가 미처 말릴 사이도 없이 옷자락에 입을 맞추었다.

《공작님, 당신도 그 편지가 제가 쓴것이 아니라는것을 알고계시지요.》

《물론 알고있지요!》 공작은 부르짖었다. 《나는 대리석도 생기를 띨수 있고 얼음도 온기를 뿌릴수 있다는 말도 곧이듣는 미련둥이고 미치광이였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난들 어찌겠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라면 그렇게 쉽게 믿어버리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이번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그래요, 만났지요.》 안느 도뜨리슈가 대꾸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왜 당신과 만나는데 동의했는가를 알고계시지요. 저의 마음속 불안은 아랑곳없이 당신은 이 도시에서 떠나가는것을 한사코 거절하셨지요. 여기 그대로 계시면 당신의 생명도 위태롭고 나의 명예도 손상을 입게 돼요. 제가 당신과 만나는데 동의한것은 우리들은 어차피 서로 갈라져있어야 할 운명이라는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깊은 바다, 두 나라사이의 반목, 신성한 혼인선서, 모든것이 우리들사이를 가로막고있어요. 이 모든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예요. 그리고 또 제가 당신과 만나는데 동의한것은 우리들이 더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어요.》

《더 말씀하십시오. 왕비님, 더 말씀하십시오.》 버킹함이 말하였다. 《당신의 목소리는 그 혹독한 말씀과는 딴판으로 몹시도 부드러운걸요. 당신은 하느님에 대한 모독을 운운하지만 하느님께서 서로서로 결합시켜주시려고 창조하신 두 심장을 갈라놓는것이야말로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공작님.》 왕비는 부르짖었다. 《당신은 제가 한번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적이 없다는것을 잊고계시는군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신적도 없지요. 물론 그런 말을 한다는것은 당신으로서는 너무도 가혹한 일일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와 같은 이런 사랑을, 리별도 세월도 절망도 결코 꺼버

릴수 없는 이런 사랑을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니까요. 우연히 떨어뜨린 리봉과 생각깊은 눈길, 홀연히 튀여나온 말 한마디로 만족할줄 아는 사랑 말입니다. 당신을 처음으로 본지도 벌써 3년이 되고 당신에 대한 이처럼 깊은 사랑에 빠진지도 벌써 3년이 됩니다. 바라신다면 내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당신께서 어떤 옷을 입었댔는지 말씀드릴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당신은 에스빠냐풍습대로 방석에 앉아계셨지요. 당신은 금실은실로 수를 놓은 푸른 공단옷을 입었는데 커다란 금강석을 박은 통이 넓은 소매는 팔꿈치우로 걷어올려 기적과도 같이 아름다운 그 팔을 드러내보이고있었지요. 레스깃이 목을 감싸고있었구요. 머리에는 공단옷과 같은 색갈의 자그마한 모자가 얹혀있는데 그 모자에는 원앙새의 깃털이 꽂혀있었습니다.… 아, 난 눈을 감으면 그때의 당신의 모습이 삼삼히 떠오릅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지금과 같은 모습, 백갑절이나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것입니다!》

《어리석군요!》 안느 도뜨리슈는 마음속에 자기의 모습을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그에게 감히 화를 낼수가 없었다. 《그와 같은 옛추억으로 아무 보람도 없을 애정을 헛되이 불태우다니, 정말 어리석어요!》

《그것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에게는 추억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억은 나의 행복이고 보물이고 희망인것입니다. 당신과 만날 때마다 나의 마음속 보물함에 금강석이 하나 또 하나 늘어납니다. 오늘의 이 상봉은 결국 당신이 떨어뜨리고 내가 주은 네번째 보물인셈입니다. 난 3년사이에 당신과 겨우 네번 만났으니까요. 첫번째 상봉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것이고 두번째로는 쉐브레즈부인댁에서, 세번째로는 아미앵공원에서 만났었지요.》

《공작님.》 왕비는 얼굴이 홍당무우처럼 되여 말하였다. 《그때일을 말씀 말아주세요!》

《아니요, 말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저녁이였습니다. 그 저녁이 어떠했던지 생각나십니까? 대기는 푸근하고 향기로 차넘쳤습니다. 푸른 하늘에서는 뭇별이 반짝였구요. 그때 나는 잠시나마 당신과 단둘이 되는 행복을 지녔댔습니다. 그때 당신은 나에게 무슨 일이나 털어놓고 말하였지요. 고독한 생활에 대해서도, 마음속 번민에 대해서도… 당신은 나의 팔에 몸을 기대

였더랬지요… 바로 이 팔에… 내가 머리를 기울였을 때 당신의 그 아름다운 머리칼은 나의 얼굴을 간지럽혔고 그때마다 나는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 순간 나는 천국에라도 오른듯, 락원에라도 뛰여든듯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는지 당신은 아마 모르실겁니다. 그런 순간, 그런 저녁을 위해서라면 나는 령지도 재부도 명예도 남은 여생도 다 서슴없이 내놓을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녁에 당신은 분명 나를 사랑하였기때문입니다.》

《공작님, 그랬을수도 있어요. … 매혹적인 장소, 아름다운 저녁, 당신의 기묘한 눈길, 아무튼 녀자의 마음을 무자비하게 휘저어놓는 그런 분위기가 그 운명적인 저녁에 저를 에워싸고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나약해지는 녀인을 왕비라는 신분이 구원해주는것을 당신은 보았지요. 당신의 당돌한 말 첫마디를 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한 대답을 피할수 없게 되였을 때 저는 시녀를 불러들였댔어요.》

《옳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제외한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사랑은 그와 같은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을겁니다. 그렇지만 나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고 더 세차게 타올라 이 심장을 영원히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은 아마 빠리로 돌아오면 나를 떼여버릴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지요? 내가 군주께서 보호하라고 맡겨주신 보물들의 곁을 감히 떠나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보물이건, 국왕이건 그따위것들이 내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한주일도 못되여 나는 돌아왔지요. 그때 당신은 아무것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을 단 한 순간이라도 보기 위하여 우리 왕의 총애도, 자기의 생명도 위험에 내맡겼던것입니다. 그랬건만 당신의 손 한번 쥐여보지 못했지요. 당신은 내가 후회하고 순종하는것을 보고 용서했댔지요.》

《사정은 그런데도 저는 억울하게도 비난을 받고있으니 어떡해요? 전하는 주교님의 송사만 듣고 대노하시였어요. 배르네부인과 뿌땅쥬부인은 쫓겨나가고 쉐브레즈부인은 눈밖에 났어요. 당신이 프랑스에 대사로서 오려고 하셨을 때 (명심해들으세요.) 전하께서 한사코 반대를 하셨댔어요.》

《예, 프랑스는 그에 대해서 전쟁으로써 대가를 치르게 될것입니다. 나는 더이상 당신을 볼수 없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께서 나에 대한 소식을 매일 들을수 있게 하자는 생각입니다. 레섬에 대한 공략과 라 로쉘의 신교도들과의 동맹을 모색하고있습니다만 그 목적이

무엇일것 같습니까? 당신을 만나는 기쁨인것입니다. 힘으로써 빠리를 함락할 무슨 생각은 없다는것을 나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전쟁은 강화조약체결로써 끝나게 될것입니다. 강화조약을 맺자면 담판이 있어야 하고 담판은 나에게 맡겨질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받지 않을수 없을것이니까 나는 빠리에 다시 와서 한순간이나마 당신을 만나보는 행복을 지닐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그 행복을 위해서 수천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야지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만날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게 다 미친짓이고 잠꼬대같은짓일수도 있겠지만 그래, 나보다 더 정열적인 숭배자를 어느 녀자가 가져보았겠습니까? 어느 왕비가 나보다 더 충실한 종을 가져보았단 말입니까?》

《공작님, 공작님, 당신은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나쁜 일을 계획하시는군요. 공작님, 당신이 사랑의 증거로 드시는 그 일들은 죄악이나 다름없다고 봐요. …》

《그거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때문이지요. 만일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모든것을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겁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만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분에 넘치는 그 행복으로 하여 미치고말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방금전에 말씀하신 쉐브레즈부인도 그렇게까지는 랭혹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은 올랑의 사랑에 사랑으로 대답하였던것입니다.》

《쉐브레즈부인은 왕비가 아니지요.》 안느 도뜨리슈는 그처럼 뜨거운 감정앞에 견디여낼 힘이 없어 가까스로 속살거렸다.

《그러니까 당신은 왕비가 아니라면 날 사랑하였겠군요? 사랑하였겠지요. 어서 말씀해주십시오. 당신은 단지 자기의 존엄때문에 그렇게도 드팀이 없는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당신이 만일 쉐브레즈부인이였다면 이 불쌍한 버킹함은 희망을 가질수 있다고 믿어도 되겠지요?… 꿈만 같은 그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 아, 아름다운 왕비님, 천백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작님, 공작님, 그건 오해예요. 제 말을 잘못 리해했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공작이 말하였다. 《혹시 내가 제멋에 겨워서 행복감에 넘쳐있다고 하더라도 참아주십시오. 당신도 말

씀하신것처럼 나는 낚시에 물렸습니다. 내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판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 요즘 나는 죽을 날이 가까왔다는 예감이 자꾸 들지 않겠습니까. …》 공작의 입가에 서글프면서도 동시에 매력적인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다.

《오, 맙소사!》 안느 도뜨리슈가 부르짖는데 공포에 질린 그 목소리는 그 녀자가 공작에게 실지로 품고있는 감정을 천백마디 말보다 더 정확히 증명해주고있었다.

《난 결코 당신을 놀래우려고 이런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구말구요! 그런 소리는 가소롭기짝이 없는것이며 난 정말이지 그런 허황한 생각을 조금치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방금 터뜨린 그 비명은, 나에게 안겨준 그 희망은 나의 죽음까지도 포함한 모든것에 대한 보상으로 됩니다.》

《그럼 죄다 고백해야겠어요, 공작님.》 안느가 말하였다. 《나도 역시 꿈이 괴롭혀요. 제 꿈에 공작님께서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여 땅에 쓰러져있지 않겠어요. …》

《왼쪽옆구리에 칼을 맞았겠지요?》 공작이 그 녀자의 말을 꺾었다.

《그래요, 바로 그랬댔어요. 공작님, 왼쪽옆구리에 칼을… 제가 그런 꿈을 꾸었다는걸 글쎄 누구에게 말할수 있었겠어요? 저는 다만 하느님에게만 그것도 기도때에만 실토를 했댔어요.》

《그만 됐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신다는것이니 그것이면 다지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구요? 제가요?》

《그렇지요. 당신이지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 하느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꼭같은 꿈을 주셨겠습니까. 만일 심장이 우리들의 운명을 하나로 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런 예감이 들겠습니까? 나의 왕비님,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가 죽으면 슬퍼해주시겠습니까?》

《아! 맙시사! 맙시사!》 안느 도뜨리슈는 부르짖었다. 《그건 내 힘에 부치는 일이예요. 공작님, 제발 빌어요. 나를 혼자 두고 어서 가주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혼인선서를 절대로 어기지 않으리라는것만은 똑똑히 알고있어요. 저를 가엾이 여기여 어서 가주세요! 만일 당신이 프랑스땅에서 부상을

당한다면, 당신이 프랑스땅에서 운명하신다면 그리고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그 원인으로 되였다는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전 견딜수가 없어 미치고말거예요! 가주세요. 어서 가주세요. 부탁이예요!》

《아, 지금의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버킹함이 말하였다.

《가주세요. 가주세요. 제발 빌어요! 후날 또 오세요. 대사의 자격으로 당신을 지켜줄 호위병이며 부하들을 거느리고 와주세요. 그때엔 저도 당신의 생명을 걱정하는 일이 없이 행복속에 당신을 맞이할수 있을거예요.》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예요.》

《그렇다면 … 그렇다면 나를 용서한다는 표시로 당신이 가지고있는 물건을 한가지 주십시오.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증거로 삼을수 있게요. 당신이 지니고있었고 나 역시 지니고있을만 한 물건으로요. … 장갑이든가 금사슬이든가…》

《그 부탁을 들어주면 당신은 떠나가시겠어요? 떠나가시지요?》

《그럼요.》

《즉시에요?》

《그럼요.》

《프랑스를 떠나시지요? 영국으로 돌아가시지요?》

《그럼요. 맹세합니다.》

《그렇다면 잠간 기다리세요. 잠간만…》

안느 도뜨리슈는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인차 되돌아나왔다. 손에는 금으로 왕비의 이름자를 새겨넣은 장미빛나무함이 들려있었다.

《이걸 받으세요, 공작님.》 그 녀자는 말하였다. 《가지고가서 나에 대한 기념으로 건사해주세요.》

공작은 함을 받아들자 또다시 그 녀자의 발밑에 끓어앉았다.

《당신은 떠나가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왕비가 말하였다.

《난 약속을 지킬텝니다! 당신의 손을, 왕비님, 당신의 손을… 그 다음엔 물러가겠습니다.》

안느 도뜨리슈는 손을 내밀면서 눈을 감았다. 금시 쓰러질것 같아 에스떼파니에게 몸을 기대였다.

버킹함은 그 아름다운 손에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길게 잡아 여섯달이면 됩니다.》 그는 일어서면서 말하였다. 《나는 당신을 만나러 다시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한대로 방에서 뛰쳐나갔다.

보나씨에부인이 복도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있다가 아까 들어오던 때와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감쪽같이 그를 궁전밖으로 인도하였다.

제 13 장

보나씨에씨

독자들도 아다싶이 우리의 이야기가운데 곤경에 처해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관심해주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는 다름아닌 정치와 사랑의 모략의 와중속에 말려든 애매한 희생물 보나씨에씨이다. 그것은 무공과 풍류가 성행했던 당시로서는 흔히 있은 일이였다.

독자들이 그를 기억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그를 잊지 않기로 약속하였었다.

밀정들은 그를 체포하자 곧바로 바스띠유감옥으로 압송하여 사시나무 떨듯 하는 그를 총을 재워들고 서있는 한개 소대 병사들앞으로 끌고갔다.

그다음 지하의 길다란 복도에 들어서면서부터 호송인들은 그를 마구 학대하면서 쌍욕을 퍼부어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가 귀족출신이 못된다는것을 알자 상놈을 대하듯 하였다.

반시간쯤 지나 서기가 나타나서 이젠 그만 살아났는가 했더니 뜻밖에도 심문실로 끌려가게 되였다. 대체로는 피심자들을 감방에서 심문하는것이 통례인데 보나씨에씨의 경우에는 꺼릴것이 없다고들 본것 같았다. 호송병들이 불온한 잡화상을 끌고 마당을 꿰질러가 파수병 셋이 서있는 복도로 들어가더니 둥글천정을 한 방안에 그를 떠밀어넣었다. 거기에는 책상 하나에 걸상 하나, 심문관 한사람이 있을뿐이였다. 심문관은 책상앞에 앉아 무엇인가를 긁적거리고있었다.

호송병들은 피검자를 책상앞으로 끌고가더니 심문관의 신호에 따라 그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만 한 거리까지 물러났다.

그때까지 문서장우에 머리를 수그리고있던 심문관이 자기앞에 서있는것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려는듯 눈을 들었다. 심문관의 인상은 좋지 못하였다. 뾰족한 코에 툭 불거진 누런 관골, 조꼬마하면서도 재빠르게 움직이는 날카로운 눈을 하고있었다. 얼굴에는 검은돈과 여우를 동시에 련상시키는 그 무엇이 있었다. 검은 법관복의 깃속에 내밀린 길고 유연한 목에 받들려있는 머리는 자기의 갑속에서 내민 거부기의 머리처럼 간들거렸다.

심문관은 먼저 보나씨에의 이름, 직업, 거주지에 대하여 물었다.

피검자는 자기 이름은 쟈끄 미쉘 보나씨에이며 나이는 쉰한살, 한때 잡화상을 하였으나 지금은 그만두었으며 포쏘아여르거리 11번지에 산다고 대답하였다.

그다음 심문관은 극히 보잘것없는 일개 시민이 주제넘게 정치에 코를 들이미는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데 대하여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더 나아가서 그는 주교, 그 희세의 재상, 고금을 통해 그 류례를 볼수 없었던 재상의 권세와 힘에 대하여 구구하게 떠벌이고나서 그에게 엇서는자는 벌을 면치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쯤 말해놓고 심문관은 불쌍한 보나씨에에게 새매같은 눈을 박으면서 자기의 처지를 잘 생각해보라고 일렀다.

잡화상의 생각은 단순하였다. 그는 라 뽀르뜨씨가 자기의 교녀를 그에게 주기로 결심한 그날 그 시각을, 특히는 그 교녀가 왕비의 시녀로 들어간 그 시각을 저주하였다.

보나씨에씨의 생각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무서운 린색과 련결된 강한 리기심, 극단적인 비겁성이였다. 젊은 안해에 대한 사랑은 부차적인 감정이였으며 그것은 우리가 방금 우에서 꼽은 그 타고난 특질들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였다.

보나씨에는 심문관의 말을 깊이 생각해보았다.

《나리님.》그는 침착하게 말하였다. 《저는 원래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주교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존경합니다.》

《정말이요?》 심문관은 의심쩍게 물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돼서 바스띠유감옥에 끌려왔소?》

《어떻게 돼서, 무슨 죄로 내가 여기에 있는지는 도무지 말씀드리는 재간이 없습니다. 나자신도 모르고있으니까요. 그러나 주교님의 노여움을 살만 한짓을 했다는 죄야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당신은 반역죄로 고소되였으니 무슨 죄를 저지른게 분명하단 말이요.》

《반역죄요?》 보나씨에는 기겁을 하여 소리를 질렀다. 《반역죄란 말입니까? 아니 글쎄, 신교도라고 하면 질책을 하고 에스빠냐인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이 불행한 잡화상이 어떻게 반역죄로 고발된단 말입니까. 글쎄 직접 생각해보십시오. 그게 어디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보나씨에씨…》 심문관은 자기의 쪼꼬만 뱁새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볼줄이라도 아는듯이 피심자를 빤히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보나씨에씨, 당신은 안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잡화상은 드디여 시작되였구나 하는 생각으로 흠칫하면서 대답하였다. 《한때… 한때 있었댔습니다.》

《한때라는건 무슨 소리요? 한때 있었다면 지금은 어디로 보냈다는 거요?》

《랍치당했지요, 나리님.》

《랍치당했다?》 심문관은 되물었다. 《흥.》

그 코웃음소리로 미루어 보나씨에는 일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든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랍치당했단 말이지요.》 심문관은 계속하였다. 《그래 누가 랍치했는가 하는건 알고있소?》

《아는것 같습니다.》

《누구요?》

《나리님, 정확히는 모르고 그저 의심할뿐입니다.》

《누굴 의심하오? 자, 툭 터놓고 말하시오.》

보나씨에는 모른다고 뻗대야 할것인지 아니면 죄다 깨끗이 털어놓아야 할것인지 통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만일 죄다 부인한다면 너무 많은것을 알고있기때문에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것이라고 의심을 받을수 있다. 그는 죄다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의 성의를 증명해보이기로 결심하였다.

《내가 의심하는 사람은 키가 크고 머리는 까맣고 얼굴은 검실검실

한데 큰 귀족처럼 풍채가 좋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루브르궁전문앞에서 집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뒤를 몇번 뒤따랐던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문관의 얼굴에 불안스러운 빛이 비끼였다.

《그 사람의 이름은?》그가 물었다.

《이름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보기만 하면 난 몇천명 사람들속에서도 그 사람을 가려낼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심문관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몇천명 사람들속에서도 가려낼수 있단 말이지요?》 그는 되물었다.

《내 말은…》 보나씨에는 실언을 했다는것을 알아차리고 웅얼웅얼 말하였다. 《내 말은…》

《그 사람을 알아볼수 있다고 했지요.》심문관은 말하였다. 《좋소, 오늘은 이만합시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처를 랍치해간 사람을 안다는것을 보고해야겠소.》

《하지만 난 그 사람을 안다고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보나씨에는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난 정 반대로 말했지요.》

《수감자를 데려가라!》 심문관이 두 옥리에게 지시하였다.

《어디로 데려가야 할가요?》 서기가 물었다.

《감방에.》

《어느 감방 말입니까?》

《이렇게도 답답하다구야! 아무 감방에나 처넣어! 그러되 문만은 단단히 잠그라구.》 심문관은 보나씨에가 공포를 느낄 정도로 랭담한 어조로 말하였다.

(맙시사, 맙시사!) 그는 생각하였다. (이젠 죽었구나! 녀편네가 무슨 끔찍한 죄를 지은게다. 나도 공모자인줄 알고 그 사람하고 같이 처벌할것이다. 모름지기 그 사람은 나도 다 알고있다고 말할것이다. 녀자들이란 정말 우환단지라니까! 아무 감방이든 상관없다구! 그야 그럴수밖에! 밤은 노루꼬리만 한게고… 래일은 릉지처참이 아니면 교수대… 아 하느님, 하느님, 굽어살피시옵소서!)

그러루한 한탄에는 이미 익숙될대로 익숙된 옥리들은 그의 우는 소리는 들은체도 않고 량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고 감방으로 끌고갔다. 심문관은 부랴부랴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서기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보나씨에는 그날 밤 눈을 붙일수 없었다. 감방안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무서운 공포로 하여 잠을 이룰수 없었던것이다. 그는 바스락소리에도 흠칠흠칠하면서 온밤을 앉아서 새웠다. 그러다가 첫 아침해살이 철창너머로 흘러들었을 때에는 그 해빛마저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듯이 느껴졌다.
불현듯 빗장을 벗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질겁을 하며 후닥닥 일어났다. 그는 자기를 단두대에 끌어내려고 온줄 알았다. 그랬던만큼 문간에 형리가 아니라 어제 만났던 심문관이 서기와 함께 나타난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들의 목이라도 끌어안고싶은 심정이였다.
《당신의 건은 어제 저녁부터 아주 복잡해졌소.》심문관은 말하였다. 《그래서 난 당신이 진상을 그대로 말해줄것을 바라오. 다만 진심으로 되는 회오만이 주교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릴수 있소.》
《난 죄다 말하겠습니다!》 보나씨에는 부르짖었다. 《내가 아는것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물어보십시오.》
《첫째로, 당신의 처는 지금 어디 있소?》
《랍치당했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옳소, 그러나 어제 오후 5시가 지나서 그 녀자는 당신의 도움으로 달아났단 말이요.》
《그 사람이 달아나다니요?》 보나씨에는 부르짖었다. 《일도 참! 그렇지만 나리님, 그 사람이 달아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 잘못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낮에 다르따냥의 방에는 왜 올라갔댔소? 그 사람과 한참이나 쑥덕거렸단 말이요.》
《예, 그건 옳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나의 실책이였습니다. 난 실지로 다르따냥씨의 방에 갔댔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갔댔소?》
《집사람을 꼭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자구요. 난 그런다고 잘못될것은 없다고 생각했댔지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다르따냥씨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다르따냥씨는 도와주마고 대답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날 배반하리라는걸 인차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당신은 법을 속여넘길 작정이구만! 다르따냥은 당신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따라서 당신의 처를 잡으러 간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녀자를 빼돌렸단 말이요.》
《다르따냥씨가 우리 집사람을 랍치했다는겁니까? 무슨 그런 당치않은 말씀을!》
《다행히도 다르따냥은 우리 손에 들어와있으니 그 사람과 대면하게 될거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보나씨에는 부르짖었다. 《한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볼수 있다면…》
《다르따냥씨를 데려와!》 심문관이 두 옥리에게 지시하였다.
옥리들은 아또스를 데려왔다.
《다르따냥씨.》심문관이 아또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두사람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시오.》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르따냥씨가 아닌데요!》 보나씨에가 부르짖었다.
《다르따냥이 아니라니 그건 무슨 소리요?》 심문관이 소리질렀다.
《아니라니까요!》 보나씨에가 말하였다.
《이분의 이름은 뭐요?》심문관이 물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전혀 모른다?》
《그렇구말구요.》
《한번도 본적이 없소?》
《더러 보기는 했지만 이름은 모릅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심문관이 물었다.
《아또스요.》 총사가 대답하였다.
《그거야 어디 사람의 이름인가. 그야 어떤 산의 이름이지!》 불행한 심문관은 어정쩡해서 부르짖었다.
《그게 내 이름이요.》 아또스는 태연하게 말하였다.
《그렇지만 당신은 자기 이름이 다르따냥이라고 하지 않았나 말이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구요?》
《그렇소, 당신이.》
《어랍쇼! 당신들이 〈다르따냥씨요?〉 하고 묻길래 난 〈그렇게 보

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노라고 고함을 치겠지요. 난 그 사람들과 가타부타하고싶지 않더군요. 게다가 또 내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거고…》

《당신은 법을 모독하고있소.》

《천만에요.》 아또스가 침착하게 말하였다.

《당신은 다르따냥이란 말이요!》

《이런, 제길! 당신은 계속 그 고집이군요.》

《그렇지만 나리님.》 보나씨에가 끼여들었다. 《옥신각신할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르따냥씨는 우리 집에서 세방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방세는 물지 않고있지만 아니, 바로 그렇기때문에 난 그 사람을 모를수 없단 말입니다. 다르따냥씨는 겨우 스무살 되나마나한 젊은이인데 이분은 서른살나마 되거던요. 다르따냥씨는 데제싸르각하의 근위병이지만 이분은 뜨레빌각하의 종사이지요. 이 옷을 보십시오. 나리님, 이 옷을 말입니다.》

《그렇구만!》 심문관이 중얼거렸다. 《제기랄, 정말 그렇단 말이야!》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사나이가 바스띠유감옥의 간수에게 인도되여 들어와서 심문관에게 무슨 편지를 전하였다.

《죽일년!》 심문관이 부르짖었다.

《뭐라구요? 무슨 말씀인지요? 누굴 두고 하는 말씀인가요? 혹시 우리 집사람이 아닙니까?》

《바로 그년이야. 당신 일이 멋있게 돼가는걸!》

《뭐가 어떻게 됐다는겁니까?》 잡화상은 우거지상이 되여 부르짖었다. 《나리님, 제발 좀 말씀해주시오. 내가 여기 들어와있는새에 집사람이 어떻게 했게 내 일을 잡쳤다는겁니까?》

《당신 녀편네의 하는짓은 전부 당신들이 같이 계획하고 하는것이다 그 소리요. 끔찍한 계획 말이요.》

《난 맹세코 말합니다만 당신은 심히 오해하고계십니다. 난 집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한짓에 나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무슨 어리석은짓을 했다면 난 그 사람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차던지겠습니다. 저주할텝니다.》

《자, 심문관.》 아또스가 불쑥 말하였다. 《내가 이 자리에 더 필요없다면 어디로든지 데려내가게 해주시오. 난 당신의 이 보나씨에씨

가 구역질이 납니다.》
《수감자들을 각각 제 감방으로들 데려가오.》 심문관이 아또스와 보나씨에를 모두거리로 가리키면서 지시하였다. 《그리고 단단히들 지키라구 이르라구.》
《당신에게 다르따냥씨가 필요한 모양인데.》 아또스가 례의 그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얼마만큼이나 그를 대신할수 있겠는지 잘 모르겠군요!》
《우리가 하라는대로 하시오!》심문관이 꽥 소리쳤다. 《외부와의 접촉은 일체 차단이요! 알겠소?》
아또스는 어깨를 으쓱 추고 호송병들을 따라 나갔다. 보나씨에는 가는 도중 내내 얼마나 원통하게 울고 울부짖고 하였던지 호랑이도 동정하지 않을수 없을 정도였다.
잡화상은 어제 밤을 지낸 그 감방에 끌려가 거기서 옹근 하루낮을 보냈다. 그리고 종일 알짜배기 잡화상답게 울었다. 본인이 말하다싶이 그에게는 군인정신이 끄물만큼도 없었던것이다.
저녁 9시쯤 되여 금시 자리에 누우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그의 감방쪽으로 가까와지더니 문이 열리고 호송병들이 들어섰다.
《따라오시오.》호송병들과 함께 들어온 경관이 말하였다.
《당신을 따라오라구요?》 보나씨에는 부르짖었다. 《이런 밤중에 당신을 따라오라구요? 어디로 간다는겁니까?》
《어디긴 어디겠소. 당신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한 거기지.》
《그야 대답이 아니지요!》
《우린 그이상 더 말할수 없어.》
《아, 맙시사! 맙시사!》 가엾은 잡화상은 웅얼거렸다. 《이번엔 꼼짝 못하고 죽었구나!》
그는 어깨가 축 늘어져서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호송병들을 따라갔다.
그들은 그가 이미 몇번 지나다닌 복도를 나서자 마당을 가로지른 다음 또 다른 건물을 지나서 앞마당 대문에 이르렀다. 거기서는 네명의 기마경찰이 에워싼 마차 한대가 대기하고있었다. 보나씨에를 마차에 태우고 경관이 옆에 올라와 앉자 문을 닫고 쇠를 잠갔다. 두사람은 이동식감방에 앉아있는것과도 같았다.

마차는 마치 장의차와도 같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수인은 창문에 댄 쇠창살너머로 집들과 길바닥을 보았다. 하기야 보나씨에같은 빠리토배기는 경계표말이며 간판, 가로등따위만 보고서도 어느 거리라는것을 알아볼수 있었다. 바스띠유감옥의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쌩뽈사원을 가까이 하자 그는 까무러칠 지경이 되여 두번 십자를 그었다. 그는 마차가 거기서 멈춰설줄로만 알았던것이다. 그러나 마차는 옆으로 지나갔다.

조금 지나서 그는 다시한번 무시무시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마차는 역적들의 시체를 묻는 쌩－쟝묘지옆을 지나갔던것이다. 단지 좀 위안으로 되는것은 역적들은 땅에 묻기 전에 대체로 목을 먼저 치는데 그의 머리는 아직 어깨우에 든든히 자리잡고있다는 그것이였다. 그러나 마차가 그래브광장(당시 사형장의 하나였다.－역자주)쪽으로 꺾어들어 시청의 뾰족지붕이 나타나고 다시 아치문으로 접어드는것을 보자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단정하고 경관앞에서 참회를 하기로 결심하였다.경관이 듣지 않겠다고 하자 그는 애처롭게 부르짖기 시작하였다. 경관은 조용하지 않으면 아가리에 걸레를 틀어박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으름장에 보나씨에는 다소 마음을 놓았다. 만일 그를 그래브광장에서 처형할 작정이라면 이미 사형장에 거의다 왔으므로 구태여 입을 틀어막을 필요가 없었던것이다. 아닌게아니라 마차는 그 운명적인 광장에 멈춰서지 않고 지나갔다. 이제 걱정되는것은 끄르아 뒤 뜨르와르광장뿐이였다. 그런데 마차는 바로 그쪽으로 돌아들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끄르아 뒤 뜨르와르광장은 신분이 낮은 죄인들을 처형하는 곳이였다. 보나씨에가 쌩－뽈광장이나 그래브광장에서 혼겁을 했던것은 너무나도 분수에 지나치는것이였다. 끄르아 뒤 뜨르와르광장이야말로 그의 마차려행과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데 가장 어울리는 곳이였다. 그 끔찍스러운 십자가는 아직 보이지 않았으나 그는 그것이 자기를 향하여 마주오는것만 같이 느껴졌다. 그 운명적인 장소를 스무걸음쯤 앞두었을 때 불시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마차는 멈춰섰다. 지금까지 련속된 흥분으로 시달릴대로 시달린 보나씨에는 더 견딜 힘이 없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신음소리와도 같은 가느다란 비명을 지르고는 까무라쳐버렸다.

제 14 장

명에서 만났던 사나이

광장의 군중은 이제 목 매달릴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목매달린 사람을 구경하기 위하여 모여든것이였다.

그리하여 마차는 잠시 지체하였다. 다시 움직여 군중속을 뚫고나와 쌩—또노레거리를 지난 다음 봉 장팡거리로 접어들어 나지막한 문앞에서 멎었다.

문이 열리더니 두명의 근위병이 경관의 부축을 받으면서 내리는 보나씨에를 넘겨받았다. 그를 길다란 현관안으로 떠밀어넣더니 층계를 올라가 어떤 대기실에 끌고 들어갔다. 그는 완전히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꿈속에서 걷듯이 걸었으며 주위의 모든것을 안개속을 뚫고보듯이 보았다. 귀에는 무슨 소린가 들렸으나 알아들을수는 없었다. 만일 그 순간 사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조금도 저항을 하지 못하였을것이며 용서해달라고 한번 울부짖지도 못하였을것이다.

그는 몸을 벽에 기대고 두팔을 축 늘어뜨린채 호송원들이 앉혀놓은 걸상에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그러나 점차 정신이 들어 주위를 살펴보고는 생명을 위협하는것도, 당장 위험한것도 전혀 없음을 알았다. 벽에는 부드러운 소가죽을 댄 빨간 비단창가림이 금실끈에 매여 묵직이 드리워져있으며 자기가 앉아있는 걸상도 어지간히 푹신하고 편하다는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자기의 공포심이 부질없는것임을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머리를 이쪽저쪽 돌려도 보고 쳐들어도 보고 수그려보기도 하였다.

그러한 움직임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데서 다소 용기를 얻은 그는 큰마음 먹고 처음에는 한쪽다리를, 다음에는 다른 다리를 굽혀보았다. 그다음에는 두손을 잡고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가 나중에는 아주 일어섰다.

바로 그때 의젓하게 생긴 장교 하나가 옆방에 있는 그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휘장을 들어올리면서 나타나더니 수감자에게 묻는것이였다.

《당신이 보나씨에요?》

《그렇습니다, 장교님.》공포에 질려 사색이 된 잡화상은 대답하였다. 《바로 접니다, 장교님.》

《들어오시오.》

장교는 수인을 들여보내려고 비켜섰다. 보나씨에는 군말없이 들어갔다. 거기서는 그를 기다리고있는듯싶었다.

거기는 넓은 서재인데 벽은 각종 무기들로 장식되여있었다. 이제 겨우 9월초건만 벌써 벽난로에서는 불이 타고있었다. 방 한복판에 책이며 서류들이 쌓여있는 네모난 책상이 놓여있고 그우에는 라로쉘의 지도가 펼쳐져있었다. 벽난로앞에는 존대스럽게 생긴 중키의 사나이가 서있었다. 넓은 이마며 날카로운 눈, 꼬아붙인 코수염, 훌쭉한 얼굴은 뾰족한 턱수염으로 하여 더욱 길어보였다. 나이는 서른예닐곱살에서 더 되지 않았으나 머리칼과 턱수염에는 흰오리들이 희끗거리였다. 비록 칼은 차지 않았으나 군인의 기개가 느껴졌으며 장화에 올라있는 엷은 먼지는 그가 이날 말을 타고다녔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다름아닌 아르망 쟝 뒤 뿔레씨 즉 리슐리에주교였다. 사람들은 흔히 그를 순교자처럼 괴로움을 겪고 몸은 쇠잔하고 목소리는 시들었으며 필시 무덤에라도 들어앉은듯이 안락의자에 깊숙이 파묻혀서 단지 정신력 하나만으로 살아가고있으며 지력 하나만으로 전 유럽을 상대로 싸움을 벌리고있는 등굽은 로인으로 묘사하지만 당시의 그는 패기있고 우아한 군인으로서 비록 몸은 허약하여도 정력은 왕성한 당대의 거물이였던것이다. 망뚜령지에서 네배르공작을 지원하고 니므를 공략하고 까스뜨르와 위재스를 탈취한 다음 레섬에서 영국군을 몰아내고 라 로쉘을 포위공격할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얼핏 보기에 주교는 볼만 한데가 하나도 없었으므로 면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앞에 서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수가 없었다.

잡화상은 문간에 서있는데 앞에서 이야기된 그 사나이는 마치도 그의 과거를 밑바닥까지 꿰뚫어보기라도 하려는듯이 빤히 쳐다보고있었다.

《이게 보나씨에라는 그 사람이요?》 한동안 말이 없던 끝에 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각하.》 장교가 대답하였다.
《좋소. 이 사람의 문서들을 내놓고 나가주시오.》
장교는 책상우에서 필요한 문서들을 찾아주고는 깊숙이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방에서 나갔다. 보나씨에는 그것이 바스띠유감옥에서 작성된 자기의 심문조서라는것을 알았다. 벽난로앞에 서있는 사람은 이따금 조서에서 눈을 들어 상대방을 빤히 쳐다보군 하는데 그 눈길이 수인에게는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두자루의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 모양으로 10분쯤 읽어보고 10초쯤 뜯어보자 주교에게는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어.)그는 생각하였다. (하지만 어쨌든 문초는 해봐야지.)
《당신은 반역죄로 혐의를 받고있소.》 주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글쎄 그렇다지를 않겠습니까, 각하.》 보나씨에는 방금전에 나간 장교를 흉내내여 《각하》를 괴여올리면서 말하였다. 《하지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교는 떠오르는 미소를 억지로 눌렀다.
《당신은 처와 쉐브레즈부인 그리고 버킹함공작과 음모를 꾸몄소.》
《하긴 각하.》 보나씨에는 말하였다. 《우리 집사람이 내앞에서 그런 이름들을 외운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리슐리에주교가 버킹함공작을 빠리로 꾀여들였다고요. 그렇게 해서 공작과 왕비님을 없애버릴 계획이라구요.》
《당신 처가 그렇게 말하던가?》 주교가 앙칼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각하, 그래서 나는 집사람을 욕해줬지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함부로 하는게 아니라구요. 주교님께서 어찌…》
《닥치시오. 바보같으니!》
《우리 집사람도 날 보고 바보라고 하지요.》
《당신의 처를 누가 랍치해갔는지 아는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의심되는 사람은 있다지?》
《있지요. 각하, 그러나 심문관님이 그런 의심을 좋지 않아하는것 같아서 다 집어던지고말았습니다.》
《당신의 처가 달아났소. 당신은 그걸 알고있었소?》
《몰랐댔습니다, 각하. 나는 그걸 감옥에 들어온 다음 심문관님이 말해줘서야 알았습니다. 참 친절한분이시더군요.》
주교는 다시한번 미소를 눌렀다.
《그러니까 당신은 처가 도망친 다음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거요?》
《전혀 모릅니다. 각하, 모름지기 루브르궁전에 돌아갔겠지요.》
《밤 1시에는 아직 거기에 없었소.》
《이런 참! 그 사람이 대체 어떻게 된걸가요?》
《그건 차차 알게 될테니 걱정마시오. 주교의 눈은 속이지 못하니까. 주교는 모르는것이 없소.》
《그렇다면 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교님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대주자고 하실가요?》
《대주실거요. 그래서 우선 당신이 당신 처와 쉐브레즈부인과의 관계를 아는대로 죄다 말해줘야겠소.》
《하지만 각하, 난 아무것도 모르니 어떡합니까. 난 그 부인을 한번도 본 일이 없는걸요.》
《당신이 루브르궁전으로 마중갈 때 당신의 처는 곧장 집으로 오군했소?》
《곧장 돌아오는 일은 거의나 없었습니다. 노상 포목상을 만날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로 함께 가군 했지요.》
《포목상은 몇사람이요?》
《두사람입니다, 각하!》
《사는 곳은?》
《한사람은 워지라르거리, 또 한사람은 라 아르쁘거리입니다.》
《처와 함께 안에 들어갔댔소?》
《아닙니다. 난 문밖에서 기다렸지요.》
《구실은?》
《그런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라고만 했고 그래서 난 기

다렸습니다.》
《존경하는 보나씨에씨, 당신은 참으로 충실한 남편이요!》 주교가 말하였다.
(이분은 날 존경하는 보나씨에라고 했겠다.) 잡화상은 생각하였다. (제길, 일은 잘돼가는걸!)
《처가 찾아다니던 집을 알만 하겠지?》
《그럼요.》
《번지는 생각나오?》
《생각납니다.》
《말해보오.》
《워지라르거리의 25번지와 라 아르쁘거리의 75번지입니다.》
《좋소.》주교가 말하였다. 그리고는 책상우의 종을 들어 흔들었다.
아까 그 장교가 들어왔다.
《로슈포르한테 가보시오.》 리슐리에는 소곤소곤 말하였다. 《돌아왔으면 당장 오라고 하시오.》
《백작님은 여기에 와계십니다.》 장교가 말하였다. 《주교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성화입니다.》
《어서 들여보내시오!》 주교는 부르짖었다. 《들어오라고 하시오!》
장교는 주교의 부하들이 그의 지시를 집행할 때 흔히 그러듯이 부리나케 달려나갔다.
《아니, 주교님이라니!》 보나씨에는 공포심으로 눈이 휘둥그래서 중얼거렸다.
장교가 나간지 5초도 못되여 문이 열리면서 새 방문객이 들어왔다.
《그놈입니다.》 보나씨에는 고함을 쳤다.
《그놈이라니 누구 말이요?》 주교가 물었다.
《우리 집사람을 랍치한 그놈 있지 않습니까?》
주교가 다시 종을 울렸다. 장교가 들어왔다.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 아까 호송해온 그 병사들에게 맡기시오. 내가 다시 찾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오.》
《아닙니다. 주교님, 그놈이 아닙니다!》 보나씨에는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 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랍치한건 다른 놈입니다. 이분과는 딴판으로 생겼는걸요! 이분은 아주 정직한분입니다!》
《이 얼간이를 끌어내가시오!》 주교가 말하였다.
장교는 보나씨에의 팔굽을 잡고 호송병들이 기다리고있는 객실로 끌고 갔다.
방금 들어온 그 사람은 초조한 눈으로 보나씨에를 바라보고있다가 문이 닫기기 바쁘게 리슐리에에게로 급히 다가갔다.
《그들은 만났습니다.》그가 말하였다.
《누구 말이요?》주교가 물었다.
《두 년놈 말입니다.》
《왕비와 공작이?》 리슐리에는 부르짖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루브르궁전에서 만났습니다.》
《정확하오?》
《정확하다뿐이겠습니까.》
《누구한테서 들었소?》
《라누아부인입니다. 아시다싶이 주교님께 더없이 충실한 녀자지요.》
《어째서 그 녀자는 진작 알리지 않았다오?》
《우연인지 조심하느라고 그랬는지 어쨌든 왕비는 슈르지부인을 자기 침실에서 함께 자게 하고는 하루종일 놓아주지 않았다는겁니다.》
《그렇단 말이지… 우리가 졌소. 어떻게든 봉창을 해야 하오.》
《저는 주교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어떻게 만났다오?》
《밤 12시반에 왕비는 시녀들과 함께 앉아있었는데…》
《어디에?》
《자기 침실에요.》
《그렇단 말이지. …》
《의상을 맡은 시녀가 보내온 편지가 전해졌지요.》
《계속하오.》

《왕비는 안절부절 못하는데 연지를 바른 얼굴이 눈에 띄게 새파래지더라는겁니다…》

《계속하오! 계속하오!》

《일어나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모두들 10분동안 기다려요. 내 인차 올테니.〉 하더니 문을 열고 나가더라는겁니다.》

《어째서 라누아부인은 즉시 죄다 당신에게 알리지 않았다오?》

《부인은 아직 확실한걸 몰랐던겁니다. 게다가 왕비는 자기를 기다리라고 했거던요. 그 녀자로서는 감히 거역할수가 없었지요.》

《왕비는 얼마동안 나가있었다오?》

《45분입니다.》

《시녀는 한사람도 따라가지 않았는가?》

《에스떼파니가 혼자 따라갔답니다.》

《그다음 왕비는 돌아왔다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자가 새겨진 나무함을 가지고 도로 나갔답니다.》

《그래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 함이 있더라오?》

《없었답니다.》

《라누아부인은 그 함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알고있던가?》

《알고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왕비에게 선물한 금강석구슬꿰미랍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 함이 없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누아부인은 왕비가 그 함을 버킹함공작에게 준것으로 추측한다는거지?》

《그 녀자는 틀림없다는겁니다.》

《어째서?》

《이튿날 라누아부인은 왕비의 장신구를 맡아보는 시녀로서 그 함을 찾느라고 여기저기 뒤지는 시늉을 하다가 짐짓 난색을 하면서 왕비더러 그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가고 물었답니다.》

《그래 왕비는 뭐라고 하더라오?》

《왕비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하기를 어제 구슬 하나가 떨어져서 세공사에게 수정하러 보냈노라고 하더라는겁니다.》

《세공사한테 가서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알아봐야겠소.》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래 어떻던가? 세공사는 뭐라고 하던가?》
《세공사는 모른다는겁니다.》
《멋있구만! 멋있어, 로슈포르! 우리가 아주 망한건 아니요. … 어쩌면 오히려 일이 더 잘될수도 있소.》
《저는 확신합니다만 주교님의 뛰여난 지략이…》
《…자기 부하의 실책을 바로잡는다 그 소리겠지?》
《저는 바로 그 말을 하자던 참이였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쉐브레즈공작부인과 버킹함공작이 어디서 종적을 감추었는지 알고있소?》
《모릅니다. 저의 밀정들은 그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쥐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알고있소.》
《당신께서요?》
《그렇소. 적어도 짐작이 가는데가 있단 말이요.》
《저더러 두 년놈을 체포하라는 말씀입니까?》
《늦었소. 보나마나 그들은 떠나갔을거요.》
《어쨌든 확인이라도 해볼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근위병 열명을 데리고 가서 여기 이 두 집을 수색해보오.》
《알겠습니다, 주교님.》
로슈포르는 부리나케 나갔다.
주교는 혼자 남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세번째로 종을 울렸다.
문간에 례의 그 장교가 나타났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구!》 주교가 말하였다.
보나씨에가 다시 들어왔다. 장교는 주교의 신호에 따라 방에서 나갔다.
《당신은 날 속였어.》 주교는 엄하게 말하였다.
《제가요?》 보나씨에는 고함을 질렀다. 《제가 감히 주교님을 속이다니요!》
《당신의 처가 워지라르거리와 라 아르쁘거리로 간것은 포목상을 만나자는게 전혀 아니였소.》
《그럼 그 사람이 누굴 찾아갔단 말입니까?》
《쉐브레즈공작부인과 버킹함공작을 만나러 갔댔소.》

《글쎄요. …》보나씨에는 기억을 더듬으면서 말하였다. 《예, 주교님의 말씀이 옳을수도 있습니다. 포목상들이 그런 집에 산다는것이 참 이상하다고 저도 집사람에게 몇번 말한적이 있습니다. 집에 간판이 없거던요. 그때마다 집사람은 깔깔 웃어댔지요. 아, 주교님.》 보나씨에는 주교의 발밑에 몸을 던지면서 계속하였다. 《당신께서는 참말로 주교님다우십니다. 누구도 당할자 없는 주교님, 주교님앞에 누구나가 다 머리를 수그리지요!》

보나씨에같은 가련한 인간에 대한 자기의 승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는것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주교는 한순간 쾌감을 느끼였다.

그다음 불시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듯 주교는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띠며 잡화상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오, 친구.》그는 말하였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주교님께서 나의 이 손을 잡으셨다. 나는 거룩하신분의 손을 잡아보았다!》 보나씨에는 부르짖었다. 《거룩하신 주교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

《그렇소, 친구. 그렇단 말이요.》주교는 어버이같은 어조로 말하였다. 그는 이따금 그런 어조로 말할줄 알았으며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곧잘 속아넘어가군 하였다. 《당신은 억울한 루명을 썼댔소. 그래서 당신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생각이요. 자, 이 지갑속에 100삐스똘이 들어있으니 받소. 그리고 날 용서하오.》

《제가 주교님을 용서한다구요!》 보나씨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돈주머니에는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였다. 혹시 롱이 아닌가 생각했을것이다.

《당신께서는 저를 체포하실수 있고 고문하실수 있고 목을 매달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께서는 저희들의 주권자이시니 저야 어느 앞이라고 찍소리 한마디 하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용서하다니! 원, 생각조차 할수 없습니다!》

《아, 존경하는 보나씨에선생, 당신은 정말 마음이 너그럽구만! 고맙소. 자, 이젠 그만하고 이 지갑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너무 섭섭히 생각지 말고.》

《저는 그저 감지덕지할뿐입니다.》

《그럼 잘 가오. 아니지, 다시 만날 때까지. 왜냐면 우린 또 만나게 될테니까.》

《아무때건 불러만 주십시오. 제꺽 달려오겠습니다.》

《우린 자주 만나게 될테니까 걱정마오. 우리의 대화에 난 대만족이요.》

《아, 주교님!》

《자, 안녕히. 보나씨에선생, 안녕히!》

그리고나서 주교가 손을 쳐들어보이자 보나씨에는 코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나서 뒤걸음질을 쳐서 방에서 나갔다. 주교는 그가 객실에서 《주교님 만세! 거룩하신 주교님 만세!》하고 목청껏 웨치는 소리를 들었다.

주교는 미소를 띠고 보나씨에의 소란스러운 격정의 폭발에 귀를 기울였다.

《흥, 나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 또 생겼군.》 그는 보나씨에의 웨침소리가 멀리로 사라지자 혼자 말하였다.

그다음 주교는 책상우에 펼쳐져있는 라 로쉘의 지도를 주의깊이 들여다보면서 1년반후에 포위된 도시의 항구를 봉쇄한 그 유명한 방파제가 지나가게 될 자리에 연필로 선을 긋기 시작하였다. 그가 한창 전략적구상에 몰두하고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로슈포르가 들어왔다.

《그래 어떻게 되였소?》 주교는 다우쳐물었다. 그것은 백작이 위임받은 그 일에 그가 얼마나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작이 대답하였다. 《각하께서 말씀하신 그 집들에는 실지로 스물예닐곱살난 젊은 녀자와 서른댓에서 마흔쯤 나보이는 남자가 와있었습니다. 남자는 나흘을 있었고 녀자는 닷새를 있었습니다. 녀자는 오늘 밤에 떠나갔고 남자는 아침에 떠나갔습니다.》

《그것들이요!》주교는 이렇게 부르짖더니 벽시계를 쳐다보고나서 덧붙였다. 《이제 그것들을 뒤쫓기에는 늦었소. 공작부인은 이미 뚜르에 갔을것이고 버킹함공작은 불로니에 갔을거요. 그것들을 런던에서 덮치는수밖에 없소.》

《분부를 주십시오.》

《이번일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내지 마오. 왕비가 아무 눈치도 못채게 해야 하오. 우리가 자기의 비밀을 알아냈다는걸 모르게 해야 하오.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음모사건을 들추어내고있는줄로 알게 해야 하오. 나가서 쎄기에법무대신을 내게 보내주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라는건?》 주교가 물었다.

《보나씨에 말입니다.》

《써먹을수 있는껏 써먹어야지. 그치는 내 밀정으로 만들어놓았으니 자기 녀편네를 감시하게 될거요.》

로슈포르백작은 상전의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수단에 탄복한듯 경건하게 절을 하고 나갔다.

혼자 남자 주교는 다시 안락의자에 앉아 편지를 쓴 다음 거기에 자기의 도장을 찍고나서 종을 울렸다. 례의 그 당직장교가 네번째로 들어왔다.

《비뜨래를 불러주시오.》 주교가 말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더러 길 떠날 차비를 하라고 이르시오.》

몇분이 지나자 그의 앞에는 장화를 신고 행장을 갖춘 사나이가 서 있었다.

《비뜨래.》 리슐리에는 말하였다. 《당신은 지체없이 런던으로 떠나오. 도중에 단 1초라도 멈춰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오. 이 편지를 밀레디에게 전하시오. 이건 200삐스똘의 지불증서요. 내 금고관리인한테 가오. 그 사람이 현금으로 내줄거요. 한주일후 내가 준 과업을 잘 수행하고 돌아오면 그만큼 또 받게 될거요.》

비뜨래는 한마디 응대도 없이 절을 하고나서 편지와 200삐스똘 청구서를 받아쥐였다.

편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

《밀레디! 버킹함공작이 참가하는 첫 무도회에 나가시오. 그의 조끼에서 당신은 12개의 금강석구슬꿰미를 보게 될것이요. 그에게 접근하여 그가운데서 두개를 떼내시오. 구슬을 손에 넣는 즉시로 나에게 알려주시오.》

제 15 장

군인과 법관

이런 일들이 벌어진 다음날 다르따냥과 뽀르또스는 아또스가 실종된 사실을 뜨레빌에게 보고하였다.

아라미스는 가정사정으로 닷새동안 말미를 얻어가지고 루앙에 가고 없었다.

뜨레빌은 총사들의 어버이였다. 총사대의 제복을 입기만 하면 그 아무리 보잘것없고 이름이 없는 총사라도 친형제의 도움을 기대하듯이 그의 도움을 기대할수 있었다.

뜨레빌은 지체없이 경시총감을 찾아갔다. 끄르아루쥬초소의 장교를 불러 만나보고 여러가지 입수된 정보들을 맞추어본 결과 아또스가 포를－레베끄감옥에 갇혀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아또스는 보나씨에와 꼭같은 시련을 겪었다.

우리는 두 수감자가 대면하는 장면을 보았다. 다르따냥에게 무슨 화라도 미치지 않겠는지, 그리고 그가 행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으로부터 여태껏 입을 꾹 봉하고있던 아또스는 지금에 와서는 자기는 아또스라는 사람이며 다르따냥이 아니라고 우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보나씨에도, 보나씨에부인도 알지 못하며 그들중 한사람과 이야기해본적도 절대로 없노라고 하였다. 자기는 저녁 10시쯤 해서 친구인 다르따냥을 찾아갔으며 그전에는 뜨레빌각하의 집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 사실을 확인해줄 사람은 스무명도 더 꼽을수 있다고 하면서 라 뜨레무이를 비롯하여 요란한 이름들을 들었다.

두번째 심문관은 첫번째 심문관과 마찬가지로 총사의 간단명료한 진술에 얼떨떨해지고말았다. 법관들이 무인들과 대결할 때 흔히 시도하듯이 그도 총사를 능히 타승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뜨레빌이며 라 뜨레무이의 이름앞에서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

었던것이다.
아또스를 주교에게로 끌고갔으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루브르궁전에서 왕을 만나고있었다.
바로 이때 경시총감과 포를—레베끄초소의 장교를 만나 아또스의 행처를 알아낸 뜨레빌은 곧바로 루브르궁전으로 들어갔다.
뜨레빌은 총사대 대장으로서 임의의 시각에 왕을 만날수 있었다.
왕이 왕비를 얼마나 시새워하는가 하는것은 우리들도 다 아는 사실이거니와 거기에 교묘하게 부채질을 하는것은 주교였다. 그는 음모라고 하면 남자보다도 녀자들을 더 경계하였다. 그가 안느 도뜨리슈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왕비와 쉐브레즈부인의 친교였다. 그 두 녀자는 에스빠냐와의 전쟁이나 영국과의 분쟁, 엉망이 된 재정형편보다도 더 큰 골치거리였다. 그가 보기에 쉐브레즈부인은 정치적음모에서만이 아니라 사랑문제(이것이 제일 큰 걱정거리였다.)에서도 왕비의 오른팔이 되고있었다.
뚜르에 추방된 쉐브레즈부인이 몰래 빠리에 올라와 경찰의 눈을 속여가면서 닷새동안이나 묵었다는 주교의 말에 왕은 노발대발하였다. 변덕이 많고 신의가 없는 왕은 자기를 《공정한 루이》, 《청렴한 루이》로 불러줄것을 바랐다. 사실자료들만 번다하게 들면서 설명다운 설명은 주지 않는 사가들의 평가만 가지고서는 후세사람들이 왕의 그러한 성격을 리해하기 힘들것이다.
주교가 쉐브레즈부인은 빠리에 올라왔을뿐아니라 암호통신수단을 리용하여 왕비와 련계를 가졌다는것, 자기가 암호통신의 전달자를 탐지하여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가서 범인을 현장체포하려고 할 때 어떤 총사가 전하의 어명을 받들고 수색에 떨쳐나선 사람들에게 칼을 뽑아들고 달려듦으로써 법관들의 수사를 파탄시켰다고 하자 루이 13세는 그만 자제력을 잃어버리고말았다. 왕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왕비의 방으로 뚜벅뚜벅 다가갔다. 이렇게 분노하면 왕은 극도로 랭혹한 인간으로 되군 하였다.
그렇지만 주교는 버킹함공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던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랭담한 얼굴에 외모를 단정히 갖춘 뜨레빌이 들어섰다. 주교가 와있고 왕의 얼굴이 푸르딩딩한것을 보자 뜨레빌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깨달았다.

루이13세는 금시 방문손잡이를 잡으려다가 뜨레빌의 발소리에 돌아섰다.

《마침 때맞추 잘 왔소.》 왕은 흥분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아무것도 속에 감출줄 모르는 인간이였다. 《당신의 총사들에 대해서 훌륭한 소리들이 들려오누만.》

《하지만 저도》 뜨레빌은 쌀쌀하게 말하였다. 《전하께 법관들에 대해서 훌륭한 소릴 말씀드릴게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말해보오.》왕이 오만하게 말하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뜨레빌이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매우 존귀하면서도 군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있는 관리, 심문관, 경찰들의 한 무리가 어느 한 집에서 총사 한사람을 붙들어가지고 공공연히 거리바닥으로 끌고가서 포를ㅡ레베끄감옥에 구금하였습니다. 자기들은 명령을 집행할따름이라면서 명령서는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하면 나의 훌륭한 총사 아니, 전하의 훌륭한 총사들가운데 한사람으로서 행실이 단정하고 평판도 좋으며 전하께서도 착실한 총사로 알고계시는 아또스입니다.》

《아또스?》왕은 부지중 되받아외웠다. 《옳아, 그 이름이 귀에 익은것 같아.》

《전하께서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뜨레빌은 말하였다. 《아또스는 전하께서도 이미 알고계시는 지난번의 그 결투에서 불행하게도 까위자끄에게 중상을 입힌 바로 그 총사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참, 말이 난김이니 말이지만 주교님.》 뜨레빌은 주교를 돌아다보며 계속하였다. 《까위자끄씨는 깨끗이 나았겠지요?》

《그렇소, 고맙소.》 주교는 분하여 입술을 깨물면서 대꾸하였다.

《아또스는 그날 가스꼰뉴출신의 자기 친구를 찾아갔댔습니다.》 뜨레빌은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또스가 친구를 기다릴 생각으로 걸상에 앉아 방금 책을 집어드는데 난데없는 밀정들과 병사들의 한무리가 집을 에워싸고 문들을 까부셨습니다. …》

주교는 왕에게 눈짓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라는 뜻을 알리였다.

《그건 우리도 다 알고있소.》 왕이 말하였다. 《나를 위한것이였으니까.》

《그러니까》 뜨레빌은 계속하였다. 《전하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

는 나의 총사 한사람이 붙잡혔고 전하를 위해서 마치도 악당처럼 두 병사의 호송하에 거리바닥에 몰켜서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대는 군중속으로 해서 끌고갔다는겁니다. 전하를 위해서 수십번 피를 흘렸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피를 흘릴 각오가 되여있는 고결한 사람을 말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왕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듯 말하였다. 《그게 정말이요?》

《뜨레빌씨는》주교는 태연자약하게 말하였다. 《아무 죄도 없는 그 총사, 그 고결한 총사가 그보다 한시간전에 비상히 중요한 일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가 파견한 네명의 심문관에게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던 일은 말씀드리지 않고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어디 증명해보시지요!》 뜨레빌이 순전히 가스꼬뉴사람다운 진실성과 순전히 군인다운 란폭성을 가지고 부르짖었다. 《그 일이 있기 한시간전에 아또스는 매우 지체높은 가문의 출신으로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라 뜨레무이공작이며 살뤼스백작들과 담소를 하였던것입니다.》

왕은 주교를 바라다보았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실은》 주교는 왕의 무언의 질문에 대답하여 말하였다. 《피해자들이 작성한 조서에 씌여져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관들의 조서가 군인들의 정직한 말에 대비나 될수 있습니까?》 뜨레빌이 도고하게 말하였다.

《그만, 그만. 뜨레빌.》 왕이 말하였다. 《조용하오!》

《만일 주교님께서 나의 총사들가운데서 누구를 의심하신다면》 뜨레빌이 대답하였다. 《주교님의 공정함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있는만큼 직접 조사해보실것을 부탁합니다.》

《수색이 진행된 그 집에서는》 주교가 여전히 태연자약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그 총사의 친구인 어떤 베아른청년이 살고있습니다.》

《다르따냥 말입니까?》

《뜨레빌씨, 나는 당신의 보호를 받고있는 청년을 두고 하는 말이요.》

《그렇지요. 바로 다르따냥이지요.》

《당신은 그래 그 젊은이가 누굴 시켜서…》
《아또스를 말이지요. 자기보다 나이가 곱절이나 많은 사람을 말이지요?》 뜨레빌이 그의 말을 꺾었다. 《천만에요. 그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다르따냥 역시 그날 저녁을 우리 집에서 보냈는걸요.》
《저런!》 주교가 부르짖었다. 《그날 저녁은 몽땅 당신네 집에 모였댔군요!》
《내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뜨레빌은 분으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물었다.
《그런건 아니요.》 주교가 말하였다. 《하지만 다르따냥이 가있은건 몇시요?》
《아, 그건 내 정확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난 시간이 퍽 늦은것 같아서 시계를 보았더니 9시반이더군요.》
《그럼 몇시에 떠나갔는가요?》
《10시반에요.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한시간 지나서지요.》
《하지만 어쨌든》 주교는 뜨레빌의 말이 옳다는것을 한순간도 의심치 않았으며 자기가 승리할 가망은 점점 희박해진다는것을 느끼며 말하였다.
《하지만 어쨌든 아또스는 포쑤아여르거리의 그 집에서 체포되였소.》
《나의 총사는 데제싸르중대의 근위병과 친구지간이 될수 없다는겁니까?》
《친구가 사는 집이 의심을 받을 때에는 안되지.》
《뜨레빌, 문제는 그 집이 의심을 받고있다는데 있는거요.》 왕이 끼여들었다. 《당신은 아마 그걸 몰랐겠지만…》
《그렇습니다, 전하. 저는 정말 몰랐댔습니다. 하지만 다르따냥이 세낸 방은 의심받을 근거가 없는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이만큼 전하께 충실하고 주교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다시 없을것이기때문입니다.》
《언젠가 까르므 데쇼수도원옆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쥐싸끄에게 부상을 입힌 그 다르따냥이 아니요?》 왕은 분김에 얼굴이 시뻘겋게 된 주교를 쳐다보고나서 물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베르냐쥬를 꺼꾸러뜨렸지요.》 뜨레빌이 얼른

동을 달았다. 《옳습니다. 전하, 바로 그 사람이지요. 전하께서는 기억력이 참 비상하십니다.》

《그럼 어떡해야 좋겠소?》 왕이 물었다.

《그거야 어디까지나 전하께서 정할 일이지 제가 정할 일은 아닙니다.》 주교가 말하였다. 《저는 아또스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뜨레빌이 부르짖었다. 《아무튼간에 전하께는 법관들이 있으니 그들을 시켜서 해명하는것이 좋을듯싶습니다.》

《그게 좋을것 같아.》 왕이 말하였다. 《이 일을 법관들에게 맡기기로 하지. 재판하는것은 그들이 할일이니 해명하는것도 그들이 해야지.》

《하지만》 뜨레빌이 말하였다. 《요즘은 세월이 하도 험악하여 가장 깨끗한 생활도, 가장 아름다운 미덕도 치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것은 슬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경찰들때문에 자기들이 가혹한 취급을 당하는걸 썩 달갑게 여기지 않을건 뻔합니다.》

그것은 지나친 말이였다. 그러나 뜨레빌은 그런줄 알면서도 내뱉은것이였다. 그는 폭발을 노렸던것이다. 폭발이란 불길을 동반하게 마련이며 불길은 주위를 밝게 비치는것이였다.

《경찰때문이라니!》 왕은 뜨레빌의 말꼬리를 잡고 꽥 고함을 질렀다. 《경찰들때문이라니! 도대체 당신은 뭘 말하자는거요? 당신은 자기의 총사들이나 똑바로 건사하오. 쓸데없는 일에 코를 들이밀지 말구… 당신의 말을 들어보면 총사 한명을 잡아가두면 온 프랑스가 망할것 같단 말이요. 같잖은 총사 하나를 가지고 소란스럽게! 난 총사들을 몇십명이라도 잡아가두게 할테요. 백명이라도! 몽땅이라도! 누구 하나 찍소리도 못하게 할테요!》

《만일 전하께서 총사들을 의심하신다면 그건 총사들에게 잘못이 있다는걸 의미합니다.》뜨레빌이 말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저의 칼을 전하께 바칠 각오가 되여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교님은 나의 총사들을 죄인으로 몰았으니 앞으로 나도 죄인으로 몰아붙일것이 뻔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죄를 뒤집어쓴 아또스 그리고 머지않아 같은 신세가 될 다르따냥과 함께 저도 체포된것으로 인정하는편이 차라리 나을것입니다.》

《가스꼰뉴의 벽창호,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겠소!》 왕이 말하였다.
《전하.》 뜨레빌은 조금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하였다. 《저의 총사가 제게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재판정에서 흑백을 명백히 밝힐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재판을 받게 될거요.》 주교가 말하였다.
《그럴수록 좋습니다. 그 경우에는 전하께서 제가 변호를 할수 있게 허락해주십시오.》
왕은 쌍방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는가가 우려되였다.
《주교가 개인적으로 그 어떤…》
주교는 형세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다는것을 알아차리고 선손을 썼다.
《용서하십시오.》그는 말하였다. 《만일 전하께서 저에게 편견이 있다고 보신다면 저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왕은 뜨레빌에게 말하였다. 《아또스가 그때 당신의 집에 있었고 그 일에는 끼여들지 않았다는걸 선왕의 이름으로 맹세하오.》
《명예지고하신 부왕과 제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높이 공경하는 전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전하, 심사숙고하십시오.》 주교가 말하였다. 《만일 그자를 놓아준다면 그 어느때 가서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아또스는 언제나 자기 자리에 있을것이며 법관들이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심문에 기꺼이 응할것입니다.》 뜨레빌이 말하였다. 《주교님, 그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을테니 안심하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맞아. 그는 도망치지 않아.》 왕이 동감을 표시하였다. 《뜨레빌씨가 말한것처럼 그는 아무때나 만날수 있을거요. 그리고 또》 왕은 목소리를 낮추고 간청하듯이 주교를 쳐다보며 덧붙였다. 《우린 그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소. 그게 잘하는 수요.》
루이13세의 그 말이 리슐리에의 미소를 자아냈다.
《어명을 내리십시오. 전하, 전하께서는 특사를 내리실 권리가 있으니까요.》
《특사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이지요. 그런데 저의 총사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전하께서는 그에게 특사를 내리

실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베푸셔야 할줄 압니다.》뜨레빌이 말하였다.
《그는 포를－레베끄에 있다지?》 왕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전하, 그것도 중죄인처럼 독감방에서 외부와의 접촉도 금지당하고있습니다.》
《그것 참 안됐군!》 왕이 중얼거렸다. 《어떻게 한다!》
《석방한다는 명령서에 수표를 하시면 그만입니다.》주교가 말하였다. 《저도 전하와 같은 립장이고 뜨레빌씨의 담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뜨레빌은 기쁨에 넘쳐서 허리를 굽석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불안스럽기도 하였다. 그는 주교가 완강하게 저항할것을 바랐던것인데 뜻밖에도 순순히 양보를 한것이다.
왕이 석방명령서에 수표를 하자 뜨레빌은 그것을 받아들고 급히 문께로 향하였다.
뜨레빌이 막 문을 나서려는 때에 주교는 그에게 상냥한 미소를 지어보이고나서 왕에게 말하였다.
《총사대는 대장과 부하들이 참말로 한마음한뜻입니다! 저러면야 일도 잘되고 부대의 영예도 떨칠수 있지요.》
(저놈이 얼마 안 가서 나하고 무슨 못된 장난을 꾸밀것이 틀림없다.) 뜨레빌은 생각하였다. (저놈의 꿍꿍이속은 귀신도 알수 없으니까. 아무튼 서둘러야 한다. 사실 전하께서 언제 생각이 달라져서 방금 놓아주었던 사람을 도로 바스띠유든가 포를－레베끄감옥에 가둘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대로 놔두기보다 더 시끄럽게 될수 있지.)
뜨레빌은 사기가 충천하여 포를－레베끄감옥으로 가서 변함없이 태평스러운 아또스를 석방시켰다.
뜨레빌은 다르따냥을 만나자 말하였다.
《이번에 자네는 운이 좋았어. 자넨 쥐싸끄에게 빚진 값을 한거네. 배르나쥬에게 진 빚이 아직 남아있으니 단단히 조심해야 하네.》
주교를 경계하여야 하며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뜨레빌의 판단은 옳았다. 총사대 대장이 문을 닫고 나가기 바쁘게 주교는 왕을 돌아다보았다.
《이제는 우리끼리니》 그는 말하였다. 《전하께서 좋으시다면 긴히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전하! 버킹함공작이 빠리에서 닷새동안을 지내고 방금 오늘 아침에 떠나갔습니다.》

제 16 장

쎄기에법무대신이 습관대로 종을 울리려다가 종시 울리지 못한 이야기

주교의 그 말에서 왕이 받은 충격은 너무나도 컸다. 그의 얼굴은 금시 수수떡같이 되였다가 다시 새파래졌다. 주교는 기울어졌던 형세가 바로잡혔음을 깨달았다.

《버킹함공작이 빠리에 나타나다니!》왕은 부르짖었다. 《그 사람은 무엇때문에 왔다오?》

《에스빠냐인이며 신교도들 같은 전하의 원쑤들과 꿍꿍이를 하기 위해서겠지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쉐브레즈부인이랑 롱그빌부인이랑 꽁데네족속들하고 짜고들어서 내 얼굴에 흙칠을 하자는거요!》

《전하, 무슨 그런 당찮은 말씀을! 왕비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보다 중요하게는 전하께 그토록 극진하신데요.》

《녀자의 마음이라는건 바람에 불리는 갈대같은거요. 주교선생, 나에 대한 극진한 그 사랑이라는것이 어떤것인지 난 다 안단 말이요.》

《그렇지만》 주교가 말하였다. 《저는 공작이 순 정치적목적에서 빠리에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순전히 다른 목적으로 왔다는걸 난 똑똑히 안단 말이요. 만일 왕비가 일을 저질렀다면 무사할수 없지!》

《아닌게아니라》주교가 말하였다. 《그런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만… 전하의 말씀을 듣고보니 한가지 짚이는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의 어명을 받들고 라누아부인을 몇번 만나서 따져보았는데 오늘 아침 그 녀자가 하는 말이 왕비님께서는 어제 밤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으셨고 오늘 아침에는 오래동안 우시고 하루종일 편지를 쓰셨다는게 아니겠습니까?》

《죄다 알만 하오!》 왕은 부르짖었다. 《거야 물론 그놈에게 썼겠

지! 주교, 왕비의 그 편지를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겠소.》

《그렇지만 그걸 무슨 방법으로 손에 넣겠습니까, 전하! 그 일은 저도 전하께서도 해낼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당끄르원수 부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댔소?》 왕은 독같이 성이 나서 부르짖었다. 《그 녀자의 장들을 모조리 뒤지고 나중에는 몸까지 뒤지지 않았댔나 말이요.》

《당끄르원수의 처야 어디까지나 당끄르원수의 처, 피렌쩨출신의 일개 사기군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쪽은 전하의 배우자, 프랑스의 왕비가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존엄이 높은 왕비들가운데 한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크단 말이요. 공작! 자기의 고귀한 신분을 쉽사리 잊어버렸으니 그만큼 죄가 엄중한거요. 그도 그렇거니와 난 그 모든 간계에 끝장을 내기로 결심한지가 오래오. 정치적간계건 애정적인 간계건… 내 생각이 틀림없다면 왕비에게는 라 뽀르뜨인가 뭔가 하는 충복이 있다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주동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왕비가 날 배반했다고 본다는 거겠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왕비님은 전하의 권력을 반대하는 모략에 끼였을뿐이지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하신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 두가지가 다 있다고 보오. 왕비는 날 사랑하지 않소. 다른 놈을 사랑하오. 그 더러운 버킹함공작을 사랑한단 말이요! 당신은 그놈이 빠리에 와있을 때 왜 체포하지 않았소?》

《공작을 체포한단 말입니까! 그 영국왕의 재상을! 원, 무슨 말씀을! 무슨 소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저는 여전히 그렇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만—전하의 의심이 전혀 무근거한것이 아니였던것으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더 큰 소동이지요!》

《하지만 그놈이 도적고양이처럼 시내바닥을 돌아치고있으니 마땅히…》 여기서 왕은 자기로서도 무서운듯 더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리슐리에는 그 뒤말을 들을수 있을가 하여 목을 뽑아들고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왕이 말하였다. 《아무것도 아니요. … 그러나

당신은 그놈이 빠리에 와있는 동안 내내 감시를 했겠지?》
《그렇습니다, 전하.》
《어디서 머물렀소?》
《라 아르쁘거리의 75번지입니다.》
《그건 어디요?》
《룩셈부르그궁전근방입니다.》
《그래 당신은 그놈이 왕비와 만나지 않았다고 확신하오?》
《저는 왕비께서 자신의 의무에 지나치게 충실한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들사이엔 편지가 왔다갔다하거던. 왕비가 하루종일 썼다는 편지도 그놈에게 보내는거요. 공작, 난 무조건 그 편지를 쥐여야 하겠소!》
《전하, 그건…》
《공작!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난 그걸 기어코 쥐고싶단 말이요!》
《하지만 전하, 그러다가 혹시…》
《당신도 날 배반하는거요, 주교선생? 당신은 언제 보나 내 말에 엇선단 말이요. 그래 당신도 에스빠냐인이요, 영국인이요, 쉐브레즈부인이요, 왕비요 하는것들과 한패당이란 말이요?》
《전하.》주교는 한숨을 내쉬면서 말하였다. 《정말 억울합니다.》
《주교선생, 난 그 편지가 요구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말이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
《어떤 방법?》
《그 일을 쎄기에법무대신에게 맡기자는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의 직분에 속하는 일이니까요.》
《당장 불러오라고 하시오.》
《그 사람은 제 방에 와있습니다. 제가 불렀댔습니다. 혹시 제가 없는새에 오면 가지 말고 기다리게 하라고 일러두었댔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쨌다는거요?》
《그러나 왕비님께서 응하지 않으실수 있습니다.》
《내 명령인데두?》
《왕비님께서 전하의 명령인줄을 모르실 경우에 말입니다.》
《좋소. 등탈이 없도록 내가 미리 왕비에게 말해둘테요.》
《전하, 제가 두분의 불화를 막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했다는것을

아무쪼록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고있소. 난 당신이 왕비에 대해서 매우 너그럽다는걸 알고있소. 지나치다고도 할수 있을만큼… 미리 말해두는데 그 문제는 후날 또 이야기해야 할것 같소.》
《아무때건 불러만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전하와 프랑스국 왕비님의 화목을 위해서 이 한목숨 바칠수 있다면 그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행복으로 여기겠습니다.》
《됐소, 됐소. 주교! 그만하고 법무대신을 데려오라고 일러주오. 그사이 난 왕비를 만나고 올테요.》
왕은 문을 열고 왕비의 방으로 통하는 복도로 나섰다.
왕비는 기또부인, 싸볼레부인, 몽바종부인, 게메네부인 등 시녀들에 둘러싸여 앉아있었다.
왕비를 따라 마드리드에서 온 시녀 에스떼파니가 한쪽구석에 앉아있었다. 게메네부인이 무슨 책인가를 읽는중이고 왕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의깊이 듣고있었다. 왕비는 자기 생각에 잠길 기회를 만들려고 일부러 이 모임을 궁리해낸것이였으므로 함께 듣는 시늉만 하고있을뿐이였다. 그 생각은 사랑의 마지막잔광을 받아 금빛으로 찬란하기는 하였으나 거기에는 역시 비애의 그림자가 짙게 비껴있었다. 한쪽으로는 남편에게서 배척을 당하고 또 한쪽으로는 자기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은데 대하여 앙갚음으로 나오는 주교에게서 증오를 받고있는 안느왕비였다. 돌이켜보면 왕태후 마리 드 메디씨스(루이 13세의 어머니—역자주)도 주교의 그와 같은 증오를 받아 평생토록 고통을 당하였다. 옛기록에 의하면 왕태후는 그래도 처음 한동안은 주교의 호의를 받아주었던것으로 전해지고있지만 안느왕비는 끝까지 마다하였던것이다. 안느 도뜨리슈는 자기의 가장 충실한 종복들, 가장 신뢰하는 벗들,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하나, 둘 자꾸 옆에서 떨어져나가는것을 보았다. 무슨 액운이라도 붙어다니는것처럼 왕비가 손을 대는 일마다 불행을 가져왔다. 교우관계에는 박해가 뒤따랐다. 쉐브레즈부인과 베르네부인은 추방되였으며 라 뽀르뜨마저도 자기는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것을 왕비앞에 숨기지 않았다.
왕비가 한창 이와 같은 음울한 생각에 깊이 잠겨있는데 불시에 문이 벌컥 열리면서 왕이 방안으로 들어섰다. 게메네부인은 즉시 읽는것을 그만두고 시녀들은 모두 일어섰다. 물을 뿌린듯이 조용해졌다.

왕은 아무런 인사말도 없이 왕비앞에 가서 섰다.
《여보.》왕은 여느때같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법무대신이 올거요. 내가 알아볼것이 있어서 시킨것이니 그리 알고있소.》
그렇잖아도 리혼이요, 추방이요, 재판이요 하면서 줄곧 위협을 받아오던 가엾은 왕비는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였다.
《그렇지만 전하, 도대체 무슨 일때문인가요?》 왕비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법무대신은 저에게서 무얼 알아본다는건가요? 왜 전하께서 친히 저한테 알아보지 않으시는가요?》
왕은 들은체도 않고 홱 돌아섰다. 바로 그때 근위대 당직장교 기또가 들어와서 법무대신이 왔다고 아뢰였다.
법무대신이 들어섰을 때 왕은 방안에 이미 없었다. 그는 다른 문으로 나간것이였다.
법무대신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입가에는 어줍은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왔다. 그는 앞으로도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자주 등장하게 될것이므로 독자들은 아예 여기서 낯을 잘 익혀두는것도 나쁘지는 않을것이다.
법무대신은 꽤 재미나는 인물이였다. 한때 리슐리에의 종복으로 있다가 후에 노뜨르담사원의 참회승이 된 로슈레말이라는 사람이 이를데없이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주교에게 알선하였다. 리슐리에는 그의 말을 믿고 그 사나이를 받아주었는데 결과는 매우 좋았다.
쎄기에씨에 대해서는 별의별 일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젊은시절을 허랑방탕하게 보낸 그는 자기의 어리석은 잘못을 깨끗이 씻어버릴 결심으로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신성한 곳에 들어갈 때 그는 미처 문을 제때에 닫지 못하여 밉살스러운 정욕까지 뒤따라 함께 들어가버렸던 모양이다. 정욕은 예나 다름없이 그를 유혹하면서 지꿎게 괴롭혔다. 그가 원장에게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하소연하였더니 원장은 그런 때마다 종루에 올라가서 종을 힘껏 울리면 유혹의 악마를 쫓아버릴수 있다고 충고하였다. 종소리를 들은 다른 수도승들이 그가 지금 악마에게 시달리고 있다는것을 알고 전체가 떨쳐나서 기도를 올려주리라는것이였다.
앞날의 법무대신은 그 충고가 마음에 들었다. 그런 방법으로 악마를 물리치려고 시도해보았다. 그렇지만 악마는 이미 타고앉은 자리에

서 쉽사리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기도에 힘을 넣을수록 악마의 유혹도 강해졌다. 그리하여 종소리는 낮에도 밤에도 쉽없이 울렸다. 수도승들은 덕분에 잠시도 쉴 사이가 없게 되였다. 낮에는 종루로 통하는 층계를 오르내리기에 숨쉴 틈도 없었으며 밤에는 스무번도 더 침대에서 뛰여내려 차거운 방바닥에서 기도를 올려야 하였다.

악마가 물러갔는지 아니면 수도승들이 지쳐버렸는지 어쨌든 석달후에 그는 세상에 둘도 없이 악마앞에 무맥한 인간이라는 딱지를 얻어달고 다시 속세에 나타났다.

수도원에서 나오자 사법계에 진출한 그는 백부의 뒤를 이어 고등법관이 되였으며 주교의 편으로 넘어가(이것으로 그의 통찰력이 얼마나 뛰여났는가를 알수 있지만) 법무대신이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주교를 도와 왕태후와 안느왕비를 박해하는데서 남다른 열성을 보였다. 샬레사건때에는 재판관들에게 바람을 불어넣고 모든 책략들을 받들어주었다. 결국 그는 주교의 완전한 신임을 얻어 오늘은 류다른 위임을 받고 왕비앞에 나타나게 된것이였다.

그가 들어서자 그때까지 그냥 서있던 왕비는 얼른 안락의자에 앉으면서 시녀들에게도 모두 방석이나 쪽걸상에 적당히들 앉으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리고나서 왕비는 도고하게 법무대신을 돌아다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예요?》

《왕비님을 끝없이 공경하는 이 사람이지만 전하의 어명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왕비님의 편지들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뭐요!》 왕비는 고함을 쳤다. 《내 방에서 조사요?… 내 방에서?… 이렇게도 무지막지하다구야!…》

《용서하십시오. 왕비님, 하지만 저는 지금 전하의 손에 쥐여진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금전에 전하께서 여기 오시여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는가요?》

《좋아요. 찾아보세요. 나야 죄인이니까… 에스떼파니, 내 책상이며 장의 열쇠들을 몽땅 내줘요.》'

대신은 빼람들을 들추는 시늉을 하였으나 왕비가 낮에 쓴 그 중요한 편지를 거기에는 건사하지 않았으리라는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스무번나마 빼람을 열었다닫았다 하고나서 좀 머뭇거리던 끝에 그

는 마지막행동 즉 왕비의 몸수색에로 넘어가기로 결심하였다.
대신은 왕비에게로 다가가서 짐짓 난처한듯 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이젠 제일 중대한 일 한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왕비는 무슨 뜻인지 리해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일부러 리해되지 않는체를 하였던지 이렇게 물었다.
《전하께서는 오늘낮 왕비님께서 편지를 쓰신 일을 알고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것도 알고계십니다. 그런데 편지는 책상에도 장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편지는 어디 딴데 감추었거던요.》
《그래서 당신은 감히 왕비의 몸에 손을 대겠다는거예요?》왕비는 꼿꼿이 일어나 으름장을 놓듯이 말하였다.
《저는 국왕의 충실한 노복으로서 전하의 어명이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건 옳은 말이예요!》안느 도뜨리슈가 말하였다. 《주교님의 밀정들은 정말 주인에게 충실하고말고요! 난 사실 낮에 편지를 썼고 아직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건 여기 있어요.》
왕비는 그 아름다운 손을 가슴에 얹었다.
《그렇다면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왕비님.》 대신이 말하였다.
《난 이걸 전하께만 드릴수 있어요.》 안느가 대꾸하였다.
《만일 전하께서 그걸 직접 받으실 생각이시였다면 그이께서는 친히 왕비님께 요구하였을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하께서는 이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왕비님께서 응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계속하세요!》
《빼앗아내라고 하시였습니다.》
《아니! 그건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저의 전권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 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왕비님의 몸도 뒤질수 있다는것입니다.》
《아이참, 세상에!》 왕비가 소리질렀다.
《그러니만큼 왕비님께서는 양보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너무도 무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하의 어명입니다. 왕비님,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난 참을수 없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왕비는 부르짖었다. 에스빠냐와 오스트리아 두 왕실의 피가 끓어오른것이였다.

대신은 깊숙이 허리를 굽석하고나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로 흡사 고문실의 형리와도 같이 왕비에게로 다가들었다. 왕비는 흥분한듯 눈물을 줄줄 흘리였다.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된것처럼 안느 도뜨리슈왕비는 절색이였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다른 그 누구에게 맡긴다는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였다. 그러나 왕은 버킹함공작에게만 왼심을 쓰다나니 다른 사람들은 등한시하였다.

아마도 쎄기에법무대신은 그 순간 눈으로 그 유명한 종을 찾아보았을것이다. 그러나 좀처럼 보이지를 않자 그는 왕비가 편지를 건사하고있다고 가리켜보인 그곳으로 손을 뻗치였다.

안느 도뜨리슈는 한걸음 물러섰다. 얼굴은 금시 죽을 사람처럼 새하얬다. 왕비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왼손으로는 뒤에 있는 책상을 짚고 오른손으로는 코르쎄트속에서 편지를 꺼내여 법무대신에게 내밀었다.

《자요, 받으세요. 그 편지예요!》 왕비는 격하여 말을 떠듬거리며 부르짖었다. 《당신의 가증스러운 그 꼴 보기도 싫으니 이걸 가지고 썩 사라져요.》

대신은 흥분으로 우들우들 몸을 떨면서 편지를 받아쥐자 이마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물러나갔다.

왕비는 기절하다싶이 되여 시녀들의 팔에 쓰러졌다.

법무대신은 편지를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왕에게 가져다바쳤다. 편지를 받아쥐는 왕의 손은 떨렸다. 그는 주소를 찾다가 그것이 보이지 않자 새파랗게 질려 천천히 편지를 펼치였다. 첫머리에서부터 에스빠냐왕앞으로 쓴 편지라는것을 알게 된 그는 단숨에 마지막까지 내리읽었다.

그것은 주교를 제거하기 위한 책모였다. 왕비는 오라비와 오스트리아왕에게 오스트리아왕가를 몰락시키려고 꾀하는 리슐리에의 정책을 더 참을수 없다는것을 리유로 삼아 당장 선전을 포고할듯이 프랑스에 일부러 위협을 가하여 강화의 조건으로는 리슐리에주교의 해직을 제기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있었다. 사랑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왕은 대번에 기분이 좋아져서 주교가 아직 궁전에 있는가고 물어보았다. 주교는 서재에서 왕의 분부를 기다리고있다는 대답이였다.

왕은 즉시 그에게로 갔다.

《여보시오, 공작.》 왕은 말하였다. 《당신 말이 옳았소. 내가 잘못 생각했거던. 모략은 실지로 정치적성격의것이고 사랑에 대해서는 편지에 한마디도 없더란 말이요. 그런데 편지에는 당신소리가 아주 많더구만.》

주교는 편지를 받아쥐고 깐깐히 읽어보았다. 끝까지 읽고는 다시한번 읽었다.

《보시다싶이 전하.》 그는 말하였다. 《저의 원쑤들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놈들은 전하께서 저를 떼여버리지 않으시면 두개 나라와의 전쟁을 치르어야 한다고 공갈하고있습니다. 제가 전하의 립장이라면 두 강국의 협박에 양보를 하고말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자리에서 물러나는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할것입니다. …》

《무슨 소릴, 공작!》

《제 말은 적들과의 힘에 겨운 싸움과 파로때문에 건강이 말이 아니라는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의 라 로쉘전쟁에서 도무지 몸이 견디여내지 못할것 같습니다. 꽁데같은 군인을 대신 임명하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면 전쟁을 능히 감당해낼것이니까요. 하지만 저야 원래 중이 아닙니까. 괜히 어울리지도 않는 일을 맡아가지고 자기의 천직을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신다면 안으로는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시고 밖으로는 전하의 위신을 높이실수 있을것입니다.》

《진정하오, 공작.》왕은 말하였다. 《당신의 심정을 리해할수 있소. 이 편지에 이름이 나온 모든 인물들은 응당한 징벌을 받게 될거요. 왕비도 같소.》

《아니 전하, 그런 말씀을 어찌… 왕비님께서 저때문에 털끝만치라도 화를 입으시게 된다면 그때엔 제가 어찌되겠습니까. 왕비님께서는 저를 언제나 원쑤로 치부하고계신단 말입니다. 전하께서도 잘 아시는것처럼 저는 언제나 지어 전하앞에서도 왕비님편을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아, 만일 왕비님께서 배신행위로써 전하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그땐 사정이 다릅니다. 제편에서 먼저 용서치 말라고 전하께 말씀올렸을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던것이고 전하께서도 그걸 방금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소, 주교선생.》왕이 말하였다. 《당신의 말은 언제

나 옳았거던. 그렇지만 왕비의 행실을 보면 괘씸하거던.》
《전하, 그것은 전하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왕비님을 너무 엄하게 대하시거던요.》
《난 나의 원쑤이건 당신의 원쑤이건 언제나 다 그렇게 대할것이요. 제아무리 신분이 높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어떤 위험에 처한다고 해도 상관없소.》
《왕비님은 저에게는 원쑤지만 전하에게는 원쑤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이께서는 공손하고 흠잡을데 없는 충실한 배우자입니다. 전하앞에서 실례같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먼저 머리를 수그려야지.》
《아니지요. 정 반대입니다. 전하께서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잘못은 그이를 의심하신 전하께 있으니까요.》
《내가 먼저 머리를 수그린다구?》 왕은 부르짖었다. 《안될 소리!》
《전하, 간절히 빕니다.》
《그러자면 맞춤한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왕비님께서 기뻐하실만 한 일을 만들면 되지요.》
《어떤 일 말이요?》
《무도회를 여십시오. 왕비님께서 무도를 얼마나 즐기시는가 하는것은 전하께서도 아시는바이지요. 그런 친절앞에서 왕비님의 노여움은 인차 풀릴것이 틀림없습니다.》
《주교선생, 내가 사교계의 그런 유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거야 당신도 알지 않소.》
《왕비님께서는 전하께서 그런 놀이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알고계시니만큼 더욱 감사하게 여기실것입니다. 게다가 왕비님께서는 얼마전 생신날에 전하께서 선사하신 그 아름다운 금강석구슬꿰미를 달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실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달아보시지 못하였으니까요.》
《좀 생각해보기요, 주교선생.》왕이 말하였다. 왕비가 그닥 대수롭지 않은 문제에서는 잘못이 있지만 자기가 제일 우려하던 문제에서는 청백하다는것을 확인하게 된 지금 왕비와 화해할 각오가 되여있었다. 《생각해보기요. 그렇지만 정말이지 당신은 너무도 너그럽단 말이요.》

《전하.》주교가 대꾸하였다. 《엄격성은 대신들에게나 맡겨두십시오. 그렇지만 관대성은 임금의 미덕이지요. 관대성을 널리 베푸시면 그것이 옳았다는것을 아시게 될것입니다.》

이때 시계가 열한점을 쳤다. 주교는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물러나오면서 왕비와의 화해를 재삼 부탁하였다.

편지를 빼앗긴 이후로 이제나저제나 벼락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안느 도뜨리슈는 이튿날 왕이 살가운 태도로 나오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 왕비는 외면하려고 하였다. 녀성으로서의 긍지와 왕비로서의 존엄이 너무나도 크게 손상되였으므로 마음이 쉽사리 풀릴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시녀들의 설유도 있고 하여 결국은 지난날의 일들은 죄다 잊어버린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왕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인차 성대한 무도회를 열 생각이라고 알려주었다.

불행한 안느 도뜨리슈로서는 무도회가 참으로 오래간만이여서 그 말을 듣자 주교가 예상했듯이 왕에 대한 원한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마음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얼굴에서는 사라졌다. 왕비는 무도회를 어느날로 예견하는가를 물었다. 왕은 그 문제는 앞으로 주교와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실지로 왕은 무도회를 언제 열자는가고 매일 주교에게 물었다. 그러나 주교는 그때마다 그 무슨 구실을 대면서 똑똑한 날자를 찍지 않았다. 한주일이 지나갔다.

이 이야기가 있은지 여드레째 되는 날 주교는 런던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았다. 내용은 몇줄밖에 안되였다.

《그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로비가 모자라 런던을 떠날수 없습니다. 500삐스똘을 보내주십시오. 돈만 받으면 즉시 떠나 나흘 혹은 닷새후에 빠리에 도착하겠습니다.》

주교가 편지를 받은 그날도 왕은 무도회를 언제 열자는가고 물었다.

주교는 손가락을 꼽으면서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 녀자는 돈만 받으면 나흘 아니면 닷새후에 도착한다고 했지. 돈이 런던까지 가는데 닷새, 그 녀자가 여기로 오는데 또 닷새, 그러니까 열흘이다. 열흘밖에 안 걸린다! 맞바람과 이러저러한 장애, 녀자의 체질 등을 고려한다 해도 열흘이면…)

《그래 어떻소, 공작. 계산이 나왔소?》왕이 물었다.

《예, 나왔습니다. 전하, 오늘은 9월 20일, 시청에서는 10월 3일

에 무도회를 열 모양인데 우리도 그날에 맞추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도 전하께서 왕비님께 양보를 하셨다고는 생각지 않을테니까요.》 좀 동안을 두었다가 주교는 덧붙였다. 《전날밤에 왕비님께 그 금강석구슬궤미가 잘 어울리는지 보고싶다고 말씀해두시는걸 잊지 마십시오.》

제 17 장

보나씨에부처

주교가 금강석구슬궤미이야기를 꺼낸것은 이번까지 벌써 두번째였으므로 루이13세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여기에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왕은 재상 리슐리에가 현대의 경찰에 비할바는 못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훌륭한 경찰망을 가지고있는 덕분에 자기의 부부생활에 대하여 자기보다 더 많은것을 알고있는것으로 하여 창피를 느끼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리하여 왕은 이번에 안느 도뜨리슈와의 담화를 통하여 무슨 새로운 비밀이라도 알아내가지고 주교앞에 가서 이야기하리라고 결심하였다. 주교가 이미 알고있는것이나 아직 모르는것이나 매한가지였다. 어느쪽이든간에 자기의 위신이 높아질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왕비를 찾아간 왕은 여느때처럼 우선 왕비의 측근자들을 질책하는것으로부터 꼭지를 떼였다. 왕비는 고개를 수그리고앉아 아무때건 끝날 때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귀등으로 흘려보내고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왕은 언쟁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무슨 건덕지를 얻어쥐자는 속심이였다. 그는 주교에게는 무엇인가 꿍꿍이속이 있으며 이번에도 언제나와 같이 상상외의 갑작수를 들이댈 궁리를 하고있는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였다. 그의 끝을 모르는 질책이 은을 내였다.

《전하.》왕비는 왕의 애매몽롱한 푸념질을 듣다못하여 부르짖었

다. 《왜 툭 터놓고 말씀하시지 못해요? 제가 어쨌다는거예요? 뭘 잘못했다는거예요? 전하께서 제가 오라버님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실리는 없는것이고요?…》

왕은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왕은 지금이야말로 무도회전날에만 하기로 되여있는 금강석구슬꿰미이야기를 꺼내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여보.》그는 위엄스럽게 말하였다. 《이제 며칠안에 시청에서 무도회를 연다오. 시청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그날 당신은 례복을 입고 가슴에는 내가 생일선물로 준 그 금강석구슬꿰미를 달도록 해주오. 이게 내 대답이요.》

그것은 청천벽력같은 대답이였다. 안느 도뜨리슈는 왕이 모든 사실을 죄다 알고있으며 그러면서도 이 한주일동안 아닌보살을 하고있은것은 주교의 요구에 따른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왕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작은 탁자를 짚은 아름다운 손은 밀랍으로 빚은것처럼 보였다. 왕비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왕을 쳐다보기만 할뿐 한마디 말도 못하였다.

《들었소, 여보?》왕은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왕비가 당황해하는것을 보고 흡족해서 물었다. 《들었는가 말이요?》

《들었어요.》 왕비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무도회에 가겠지?》

《가겠어요.》

《금강석구슬꿰미를 달겠지?》

《달겠어요.》

왕비는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그것을 본 국왕은 그의 치명적인 결함들중의 하나인 그 랭혹성을 가지고 통쾌해하면서 말하였다.

《그럼 약속한단 말이지. 내가 말하고싶었던건 바로 이것이였소.》

《그래 무도회는 어느날이예요?》 안느 도뜨리슈가 물었다. 왕은 그 물음에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왕비의 목소리는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같았던것이다.

《인차.》왕은 대답하였다. 《하지만 정확한 날자는 생각나질 않소. 주교에게 물어봐야 할가보오.》

《그러니까 무도회는 주교님이 궁리해낸것이군요?》 왕비는 부르짖었다.

《그렇소. 그런데 그런건 왜 묻소?》 왕이 놀라며 물었다.
《그리고 저에게 금강석구슬꿰미를 달도록 하라고 부탁한것도 그분이구요?》
《글쎄 뭐랄지…》
《그분이예요. 전하, 그분이란 말이예요!》
《그 사람이든 나든 매한가지 아니요? 그 사람이 그랬단들 뭐가 잘못될게 있소?》
《잘못될건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예.》
《아주 좋소.》왕은 문께로 향하면서 말하였다. 《약속을 꼭 지킬줄 믿소.》
왕비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으나 그것은 례의를 지켜서가 아니라 무릎마디가 매시시해났기때문이였다.
《난 끝장이다!》 왕비는 속살거렸다. 《난 끝장이다! 주교는 죄다 알고있다. 그 사람이 왕을 충동질하고있다. 전하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있지만 인차 알게 될것이다. 난 끝장이다. 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왕비는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아닌게아니라 사태는 험악하였다. 버킹함공작은 런던으로 돌아가고 쉐브레즈부인은 뚜르에 있었다. 여느때없이 끈질긴 감시가 자기를 뒤따르고있었다. 왕비는 시녀들가운데서 누가 자기를 배반했다는것을 어렴풋이 느꼈으나 딱히 누구인지는 알수 없었다. 라 뽀르뜨는 궁전지경을 벗어날수 없고 왕비로서는 누구 하나 믿을만 한 사람이 없었다.
자기를 위협하는 불행이 얼마나 크고 자기가 얼마나 고독한가를 깨달은 왕비는 더 참지 못하고 흐느껴울었다.
《제가 왕비님을 도와드릴만 한 일은 없을가요?》 련민의 정이 넘치는 상냥한 목소리가 느닷없이 들려왔다.
왕비는 얼른 돌아다보았다.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수 있었다. 오직 벗만이 그렇게 말할수 있었다.
아니나다를가 왕비의 방으로 통하는 문간에 아름다운 보나씨에부인이 서있었다. 그 녀자는 옆방에서 왕비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다가 왕

이 들어올 때 미처 빠지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래서 죄다 엿들을수 있었던것이다.

왕비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것을 알자 비명을 질렀다. 너무나도 착잡한 생각에 쫓기다보니 라 뽀르뜨가 알선해준 젊은 시녀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던것이다.

《일없습니다, 왕비님! 걱정마십시오!》 젊은 시녀는 절망에 빠진 왕비의 정상에 가슴이 미여지는듯 두손을 모두어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저의 몸과 마음은 왕비님께 바쳐진것입니다. 왕비님께는 너무도 미치지 못하는 비천한 몸이지만 왕비님을 불행속에서 건져드릴 방법을 알고있습니다.》

《당신이! 아유, 맙시사! 당신이! 어디 내 눈을 보아요. 내 주위에는 온통 배신자들뿐이예요. 내가 당신을 믿을수 있을가요?》

《왕비님.》 젊은 녀인은 무릎을 꿇으면서 부르짖었다. 《맹세코 말씀드립니다. 저는 왕비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것으로서 그 진실성을 의심할 여지가 조금치도 없었다.

《그렇습니다.》보나씨에부인은 말을 이었다. 《사실 여기에는 배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모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왕비님께 저보다 더 충실한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시던 그 구슬꿰미를… 왕비님께서는 버킹함공작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슬꿰미는 공작이 가지고간 그 나무함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 어쩌나, 어쩌나!》 왕비는 이발을 달달 떨며 소곤거렸다.

《그렇다면》 보나씨에부인은 계속하였다. 《그걸 도로 찾아와야지요.》

《그건 그렇지만 도대체 무슨 수로 찾아오겠어요?》왕비는 부르짖었다.

《공작에게 사람을 띄워야지요.》

《그러니 누굴 띄우겠어요? 누굴? 믿을만 한 사람이 있어야지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시기만 하면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그렇지만 편지도 써야지요!》

《그렇습니다. 다문 두어마디라도 친필로 쓰시고 왕비님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두어마디가 나를 파멸에로 몰아갈수 있어요. 리혼, 추방…》
《편지가 나쁜 놈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럴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지는 정확히 공작에게 가닿을것입니다. 제가 담보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도 명예도 모든걸 당신에게 내맡길수밖에 없군요.》
《왕비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왕비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인지 내 좀 들어보자요.》
《저의 주인이 이삼일전에 놓여나왔는데 저는 겨를이 없어 아직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그이는 정직하고 마음이 착하답니다. 원쑤도 없고 벗도 없지요. 제가 바라는것이라면 무엇이나 다할분이랍니다. 그이는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것입니다.》
왕비는 젊은 시녀의 두손을 꼭 그러쥐고 깊은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려는듯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성실성으로 빛나는 두눈을 보자 왕비는 뜨겁게 입맞추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왕비는 부르짖었다. 《그러면 당신은 내 생명을 구원해주고 내 명예를 구하여주는것으로 될거예요.》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왕비님을 위하여 이렇게 한몫 할수 있게 된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여길뿐입니다. 제가 구원해드리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비님께서는 나쁜 놈들이 꾸미는 간계의 희생물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건 그래요. 옳게 봤어요.》'
《그럼 왕비님, 편지를 주십시오. 시간이 급합니다.》
왕비는 잉크와 종이, 펜이 놓여있는 탁자로 다가가서 두어줄 쓰자 자기 도장을 찍어서 보나씨에부인에게 주었다.
《내 정신 좀 보지.》 왕비가 말하였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걸 한가지 잊고있었군요.》
《뭔데요?》
《돈 말이예요.》
보나씨에부인은 얼굴이 빨갛게 되였다.
《하긴…》 시녀는 말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저의 주인은…》

《남편은 돈이 없어요? 그걸 말하자는거예요?》
《아닙니다. 그이는 돈이 있답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아껴서… 그게 제일 큰 탈이랍니다. 하지만 왕비님께서는 마음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방도를…》
《내게도 돈이 없으니 어쩌나.》 왕비가 말하였다. (모뜨빌부인의 회상기를 본 사람이라면 왕비의 이런 대답이 놀랍지 않을것이다.) 《어쨌든 좀 기다리세요.》
안느 도뜨리슈는 가서 보석함을 가지고왔다.
《이 반지를 받아요.》 왕비는 말하였다. 《아주 비싼거래요. 에스빠냐왕인 나의 오빠가 선물한거예요. 이건 나 혼자의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이걸 돈으로 만들어 남편에게 주어보내세요.》
《한시간이면 차비가 다될것입니다.》
《이게 주소예요.》 왕비는 겨우 가려들을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런던, 버킹함공작.》
《편지는 그분의 손에 가닿을것입니다.》
《참 기특하군요!》 왕비가 말하였다.
보나씨에부인은 왕비의 손에 입을 맞추고 편지를 코르세트속에 감추자 새처럼 가벼이 방에서 나갔다.
10분후 보나씨에부인은 집에 당도하였다. 그 녀자는 아까 왕비에게도 말했듯이 석방된 남편을 아직 만나보지 못하였으므로 주교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모르고있었다.
그후 석방된 보나씨에를 두세번 찾아다니는 과정에 어느새 막역한 친구로 되여버린 로슈포르백작이 거기에 특별히 큰 작용을 미쳤다는것도 물론 모르고있었다.
백작은 그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의 안해를 끌어간것을 그 어떤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고려에서 한 일이라는것으로 믿게 하는데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였다.
보나씨에부인이 갔을 때 집에는 남편이 혼자 집안을 정리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있었다. 가구들이 거의나 다 부서지고 장들은 텅 비여있었다. 솔로몬왕도 지나간 뒤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세가지속에 법은 넣지 않았다. 하녀는 주인이 잡혀가기 바쁘게 달아나버렸다. 처녀는 얼마나 혼이 났던지 빠리로부터 자기 고향인 부르고뉴까지 한달음

에 내려갔던것이다.

존경할만 한 잡화상은 집으로 돌아오자 즉시 자기가 석방되였다는 것을 처에게 알렸다. 처쪽에서는 천만다행이라고, 틈이 생기는대로 보러 오겠노라는 대답을 보내왔다.

그 틈이라는것을 기다리는데 닷새가 걸렸다. 여느때같으면 그 닷새가 10년맞잡이로 생각되였을것이지만 주교를 만나보고 로슈포르백작이 자주 찾아오는것으로 하여 그는 명상에 잠길 거리가 많이 생겼다. 그런데 명상에 잠겨있을 때에는 시간이 무척도 빨리 지나가는것이다.

게다가 보나씨에의 명상은 매우 달콤한 성격의것이였다. 로슈포르는 그를 친구, 친애하는 보나씨에라고 불러주면서 주교가 그를 얼마나 좋게 보는지 모른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추어대고있었다. 잡화상은 당장 눈앞에서 재부와 명예가 기다리고있는듯이 생각되였다.

보나씨에부인 역시 그사이 명상에 잠기는 일이 많았으나 그것은 립신출세와는 거리가 먼것이였다. 그의 생활은 언제나 저도 모르게 아름답고 용감하며 분명 정열적인 사랑에 빠진 그 청년에게로 쏠리는것이였다. 열여덟살에 보나씨에에게 시집을 와서 신분에 비해서는 훨씬 고상한 젊은 녀인에게서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킬 능력이 없는 남편의 친구들속에서 살아온 보나씨에부인은 주위사람들의 눅거리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에 귀족칭호는 평범한 시민들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인기가 높았다. 그런데 다르따냥은 귀족이였다. 그런 우에 그는 부인들이 총사대제복다음으로 높이 치는 근위대제복을 입고있었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는 아름답고 젊고 진취적이였다. 그가 사랑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이미 사랑에 깊이 빠졌거나 사랑을 쟁취하려는 갈망으로 가슴을 불태우는 사람같았다. 이것이면 스물다섯살나는 녀인의 넋을 빼앗기에 충분하였으며 보나씨에부인은 마침 스물다섯살 꽃나이였다.

그러다보니 두 내외는 옹근 한주일만에 만나면서도 (그 한주일동안에 그들은 중대한 사건들을 겪었었다.) 각기 자기의 생각만을 좇고있었다. 보나씨에씨는 그런대로 진정으로 반기면서 두팔을 벌리고 맞아주었다.

보나씨에부인은 입을 맞출수 있게 이마를 내대면서 말하였다.

《좀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긴데?》 보나씨에는 놀라서 물었다.

《아주 심중한 이야기예요.》 보나씨에부인은 꼭지를 떼였다.
《하긴 나도 당신에게 어지간히 심중한 문제 몇가지를 알아볼게 있소만…》 보나씨에가 그 녀자의 말허리를 꺾었다. 《우선 무슨 일로 당신이 끌려갔댔는지 그걸 좀 말해보오.》
《지금은 그런걸 이야기할 때가 못돼요.》보나씨에부인이 대답하였다.
《그럼 뭐요? 내가 갇혔던 이야기?》
《난 그 일을 그날로 알았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아무 죄도 지은것이 없지, 어떤 음모에 가담한것도 없으니까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댔어요.》
《그런 말이 쉽게도 나오는구려, 여보!》 처가 심상하게 말하는데 비위가 상한 보나씨에가 말하였다. 《그래 당신은 내가 옹근 하루동안 바스띠유감옥에 갇혀있은걸 알기나 하오?》
《하루쯤이야 잠간이지요. 당신이 갇혔던 이야기는 그만두고 내가 왜 집에 오게 되였는가 하는 이야기나 하자요.》
《당신이 왜 오게 되다니, 그건 무슨 소리요? 그럼 옹근 한주일동안 헤여져있은 남편을 보고싶어서 온게 아니란 말이요?》 밸이 뒤집힌 보나씨에가 물었다.
《물론 첫째로야 그거지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말해보구려!》
《이건 앞으로의 우리 운명을 결정할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보나씨에부인, 그사이 우리의 처지는 많이 달라졌고 이제 몇달후면 온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수도 있는거요.》
《그래요, 특히 당신이 내 부탁을 들어주기만 한다면…》
《내게 부탁을 한다구?》
《그래요, 당신에게요. 착하고 성스러운 일을 한가지 해줘야겠어요. 그 일만 해주면 돈을 듬뿍 벌수 있어요.》
보나씨에부인은 돈소리에는 남편이 오금을 못쓴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나 지어는 잡화상까지도 리슐리에주교가 10분간 만나고나면 판판 다른 사람이 되는것이였다.
《듬뿍 벌수 있다구?》 보나씨에는 아래입술을 삐죽이 내밀며 되물

었다.

《그래요.》

《대체로 얼마나?》

《아마 천뻬스똘쯤 되겠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맡기자는 그 일은 아주 중요한게지?》

《그래요.》

《그래 어떻게 해야 하오?》

《당신은 당장 길을 떠나야겠어요. 내가 편지를 드릴테니 단단히 간수해가지고가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전해주세요.》

《그래 어디로 간다는거요?》

《런던에요.》

《내가? 런던엘? 원, 롱담두! 난 런던에 아무 볼일도 없소.》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야 한단 말이예요.》

《그 다른 사람이라는건 누군데? 내 미리 말해두지만 이제부터 나는 무슨 일에 무턱대고 뛰여들지 않을 생각이요. 그러니까 무슨 일때문에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가 하는것뿐만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지 알아야겠단 말이요.》

《신분이 높은분이 당신을 보내는거예요. 다음 당신을 기다릴분도 신분이 높은분이구요. 보수는 상상도 못할 정도고요. 내가 약속할수 있는건 이게 다예요.》

《또 음모로군! 언제나 음모, 음모! 에익, 이젠 신물이 나오. 더는 속아넘지 않아. 주교님이 대주더란 말이요.》

《주교라니요?!》 보나씨에부인은 부르짖었다. 《주교를 만났댔어요?》

《만났댔지, 날 찾더군!》잡화상은 의기양양해서 말하였다.

《그래서 갔댔어요? 답답하군요.》

《솔직한 말로 난 갈것인가, 말것인가 잴 형편이 못되였던거요. 호송병들이 끌고갔단 말이요. 그리고 또 고백한다면 그때까지 난 주교의 사람됨을 몰라서 그랬지만 가지 않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생각했더랬지…》

《그는 당신과 무섭게 굴던가요, 을러메던가요?》

《그는 내게 손을 내밀면서 친구라고 불러주더란 말이요, 자기의 친구라고! 듣습니까, 부인? 난 그 거룩하신분의 친구란 말입니다!》

《거룩하신 주교라구요?》
《왜 그러오, 그렇게 불러선 안된다는거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건 아니예요. 하지만 재상이라는건 든든한 자리가 못되는것이고 미친 놈만이 그런 사람에게 가서 붙는거예요. 그보다 더 높고 세도가 당당한 권력도 있어요. 변덕이나 요행수에 매달리지 않는 권력 말이예요. 바로 그런 권력을 섬겨야 하는거예요.》
《유감스럽게도 부인, 저에게는 지금 제가 섬기고있는 거룩하신분의 권력외에 다른 권력은 없는걸요.》
《당신은 주교를 섬겨요?》
《그렇지요, 부인. 그리고 전 그분의 종으로서 당신이 국가의 안전을 해치려는 음모에 끼여들고 또 프랑스사람이 아니고 마음은 언제나 에스빠냐에만 가있는 어떤 녀자의 간계에 협력하는걸 내버려둘수 없단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나라에는 거룩하신 주교님이 계셔서 그분께서 날카로운 안광으로 모든것을 살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꿰뚫어보시지요.》
보나씨에는 로슈포르에게서 얻어들은 말들을 한마디한마디 그대로 되풀이하고있었다. 그는 그 말마디들을 머리속에 깊이 새겨두고 한번 멋들어지게 써먹을 기회만 노리고있었던것이다.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왕비앞에서 그를 담보까지 했던 가엾은 녀인은 직면한 위험과 막막한 생각으로 하여 공포에 질렸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약점 특히는 탐욕을 잘 알고있었던 그 녀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아유, 그러니까 당신은 주교의 패당이 되였군요!》 그 녀자는 부르짖었다. 《아이참, 그러니까 당신은 자기 녀편네를 괴롭히고 왕비님을 모해하는 인간을 받들어모시는군요!》
《어떤 개인의 리익이 만인의 리익앞에서 한낱 무엇이겠소. 나는 국가를 지켜내자고 애쓰는 사람들의 편이요.》 보나씨에는 장한듯이 말하였다.
이것 역시 로슈포르백작의 말인데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써먹은것이였다.
《그래 당신은 쩍하면 국가, 국가 하는데 도대체 국가라는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알기나 해요?》 보나씨에부인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물었다. 《괜히 딴꿈을 꾸지 말고 평범한 소시민답게 큼직한 돈뭉치를

약속하는 사람들편에 서는게 좋아요.》
《글쎄 뭐랄지?》 보나씨에는 옆에 놓여있는 불룩한 주머니를 툭툭 치면서 말꼬리를 끌었다. 주머니에서는 짤랑짤랑 은붙이소리가 났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교자선생님?》
《그 돈은 웬거예요?》
《짐작이 안 가시오?》
《주교가요?》
《그분하고 나의 친구 로슈포르백작이 준거요.》
《로슈포르백작이요? 날 잡아간게 바로 그놈이예요!》
《그럴수 있지.》
《그런데도 당신은 그놈의 돈을 받아요?》
《그것은 순전히 정치적고려때문이였다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진짜목적은 고문을 들이대서라도 나에게서 존귀하신 왕비님을 해칠수 있는 자료를 뽑아내자는것이였어요.》
《여보.》 보나씨에가 말하였다. 《당신의 존귀하신 왕비님은 신의가 없는 에스빠냐녀자요. 주교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단 말이요.》
《이봐요.》 젊은 녀인은 말하였다. 《난 당신이 겁쟁이고 욕심쟁이고 미련둥인줄은 알았지만 비렬한인줄은 미처 몰랐군요!》
《여보.》 자기 처가 이토록 성난것을 처음 보는 보나씨에는 기가 질려버렸다. 《여보, 그건 무슨 소리요?》
《당신은 비렬한 인간이라는거예요.》 보나씨에부인은 남편이 주눅이 든것을 보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군요? 그것도 주교와 한패가 돼서요? 그러니까 당신은 몸도 마음도 다 악마에게 팔아먹었군요. 그것도 돈을 받고요.》
《악마가 아니라 주교님에게지.》
《갈고갈은거예요!》 젊은 녀인은 부르짖었다. 《리슐리에소리를 외우는 사람은 악마소리를 외우는셈이예요.》
《조용하오. 여보, 제발 조용하오. 누가 듣겠소.》
《하긴 그 말도 비슷해요. 당신의 비겁성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건 내 망신이기도 하지요.》
《그래 당신이 요구하는건 뭐요?》
《내 벌써 말하지 않았나요. 내 요구라는건 지체없이 길을 떠나서

내가 맡기는 일을 책임적으로 해달라는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조건에서 난 모든걸 잊어버리고 당신을 용서해주겠어요.》

보나씨에는 겁쟁이에 욕심꾸러기였으나 자기 처는 사랑하였다. 그는 감동되였다.

쉰살 지난 남편은 스물다섯살나는 안해에게 오래 성을 내기 힘든것이다. 보나씨에부인은 남편이 동요하는것을 보았다.

《자, 어떡하겠어요? 결심했어요?》

《하지만 여보, 좀 생각해보구려. 당신이 요구하는게 뭐요? 런던은 빠리에서 아주 먼길이요. 그런데다 그 일이라는게 위험이 없지도 않거던.》

《조심하면 되지 않아요!》

《량해해주오, 여보.》 잡화상은 말하였다. 《량해해주구려. 난 절대로 못하겠소. 음모라면 난 소름이 끼치오. 난 이미 바스띠유감옥맛을 봤단 말이요. 어, 끔찍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오. 고문을 하겠다고 을러댔소! 그래 당신은 고문이 어떤건지 아오? 나무막대기를 두다리짬에 끼워넣고 뼈가 부스러질 때까지 비튼다오. 아서라, 죽어도 못하겠소! 난 못 가겠소. 그래 당신은 어째서 못 가는가 말이요? 지금까지 난 당신을 잘못 알고있었거던. 당신은 녀자가 아니라 남자요, 그것도 가장 담이 큰 남자. …》

《그대신 당신은… 당신은… 보잘것 없는 녀자예요. 좋아요. 할수 없지요. 난 왕비님의 이름으로 당장 당신을 체포하게 할테예요. 그러면야 당신이 그렇게도 무서워하는 바스띠유감옥에 들어가야 할걸요!》

보나씨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머리속에서 주교와 왕비 둘 가운데서 어느쪽이 더 큰 위험을 주는지 저울질해보았다. 주교의 분노가 훨씬 더 위험하였다.

《왕비의 이름으로 날 체포하게 한다구?》 드디여 그는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주교님이 있단 말이요.》

그제서야 보나씨에부인은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럭 겁이 났다. 당황한 눈으로 남편의 미욱스러운 얼굴을 들여다보니 그 얼굴에는 겁에 질린 바보의 단호한 결의가 나타나있었다.

《좋아요.》 그 녀자는 말하였다. 《어쩌면 당신 말이 옳을수도 있어요. 정치물계에는 남자들이 더 밝으니까요. 특히 당신은 주교를 만

나보았다니까요. 그렇지만 나로서 섭섭한건》 그 녀자는 덧붙였다. 《내가 그렇게도 기대를 걸었던 남편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줄 알았던 사람이 나의 변덕을 받아주지 않는 그거예요.》

《당신의 변덕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거요.》 보나씨에는 보호자연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래서 난 그게 무섭소.》

《단념하는 수밖에 없군요.》젊은 녀인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렇게 하자요. 이 이야기는 더 하지 말자요.》

《내가 런던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걸 당신이 좀 자세히 말해준다면 혹시…》

잠시 말이 없던 보나씨에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든 처의 비밀을 알아내라던 로슈포르의 명령이 때늦게야 생각났던것이다.

《당신은 그런걸 알 필요가 없어요.》 젊은 녀인은 께름한 생각이 들어 대답하였다. 《그저 녀자들이 가끔 가지고싶어하는 시시한 물건, 노리개들을 사오는 일이였어요, 톡톡히 벌수 있다기에. …》

그러나 젊은 녀인이 진속을 감추면 감출수록 보나씨에는 처가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있다고 더욱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로슈포르백작에게 달려가서 왕비가 런던으로 보낼 사자를 구하고있다는것을 알리기로 결심하였다.

《안됐소만 여보, 난 좀 나가봐야겠소.》그는 말하였다. 《당신이 오늘 올줄은 모르고 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던거요. 오래 걸리진 않을테니 만일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내 잠간 만나보고와서 당신을 궁전까지 바래줄테요. 날이 벌써 어두워지니 말이요.》

《고맙긴 하지만》 보나씨에부인이 대답하였다.《당신은 내게 도움을 주기에는 담이 좀 모자라요. 난 혼자서도 궁전으로 갈수 있어요.》

《좋도록 하구려.》 전 잡화상은 말하였다. 《당신을 인차 볼수 있을가?》

《아마 다음주에는 시간을 좀 받을수 있을거예요. 그때 와서 물건들을 정리해야겠어요. 집안꼴이 한심하군요.》

《좋소. 내 기다리겠소. 내가 노엽지 않소?》

《아니, 조금치도…》

《그럼 잘 가오.》

보나씨에는 안해의 입을 맞추고 서둘러 떠나갔다.

《아이, 기가 막혀.》남편이 나간 뒤로 문이 닫기고 혼자가 되자 보

나씨에부인은 혼자소리로 말하였다. 《저 등신이 주교의 패당이 되였구나. 그런것도 모르고 난 왕비님앞에 장담을 했지. 가엾은 왕비님에게 약속을 했지. 아, 어쩌면 좋아! 그이께서는 나를 궁전안에 득실거리는 렴탐군들중의 하나로 아시겠지. 아! 보나씨에! 난 여태껏 당신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이젠 그나마도 없어요. 난 당신을 증오해요. 그리고 당신과 꼭 셈을 할테니 두고보세요!》

바로 그때 천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 녀자는 머리를 들었다.

《보나씨에부인.》 천정을 뚫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층계로 통하는 작은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내려가렵니다.》

제 18 장

련인과 남편

《부인.》 다르따냥이 젊은 녀인이 열어주는 문안으로 들어서면서 말하였다. 《실례지만 당신의 남편은 가련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이야기를 엿들었군요?》 불안한 눈으로 다르따냥을 쳐다보면서 보나씨에부인이 물었다.

《죄다 들었지요.》

《도대체 어떻게요?》

《예, 당신과 주교의 밀정들이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듣던 때와 같은 방법으로 들었지요.》

《그래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뭘 알게 되였어요?》

《많은걸 알게 되였지요. 첫째로 당신의 남편은 다행히도 어리석고 미욱하다는것, 다음은 당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것, 그래서 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건 내가 당신을 도와줄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때문이지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불속에도 뛰여들 사람이라는건 하느님도 알고계시는 일이지요. 끝으로 왕비님께서 런던으로 편지를 주어보낼만 한 용감하고 총명하고 충실한 사람이 필요하

다는거지요. 내가 바로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시를 주십시오.》

보나씨에부인은 인차 대답하지는 않았으나 그 녀자의 심장은 기쁨으로 높뛰고 눈은 희망으로 불탔다.

《그럼 당신에게 그 일을 믿고 맡길만 한 담보는 무엇이예요?》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이지요. 자, 어서 말씀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야단이군요.》 부인은 속살거렸다. 《그 중요한 비밀을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맡기겠어요, 아직 어린애나 다름없는 당신에게!》

《보아하니 나를 보증할 사람이 필요한것 같군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만 해주면 난 한결 마음이 놓일거예요.》

《아또스를 아십니까?》

《몰라요.》

《뽀르또스는요?》

《몰라요.》

《아라미스는?》

《몰라요. 그분들은 모두 누구예요?》

《전하의 총사들입니다. 그들의 대장을 아십니까, 뜨레빌각하 말입니다.》

《아, 알구말구요! 그분이야 알지요. 직접 만나본적은 없지만 들어서 알아요. 왕비님께서 그분을 고상하고 정직한분이라고 한두번만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요.》

《설마 그분이 주교를 위해서 당신을 배반하리라고 생각하지야 않겠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가서 그 비밀을 죄다 말씀드리고 그렇게도 중요한 위험한 일을 나에게 맡겨도 일없겠는지 좀 물어보십시오.》

《하지만 그건 나의 비밀이 아니니 그분께도 말씀드릴 권리가 내겐 없는걸요.》

《아깐 보나씨에씨에게 대줄 차비였던것 같은데요!》 다르따냥이 원망스럽게 말하였다.

《그거야 구새통이나 비둘기날개, 개목사리에다 편지를 내맡기는것과 같은 격이였지요.》

《그렇지만 당신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로는 그렇지만…》
《나는 성실한 인간입니다.》
《나도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용감하지요.》
《옳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보십시오!》
보나씨에부인은 역시 미심쩍은 눈으로 청년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청년의 눈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고 목소리는 얼마나 설득력있게 울렸던지 그 녀자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다른 출로도 없었다. 모험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나친 조심성은 지나친 믿음과 마찬가지로 왕비에게는 위험하였다. 그리고 또 그 녀자가 이 청년에 대하여 품고있는 감정의 꼬드김도 있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여보세요.》 그 녀자는 말하였다. 《당신의 완강한 요구에는 나도 지는 수밖에 없군요. 당신을 믿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죄다 듣고계시는 하느님앞에 맹세하지만 만일 당신이 이 믿음을 저버린다면 설혹 원쑤들이 나를 용서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저주하면서 자살하고말테니 그리 아세요!》
《그렇다면 나도 맹세하지요.》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당신이 맡겨준 일을 하다가 적들에게 붙잡히게 된다면 나는 그 누구에게 화가 미칠짓을 하기 전에 죽어버리고말겠습니다.》
마침내 젊은 녀인은 사마리아조각상 맞은켠 다리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하여 그 일부가 알려진 중대한 비밀을 털어놓았다.
이것은 결국 두사람의 사랑의 고백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그럼 떠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요!》
《아니, 그렇게 급히요?》 보나씨에부인은 부르짖었다. 《부대랑, 부대장님은 어떡하구요?》
《이 정신 보지. 당신때문에 죄다 까맣게 잊을번 했군요. 옳습니다. 말미를 받아야 하는걸 그만…》
《어쩌나?》 보나씨에부인은 안타까이 소곤거렸다.
《념려마십시오.》 잠시 생각던 끝에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인차

해결할테니까요.》

《어떻게요?》

《내 오늘 저녁으로 뜨레빌각하를 찾아가서 그분의 매부인 데제싸르각하에게 잘 말씀드려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무엇인가요?》 보나씨에부인이 말끝을 흐리는것을 보고 다르따냥이 물었다.

《당신은 혹시 돈이 없지 않아요?》

《혹시라는건 필요없는 말입니다.》 다르따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다.

《없다면》 보나씨에부인은 장을 열고 돈주머니를 꺼내면서 말하였다. 보나씨에가 30분전에 애무하듯이 어루쓸던 그것이였다. 《이걸 받으세요.》

《주교의 돈주머닐!》 다르따냥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알고있는것처럼 널장을 뜯어낸 마루바닥덕분에 그들 내외간에 있은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조리 다 들었던것이다.

《그래요. 주교의 돈주머니예요.》 보나씨에부인은 긍정하였다. 《걸만 보아도 군침이 돌지요.》

《좋구만요!》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이건 두갑절로 재미있는걸요. 주교의 돈덕택으로 왕비님을 구원하게 되니 말입니다.》

《당신은 참말 훌륭한분이예요.》 보나씨에부인이 말하였다. 《왕비님께서는 이 일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거예요.》

《뭘요. 난 이미 값을 다 받은걸요!》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행복을 꿈이나 꿀수 있었습니까!》

《쉿!》 문득 보나씨에부인이 와뜰 하며 속삭였다.

《왜 그럽니까?》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요. …》

《말소리요?》

《우리 주인같아요. 나야 들으면 알지요.》

다르따냥은 달려가서 문에 빗장을 질렀다.

《내가 나가기 전에 들어오면 안됩니다. 내가 나간 다음에 열어주십시오.》

《나도 가야 해요. 더구나 여기 그냥 있게 되면 돈이 없어진 까닭을 뭐라고 둘러대겠어요?》
《하긴 그렇군요. 여길 떠나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떠나가는가 하는거예요? 우리가 나가는걸 그 사람이 볼텐데요.》
《그렇다면 내 방으로 올라가야지요.》
《아유!》 보나씨에부인은 부르짖었다. 《당신의 그 말투에 난 더럭 겁이…》
보나씨에부인은 눈물이 글썽해졌다. 다르따냥은 그 눈물에 감동되고 당황하여 그 녀자의 발밑에 꿇어엎드렸다.
《내 방에 올라가면 당신은 성당에 있는것처럼 안심할수 있습니다. 난 귀족으로서 담보합니다.》
《그럼 가자요.》 그 녀자는 말하였다. 《난 당신만 믿겠어요.》
다르따냥이 조심스럽게 빗장을 벗기였다. 두사람은 그림자처럼 살그머니 빠져나가 층계를 올라 다르따냥의 방으로 들어갔다.
자기 방에 들어서자 다르따냥은 보다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문에 다른 물건들을 지질러놓았다. 그런 다음 창문으로 다가간 두사람은 만또를 휘감은 낯모를 사람과 이야기하는 보나씨에를 보았다.
만또입은 사람을 보자 다르따냥은 칼을 뽑아들고 문께로 내달았다.
멍에서 만났던 그 사나이였다.
《당신은 어쩌자는거예요?》 보나씨에부인이 소리쳤다. 《그러다가 큰일나요!》
《하지만 난 저놈을 죽여버리기로 맹세했는걸요!》 다르따냥이 부르짖었다.
《당신의 생명은 지금 그 일에 바쳐진것이지 당신의것이 아니예요. 왕비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에게 맡겨진 그 일과 아무 관계도 없는 위험속에 뛰여드는걸 엄금해요!》
《그럼 당신의 이름으로 나에게 분부하실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의 이름으로…》 보나씨에부인은 격동되여 말하였다. 《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싶은것도 그것이예요! 가만, 좀 들어보자요. 저 사람들이 내 말을 하는것 같아요.》
다르따냥은 창문으로 다가가 귀를 강구었다.

마침 보나씨에가 이미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집이 텅 빈것을 보고 밖에서 기다리고있는 만또입은 사나이에게 되돌아왔을 때였다.

《그 사람이 없구만요.》 보나씨에가 말하였다. 《아마 루브르궁전으로 돌아갔겠지요.》

《그 녀자는》 만또입은 사나이가 물었다. 《당신이 집을 나온 까닭을 알아차린게 아니요?》

《원, 무슨 말씀을…》 보나씨에가 자신만만하게 말하였다. 《그런걸 알아차리기엔 너무도 생각이 많은 사람인걸요.》

《젊은 근위병은 집에 있소?》

《있는것 같지 않군요. 덧창이 닫겨있고 불빛 하나 새여나오는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간에 확인해보는게 좋지.》

《어떻게요?》

《그 방 나들문을 두드려보오.》

《내 그 사람의 하인한테 가서 물어보리다.》

《그렇게 하오.》

보나씨에는 현관문으로 들어가 방금전에 다르따냥과 보나씨에부인이 빠져나간 문을 지나 올라가서 다르따냥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무 응대도 없다. 쁠랑쉐는 뽀르또스가 그날 저녁 허세를 부리려고 데려갔고 다르따냥은 일체 기척을 내지 않았던것이다.

보나씨에가 문을 쾅쾅 두드려댈 때 젊은 두 남녀는 가슴이 활랑활랑하였다.

《아무도 없군요.》 보나씨에가 말하였다.

《아무튼 당신네 집에 들어가야 하겠소. 길바닥보다는 거기가 안전할테니까.》

《어쩌나!》 보나씨에부인이 부르짖었다. 《이젠 아무것도 못 듣겠군요.》

《정반대지요.》 다르따냥이 그 녀자를 안심시켰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잘 들을수 있습니다.》

다르따냥은 방바닥의 널장을 몇장 들어내여 구멍을 내고 방바닥에 모포를 깐 다음 무릎을 꿇고앉아 거기에 귀를 가져다대면서 보나씨에부인더러 자기처럼 하라고 신호를 하였다.

《당신은 집에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오?》 그 사나이가 물었다.

《장담합니다.》 보나씨에가 대답하였다.
《그리고 당신의 처는…》
《궁전으로 돌아갔지요.》
《아무와도 만나지 않고?》
《틀림없습니다.》
《그걸 정확히 아는게 매우 중요하거던. 알겠소?》
《그런즉 내가 알려준 정보는 아주 가치가 있다 그 소리겠군요?》
《가치가 대단하지. 당신에게 뭘 숨기겠소, 친애하는 나의 보나씨에.》
《그럼 주교님께서 나에 대해 만족하실가요?》
《아무렴.》
《아, 거룩하신 주교님!》
《당신의 처가 아까 이야기할 때 아무 사람의 이름이나 말한게 없는지 생각나는게 없소?》
《없었던것 같습니다.》
《쉐브레즈부인이라든가 버킹함공작이라든가 배르네부인이라든가 하는 이름들을 말한적이 없었소?》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아주 높은 어른을 도와주기 위해서 날 런던에 보낼 생각이라고만 했을뿐입니다.》
《배신자!》 보나씨에부인이 소곤거렸다.
《쉿.》 다르따냥이 그 녀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다. 그러나 그 녀자는 생각에 잠겨 손을 뽑지 않았다.
《이러나저러나》 만또입은 사나이가 말하였다. 《당신은 바보요. 왜 응하는체 하지 않았는가 말이요. 그 편지가 지금 당신 손에 들어와있다면 국가는 위험을 면하게 되는건데 당신은 참…》
《그럼 나는요?》
《당신은… 귀족의 칭호를 받을테지.》
《그분이 말씀하시던가요?》
《그야 내가 알지. 그분께서는 눈이 휘딱 뒤집힐 그런 기쁨을 당신에게 안겨주실 모양이더군.》
《마음놓으시오.》 보나씨에가 말하였다. 《그 사람은 나밖에 모르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멍텅구리!》 보나씨에부인이 소곤거렸다.
《쉿!》 다르따냥이 그 녀자의 손을 더 힘있게 그러쥐며 말하였다.
《늦지 않았다는건?》 만또입은 사나이가 물었다.
《내가 궁전으로 가서 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생각을 고쳐먹었노라면서 시키는대로 하겠다고 하지요. 그래서 편지를 받아쥐면 제꺽 주교님께로 달려간단 말입니다.》
《좋소. 서두르시오. 내 인차 다시 와서 무슨 소득이 있는지 알아보겠소.》 만또입은 사나이는 나갔다.
《너절한 놈.》 보나씨에부인이 말하였다.
《조용!》 다르따냥이 그 녀자의 손을 더욱 꼭 그러쥐며 말하였다.
바로 이때 무서운 고함소리가 울려 다르따냥과 보나씨에부인의 사색을 중단시켰다. 보나씨에가 돈주머니가 없어진것을 알고 도적이 들었다고 고아대는 소리였다.
《저런! 온 동네를 들었다놓겠군요!》 보나씨에부인이 부르짖었다.
보나씨에는 한참을 그렇게 고아댔다. 하지만 그러루한 고함소리는 포쏘아여르거리에서 자주 울리는데다가 잡화상의 집은 얼마전부터 평이 나빴으므로 얼굴을 내미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보나씨에는 누구 하나 내다보지 않는것을 보자 계속 고함을 치면서 밖으로 뛰여나갔다. 듀바끄거리쪽으로 멀어져가는 그의 고함소리가 오래도록 들려왔다.
《자.》 보나씨에부인이 말하였다. 《저 사람이 갔으니 이젠 우리 차례예요. 가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왕비님을 위한 일이라는걸 명심하세요.》
《왕비님과 당신을 위해서!》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걱정마시오. 아름다운 꽁스땅스, 내가 돌아올 때 왕비님의 치하는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신의 사랑도 기대할수 있겠는지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부인은 량볼을 가볍게 붉힐뿐이였다. 몇분후 다르따냥은 집을 나섰다. 보나씨에부인은 남자의 사랑을 받는 녀자들에게서 볼수 있는 그런 정찬 눈으로 그를 점도록 바래웠다. 그러나 그가 길모퉁이뒤로 사라지자 그 녀자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 하느님!》 그 녀자는 두손을 마주잡고 속살거렸다. 《왕비님을 지켜주소서, 저를 지켜주소서!》

제 19 장

작전계획

다르따냥은 먼저 뜨레빌을 찾아갔다. 이제 몇분후면 주교는 그 저주로운 만또입은 사나이를 통하여 모든것을 죄다 알게 될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한시도 지체할수 없다고 생각한것은 근거없는 일이 아니였다.

다르따냥의 가슴은 기쁨으로 설레였다. 명예와 돈을 한꺼번에 얻을수 있는 기회와 맞다든것이였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것으로 하여 자기가 숭배하는 녀자에게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수 있게 된것이였다. 그야말로 호박이 넝쿨채로 떨어진셈이였다.

뜨레빌은 늘 찾아오는 귀족들과 함께 객실에 앉아있었다. 다르따냥은 이 집에서 누구나가 다 알고있었으므로 곧장 서재로 들어가 하인을 만나서 긴히 만날 일이 있다고 주인에게 전해줄것을 부탁하였다.

5분도 채 못되여 뜨레빌이 들어왔다. 희색이 만면한 젊은이를 보고 뜨레빌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생겼음을 대뜸 알아차렸다.

다르따냥은 오는 도중 내내 뜨레빌에게 죄다 털어놓을것인가 아니면 그저 말 못할 중요한 일이 있으니 시간을 받게 도와달라고 부탁할것인가 하는것을 줄곧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뜨레빌은 언제나 그를 잘 대해주었을뿐아니라 왕과 왕비에게 더없이 충실하고 주교를 증오하였으므로 그는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기로 결심하였다.

《날 만날 일이 있다지?》 뜨레빌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각하.》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아시게 된다면 저의 이런 무례한 행동을 용서하시게 될것입니다.》

《말해보게, 들어보자구.》

《그것은》 다르따냥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왕비님의 명예 아니, 왕비님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뭐라구?》 뜨레빌은 이렇게 부르짖고는 누가 듣는 사람이라도 없는가 하여 주위를 둘러보고나서 물음이 실린 눈길을 청년에게 박았다.

《각하, 뭐냐하면.》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제가 한가지 비밀을 알게 되였는데…》

《군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지켜낼 그런 비밀이겠지.》

《하지만 저는 각하께 사실그대로 말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각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제가 왕비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해낼수 없기때문입니다.》

《그건 군의 비밀인가?》

《아닙니다. 각하, 왕비님의 비밀입니다.》

《왕비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말해도 일없다고 하시던가?》

《아닙니다. 각하, 그 반대입니다.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말하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것처럼 저는 각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때문입니다. 만일 리유를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각하께서 제가 부탁하는 일을 거절하시지 않겠는지 두려웠던것입니다.》

《그 비밀은 군 혼자 알고있고 어서 말하게.》

《데제싸르각하에게 말씀드려서 제가 두주일동안 말미를 받을수 있게 해달라는겁니다.》

《언제?》

《오늘 밤부터입니다.》

《빠리를 떠나는가?》

《심부름을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해줄수 있겠나?》

《런던으로 갑니다.》

《그 일에 방해를 놓자고 할 사람이 있는가?》

《제 생각엔 주교님은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 혼자 가는가?》

《저 혼자 갑니다.》

《그렇다면 군은 봉디에서 더 가지 못하네. 이건 뜨레빌이 하는 말이야!》

《어째섭니까?》

《군에게 자객을 붙일테니까.》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죽으면 의무를 다하지 못하지.》

《그건 그렇습니다.》

《이것 보라구.》 뜨레빌은 계속하였다. 《그런 일에는 보통 한사람의 성공을 바라고 네사람을 띄운다네.》

《옳습니다, 각하.》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그러고보니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아또스, 뽀르또스, 아라미스가 함께 가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나도 알려고 하지 않는 비밀을 말해주지 않고도?》

《우리는 서로서로 무조건적으로 믿고 변치 않는 헌신성을 간직하기로 굳게 맹세한 사이입니다. 거기에다 또 각하께서 저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그들에게 말씀해주시면 그들도 다른 말이 없을것입니다.》

《난 그 사람들에게 각각 두주일씩 휴가를 줄테네. 아또스는 아직 상처가 낫지 않아서 포르쥬온천에 료양을 가야 하고 뽀르또스와 아라미스는 상처가 심한 친구를 혼자 보낼수 없어 같이 간다고 둘러대면 되지. 휴가를 주면 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것으로 되거던.》

《각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체말고 그 사람들을 찾아보게. 오늘 밤중으로 떠나야 하네. … 자, 그럼 데제싸르씨앞으로 휴가신청서를 쓰게. 어쩌면 밀정이 군의 뒤를 바싹 따르고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는 군이 여기 온것이 이미 주교에게 알려졌을게거던. 휴가신청서가 있으면 군이 여기에 왔다간것이 정당화될수 있지.》

다르따냥은 신청서를 썼다. 그것을 받아쥐자 뜨레빌은 새벽 2시전으로 신청서들을 각자의 집에 보내주마고 약속하였다.

《수고스러운대로 저의것은 아또스의 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집에서 무슨 불쾌한 일이라도 기다리고있지 않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념려말게. 잘 다녀오게. … 가만, 잠간만!》 뜨레빌이 그를 소리쳐 불러세웠다.

다르따냥은 돌아섰다.

《돈은 있나?》

다르따냥은 돈주머니가 들어있는 호주머니를 손가락으로 툭툭 쳐보였다.

《그것이면 되겠나?》 뜨레빌이 물었다.

《300삐스똘입니다.》

《좋아, 그 돈이면 세상끝이라도 가겠네. 그럼 가보라구.》 뜨레빌은 손을 내밀었다. 다르따냥은 감사의 정에 넘쳐 정중히 그 손을 잡았다. 빠리에 온 그날부터 고결하고 진실하고 대범한 이 훌륭한 인간에게 감복하여마지않던 그였다.

다르따냥은 먼저 아라미스의 집에 갔다. 그는 보나씨에부인을 뒤따랐던 그날 저녁이후로 한번도 친구를 찾아보지 못했다. 그런데다가 요즘 그는 젊은 총사를 드물게 만나군 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친구의 얼굴에는 애수의 그늘이 비껴있었던것이다.

그날 저녁도 아라미스는 어두운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자지 않고있었다. 다르따냥이 무슨 일로 그렇게 수심에 잠겼는가고 물었더니 아라미스는 다음주까지 성자 오귀스땡의 제18장에 대한 주해를 라틴어로 쓸 일이 걱정돼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두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하여 얼마 안되였을 때 뜨레빌의 하인이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타났다.

《이건 뭔가?》 총사가 물었다.

《당신께서 부탁하신 휴가신청서입니다.》 하인이 대답하였다.

《난 애당초 휴가를 신청한 일이 없는데!》 아라미스가 대꾸하였다.

《잔말말고 받으시오.》 다르따냥이 소곤거렸다. 《그리고 이건 자네가 수고한 값이네, 반삐스똘일세.》 그는 하인을 돌아다보며 말하였다. 《뜨레빌각하께 아라미스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더라고 말씀드려주게.》

하인은 이마가 땅에 닿게 허리를 굽석하고 물러갔다.

《이건 어떻게 된건가?》 아라미스가 물었다.

《두주일동안 려행할 차비를 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나 난 지금 빠리를 뜰수 없네. 꼭 알아야 할 일이…》

아라미스는 중둥무이하였다.

《그 녀자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것이겠지요?》 다르따냥이 넘겨짚었다.

《그 녀자라는건?》 아라미스가 물었다.

《여기 왔던 그 녀자, 수놓은 손수건을 가지고있던 그 녀자 말입니다.》

《그 녀자가 여기 왔댔다는건 누가 말하던가?》 아라미스가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여 부르짖었다.

《내가 봤지요.》

《그래 누구라는걸 안단 말인가?》

《비슷이 짐작은 하지요.》

《이것 보라구.》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이렇게 모르는것이 없는 군이니까 혹시 그 녀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나?》

《뚜르에 돌아갔을줄로 아는데요.》

《뚜르에?… 그러니 군은 정말 그 녀자를 아는것 같군. … 그런데 그 녀자가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가다니 참 모를 일인걸.》

《붙잡힐가봐 그랬겠지요.》

《그렇지만 편지야 쓸수 있지 않나 말이야.》

《당신에게 루가 미칠가봐 안 썼겠지요.》

《다르따냥! 군은 날 살려줬네!》 아라미스는 부르짖었다. 《난 그저 경멸당하고 기만당했다고만 생각했거던. 난 그 녀자를 다시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댔는지 모르네. 그렇지만 그 녀자가 나 한사람때문에 그런 모험을 했다고는 도무지 믿어지질 않거던. 그 녀자가 빠리로 돌아온 목적이 뭐겠는가 말일세.》

《우리가 오늘 영국으로 떠나는것과 같은 목적이지요.》

《그 목적이라는게 뭔가?》 아라미스가 물었다.

《아라미스씨, 그건 아무때건 차차 알게 될겁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신학자의 조카딸로 알고 필요없는 말은 하지 않으렵니다.》 아라미스는 언젠가 친구들에게 꾸며댔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히죽이 웃었다.

《좋네. 그 사람이 빠리를 떠나갔고 군이 그것이 틀림없다고 확인하는 이상 날 여기에 붙들어둘 리유는 아무것도 없네. 군과 같이 갈테네. 군은 아까 같이 가자고 했지?》

《우선 아또스의 집으로 갑시다.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겠다고 나섰으니 말이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우린 많은 시간을 빼앗겼거던요. 바쟁도 차비를 시키시오.》

《바쟁도 같이 가나?》

《갈수 있지요. 어쨌든간에 바쟁이 같이 가서 손해될건 없습니다.》
아라미스는 바쟁을 불러서 아또스의 집으로 뒤따라오라고 일렀다.
《그럼 가보세.》 아라미스는 만또와 칼을 집어들고 허리춤에는 권총 세자루를 찔러넣으면서 말하였다.
혹시 우연히 흘린 돈 몇잎이라도 있지 않을가 하여 여기저기 빼람을 뒤져보았다.
그러나 공연한짓이라는것을 깨닫고 다르따냥을 뒤따라 문께로 향하였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 젊은 근위병이 그 녀자가 자기 집에 왔던 일은 어떻게 알고있으며 그 녀자의 행처를 자기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것인가 하고 괴이쩍게 생각하였다.
문을 나설 때 아라미스는 다르따냥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하였다.
《군은 그 녀자 이야길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겠지?》
《무슨 소릴!》
《아또스나 뽀르또스에게도?》
《한마디도.》
《잘했네.》
그 말에 마음을 놓은 아라미스는 다르따냥과 나란히 걸음을 다우쳤다. 그들은 얼마후 아또스네 집에 이르렀다.
그들이 갔을 때 아또스는 한손에는 휴가신청서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뜨레빌의 편지를 쥐고있었다.
《이 휴가신청서와 방금 받은 이 편지는 어찌된것인지 말해줄수 있겠나?》 아또스는 의아쩍게 물었다.
《친애하는 나의 아또스. 군의 건강상태가 요구한다니 두주일간 휴식을 주는데 반대가 없네. 포르쥬온천이든 어디든 군 좋을데로 가게. 하루속히 추서기를 바라네. 군을 끝없이 아끼는 뜨레빌.》
《이 편지와 휴가신청서는 아또스, 나와 같이 가라는걸 의미합니다.》
《포르쥬온천엘?》
《거기건 어디 다른데건.》
《전하를 위해서?》
《전하와 왕비님을 위해서. 그래 우리는 두분의 노복이 아니란 말인가요?》

바로 그때 뽀르또스가 나타났다.

《별일 다 보누만!》 그는 들어서면서 부르짖었다. 《총사들에게 청하지도 않는 휴가를 주는 법은 언제부터 생겨났나?》

《친구들이 대신해서 청해주기 시작한 그때부터지.》

《그렇단 말이지. …》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여기엔 무슨 곡절이 있어.》

《그렇다네. 우린 길을 떠나야 하네.》 아라미스가 대답하였다.

《어디로?》 뽀르또스가 물었다.

《정확한건 몰라.》 아또스가 대답하였다. 《다르따냥한테 물어보게나.》

《여러분, 우린 런던으로 갑니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런던으로!》 뽀르또스가 부르짖었다. 《런던에 가서 우린 뭘한다는건가?》

《난 그걸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그저 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런던에 가자면 돈이 있어야 할게 아닌가.》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그런데 내겐 돈이 없네.》

《나도 없어.》

《나도.》

《돈은 내게 있습니다.》 다르따냥이 호주머니에서 불룩한 돈주머니를 꺼내여 탁자우에 던지면서 말하였다. 《300삐스똘이 들어있습니다. 한사람이 75삐스똘씩 가집시다. 그거면 런던까지 가고오는데 충분할겁니다. 그러나 안심들 하시오. 런던까지 넷이 다 가내진 못할테니까요.》

《그건 어째서?》

《보나마나 더러는 도중에 떨어지게 될테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전쟁인가?》

《전쟁도 아주 위험한 전쟁이지요. 내 미리 말해둡니다.》

《제길!》 뽀르또스가 부르짖었다. 《그렇지만 난 죽을걸 각오하는 일이라면 하다못해 무엇때문인가 하는것만이라도 알고싶네.》

《그걸 안다고 마음이 가벼워질것 같은가?》 아또스가 말하였다.

《솔직히 말하는데》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나도 뽀르또스와 동감이네.》

《그럼 전하께서 당신들에게 언제한번 설명을 하시던가요? 그이께서는 보통 말씀하시지요. 〈제군, 가스꼰뉴에서 또는 플랑드르에서 전쟁이다. 가서 싸우라.〉 그러면 당신들은 전장으로 달려갔지요. 뭣때문인가구요? 당신들답지 않구만.》

《다르따냥의 말이 옳아.》 아또스가 말하였다. 《자, 뜨레빌각하가 보내온 우리 세사람의 휴가신청서가 있고 누군지 모를 사람이 준 300삐스똘이 있네. 가라는데로 죽으러 가세. 목숨이 무슨 그리도 대단한거라고 꼬치꼬치 캐여묻겠나. 다르따냥, 난 군하고 같이 가겠네.》

《나도!》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나도!》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게다가 난 빠리를 뜨는게 좋아. 바람을 좀 쏘일 필요가 있다네.》

《여러분, 바람을 실컷 쏘일수 있을테니 걱정들 마시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좋구만. 그래 언제 떠나자나?》 아또스가 물었다.

《지금 당장》 다르따냥이 대답하였다. 《시간이 급합니다.》

《여 그리모, 쁠랑쉐, 무슈끄똥, 바쟁!》 네사람은 자기 하인들을 불렀다.

《장화를 닦고 대장각하의 저택에 가서 말을 끌어오라구.》

당시 총사들은 자기의 말이건 하인의 말이건 모두 대장의 저택에 매여두고있었다. 쁠랑쉐와 그리모, 무슈끄똥, 바쟁은 달려나갔다.

《그럼 이젠》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작전계획을 짜보세. 우린 먼저 어디로 가나?》

《깔래랍니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그게 런던까지 제일 질러가는 길일거요.》

《그렇다면 내 생각은…》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말해보게.》

《넷이 함께 가면 의심을 살수 있네. 해당한 지시는 다르따냥이 줄것이고 내 생각은 이렇네. 난 먼저 불로니쪽으로 나가면서 길을 살피고 아또스는 두시간후에 아미앵쪽으로 그리고 아라미스는 좀 떨어져서 노아용쪽으로 간단 말이네. 다르따냥, 군은 쁠랑쉐와 옷을 바꿔입고 아무 길이든 마음드는쪽으로 가고 다르따냥인것처럼 근위대제복을 입은 쁠랑쉐는 좀 떨어져서 우리뒤를 따라간다는거네.》

《여보게들》 아또스가 말하였다. 《이런 일에 하인들을 끌어들이

지 않는게 옳다고 보네. 귀족은 우연히 비밀을 드러낼수 있지만 하인들은 거의 언제나 비밀을 팔아먹는다네.》

《뽀르또스의 작전안은 현실성이 없을것 같군요.》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우선 나자신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시를 주어야 할지 모르는판이거던요. 나는 편지를 가지고 간다. 내가 아는건 이게 전부랍니다. 편지를 세통 복사할수도 없구요. 봉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모두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편지는 여기 이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그는 편지가 들어있는 호주머니를 가리켜보였다. 《만일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가운데서 누구 한사람이 편지를 꺼내가지고 계속 전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넘겨받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한사람이라도 가내기만 하면 되는겁니다. 그러면 다지요.》

《과연 옳네, 다르따냥! 내 생각도 군과 꼭같네.》 아또스가 말하였다. 《그런데 명심할게 있네. 다른게 아니고 난 온천에 료양을 가는 사람이고 자네들은 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거네. 그런데 난 온천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해수욕을 하러 가네.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일이거던. 누가 단속을 하면 난 뜨레빌각하의 편지를 내보이고 자네들은 휴가신청서를 내보이네. 놈들이 달려들면 방어를 하지. 재판정에 끌고가면 한번 바다물에 뛰여들고싶었을뿐이라고 딱 잡아떼야 하네. 네사람이 따로따로 가면 간단히 잡히지만 함께 가면 당당한 한개 부대지. 우린 하인들 넷을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시키세. 놈들이 한개 부대를 내몰면 우린 싸운단 말이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다르따냥이 말한것처럼 편지를 가지고 가야지.》

《좋아.》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아또스, 자넨 좀해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일단 입을 열면 성자 쟝 못지 않거던. 난 아또스의 안에 찬성이네. 자넨, 뽀르또스?》

《다르따냥만 찬성이라면》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나도 찬성이네. 편지를 맡은건 다르따냥이니까 우리들의 대장인셈이거던. 결심은 그가 할 일이고 우린 그의 지시를 따르면 되는거지.》

《알겠습니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난 결심했습니다. 아또스씨의 작전안대로 하기로 하고 반시간후엔 떠납시다.》

《그렇게 하세.》 세 총사가 입을 모아 호응하였다.

그다음 각자는 돈주머니에서 75삐스똘씩 받아가지고 반시간후에 떠나갈 차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제 20 장

려 행

새벽 2시에 우리의 네 모험가는 쌩－데니문으로 해서 빠리를 떠났다. 어둠속을 가는 동안 그들은 말이 없었다. 어디에 복병이 있지 않을가 두려웠던것이다.

그러나 날이 희붐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말문이 열리고 해살이 퍼지기 시작하자 여느때의 활기가 되살아났다. 마치 싸움을 앞둔 날 저녁처럼 심장은 높뛰고 눈은 즐거움으로 빛났다. 멀지 않아 헤여지게 될 인생도 사실상 별로 나쁜것이 아닌듯이 느껴지는것 같았다.

그런데 대오의 외관은 너무 훌륭하였다. 총사들이 타고가는 네필의 검은 말, 그것들의 름름한 체구, 한결같은 보조－이런것만으로도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에 충분하였다.

총사들의 뒤에는 발톱까지 무장한 하인들이 따랐다.

아침 8시쯤 되여 그들은 상띠이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아침을 먹어야 했다. 성자 마르땡이 거지에게 자기 만또를 절반 찢어주는 그림이 있는 간판의 주막집앞에 이르러 그들은 말에서 내렸다. 하인들에게는 안장을 풀지 말고 인차 떠날수 있도록 차비를 해두라고 지시를 주었다.

그들은 식당에 들어가 식탁에 앉았다.

다마르땡쪽에서 방금 도착한 어떤 귀족이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있었다. 그가 날씨이야기를 꺼내자 네 친구는 응대를 해주었다. 그 귀족이 네사람의 건강을 위해 잔을 드는 바람에 그들도 잔을 들어 답례하였다.

이윽고 무슈끄똥이 들어와서 말들이 다 차비되였다고 알리기에 그들이 일어서는데 그 사나이가 뽀르또스더러 주교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자고 하였다. 뽀르또스는 만일 그쪽에서도 국왕의 건강을 위하

여 잔을 들겠다면 반대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 사나이는 주교외에는 그 어떤 국왕도 자기는 모른다고 부르짖었다. 뽀르또스는 그를 주정뱅이라고 하였다. 사나이는 칼을 뽑아들었다.

《자넨 이거 무슨 일을 저질렀나.》 아또스가 말하였다. 《그렇지만 할수 없지. 물러서기엔 늦었어. 이놈을 처리하고 될수록 빨리 우릴 따라오게.》

뽀르또스가 적수에게 칼탕을 쳐놓고야말겠노라고 을러메고있는 사이에 세 친구는 말에 뛰여올라 전속으로 내달렸다.

《한사람이 떨어져나갔군.》 그들이 500보쯤 갔을 때 아또스가 말하였다.

《그러나저러나 저놈은 어째서 다른 사람은 아니고 바로 뽀르또스에게 집적댄걸가?》

《그거야 뽀르또스의 목소리가 제일 높았댔으니까 그를 우두머리로 알았던거지.》

《내 늘 말하지만 이 가스꼰뉴의 젊은이는 정말 머리가 귀신 한가지거던.》 아또스가 웅얼거렸다.

그들은 다시 가던 길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말도 쉬울겸 뽀르또스도 기다릴겸 보베에서 2시간 머물렀다. 2시간이 지나도록 뽀르또스는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소식도 없으므로 그들은 다시 떠났다.

보베에서 한마일쯤 갔을 때 두 산비탈사이로 난 좁은 길을 수리하고있는 여라문명되는 사람들과 맞다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 구뎅이를 파고 질퍽거리는 바퀴자리를 더 깊이 만들고있었다. 아라미스는 장화에 진탕이 튈것 같아 그들에게 꽥 소리질렀다. 아또스가 말리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로동자들은 그들을 놀려대려고들었다. 저쪽에서 너무도 야비하게 나오므로 언제나 랭정한 아또스마저도 참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 말을 내몰았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도랑창으로 물러가 거기에 감추었던 총들을 꺼내들었다. 우리의 일곱사람은 문자그대로 탄우속을 헤치고나가야 하였다. 아라미스는 어깨에 총알을 맞고 무슈끄똥은 허리아래 살이 많은 곳에 맞았다. 그는 말에서 떨어졌다. 자기의 상처를 들여다볼수 없는 그는 치명상이라도 입은줄로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복병들입니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접전은 피합시다! 앞으

로!》
아라미스는 부상당한 몸이였으나 말갈기를 그러잡고 그들의 뒤를 따랐다. 무슈끄똥의 말은 주인도 없이 혼자 따라와서 제자리를 차지하였다.
《예비말이 한마리 생겼군.》 아또스가 말하였다.
《내겐 그것보다도 모자가 더 나았을걸.》 다르따냥이 대꾸하였다. 《내 모자를 총알이 날려보냈거던요. 편지를 모자안에 간수하지 않은게 천만다행이지.》
《정말 그래.》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그건 그런데 뽀르또스가 걸려들면 영낙없이 죽을걸세.》
《뽀르또스가 걸어다닐 정도면 벌써 따라왔지.》 아또스가 말하였다. 《아마 그 주정뱅이는 결투가 시작되자 정신이 멀쩡해졌을거야.》
그들은 두시간을 또 달렸다. 말들은 금시라도 쓰러질 지경으로 지쳐버렸다. 그들은 충돌을 피하려고 사이길로 들어섰다. 끄레께르에 이르자 아라미스가 더 가지 못하겠다고 자빠졌다. 사실상 그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자기의 깔끔한 외관과 세련된 몸가짐속에 숨어있던 공기를 깡그리 짜내야 했던것이다. 그는 1분1초가 다르게 창백해졌으며 말을 타고 오는 동안 내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했던것이다. 어떤 주막앞에서 그를 말에서 내려놓고 싸움마당에서는 도움은커녕 방해로밖에 되지 않은 바쟁을 함께 떨구어놓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아미앵에 가서 하루밤 묵는것을 목표로 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더럽군.》 두 주인과 두 하인밖에 남지 않은 소부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아또스가 말하였다. 《내 더는 놈들의 낚시에 걸려들지 않을테다! 이제부터 깔래에 갈 때까지 난 절대로 입을 열거나 칼에 손을 대지 않을테야. 맹세하네. …》
《맹세는 그만두고》 다르따냥이 그의 말을 꺾었다. 《길이나 다그칩시다, 말이 쓰러질 때까지.》
그들은 말에 박차를 가하였다. 말들은 거기에서 새힘과 용기를 얻은듯싶었다.
그들은 야밤에 아미앵에 당도하여 《황금백합》이라고 하는 려관앞에서 말을 세웠다.

려관주인은 여간만 친절하지 않았다. 그는 한손에는 촉대를, 다른 한손에는 자기 모자를 벗어들고나와 손님들을 깍듯이 맞이하였다. 그는 두 손님에게 각각 깨끗한 방을 내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방들은 려관의 량쪽끝에 따로따로 떨어져있어서 거절하였다. 그들은 아무 방에서나 마다라스를 바닥에 깔고 하루밤 같이 지내면 된다고 말하였다. 주인은 자기 고집을 세웠으나 손님들은 듣지 않았다. 결국 주인은 그들의 요구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방금 잠자리를 펴고 문을 걸었는데 밖에서 덧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냐고 묻는 말에 대답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자기네 하인들이므로 문을 열었다. 아닌게아니라 쁠랑쉐와 그리모였다.

《말이나 지키는데는 그리모 한사람이면 됩니다.》 쁠랑쉐가 말하였다. 《허락하신다면 난 문앞에 가로 누워 잘가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놈들이 와도 인차 알수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뭘 깔고 잘텐가?》 다르따냥이 물었다.

《이걸 깔고 자지요.》 쁠랑쉐는 짚단을 가리켰다.

《좋도록 하게. 이리 오라구.》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난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들거던. 너무 알랑거린단 말이야.》

《나도 마음에 안 들더군.》 아또스가 말하였다. 쁠랑쉐는 창문을 넘어들어와서 문앞에 가로누웠다. 그리모는 아침 5시에는 말 네필을 다 준비시켜놓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마구간으로 갔다.

밤은 비교적 무난하게 지나갔다. 2시쯤 해서 누가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쁠랑쉐가 깨여나 《누구야!》 소리치자 저쪽에서는 헛갈렸노라고 대답하고 사라져버렸다.

새벽 4시에 마구간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보니 그리모가 마구간마부들을 깨우려고 했다가 그들에게 뭇매를 맞았던것이다. 두 친구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가엾은 그리모는 마당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었다. 쇠스랑자루에 맞아 머리가 온통 깨여졌다.

쁠랑쉐가 말들에 안장을 얹으려고 마당에 나갔다. 그러나 말들은 너무 지쳐버려서 부릴 형편이 못되였다. 다만 무슈끄똥의 말만은 어제 주인을 태우지 않고 빈몸으로 대여섯시간 달려왔으므로 일없을줄 알았으나 려관주인의 말에서 피를 뽑으려고 온 수의사가 그만 실수하여

그 말을 수술해버렸던것이다.
사태는 심상치 않았다. 꼬리를 무는 이 모든 재난은 우연일수도 있었으나 누구의 작간일수도 있는것이였다. 아또스와 다르따냥이 방에서 나오고 뻘랑쉐는 부근에서 말 세필을 살만 한데가 없겠는지 알아보려고 달려갔다. 려관대문앞에 안장을 얹고 자갈을 물린 말이 두필 서있었다. 싱싱하고 든든해보였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임자가 누군가고 물었다. 임자들은 지금 려관주인에게 숙박비를 물러 갔다는 대답이였다.
아또스는 숙박비를 물러 가고 다르따냥과 뻘랑쉐는 대문곁에 서있었다.
려관주인은 건물안쪽에 있는 천정이 낮은 방에 있었다. 아또스는 그리로 안내되였다.
방에 들어선 아또스는 아무 생각없이 2삐스똘을 꺼내 주인에게 주었다. 주인은 빼람 하나가 열려있는 책상에 앉아있었다. 그는 돈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갑자기 가짜돈이라느니 아또스와 그의 일행을 화페위조자로서 당장 체포하게 하겠다느니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개자식!》 아또스는 그에게 달려들면서 부르짖었다. 《네놈의 귀때기를 베버리고말테다!》
그 순간 완전무장을 한 사나이 넷이 옆문으로 쓸어들어와 아또스에게 덤벼들었다.
《난 함정에 빠졌네!》 아또스는 목청이 터지게 고함을 질렀다. 《다르따냥, 뛰라구! 냅다 몰아대라구!》 그리고는 권총을 두방 쏘았다.
다르따냥과 뻘랑쉐는 결심을 내렸다. 대문옆에 서있는 말에 뛰여올라 힘껏 박차를 가하여 전속으로 내달렸다.
《아또스가 어찌 됐는지 자넨 보지 못했나?》 다르따냥은 계속 달리면서 뻘랑쉐에게 물었다.
《보다마다요, 나리!》 뻘랑쉐가 말하였다. 《그분은 권총으로 두놈을 쏘아눕히더군요. 그리고 나들문유리너머로 들여다보니 나머지 놈들에게 칼을 휘둘러대는것 같던데요.》
《아또스는 대단해!》 다르따냥이 혼자소리로 말하였다. 《그런 사람을 떼놓고 가는게 참 아쉽거던! 하긴 좀더 가느라면 우리도 그런 운

명이 기다리고있을수 있지. 앞으로. 뿔랑쉐, 앞으로! 자네도 참 용감하거던.》

《내 진작 말씀드리지 않습디까, 나리.》 뿔랑쉐가 말하였다. 《삐까르디사람은 써봐야 알수 있다구요. 게다가 여기는 내 고향땅이니 용기가 날수밖에요.》

두사람은 더 힘있게 박차를 가하여 쌩－또매르까지 단숨에 대여갔다. 거기서 말들을 좀 쉬우기로 하였다. 그러나 무슨 뜻밖의 일이 있을지 몰라 손에서 고삐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길바닥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는 다시 떠났다.

깔래의 문을 백걸음 못미처서 다르따냥의 말이 풀썩 꺼꾸러졌다. 도무지 일으켜세우는 수가 없었다. 코와 눈에서 피가 쏟아져나왔다. 뿔랑쉐의 말이 하나 남았을뿐인데 그놈마저도 딱 버티고서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들은 도시로부터 100걸음쯤 되는 곳에 있었다. 그들은 말을 길에 내버려둔채 부두로 달려갔다. 뿔랑쉐가 쉰걸음쯤 앞에서 하인을 거느리고 걸어가는 어떤 귀족을 가리켜보였다.

그들은 걸음을 다그쳐 귀족을 따라잡았다. 귀족은 갈길이 매우 바쁜 모양인데 장화는 온통 먼지투성이였다. 귀족은 인차 영국으로 건너가는 배편이 없는가고 사람들에게 물었다.

《왜 없겠습니까!》 만단의 출발준비를 갖추고있던 돛배의 선장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오늘 아침 주교의 특별통과증이 없는 사람은 일체 태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는걸요.》

《내겐 그런 통과증이 있소.》 귀족은 호주머니에서 종이장을 꺼내면서 말하였다. 《자, 이거요.》

《거기에다 항장의 수표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는 꼭 내 배를 타야 합니다.》

《항장은 어디 가면 만날수 있소?》

《자기 별장에 가있지요.》

《그 별장은 어느바루…》

《시내에서 4분의 1마일쯤 됩니다.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산기슭에…》

《알겠소.》 귀족은 대답하였다.

그리고나서 귀족은 하인을 달고 항장의 별장으로 향하였다.

다르따냥과 쁠랑쉐는 그들을 쉰걸음쯤 앞세우고 뒤따라갔다.

시내를 벗어나자 다르따냥은 걸음을 빨리하여 자그마한 숲가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손님.》 다르따냥이 찾았다. 《당신은 매우 급한 일이 있는게지요?》

《아주 급한 일이지요.》

《참, 야단인걸.》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나도 매우 급한 일이 있어 그러는데 한가지 량해를 구합시다.》

《뭔데요?》

《내가 앞서가게 해달라는겁니다.》

《그건 안되오.》 귀족이 말하였다. 《난 60마일길을 마흔네시간동안에 달려왔고 래일 점심때까지 런던에 들어서야 하오.》

《나도 그만한 거리를 마흔시간동안에 왔고 래일 아침 10시까지는 런던에 들어서야 한단 말입니다.》

《정말 안됐소만 여보시오, 먼저 온건 나니까 뒤에 갈수는 없소.》

《정말 안됐습니다만 난 뒤에서 왔지만 먼저 가야겠습니다.》

《국왕의 일때문이군!》 귀족이 소리쳤다.

《나자신의 일때문이지요.》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당신은 트집을 잡자는거요?》

《그렇지 않구요.》

《뭐가 필요해서 그러오?》

《알고싶은가요?》

《그렇소.》

《그렇다면 말합시다. 당신에게만 있고 내게는 없는 그 특별통과증이 필요하거던요. 내겐 그게 꼭 있어야 하니까요.》

《롱담이겠지.》

《난 롱담할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켜서오.》

《못 지나갑니다.》

《나의 용감한 젊은이, 그 대가리가 성한게 원쑤같은가? 류뱅, 권총!》

《쁠랑쉐.》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하인놈을 해치우라구. 이

선생은 내가 처리할테니.》
전번에 공을 세운 뒤로 담이 커진 쁠랑쉐는 류뱅에게 달려들었다. 원체 힘이 좋고 날랬던 그는 류뱅을 뒤로 벌렁 자빠뜨려놓고 량쪽무릎으로 그의 가슴팍을 내리눌렀다.
《나리, 빨리 해치우시오. 이쪽은 문제없으니까요!》 쁠랑쉐가 소리쳤다.
귀족은 칼을 뽑아들고 다르따냥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그는 만만치 않은 적수와 맞다든것이였다.
다르따냥은 3초동안에 세번 그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그때마다 한마디씩 양념을 치군 하였다.
《이건 아또스의 이름으로, 이건 뽀르또스의 이름으로, 이건 아라미스의 이름으로!》
세번째 타격에 귀족은 밑둥잘리운 나무처럼 풀썩 꺼꾸러졌다.
다르따냥은 그가 죽었거나 하다못해 의식이라도 잃은줄로 알고 다가가서 특별통과증을 꺼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가 몸을 뒤지려고 손을 내미는데 귀족이 손에서 놓지 않고있던 칼로 그의 가슴을 찔렀다.
《이건 네가 받을 몫이다.》 그는 말하였다.
《그럼 이건 나의 이름으로! 안주감으로 마지막타격이다!》 악에 받친 다르따냥은 네번째 타격으로 귀족의 배에 칼을 박았다.
드디여 귀족은 눈을 감고 의식을 잃었다.
다르따냥은 귀족의 호주머니를 뒤져 특별통과증을 꺼내였다.
그것은 와르드백작의 이름으로 발급된것이였다.
다르따냥은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있는 아니, 어쩌면 죽었을수도 있는 스물댓되는 나이의 아름다운 귀공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보았다. 자기들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적지 않은 경우에 자기들의 존재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하는 제3자의 리익을 위하여 사람들이 서로 죽일내기를 하게 만드는 불가사의한 운명을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류뱅이 왝왝 고함을 치면서 구원을 청하는 소리에 그의 명상은 깨여지고말았다.
쁠랑쉐가 그의 목을 움켜쥐고 힘껏 죄였다.
《나리.》 그는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잡고있는 동안은 이놈이

조용할테지만 손을 놓기만 하면 또 짖어댈겁니다. 내가 보니 이놈은 노르망디내기인데 노르망디내기들은 원래 질긴 족속이지요.》

아닌게아니라 쁠랑쉐가 아무리 힘껏 목을 조여도 류뱅은 계속 소리를 지르려고 발악하였다.

《가만 좀 있게.》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꺼내여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젠 이놈을》 쁠랑쉐가 말하였다. 《나무에 비끄러맵시다.》

그들은 류뱅을 나무에 단단히 비끄러맸다. 그리고는 와르드백작을 하인옆에 가까이 끌어다놓았다.

날이 저물고있었다. 백작과 그의 하인은 팔다리를 꽁꽁 묶이운채 길옆 딸기나무숲속에 있었으므로 아침까지 거기에 그대로 있게 될것이였다.

《그럼 이젠》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항장한테 가보세.》

《그렇지만 나리는 몸을 상한것 같은데요.》 쁠랑쉐가 말하였다.

《그까짓! 먼저 급한 일부터 보고 내 상처는 그다음에 봐도 되네. 상처가 대단한것 같지는 않으니까.》

두사람은 항장의 집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항장에게 와르드백작이 왔다는 전갈이 들어갔다.

다르따냥은 서재로 안내되였다.

《당신은 주교님이 수표한 통과증이 있습니까?》 항장이 물었다.

《있습니다.》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정확하군요. 당신에게 협력하라는 지시까지 있군요.》

《그렇습니다.》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나는 주교님이 가장 믿는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니까요.》

《주교님께서는 누군가가 영국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려는것 같군요.》

《예, 그 무슨 다르따냥이라고 하는 베아른의 귀족이지요. 영국으로 건너가려고 세 친구와 함께 빠리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아는가요?》

《누구 말입니까?》

《다르따냥 말입니다.》

《알아도 잘 알지요.》

《그렇다면 그의 인상을 말해주십시오.》

《그거야 못하겠습니까.》

다르따냥은 와르드백작의 초상을 세세히 그려보였다.

《누가 동행하는가요?》

《하인입니다, 류뱅이라고.》

《정신을 바싹 차려야지. 우리 손에 걸려들기만 하면 주교님은 시름을 더시게 될것입니다. 철저한 감시하에 빠리로 압송할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당신은 주교님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될것입니다.》

《당신은 빠리로 돌아가면 주교님을 만나뵙겠지요?》

《만나뵙다뿐이겠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충실하다는걸 꼭 말씀드려주십시오.》

《꼭 말씀드리지요.》

항장은 그 약속에 사기가 올라 통과증에 얼른 수표를 해주었다.

다르따냥은 쓸데없는 인사치레로 시간을 빼앗기고싶지 않았으므로 사의를 표하고 물러나왔다.

길에 나서자 다르따냥과 쁠랑쉐는 숲을 에돌아 다른 문으로 해서 시내에 들어갔다. 돛배는 출발준비를 갖춘채 아까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 선장은 기슭에서 기다리고있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선장은 다르따냥을 보자 물었다.

《자, 항장이 수표한 내 통과증이요.》

《그런데 다른분은요?》

《그분은 오늘 안 가오.》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안심하오. 내가 그분의 배값까지 다 물테니까.》

《그렇다면 떠나야지요.》 선장이 말하였다.

《떠나야지.》 다르따냥이 되받았다.

다르따냥과 쁠랑쉐는 배에 뛰여올랐다.

때맞추였다. 배가 반마일쯤 나갔을 때 뭍에서 불빛이 번쩍하고 뒤미처 쿵하는 대포소리가 들려왔다. 항을 봉쇄한다는 신호였다.

이제는 자기의 상처를 돌봐야 하였다. 다행히도 상처는 다르따냥이 예상했던것처럼 그닥 심하지 않았다. 칼날은 갈비대에 맞으면서 뼈를 가볍게 스치였을뿐이였다. 적삼이 인차 상처에 들어붙어서 피는 몇방울밖에 나오지 않았다.

다르따냥은 지쳐서 온몸이 나른하였다. 그는 옆에서 깔아주는 요포우에 드러누워 잠들어버렸다.

이튿날 새벽에 그들은 영국의 해안으로부터 서너마일되는 곳에 가있었다. 온밤 미풍으로 배는 순조로이 흘러왔던것이다.

10시에 배는 도바항에 닻을 내렸다.

10시반에 다르따냥은 드디여 영국땅을 밟게 되였다. 그는 환성을 올렸다.

《끝내 왔구나!》

하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것은 아니였다. 런던까지 마저 가야 하였다.

영국에서는 역마시설이 매우 정연하였다. 다르따냥과 쁠랑쉐는 역마차를 타고 다시 길을 이어갔다. 4시간만에 그들은 런던성문에 이르렀다.

다르따냥은 런던이 난생처음이므로 영어는 한마디도 몰랐으나 종이쪽지에 버킹함공작의 이름을 써보이기만 하면 사람들은 공작의 궁전을 제꺽 대주는것이였다.

공작은 윈저에서 왕과 함께 사냥을 하고있었다.

다르따냥은 공작의 심복으로서 주인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다 따라다니는 하인을 불러냈다. 그는 프랑스말에 능통하였다. 다르따냥은 그에게 자기는 방금 빠리에서 왔는데 매우 중요한 일때문에 공작을 만나야겠다고 설명하였다.

다르따냥의 진지한 태도에 감심한 패트리크(재상의 하인을 이렇게 불렀다.)는 말 두필을 준비하라고 이르고는 자신이 직접 다르따냥의 안내를 맡아나섰다. 가엾은 쁠랑쉐는 너무도 기진하여 반주검이 되다싶이 꿋꿋해진것을 마차에서 끌어내려야 하였던것이다. 다르따냥은 쇠로 빚어진 사람같았다.

윈저성에 이르자 그들은 공작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았다. 왕과 버킹함공작은 두세마일 떨어진 소택지에서 매사냥을 하는중이라는 대답이였다.

다르따냥과 안내자는 20분만에 거기에 당도하였다. 이윽고 패트리크는 자기의 매를 부르는 공작의 목소리를 들었다.

《공작님께 당신의 성함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가요?》 패트리크가 물었다.

《사마리아조각상 맞은켠 뽕 너프다리우에서 싸움을 걸어왔던 젊은

이라고 말씀드려주십시오.》
《자기 소개가 괴상하군요!》
《당신은 그이상 좋은 소개가 없다는것을 알게 될겁니다.》
패트리크는 전속으로 말을 내몰았다. 공작을 만나자 그는 다르따냥의 표현을 그대로 써가면서 사자가 와서 기다리고있다고 아뢰였다.
공작은 다르따냥이라는것을 대뜸 알아차렸다.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생긴것이나 아닐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사자가 어디 있는가고 물었다. 그리고 멀리서 근위대제복을 보자 말을 곧바로 다르따냥에게 몰아왔다.
《왕비에게 불행한 일이라도 생긴게 아닌가?》 공작이 물었다. 이렇게 묻는 목소리에 그의 불안한 심정과 사랑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보였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왕비님께서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계십니다. 공작님께서만이 그분을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내가?》 공작은 부르짖었다. 《정말로 내가 왕비를 도와주는 행복을 지닐수 있다는건가?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하라구!》
《여기에 편지가 있습니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편지라구? 누구의 편지?》
《왕비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인줄 압니다.》
《왕비께서?》 이렇게 되묻는 공작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다르따냥은 그가 까무러치지 않겠는가 생각되였다.
공작은 봉투를 뜯었다.
《이건 뭔가?》 그는 편지에 뚫린 구멍을 가리키면서 다르따냥에게 물었다.
《저런.》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전 미처 보지 못했구만요. 아마도 와르드백작의 칼에 맞을 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부상을 입었는가?》 버킹함공작이 편지를 펼치면서 물었다.
《일없습니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좀 긁혔을뿐입니다.》
《아, 하느님! 이런 변 봤나!》 공작은 부르짖었다. 《패트리크, 여기 남아있으라구. … 아니지, 어떻게든 전하를 만나서 내가 매우 급한 일이 있어서 런던으로 돌아갔다고 미안한 말씀 드려주게. 자, 그럼 가자구, 젊은이.》
그리고는 런던을 향하여 전속으로 말을 내몰았다.

제 21 장

원터백작부인

길을 가면서 공작은 다르따냥이 알고있는 범위에서 여러가지를 물었다. 그는 젊은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보느라니 사태의 엄중성을 가히 짐작할수 있었다. 왕비의 짧고도 분명치 않은 편지에서도 그것이 느껴졌다. 특히 이상한것은 리슐리에주교가 어찌하여 영국으로 오는 이 젊은이를 도중에서 멈춰세우지 못하였는가 하는 그것이였다. 공작의 의문스러워하는 얼굴표정에 대한 대답으로 다르따냥은 출발에 앞서 만단의 예방책을 세웠던 일이며 오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고 피를 흘려 부득불 떨어지게 된 세 친구의 덕분으로 자기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왕비님의 편지에 구멍을 냈을뿐으로 무사히 올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있는동안 공작은 아직 스무살도 채 안되여보이는 이 청년이 그와 같은 슬기와 용맹, 충성을 갖추고있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한 눈으로 가끔 그를 바라다보군 하였다.

말들을 질풍같이 달려 몇분후 그들은 런던성문앞에 이르렀다. 다르따냥은 거리에 들어서면 공작이 속도를 늦출줄로 알았으나 그는 앞에 행인이 있건없건 그런것은 안중에 없이 말을 냅다 몰아댔다. 시내중심을 달릴 때 아닌게아니라 버킹함은 행인 두세사람을 들이받았으나 공작은 아랑곳 없었다. 다르따냥은 사람들이 죽여라, 살려라 아우성치는 속으로 공작의 뒤를 따랐다.

자기 저택 뜨락에 들어서자 공작은 말이야 어떻게 되였든 거들떠보지도 않고 뛰여내려 고삐를 말목에 되는대로 집어던지고 현관으로 부리나케 뛰여올라갔다. 다르따냥도 그가 하는대로 따라하였으나 속으로는 말들이 여간 걱정스럽지 않았다. 말이라는 짐승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된 그였다. 그렇지만 주방칸이며 마구간에서 달려나온 서너명의 하인들이 말들을 끌어가는것을 보고는 마음을 놓았다.

공작은 어찌나 빨리 가는지 다르따냥은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공작은 프랑스의 한다하는 귀족들도 상상못할만큼 으리으리한 객실을 몇개 지나서 호화찬란한 침실에 들어섰다. 침대뒤 휘장에 반나마 가리운 문이 보였다. 공작은 황금사슬에 매달아 목에 걸고있던 황금열쇠로 그 문을 열었다.

다르따냥은 실례가 될것 같아서 멀찌감치 떨어져 서있는데 버킹함 공작은 문턱을 넘어서다가 머뭇거리고있는 다르따냥을 보자 말하였다.

《오라구, 그래서 이다음에 왕비님을 뵈옵거든 본걸 그대로 말씀드리라구.》

이 말에 다르따냥이 힘을 얻어 따라들어가자 문은 닫겼다.

그들이 들어선 곳은 금실로 수를 놓은 페르샤비단으로 장식한 자그마한 기도실이였다. 헤아릴수없이 많은 초불이 밝게 타고있었다. 제단우에는 빨갛고 하얀 깃털장식이 있고 그밑에는 안느 도뜨리슈의 전신상이 있었다. 얼마나 방불하게 그렸는지 왕비가 금시 입을 열어 말을 할것만 같아 다르따냥은 하마트면 탄성을 지를번 하였다.

제단의 전신상밑에 금강석구슬꿰미함이 놓여있었다.

공작은 제단앞으로 가서 마치도 신부가 그리스도상앞에서 그렇게 하듯이 무릎을 꿇고앉아 함을 열었다.

《자, 받으라구.》 공작은 번쩍거리는 구슬꿰미를 꺼내면서 말하였다. 《이게 바로 그 보물이네. 난 이걸 무덤속까지 가지고갈 작정이였지. 그런데 왕비님께서 이걸 내게 주어놓고 이제는 도로 달라고 하질 않나. 할수 없지. 왕비의 의지는 언제 무슨 일에서나 하느님의 의지와 같은것이니까.》

그리고나서 그는 이제 헤여지게 될 금강석구슬알에 하나하나 입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공작이 갑자기 악— 비명을 질렀다.

《무슨 일입니까?》 다르따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럽니까?》

《다 끝장이야!》 공작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하였다. 《두개가 없어. 열개뿐이야.》

《각하께서 잃어버린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훔친것입니까?》

《누가 훔쳤어. 주교의 작간이 뻔해. 보라구, 누가 가위질을 했거던.》

《누가 훔쳤는지 짐작이 안 갑니까. 구슬은 아직 그놈의 손에 있을수 있습니다.》
《가만! 가만!》 공작은 부르짖었다. 《난 그걸 한번밖에 달지 않았댔어. 한주일전 전하께서 윈저에서 베푸신 무도회때였지. 나하고 내내 사이가 나빴던 윈터백작부인이 그날따라 별로 곰살궂게 굴지 않겠나. 그게 결국은 시샘이 많은 녀자의 앙갚음일줄이야! 그후로 난 그 녀자를 한번도 보지 못했어. 그 녀자는 주교의 밀정이였어!》
《과연 주교의 밀정들은 이 세상 어디에나 다 박혀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네.》 공작이 분하게 이를 으드득 갈며 말하였다. 《그건 그렇고, 무도회는 어느날인가?》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이라! 아직 닷새가 있는셈이군. … 패트리크.》 그는 기도실문을 열고 소리쳤다.
공작의 하인이 문가에 나타났다.
《세공사와 서기를 부르게.》 하인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것으로써 그가 두말없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데 습관되여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그런데 첫번째로 부른 세공사보다 저택안에 살고있는 서기가 먼저 왔다. 공작은 침실탁자에 마주앉아 손수 명령서를 쓰고있었다.
《잭슨.》 공작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즉시 법무대신을 찾아가서 나의 이 명령서를 자신이 직접 집행하라고 전하시오. 이 명령은 즉시 공포하라구 하시오.》
《그러나 각하.》 서기가 명령서를 재빨리 훑어보고나서 말하였다. 《법무대신각하께서 이런 비상대책을 취하게 된 동기를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가요?》
《이건 내 뜻이고 나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누구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대답하시오.》
《법무대신각하께서는 전하께도 그렇게 대답을 올려야 하겠는지요? 전하께서 어째서 이제부터 단 한척의 배도 영국의 항구를 떠날수 없는가고 물으실수 있지 않습니까?》
《하긴 그렇군.》 버킹함은 대답하였다. 《법무대신더러 전하께서 물으시면 내가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것은 프랑스에 대한 첫 도전이라고 대답을 올리라고 말해주시오.》

서기는 머리를 숙여보이고 나갔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안심할수 있지.》 공작은 다르따냥쪽을 돌아다보며 말하였다. 《구슬이 아직 프랑스에 건너가지 않았다면 그건 젊은이가 돌아간 다음에야 넘어가게 될거네.》

《어떻게 말입니까?》

《난 방금 우리 나라 항구들에 머물고있는 모든 배들에 대해 출항금지령을 내렸거던. 그러니 특별허가가 없이는 단 한척도 닻을 올리지 못할거네.》

다르따냥은 어안이 벙벙하여 공작을 쳐다보았다. 그는 왕의 신임에 의하여 부여된 무제한한 권력을 자기 개인의 사랑을 위하여 함부로 악용하고있는것이였다. 공작은 다르따냥의 얼굴표정으로 그의 마음속 생각을 알아차리고 히죽이 웃었다.

《그렇다네!》 그는 말하였다. 《안느 도뜨리슈야말로 나의 진짜녀왕인거네! 왕비의 말 한마디면 난 자기의 나라도, 자기의 왕도, 하느님도 다 버릴 각오가 되여있어. 왕비가 나에게 라 로쉘의 신교도들을 지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왔던적이 있었지. 그래 난 비록 신교도들과 이미 약속한 일이였지만 왕비의 의사에 복종했지. 내가 약속을 저바렸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왕비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면 그만이 아니겠나. 그 덕분에 난 톡톡히 보수를 받았거던. 저 초상화를 받았단 말이네.》

다르따냥은 한개 민족의 운명, 한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가는 실날에 매달려있는것인가싶은 생각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가 한창 이런 생각에 골똘해있는데 세공사가 왔다. 아일랜드인으로서 재간이 뛰여난 그는 버킹함공작이 주문하는 일감만으로도 한해에 10만파운드를 버노라고 스스로 말하고있었다.

《오레일리.》 공작은 그를 기도실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말하였다. 《이 구슬꿰미를 보고 한알에 얼마나 값이 나가겠는지 말해보오.》

세공사는 그 우아한 구슬꿰미를 일별하고나서 머리속으로 셈을 놓아보더니 서슴없이 말하였다.

《한알에 1 500삐스똘입니다.》

《이런 구슬 2개를 만드는데 며칠이나 걸릴가? 보다싶이 두알이 모자라거던.》

《한주일입니다.》

《한알에 3천을 줄테니 모레까지 해줘야겠소.》

《념려마십시오.》

《고맙소, 오레일리. 그런데 조건이 있소. 이 일은 그 누구도 알아선 안되고 손도 댈수 없소. 그러니 이 일은 꼭 이 집에서 해야 하오.》

《각하, 그 구슬을 다른것들과 꼭같이 만들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요, 당신은 당분간 나의 포로가 돼야 하오. 아무리 밖에 나가고싶어도 나갈수 없소. 그걸 각오해야 할거요. 조력할 사람은 누가 필요하고 도구는 무엇이 있어야겠다는걸 내게 말하오.》

세공사는 공작과 엇서야 통하지 않으리라는것을 깨달았다.

《녀편네한테 알릴수는 있을가요?》

《아무렴, 만나는것까지도 일없소. 당신은 포로라고는 하지만 높은 대우를 받게 될테니까. 걱정마오. 페를 끼친데 대해서야 배상이 있어야지. 자, 이 천삐스똘짜리증서는 보석 두알값외에 따로 주는거요. 이걸 받고 일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잊어주오.》

다르따냥은 공작이 사람과 백만금을 제 마음대로 주무르는것을 보고 또다시 놀랐다.

세공사는 제일 재간있는 조수에게 자기가 지시하는 품위와 중량의 금강석 그리고 필요한 도구일식을 들려서 보내라는 편지를 써서 천삐스똘짜리증서와 함께 처에게 보냈다.

공작은 반시간사이에 작업장으로 꾸려진 어느 한 방으로 세공사를 안내하였다. 그리고는 방의 문마다 파수를 세우고 패트리크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방에 들여놓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 오레일리와 그 조수의 외출이 절대금지되였을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해당한 지시를 다 주자 공작은 다르따냥에게로 돌아왔다.

《자 나의 젊은 친구, 영국은 우리 두사람의 손에 쥐여져있네. 무슨 바라는건 없나? 뭐가 필요한가?》

《잠자리입니다.》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내겐 지금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공작은 다르따냥에게 자기 침실의 옆방을 내주었다. 그는 다르따냥을 자기곁에 두고싶었던것이다. 그가 미덥지 못해서가 아니라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상대가 필

요하였기때문이였다.

한시간후 런던에서는 프랑스로 가는 모든 배들에 출항을 금지한다는 명령이 공포되였다. 그것은 모두에게 프랑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되였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11시에 구슬꿰미는 완성되였다. 얼마나 신통하게 되였는지 공작으로서는 어느것이 새로 만든것인지 가려내지 못할 정도였다. 한다하는 감정가도 꼼짝 못하고 속아넘었을것이다.

공작은 즉시 다르따냥을 불렀다.

《이걸 받게.》 공작은 말하였다. 《젊은이가 기다리는 구슬꿰미네. 내가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했다는데 대한 증인으로 되여주어야 하네.》

《념려마십시오. 각하, 제가 본 그대로 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함은 주시지 않습니까?》

《함은 거치장스럽기만 할거네. 게다가 그건 귀중한 기념품으로도 되는거네. 그건 내가 떨궈두었다고 전해주게.》

《저는 각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공작이 젊은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말하였다. 《젊은이에겐 어떻게 인사차림을 한다?》

다르따냥은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하였다. 공작이 자기에게 무엇이든 선물을 주려고 한다는것을 알자 자기와 세 친구가 흘린 피값을 영국의 돈으로 받게 된다는 생각에 속이 메슥거렸다.

《우리 툭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각하.》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그래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잘 생각해봅시다. 저는 프랑스국왕과 왕비님에게 복무하는 사람입니다. 데제싸르각하께서 지휘하는 근위병의 한사람입니다. 그분은 처남인 뜨레빌각하 못지 않게 국왕과 왕비님께 충성스럽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제가 이번 일을 맡아나서게 된것은 각하께서 우리 왕비님을 사모하시듯이 제가 깊이 사모하는 한 부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음. …》 공작은 말하였다. 《나도 그 부인을 알듯 하구만. 바로…》

《각하, 저는 그 부인의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르따냥은 다급히 그의 말을 막았다.

《그렇지!》 공작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난 그 부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가보군. …》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하, 어느 시각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지금 각하는 저에게 있어서 일개 영국인, 다시말해서 윈저의 화원이나 루브르궁전의 랑하가 아니라 전장에서 만나고싶은 원쑤에 불과하기때문이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자기의 사명을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정확히 수행하는데 조금도 방해로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자진해서 해드린 일에 대하여 각하께서 사례를 할 필요가 없듯이 이번에도 각하께서는 사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스코틀랜드사람처럼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이 있네.》

《우리 나라에는 〈가스꼰뉴사람처럼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이 있지요.》 다르따냥이 대꾸하였다. 《가스꼰뉴사람은 곧 영국의 스코틀랜드사람인것입니다.》

다르따냥은 공작에게 고개를 숙여보이고 물러나 가려고 하였다.

《아니, 벌써 가려나? 그래 어떻게 갈 작정인가? 어떻게 배를 탈텐가?》

《하긴 그렇군요. …》

《프랑스사람들은 도무지 앞뒤를 가리지 않거던!》

《저는 영국이 섬나라이고 각하께서는 이 나라의 지배자라는걸 깜빡 잊었었습니다.》

《항구로 가서 〈선드〉라는 쌍대박이돛배를 찾아가지고 선장에게 이 편지를 주게. 그러면 그가 프랑스의 어떤 포구까지 태워다줄거네. 평시에는 고기배들만 드나드는 곳이라네.》

《그 포구의 이름은요?》

《쌩—왈르리라고 하네. 거기 가면 려인숙을 찾아가게. 이름도 없고 간판도 없고 배사람들이나 모여드는 허름한 려인숙이네. 거기에 려인숙은 그것밖에 없으니 헛갈릴 념려는 없어.》

《그다음엔요?》

《주인을 만나서 〈포워드〉라고 말하게.》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라는 뜻인데 암호라네. 그러면 주인은 안장을 얹은 말을 내주고 어느 길로 어떻게 가라고 대줄걸세. 도중의 역관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네번 말을 갈아타게 될거네. 자네의 빠리주소를 대면 네

필의 말을 뒤따라 보내겠네. 그가운데 두필은 우리 둘이 윈저에서부터 타고와서 자네도 잘 아는 놈들일세. 나머지 두필도 그만 못하지 않다네. 전쟁때 쓰자고 마련해두었던것들이니까. 자네가 제아무리 코대가 세다고 하더라도 그중 한마리를 받는데는 반대가 없을줄 아네. 나머지는 세 친구에게 한마리씩 주었으면 하네. 우리 나라와 전쟁을 할때에도 쓸모가 있을거네. 자네네 프랑스에는 〈목적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나.》

《좋습니다. 각하, 그렇게 하지요.》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그리고 각하의 선물을 반드시 유용하게 써먹을것입니다.》

《그럼 악수를 하자구. 젊은이, 모름지기 우리는 멀지 않아 전장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오늘은 다정한 벗으로서 헤여지자구.》

《좋습니다. 각하, 언제든 원쑤로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걱정말라구, 내 약속하네.》

《각하의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르따냥은 공작과 헤여져 항구로 총총히 걸음을 다그쳤다.

런던항 맞은켠에서 그는 아까 공작이 대준 배를 찾아내여 선장에게 편지를 내주었다. 선장은 거기에 항장의 수표를 받은 다음 즉시 닻을 올렸다.

쉬나문척 되는 배들이 떠날 준비를 갖추고 대기상태에 있었다.

《선드》호가 그중 한척의 배옆을 지나칠 때 다르따냥은 언젠가 멍에서 보았던 그 녀자, 낯모를 귀족이 밀레디라고 불렀던 그 미모의 녀인이 언뜻 보인듯 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물살이 빠르고 순풍이여서 배들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이튿날 아침 9시에 배는 쌩－왈르리에 닻을 내렸다.

다르따냥은 곧 주막집으로 갔다. 안에서 왁자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들 불원간에 불피코 일어나게 될 영국과의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었으며 선원들이 들썩하게 술판을 벌려놓고있었다.

다르따냥은 사람들속을 헤치고 주인에게 다가가 《포워드》라고 암호를 댔다. 주인은 즉시 자기를 따라오라고 신호를 하고는 뜨락을 꿰질러 마구간으로 그를 데리고갔다. 거기에는 안장을 얹은 말이 기다리고있었다. 주인은 더 필요한것이 없는가고 물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르따냥은 대답하

였다.

《먼저 블랑쥐로 갔다가 거기서부터 네프샤뗄로 가시오. 거기서 〈황금낫〉이라는 려인숙에 찾아가 암호를 대시오. 그러면 여기서처럼 말을 내줄겁니다.》

《값은 얼마입니까?》

《이미 전불로 받은걸요. 그것도 아주 후하게요. 부디 잘 가시오!》

《고맙소!》 다르따냥은 대답하고 말을 냅다 몰았다.

네시간후 그는 네프샤뗄에 당도하였다.

다르따냥은 전번처럼 하여 말 한필을 또 받았다. 그는 타고온 말의 안장에서 권총들을 꺼내여 새 말의 안장에 옮기려고 하였으나 거기에는 이미 꼭같은 권총들이 갖추어져있었다.

《당신의 빠리주소는요?》

《데제싸르의 근위대본부입니다.》

《좋습니다.》 주인이 말하였다.

《어느 길로 가야 할가요?》

《루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도시를 왼쪽으로 에돌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느라면 에꾸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나질겁니다. 마을에는 〈프랑스방패〉라는 주막이 있습니다. 볼품은 없지만 마구간에는 이만 못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암호는 같습니까?》

《꼭같습니다.》

《그럼 주인장, 안녕히!》

《잘 다녀가시오, 근위병! 다른건 요구되는게 없는가요?》

다르따냥은 없다는 뜻으로 머리를 가로 흔들어보이고 전속으로 말을 내몰았다.

에꾸이에서도 꼭같은 장면이 반복되였다. 눈치빠른 주인과 싱싱한 말… 그는 자기의 주소를 말하고 그달음으로 뽕뚜아즈로 내달았다. 뽕뚜아즈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말을 갈아탔다. 그리하여 저녁 9시에 뜨레빌의 저택마당에 들어섰다.

열두시간동안에 그는 60마일을 달린것이였다.

뜨레빌은 마치도 아침에 만났던 사람을 대하듯이 맞아주었다. 그는 여느때보다 좀더 힘있게 손을 잡아주면서 데제싸르의 근위대는 루브르궁전에서 근무중이니 자기 초소에 가보라고 할뿐이였다.

제 22 장

무 도 회

이튿날 온 빠리는 시청에서 왕과 왕비를 위하여 베푸는 무도회이야기로 흥성거렸다. 왕과 왕비가 무도회에서 왕이 특별히 좋아하는 베를레종춤을 춘다는것이였다.

벌써 여드레전부터 이 성대한 무도회를 위한 준비가 빈틈없이 추진되여 초대받은 부인들이 와서 앉을 가설좌석이 꾸려지고 왕실은 200대의 백랍초대로 장식되였다. 당시로서 그것은 대단한 사치였다. 그리고 20명의 바이올린연주가들이 초청되였으며 보수는 보통때의 두곱이였다. 그들은 밤을 새워 연주하여야 하는것이였다.

오전 10시에 근위대의 기수 라꼬스뜨가 2명의 경찰장교와 몇명의 사수를 거느리고 시청의 서기 끌레망에게 와서 모든 나들문, 모든 방, 모든 사무실의 열쇠들을 넘겨받았다. 열쇠마다 표쪽이 달려있었으며 그것들을 받아쥔 순간부터 라꼬스뜨는 시청의 모든 문, 모든 통로의 경비를 책임지게 되였다.

11시에 근위대장 듀알리에가 50명의 사수들을 데리고와서 즉시 해당한 곳에 그들을 배치하였다.

3시에 근위병 2개 조가 왔다. 한조는 프랑스근위병들, 다른 한조는 스위스근위병들로 이루어져있었다.

프랑스근위병들의 조는 절반이 듀알리에의 대원들이였으며 절반은 데제싸르의 대원들이였다.

오후 6시부터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였다. 들어오는 족족 그들은 지정된 좌석에 안내되였다.

9시에 대법관의 부인이 왔다. 부인은 이날 밤 무도회에서 왕비다음으로 가는 귀빈이였으므로 시청의 고관들이 마중하여 왕비가 앉을 자리의 맞은편좌석에 모셨다.

10시에는 쌩－쟝교회당쪽의 소광실에서 4명의 사수가 지켜선 가운

데 왕을 위한 다과회가 있었다.

12시에 요란한 환성이 터져올랐다. 왕이 루브르궁전을 떠나 시청으로 오는것이였다.

례복차림의 시참사들이 손에손에 홰불을 든 종인들을 앞세우고나와 문앞에서 왕을 맞이하였다. 시장이 왕에게 환영인사를 올렸다. 왕은 늦어져서 미안하다면서 국사를 론하느라고 자기를 11시까지 붙들고있은 주교에게 책임을 넘겨씌웠다.

례복을 떨쳐입은 왕은 왕제 오를레앙공작, 쑤아쏭백작, 대수도원 원장, 롱그빌공작, 델베프공작, 파르꾸르백작, 라 로쉬 기용백작, 리앙꾸르백작, 바르다각하, 끄리마유백작, 쑤브래경들을 대동하고있었다.

사람들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듯 왕의 낯색이 어두운것을 보았다.

왕과 왕제를 위한 별실들이 하나씩 마련되여있고 방마다 가장용의상이 갖추어져있었다. 왕비와 대법관의 부인에게도 그와 꼭같은 준비가 되여있었다. 다른 귀부인들과 귀족들은 두사람씩 다른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게 되여있었다.

방에 들어가기에 앞서 왕은 주교가 도착하면 즉시 알리라고 분부하였다.

왕이 도착한지 30분만에 또다시 환호성이 터졌다. 왕비를 환영하는것이였다. 시참사들은 아까처럼 종인들을 앞세우고나와 왕비를 맞이하였다.

왕비는 광실에 들어섰다. 왕과 마찬가지로 왕비의 낯색이 어두운것을 모두들 보았다.

왕비가 들어올 때 지금까지 드리워있던 어느 특별석의 휘장이 살짝 벌어지면서 그 틈으로 에스빠냐귀족차림을 한 주교가 창백한 얼굴을 내밀었다. 두눈은 왕비를 쏘아보고 입가에는 흉물스러운 미소가 어리였다. 왕비에게는 금강석구슬꿰미가 없었다.

왕비는 한참동안 시청관리들과 부인들의 인사를 받았다.

불현듯 왕과 주교가 광실의 한 문으로 들어왔다. 주교는 왕에게 소곤소곤 무슨 말을 하고있었다.

왕은 얼굴이 새파랬다.

왕은 가면을 쓰지 않고 조끼앞을 헤쳐놓은채 사람들속을 뚫고 왕비에게로 다가갔다.

《여보.》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왕비에게 말하였다. 《왜 구슬꿰미를 걸지 않았소? 내가 그걸 보고싶어하는줄 당신은 알지 않소.》 왕비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뒤에서 독살스럽게 미소를 짓고있는 주교를 보았다.

《전하.》 왕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 복새통에 혹시 어떻게 되지나 않을가 두려워서요.》

《그래서야 안되지. 난 몸에 걸고다니라고 그걸 당신에게 준거요. 내 거듭 말하지만 그래서는 안되는거요.》

왕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모두들 영문을 몰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귀를 강구고있었다.

《전하.》 왕비는 말하였다. 《구슬꿰미는 루브르궁전에 있으니 이제 사람을 띄워 가져오게 하겠어요. 그러면 전하께서는 소원을 푸실수 있을거예요.》

《그렇게 하오. 될수록 빨리 보내도록 하오. 한시간후엔 무도가 시작된단 말이요.》

왕비는 인사를 하고 시녀들을 따라 자기의 별실로 갔다.

왕도 자기의 별실로 갔다.

한순간 광실은 불안과 흥분으로 술렁거렸다.

왕과 왕비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것은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으나 두사람의 말소리가 너무 낮은데다가 모두들 조심스러워 몇발자국 떨어져있었기때문에 한마디도 엿들을수 없었다.

바이올린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으나 누구 하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왕이 선참으로 광실에 들어섰다. 그는 화려한 사냥복차림이였다. 왕제 오를레앙공작과 다른 귀족들도 그와 꼭같이 차려입고있었다. 그 복장이 왕에게 얼마나 잘 어울렸던지 그렇게 차려입은 왕은 프랑스에서 제일가는 귀족같았다.

주교가 왕에게 다가가서 웬 함을 내밀었다. 왕이 그것을 열어보니 금강석구슬 두알이 있었다.

《이건 뭐요?》 왕은 주교에게 물었다.

《뭐 별것은 아닙니다.》 주교는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만일 왕비님께서 구슬꿰미를 걸고 나오신다면… 과연 걸고 나오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슬알들을 세여보십시오. 그래서 10개밖에 안되

면 이 두알을 훔쳐낸자가 누군가고 왕비님께 물어봐주십시오.》

왕은 의아쩍게 주교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가 무슨 일인가고 미처 물을 사이도 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왕이 프랑스의 제일가는 귀족같았다면 왕비는 프랑스에서 제일가는 미녀였다.

왕비는 녀자사냥군처럼 차려입고있었다.

사냥군의 복장은 그 녀자에게 더 이를데없이 잘 어울렸다. 파란 깃털을 꽂은 수달피모자, 금강석을 한가득 박은 진주빛의 눈부신 비로도날개옷, 은실로 가장자리를 수놓은 치마, 왼쪽어깨에는 깃털이며 치마와 같은 색갈의 비단띠우에서 금강석구슬꿰미가 빛을 뿌리고있었다.

왕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주교는 분격하여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나 구슬알을 세여보기에는 아직 거리가 너무 멀었다. 왕비는 구슬꿰미를 걸기는 하였으나 구슬알은 몇개겠는지? 10개겠는지, 12개겠는지?

그때 악사들이 무도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왕은 대법관의 부인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다가가고 왕제 오를레앙공작은 왕비에게 다가갔다. 모두가 자리를 차지하자 무도는 시작되였다.

왕은 왕비의 맞은켠에서 춤을 추면서 그 녀자의 옆을 지나칠 때마다 눈으로 구슬꿰미를 지꿎게 더듬었으나 도무지 세여낼수가 없었다. 주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흠뻑 내돋았다.

무도는 한시간 계속되였다. 무도가 끝나자 남자들은 온 장내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제각기 자기의 짝패녀자들을 제자리로 모시여갔다. 그러나 왕만은 자기에게 베풀어진 특전을 리용하여 짝패녀자를 그 자리에 남겨둔채 왕비에게로 서둘러갔다.

《여보, 고맙소.》 왕은 말하였다. 《내 진정을 알아주어서 말이요. … 그런데 구슬 두알이 모자라는것 같으니 이걸 받소.》

《어마나, 전하!》 왕비는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또 두알을 주시는거예요? 그러면 난 14개가 되는군요!》

왕은 세여보았다. 아닌게아니라 왕비의 왼쪽어깨에는 구슬이 12개였다.

왕은 주교를 불렀다.

《주교선생,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오?》 왕은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전하.》 주교가 대답하였다. 《제가 왕비님께 이 구슬 두

알을 올리고싶으면서도 감히 직접 올릴수가 없어 이런 방법에 매달리게 되였다는걸 의미하지요.》

《주교님, 정말 고마와요.》 안느 도뜨리슈의 얼굴에는 그따위 능청스러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주는 미소가 떠돌고있었다. 《모름지기 이 구슬 두알은 전하께서 저에게 주신 열두알만큼 값이 나갈거예요.》

왕비는 왕과 주교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의 별실로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우리는 이 장의 서두에서부터 존대스러운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다나니 다르따냥에 대해서는 한동안 잊고있었다. 안느 도뜨리슈에게 주교에 대한 미증유의 승리를 가져다준 다르따냥은 지금 문어구의 붐비는 사람들속에 누구도 모르게 끼여서서 왕과 왕비, 주교 그리고 자기밖에 그 누구도 리해할수 없는 그 극적인 장면을 지켜보고있었다.

왕비는 자기의 별실로 들어갔으므로 다르따냥이 그만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치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다보니 젊은 녀자가 자기를 따라오라는 시늉을 하고있었다. 녀자의 얼굴은 검은 비로도가면으로 가리워져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다르따냥만은 그 녀자가 다름아닌 빨랑빨랑하고 령리한 보나씨에부인이라는것을 대뜸 알아보았다.

전날 밤 그들은 문지기 제르맹의 방에서 잠간 만났던것이다. 젊은 녀인은 사자가 무사히 돌아온 희소식을 급히 왕비에게 알려야 했으므로 두 련인은 그때 몇마디 말밖에 나누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르따냥은 사랑과 호기심이라는 두가지 감정에 이끌려 보나씨에부인의 뒤를 따랐다. 가는 도중 복도에서 인적이 드물어지자 다르따냥은 한순간이나마 그 녀자를 껴안고 얼굴을 들여다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부인은 그때마다 새처럼 그의 손에서 살짝 몸을 빼군 하였다.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하면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대는데 그야말로 명령적이고 매혹적인 그 거동에는 다르따냥도 복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오불꼬불하게 수없이 뻗은 복도들을 지나서 1~2분쯤 가서 보나씨에부인은 어떤 문을 열고 먹물을 뿌린듯이 새까만 방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서 그 녀자는 다시한번 조용하라는 시늉을 하고나서 휘장뒤에 있는 다른 문을 열었다. 눈부신 빛이 거기에서 흘러나왔다. 부인은 혼자서 안으로 들어갔다.

다르따냥은 꼼짝않고 서서 기다리면서 자기는 지금 대체 어디에 와있는것일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뒤미처 그쪽방에서 새여나오는 밝은 불빛, 자기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따뜻하고 향긋한 공기, 두세명 되는 녀자들의 정중하고도 우아한 말소리, 몇번씩 거듭되는 왕비님이라는 존칭—이 모든것으로 미루어 그는 거기가 왕비의 별실옆에 달린 서재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다르따냥은 문뒤에 숨어서 기다렸다. 왕비는 매우 기분이 좋고 행복스러운 모양인데 언제나 왕비의 수심어린 얼굴만 보아오던 시녀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놀랍게 여겨졌다. 왕비는 야회가 황홀하고 무도가 즐거웠던것으로 그 리유를 설명하고있었다. 그런데 왕비의 말에 대해서는 당자가 기뻐하건 슬퍼하건 감히 반대할수 없으므로 모두들 입을 모아 이번에 성대한 야회를 마련해준 시청의 관리들을 극구찬양하는것이였다.

다르따냥은 아직까지 왕비를 만나본적이 없었으나 다른 목소리들속에서 그 녀자의 목소리를 가려들을수 있었다. 외국말억양, 고위인물의 말에서 저절로 풍기는 어조로써 그것을 알수 있었다.

그는 열려진 문쪽으로 가까와졌다멀어졌다하는 왕비의 발소리를 들었으며 사람의 그림자가 불빛을 가리우는것까지도 두세번 보았다.

갑자기 휘장짬으로 백옥같이 희고 아름다운 손이 불쑥 나왔다. 다르따냥은 그것이 자기에 대한 치하의 표시라는것을 직감하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앉아 그 손에 자기의 입술을 정중히 가져다댔다. 그 손은 그의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놓고 도로 사라졌다. 보니 반지였다.

문은 즉시 닫기고 다르따냥은 새까만 어둠속에 혼자 남았다.

다르따냥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다시 기다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것으로 전부 끝난것이 아님을 알고있었다. 충성에 대한 치하에 이어 사랑의 보수가 있을것이였다.

게다가 무도회는 끝났으나 야회는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밤참은 3시로 예정되여있는데 쌩—쟝탑의 시계는 방금전에 2시 45분을 알리였다.

아니나다를가 옆방에서 들리던 말소리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멀어져갔다. 다르따냥이 기다리고있는 서재의 문이 다시 열리더니 보나씨에부인이 들어왔다.

《드디여 왔군요!》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조용해요!》 젊은 녀인은 손으로 그의 입을 막으면서 말하였다. 《아까 들어왔던 길로 해서 돌아가세요.》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수 있을가요?》

《집에 돌아가면 글쪽지가 있을거예요. 그걸 보시면 알아요. 어서 가세요!》

보나씨에부인은 복도로 통하는 문을 열고 다르따냥을 밖으로 떠밀었다.

다르따냥은 어린애처럼 순종하였다. 엇서지도 않고 한마디 투정도 하지 않았다.

제 23 장

밀 회

다르따냥은 집으로 달려왔다. 벌써 새벽 3시가 지난 때이고 빠리에서 제일 위험한 구역들을 지나왔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술군들과 련인들에게는 수호신이 따라다닌다는 말이 있지만 과연 그런것 같았다.

문은 반쯤 열려있었다. 그는 층계를 올라가 주인과 하인사이에만 약속된 암호대로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시청에서 두시간전에 돌아와 기다리고있던 뿔랑쉐는 문을 열었다.

《내게 누가 편지를 가지고오지 않았던가?》 다르따냥은 방에 들어서기 바쁘게 물었다.

《없는데요. 나리, 가져온 사람은 없고 편지가 제발로 왔더군요.》 뿔랑쉐가 대답하였다.

《그건 무슨 소린가, 바보같으니!》

《내가 집에 와서 보니 나리의 침실 책상우에 편지가 있더라 그 말이지요. 집열쇠는 내가 호주머니에 건사한채 잠시도 몸에서 떼여놓은 일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 편지 어디 있어?》

《본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놔두었지요. 편지가 그런 식으로 날아드는건 재미가 없는데요! 창문이 열려있었다든가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열려있었다면 그땐 별문제지만 창문은 꼭 닫겨있었거던요. 조심하십시오. 나리, 뭔가 심상치 않단 말입니다!》

다르따냥은 채 듣지도 않고 방으로 달려가 편지를 뜯었다. 보나씨에부인이 보내온것이였다.

《감사한 마음 이루 다 말씀드릴수 없어요. 오늘 저녁 9시에 쌩—끌루의 에스뜨레씨네 저택 담장모퉁이에 있는 정각 맞은켠으로 와주세요.

꽁스땅스 보나씨에.》

편지를 읽는 동안 다르따냥의 가슴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항용 그러하듯이 달콤한 경련으로 하여 부풀어오르기도 하고 옥죄여들기도 하였다.

그것은 처음으로 되는 사랑의 편지, 처음으로 되는 밀회였다. 기쁨에 한껏 취한 심장은 사랑이라고 일컫는 락원의 문어구에서 금시라도 멎어버릴것만 같았다.

《나리, 무슨 일입니까?》 쁠랑쉐가 자기 주인의 얼굴이 빨개졌다 새파래졌다하는것을 보고 물었다. 《역시 내가 짐작한대로 무슨 나쁜 일인게지요?》

《틀렸어, 쁠랑쉐.》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그 증거로 자네한테 한에뀌 주지. 내 건강을 위해서 한모금 하게.》

《그 돈은 고맙습니다. 나리, 정확하게 분부대로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이 잠긴 집에 그런 식으로 날아드는 편지는 역시…》

《하늘에서 떨어진거야. 친구, 저 하늘에서!…》

《그렇다면 나리는 기쁘신가요?》 쁠랑쉐가 물었다.

《친애하는 쁠랑쉐, 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럼 나도 나리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가서 좀 잘수 있을가요?》

《아무렴, 자라구.》

《나리께서 계속 천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서도 그놈의 편지는 어쩐지…》

쁠랑쉐는 다르따냥의 후한 선심에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듯 설레설레 도리질을 하면서 나갔다.

혼자 남은 다르따냥은 편지를 두번, 세번 다시 읽어보고 아름다운 련인의 손으로 씌여진 글줄마다에 스무번도 나마되게 입을 맞추었다. 마침내 자리에 누워 굳잠이 들었다.

그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쁠랑쉐를 찾았다. 두번 불러서야 들어온 쁠랑쉐의 얼굴에는 어제 밤 불안의 흔적이 아직 채 가셔지지 않고 있었다.

《쁠랑쉐.》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난 오늘 하루종일 나가있을수 있네. 그러니까 저녁 7시까지는 자네 마음대로야. 그러나 저녁 7시에는 말들을 차비해놓아야 하네.》

《그럴테지요!》 쁠랑쉐가 말하였다. 《우린 또 살가죽에 채구멍을 내러 가는군요.》

《소총하고 권총을 갖추라구.》

《그것 보시오. 내가 뭐랍디까?》 쁠랑쉐는 부르짖었다. 《내 이럴줄 알았다니까요! 그놈의 편지 께름하다 했더니…》

《그런게 아니야, 바보같으니. 들놀이를 가는거야.》

《알만 하다니까요. 저번때처럼 총알이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산지사방에 복병이 숨어있는 그런 들놀이겠지요.》

《하긴 쁠랑쉐선생.》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정 그렇게 겁이 나신다면 저 혼자 갈텝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분과 같이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게 낫다마다요.》

《섭섭합니다, 나리!》 쁠랑쉐는 항변을 하였다. 《전날에 내 솜씨를 보셨을줄 아는데요.》

《보았지. 하지만 그때 한번으로 자넨 가지고있던 용기를 다 써버린것 같단 말이야.》

《때가 오면 나리는 내게 아직 뭔가 더러 남아있다는걸 아시게 될겝니다. 그렇지만 그 용기가 오래 갈걸 바라신다면 제발 부탁인데 망탕 쓰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래 자네 생각엔 어떤가. 오늘 밤에 써먹을건 있겠나?》

《충분할것 같습니다.》

《좋아! 자넬 믿겠네.》

《말씀하신 시간까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의 마구간에는 나리의 말 한필밖에 없는줄로 아는데요?》

《지금이야 한필뿐이지. 하지만 저녁녘에는 4필이 될거네.》

《그럼 우린 말을 사자고 그렇게 돌아다녔는가요?》
《그러찮구.》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다르따냥은 오금을 박듯이 쁠랑쉐에게 손가락을 흔들어보이고나서 집을 나왔다.
문어구에 보나씨에가 서있었다. 다르따냥은 잡화상에게 말을 시키고싶지 않아 못 본체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저쪽에서 너무도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바람에 세방살이군은 어쩔수없이 마주 인사를 하고 몇마디 나누는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오늘 밤에 쌩-끌루에서 만나기로 되여있는 녀자의 남편되는 사람이니 조금이라도 아량을 보이는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다르따냥은 짐짓 반색을 하며 그에게로 다가갔다.
보나씨에가 옥살이를 한 이야기가 나왔을것은 뻔한 일이다. 보나씨에는 다르따냥이 자기와 멍의 그 낯모르는 사나이와의 사이에 있은 이야기를 죄다 엿들은줄을 모르고있었으므로 라폐마스를 주교의 개이며 악착스러운 형리라고 욕질하기도 하고 바스띠유감옥의 문빗장이며 공기창, 쇠살창, 고문도구들에 대하여 장황하게 늘어놓기도 하였다.
다르따냥은 참을성있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때 부인을 랍치한것이 누군가 하는건 알아냈습니까?》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다르따냥은 물었다. 《그 사건으로 해서 나는 당신과 알게 되였으니까요.》
《아니요.》 보나씨에는 한숨을 지었다. 《거기선 그 일을 말해주지 않고 집사람은 모른다고 딱 잡아떼거던요. 그건 그렇고, 당신은》 보나씨에는 순진한 어조로 물었다. 《당신은 요 며칠새 어디 갔댔는가요? 당신도, 당신의 친구들도 통 보이질 않더란 말이지요. 그리고 쁠랑쉐가 어제 당신의 장화를 닦는걸 보니 거기 앉은 먼지가 빠리바닥의 먼지가 아닌것 같더라니까요.》
《옳은 말씀입니다, 보나씨에씨. 난 친구들과 함께 어딜 좀 다녀왔습니다.》
《멀리요?》
《웬걸요. 한 40리요. 우리는 아또스씨를 포르쥬온천에 데려다주었던것입니다. 다른 두 친구는 거기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돌아왔군요.》 보나씨에는 능청스러운 얼굴로 말하였다. 《당신과 같은 미남자들은 애인들이 오래 놓아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니 당신도 역시 빠리에서 안타깝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테지요.》

《옳습니다, 보나씨에씨.》 다르따냥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당신앞이니 인정할수밖에 없군요. 당신을 속이는 재간이 있어야지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제나저제나 눈이 빠지게요.》

보나씨에의 얼굴에 가벼운 그림자가 얼핏 스치였으나 다르따냥은 너무도 짧은 순간이여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렇게도 서둘러 돌아왔으니 오늘은 보답이 있겠군요?》 잡화상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다르따냥은 방금전에 그의 얼굴에 비낀 그림자를 보지 못했듯이 이번에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르따냥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것은 단지》 잡화상이 대꾸하였다. 《당신이 오늘 늦게 돌아오겠는지 하는걸 알고싶어서입니다.》

《그건 왜 알자는겁니까, 주인장.》 다르따냥은 물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건가요?》 다르따냥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서가 아니라 감옥에 잡혀갔다오고 집에 도적이 든 뒤로 나는 문소리만 나도 머리칼이 곤두선단 말입니다. 특히 밤에 더 하지요. 어쩌겠습니까. 나야 군인이 아닌걸요.》

《내가 1시에 오건 2시에 오건 3시에 오건 놀라지 마십시오. 아주 돌아오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보나씨에의 얼굴이 얼마나 새파랗게 질렸던지 다르따냥도 그것을 못 볼수가 없었다. 다르따냥은 어디가 편치 않은가고 물었다.

《일없습니다.》 보나씨에는 대답하였다. 《그런 불쾌한 일들을 당한 다음부터 나는 이따금씩 기분이 나빠지군 하지요. 이자도 갑자기 오한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 걱정은 말고 자기가 행복에 잠길 일이나 생각하시오.》

《예예, 사실 내 머리속엔 그 생각뿐입니다. 그럼…》

《아직은 멀었는데요. 당신은 오늘 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밤은 꼭 올게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도 나 못지 않게 오늘 밤을 애타게 기다리고있을줄 아는데요! 보나씨에부인이 오늘은 당신의 품을 찾아올게 아닙니까!》

《오늘 밤 그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는걸요!》 보나씨에는 정색하여 말하였다. 《궁전에서 일이 있어서요.》

《거참 안됐군요. 주인장, 정말 안됐어요. 내가 행복하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함께 행복하길 바랐던건데 그게 도무지 안되는군요.》 청년은 자기에게만 통하는 롱말을 던져놓고는 통쾌하게 너털웃음을 터뜨리면서 떠나갔다.

《실컷 재미를 보시오!》 보나씨에는 음험한 목소리로 그의 뒤에 대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르따냥은 이미 멀리 갔으므로 그 말을 듣지 못하였다. 설사 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기분상태로써는 별로 개의치 않았을것이다.

다르따냥은 뜨레빌의 저택으로 갔다. 전날 밤에는 피뜩 만났을뿐이므로 자세한 이야기는 미처 할 사이가 없었던것이다.

뜨레빌은 기분상태가 매우 좋았다. 무도회에서 왕과 왕비는 그에게 전에없이 상냥했던것이다.

그는 밤 1시에 몸이 불편하다는 핑게를 대고 무도장에서 나와버렸다. 왕과 왕비는 아침 6시에야 루브르궁전으로 돌아왔다.

《자, 그럼 이젠.》 뜨레빌은 누구 딴 사람이 없는지 방안을 구석구석까지 둘러보고나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럼 이젠 군의 이야기를 하자구. 전하와 왕비님께서 기뻐하시고 주교가 우거지상이 된것은 군이 무사히 돌아온것과 관계된다는것이 명백히 알리니만큼 군은 매사에 조심해야 하네.》

《제가 전하와 왕비님의 은총을 받으면 다지 뭘 주의한단 말입니까?》 다르따냥이 물었다.

《모든걸 주의해야지. 주교는 자기를 속여먹은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네. 이번 경우에 그 속여먹은 사람이란 내가 잘 아는 그 어떤 가스꼰뉴청년인것 같더란 말이네.》

《그럼 주교도 각하처럼 줄이 많아서 제가 런던에 갔던 일을 알고 있다는겁니까?》

《알다뿐이겠나! 군이 런던에 갔댔지? 군의 손가락에서 번쩍거리는 그 금강석반지는 런던에서 받은게 아닌가? 친애하는 다르따냥, 조심하라구! 원쑤의 선물은 좋은것이 못되네. 거 왜 라틴어로 된 시도 있지 않나. … 거 뭐랬더라. …》

《예예, 있지요.》 라틴어문법의 초보도 외우지 못하여 선생을 절망에 빠뜨렸던 다르따냥이 대답하였다. 《틀림없이 그런 시구가 있었던것 같은데…》

《분명 있다니까.》 문학에 취미가 있는 뜨레빌이 말하였다. 《언젠가 방스리드씨가 인용한적이 있었어. 가만… 옳지, 생각나는군! 〈선물을 안겨주는 원쑤를 경계하라.〉》

《각하, 이 반지는 원쑤에게서 받은것이 아닙니다.》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왕비님께서 저에게 주신것이지요.》

《왕비님께서! 저런!》 뜨레빌이 말하였다.

《그건 진짜 왕비님의 선물이군그래! 이 반지는 값이 적어도 천삐스똘은 나갈거야. 누가 전해주던가?》

《왕비님께서 친히 주셨지요!》

《어디서?》

《별실옆에 달린 서재에서요.》

《어떻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입을 맞추게 하시면서.》

《군이 왕비님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뜨레빌은 눈이 휘둥그래져서 다르따냥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다.

《왕비님께서 저에게 그런 영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분께선 너무 조심성이 없어. 너무 조심성이 없단 말이야.》

《안심하십시오. 각하, 누구도 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다르따냥은 뜨레빌에게 일이 벌어진 경위를 이야기하였다.

《아, 녀자들이란 참!》 늙은 병사는 부르짖었다.

《녀자들의 랑만적인 상상력은 참말 놀라운 정도라니. 신비에 둘러싸인 모든것에 매력을 느끼거던.… 그러니까 군은 손밖에 못 봤다는거지. 군은 먼 후날 왕비님을 만나도 누군지 모를게고 왕비님은 군을 봐도 누군지 모르겠구만.》

《하지만 이 금강석반지가…》

《이보라구.》 뜨레빌이 말하였다. 《내 한가지 충고를 하려네. 좋은 충고, 벗으로서의 충고를…》

《어서 말씀하십시오.》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당장 어느 보석상에게 가서 이 반지를 팔아버리게. 그쪽에서 값을 얼마 부르든 상관말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0삐스똘은 받을 걸세. 돈에는 이름자가 없지만 이 반지에는 이름자가 있네. 그걸 끼고다니다간 신세 망칠수 있는 무서운 이름자가 말이네.》

《이 반지를 팔다니요! 왕비님께서 주신 반지를!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보석이 안쪽으로 가게 끼게. 가스꼰뉴의 가난뱅이귀족이 자기 어머니의 보석함에서 그런 값진 반지를 들춰냈으리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을테니까 말이네.》

《그러니까 각하께서는 저에게 그 어떤 위험이 따르고있다는 말씀입니까?》

《똑똑히 들으라구, 젊은이. 도화선에 불이 달린 지뢰우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군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거네.》

《그럼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뜨레빌의 확신성있는 어조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하네. 주교는 기억력이 비상하고 검질긴 인간이야. 이제 꼭 앙갚음이 있을테니 두고보게.》

《어떻게 말입니까?》

《허, 난들 그걸 어떻게 알겠나. 그의 머리속에 어떤 계책이 숨어있는지는 누구도 몰라. 체포나 되는 정도면 그래도 약과인줄 알게.》

《아니! 전하께 복무하는 근위병을 체포한단 말입니까?》

《참 답답하군! 그럼 아또스는 왜 체포됐댔나? 한마디로 말해서 젊은 친구, 궁전에서 30년을 일해온 이 사람의 말을 믿으라구. 마음의 탕개를 지내 늦췄다간 군은 망하네. 어디 가나 원쑤가 따라다니는줄 알게.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피하라구. 상대방이 10살난 아이라고 해도 같네. 낮이건 밤이건 누가 달려들면 창피한 생각을 말고 달아나는게 좋아. 다리를 건늘 때에는 널판을 하나하나 잘 짚어보게, 어느 널판이 툴렁 밑으로 빠질수 있으니까. 새로 짓는 집옆을 지날 때에는 먼저 우를 잘 살피게, 돌이 떨어질수 있으니까. 밤늦게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든든히 무장한 하인을 데리고 다니게. 그것도 하인을 전적으로 믿을수 있는 경우에 말이네. 모든 사람을 경계하게. 친구도 형제도 애인도… 특히 애인을.》

다르따냥은 얼굴이 빨개졌다.

《애인을요!》 그는 기계적으로 되받아외웠다. 《내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애인을 더 경계해야 한다는건 무엇때문입니까?》

《애인이란 주교가 제일 좋아하는 수단이기때문이지. 그게 제일 효과적이거던. 녀자란 10삐스똘에도 군을 팔아먹을수 있는거네.》

다르따냥은 밤에 보나씨에부인과 만나기로 되여있다는것이 생각났다. 그러나 우리 주인공의 명예를 위해서 여기서 말해두거니와 녀자들에 대한 뜨레빌의 그와 같은 혹평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아름다운 녀주인을 꼬물만치도 의심할수 없었다.

《그건 그렇고.》 뜨레빌이 말하였다. 《군의 세 친구는 어디 있나?》

《저는 각하께서 혹시 그들에 대한 무슨 새 소식을 받으신게 없는지 물으려던 참이였습니다.》

《전혀 없네.》

《저는 그들을 가는 도중에 떨구었댔습니다. 뽀르또스는 결투를 하게 되여 샹띠이에 떨어지고 아라미스는 총알에 어깨를 상하여 끄레브께르에 떨어지고 아또스는 화폐위조자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아미맹에 떨어졌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뜨레빌이 말하였다. 《그래, 군은 어떻게 빠져나갔나?》

《기적이지요, 각하! 그야말로 기적이지요! 저는 가슴을 칼에 찔린 몸으로 와르드백작을 깔래도로바닥에 찔러눕혔으니까요.》

《저런 변이라구야! 와르드백작은 주교의 앞잡이이고 로슈포르의 사촌동생이란 말이네. 이보라구 친구, 내게 한가지 생각이 있네.》

《말씀해주십시오, 각하.》

《내가 군이라면 이렇게 하겠네.》

《어떻게 말입니까?》

《주교가 빠리에서 군을 찾느라 눈에 쌍심지를 켜달고있는 사이에 슬그머니 조용히 삐까르디에 도로 가서 세 친구의 안부를 알아본단 말이네. 그 사람들은 군에게 그만한 수고를 끼칠 자격이 있다고 보네. …》

《알겠습니다. 각하, 래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래일이라! 오늘 저녁은 왜 못 가나?》
《오늘은 빠리에 꼭 있어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아, 젊은이들이란 참! 무슨 딴 재미를 보자는거겠지? 내 다시말하는데 조심하라구. 녀자란 지난날에도 우리 남자들에게 파멸만 가져왔고 앞으로도 그럴걸세. 내 말을 믿고 당장 오늘 저녁으로 떠나게.》
《각하, 그건 안됩니다.》
《약속을 했는가?》
《그렇습니다, 각하.》
《그렇다면 할수 없지. 그렇지만 오늘 밤 군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래일은 떠나겠다는걸 내게 약속하게.》
《약속합니다.》
《돈은 필요없겠나?》
《제게 아직 50삐스똘이 있습니다. 그거면 넉넉할줄 압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그 친구들도 돈이 있을겁니다. 우리가 빠리를 떠날 때 각자가 75삐스똘씩 가지고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번 더 만날수 있을가?》
《다른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만나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럼 잘 다녀오라구.》
《고맙습니다, 각하.》
다르따냥은 총사들에 대한 뜨레빌의 어버이다운 관심에 깊이 감동되여 저택을 나왔다.
다르따냥은 아또스, 뽀르또스, 아라미스의 집들을 차례차례 찾아가보았으나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인들도 하인들도 무소식이였다.
다르따냥은 그들의 애인들을 찾아가 알아보고싶기도 하였으나 그는 뽀르또스의 애인도, 아라미스의 애인도 알지를 못하였으며 아또스는 애당초 애인이 없었다.
근위대병영앞을 지날 때 마구간을 얼핏 들여다보니 네필의 말가운데서 세필은 이미 와있었다. 쁠랑쉐가 한창 솔로 닦아주는중인데 두필은 거의 끝낸것 같았다.
《어이구, 오셨군요. 나리를 이렇게 보게 되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왜 그러나, 뻘랑쉐?》 다르따냥이 물었다.
《나리는 우리 집주인 보나씨에씨를 믿으시는가요?》
《내가? 절대로 안 믿어.》
《그렇다면 됐습니다, 나리.》
《그런데 왜 그런걸 묻는가 말이야?》
《나리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실 때 난 무슨 말인지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지만 두분을 계속 살폈지요. 그런데 나리, 그 사람 얼굴빛이 두세번 달라지질 않겠나요.》
《그렇단 말이지!》
《나리는 그 편지에만 정신이 가있다나니 미처 그걸 못 알아봤지만 난 그놈의 괴상한 편지가 우리 집에 날아든 일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하던차라 잠시도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있었지요.》
《그래 그 얼굴이 어떻던가?》
《배신자의 상판이더군요.》
《정말?》
《그뿐이 아니지요. 나리께서 그와 헤여져서 길모퉁이뒤로 사라지자 모자를 집어들고 문을 닫아걸고는 반대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자네 말이 옳은것 같아. 뻘랑쉐, 그 모든게 내겐 수상하게 생각되거던. 하지만 일없어. 죄다 명백해지기 전엔 집세를 안 물테니까.》
《나리는 그냥 롱담이지만 이제 두고보면 아시게 될겝니다.》
《별수가 있나.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나기마련인걸.》
《그러니까 나리는 오늘 밤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는겁니까?》
《그만두다니. 뻘랑쉐, 보나씨에가 괘씸해서도 난 자네가 그렇게도 신경을 쓰는 그 편지에 지적된 곳에 기어코 가야겠네.》
《글쎄, 나리의 결심이 정 그렇게…》
《확고하네. 친구, 그러니까 9시에는 여기 병영에서 차비를 하고있게. 내가 데리러올테니.》
뻘랑쉐는 주인의 마음을 돌려세우기는 코집이 틀렸다는것을 깨닫자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고 세번째 말을 닦아주기 시작하였다.
사실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성이 많은 다르따냥은 집으로 가지 않고 언젠가 네 친구가 궁출에 들었을 때 쵸콜레트로 아침 한끼를 대접해 준적이 있는 가스꼰뉴출신의 신부네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다.

제 24 장

정 각

9시가 되여 다르따냥이 근위대병영에 갔을 때 쁠랑쉐는 이미 준비를 다 갖추어놓고있었다. 네번째 말도 와있었다.

쁠랑쉐는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을 하였다.

다르따냥은 칼을 차고 권총 두자루를 허리춤에 찔렀다. 그들은 말을 타고 조용히 병영을 나왔다. 사위는 캄캄하여 누구도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쁠랑쉐는 주인과 열걸음쯤 거리를 두고 뒤에서 갔다.

다르따냥은 강안도로를 지난 다음 꽁페랑스문을 나와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왔던 쌩－끌루도로로 접어들었다.

시내를 가는 동안 쁠랑쉐는 자기를 위해 스스로 정한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였으나 길에 인적이 드물어지고 두리가 캄캄해지는데 따라 점점 주인에게로 가까이 다가들었다. 그리하여 불로니숲에 들어설 때에는 자연히 주인과 나란히 서게 되였다. 키높이 자란 나무우듬지들의 설레임과 무성한 숲속에 흘러드는 달빛에 간이 콩알만 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는다. 다르따냥은 자기 하인이 뭔가 심상치 못해한다는것을 감촉하였다.

《아니, 쁠랑쉐선생, 어째 그러십니까?》 그가 물었다.

《나리는 숲속이라는게 교회당 비슷한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째서?》

《도무지 큰소리로 말을 할수가 없으니 말이지요.》

《자넨 어째서 큰소리로 말을 못하는가? 무서워서?》

《예, 꼭 누가 우리 말을 들을것만 같거던요.》

《누가 우리 말을 듣는다! 그러나 친애하는 쁠랑쉐, 우리는 도덕에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건 하나도 없으니 아무도 우릴 시비하질 못하네.》

《그런데요, 나리.》 쁠랑쉐가 아무리 해도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지 말하였다. 《그 보나씨에라는 사람의 눈섭속에는 구렝이가 들어앉은것 같고 입술을 놀리는것도 마음에 안 들거던요.》
《이런 때 뚱딴지같이 보나씨에는 왜 생각하는건가?》
《나리, 사람이란 생각할수 있는걸 생각하는것이지 생각하기 싫은걸 생각하는게 아닙니다요.》
《쁠랑쉐, 그건 자네가 겁쟁이여서 그런게야.》
《나리, 조심성과 비겁성은 갈라보아야 합니다요. 조심성이란 고상한것이지요.》
《그러니까 자네는 고상하다 그 소리겠군, 쁠랑쉐?》
《나리, 저기 번쩍거리는게 뭘가요? 소총아가리같군요. 만일을 생각해서 머리를 수그려야 하지 않을가요?》
《하긴…》 다르따냥은 뜨레빌의 훈시가 생각나서 중얼거렸다.
《하긴 이 녀석 지껄이는 소릴 듣느라니 나도 떨려나는걸.》
다르따냥은 말을 속보로 내몰았다.
쁠랑쉐는 그림자처럼 주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여 즉시 그와 나란히 섰다.
《나리, 우린 이렇게 온밤 가야 합니까?》
《걱정말게. 쁠랑쉐, 자넨 다 왔네.》
《난 다 왔다는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나리는요?》
《난 좀더 가야겠네.》
《그럼 난 여기 혼자 남구요?》
《무서운가, 쁠랑쉐?》
《무섭긴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싶은건 밤날씨는 몹시 찰것이고 찬 날씨는 류마치스를 일으킬것이고 류마치스를 앓는 하인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그겁니다요. 특히 나리와 같이 날랜분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럼 좋네. 쁠랑쉐, 정 춥거들랑 저기 보이는 어느 주막엘 찾아가게. 그러되 아침 6시에는 문앞에서 날 기다리게.》
《나리, 난 나리가 아침에 주신 그 돈을 분부하신대로 먹고 마시는데 깨끗이 써버려서 언몸을 녹일만 한 돈 한푼 없습니다요.》
《반삐스똘을 받으라구. 그럼 래일 다시 만나세.》
다르따냥은 말에서 내려 고삐를 쁠랑쉐에게 던져주고는 만또로 몸을 감싸고 총총히 걸어갔다.

《이거야 어디 추워서 견디겠나!》 쁠랑쉐는 주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한시바삐 몸을 녹일 생각으로 교외 주막집들의 특징을 갖춘 한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한편 다르따냥은 좁다란 사이길로 접어들어 계속 걸음을 다그쳐서 쌩－끌루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중심거리로 가지 않고 성곽을 에돌아서 자그마한 외진 골목길에 들어섰다. 곧 정각이 나졌다. 매우 으슥진 곳이였다. 골목길의 한쪽에는 높다란 담벽과 그옆에 서있는 정각이 보이고 다른쪽에는 울바자에 가리워진 작은 정원과 그 안쪽에 있는 초라한 오막살이 한채가 있는것이 보였다.

드디여 약속한 장소에 왔으나 편지에는 신호를 하라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그냥 기다리기로 하였다.

사위는 죽은듯이 조용하여 마치도 수도에서 100리요쯤 떨어진 곳에 와있는듯 한 느낌이 들었다. 다르따냥은 피뜩 뒤돌아보고나서 울바자에 기대섰다. 울바자며 정원 오막살이너머 저쪽에는 짙은 안개가 광막한 공간을 뒤덮고있고 그속에서 빠리가 잠들어있었다. 천길나락같은 그 공허한 어둠속에서 흡사 지옥의 별인듯 밝은 빛이 몇군데 보일뿐이다.

그러나 다르따냥에게는 온갖것이 행복의 옷으로 단장을 하고 온갖 생각이 미소를 던지는것 같았으며 어둠마저도 밝은 빛으로 보였다.

밀회의 시간이 각일각 다가오고있었다.

이윽고 쌩－끌루의 종루에서 10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느릿느릿 울려퍼졌다. 밤의 대기속으로 신음하듯 웅글게 퍼져나가는 그 청동의 울림속에는 불길스러운 그 무엇이 있었다.

그러나 상봉의 시각을 손꼽아 기다리는 젊은이에게는 그 하나하나의 울림이 그저 아름답게만 들리는것이였다.

그의 눈길은 담벽옆의 정각에만 쏠리여있었다. 2층의 창문 하나를 내놓고 모든 창문들에 덧문이 닫겨져있다.

그 창문에서 부드러운 불빛이 흘러나와 담벽너머에서 바람결에 새들이 파르르 떨고있는 두세그루 보리수나무들을 은빛으로 물들이고있었다. 그 불빛 밝은 작은 창문안에서 아름다운 보나씨에부인이 그를 기다리고있을것이였다.

다르따냥은 달콤한 생각에 잠겨 참을성있게 반시간을 기다렸다.

쌩—끌루의 종루가 10시반을 알리였다.
그 종소리에 다르따냥은 어째선지 오싹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이제는 몸도 어지간히 얼었으니 어쩌면 순수 생리적인 현상인것을 심리적인 현상으로 착각했을수도 있을것이다.
그다음은 편지에는 시간이 11시로 되여있는것을 자기가 잘못 본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창문앞으로 가서 편지를 꺼내들고 불빛속에서 다시 읽어보았다. 아니, 잘못 본것이 아니였다. 시간은 정확히 10시로 되여있었다.
그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정적과 외로움이 저으기 불안을 자아내기 시작하였다.
11시가 되였다.
다르따냥은 걱정되기 시작하였다. 보나씨에부인에게 무슨 불쾌한 일이라도 생긴것이 아닐가?
그는 세번 손벽을 쳤다. 그것은 애인들이 흔히 쓰는 신호인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응대도 없다. 메아리마저 없다.
혹시 자기를 기다리다가 잠들어버린것이나 아닐가 원망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는 담벽에 다가가서 그것을 타고넘으려고 하였으나 새로 미장을 해서 발을 붙일수가 없었다.
문득 올려다보니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에 드러나보이는 나무 한그루가 가지를 담벽으로 내뻗치고있으므로 거기에 올라가 집안을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무 오르는것은 간단한 일이였다. 게다가 그는 이제 겨우 스무살이니 소학교때 익힌 솜씨도 아직 잊어먹지 않았다. 그는 단숨에 나무우로 기여올라가 창유리너머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무시무시한 정경에 다르따냥은 몸서리가 쳐졌다. 그 부드러운 불빛, 따뜻한 불빛에 엉망진창이 된 방안이 환히 드러나보였다. 창유리가 한장 깨여지고 나들문은 떨어져나갔다. 진수성찬을 차렸던듯싶은 식탁은 거꾸로 뒤집혀지고 병쪼각들과 발에 밟혀 짓이겨진 과일들이 방바닥에 널려있었다. 이 모든것은 방안에서 치렬한 란투가 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다르따냥은 그 끔찍스러운 수라장속에서 찢어진 옷들과 상보와 창가림에 묻은 피자욱까지도 보이는듯이 생각되였다.

다르따냥은 가슴이 활랑활랑 두방망이질을 하였다. 그는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왔다. 주변에 폭행의 흔적이 없는지 보고싶었다.

부드러운 불빛은 고요한 야음속을 여전히 비치고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의 발과 말발굽에 의하여 땅이 어지럽게 파헤쳐진것이 눈에 띄였다. 그뿐아니라 무른 땅에 마차바퀴자리까지 깊숙이 패여있었다. 그것을 보면 마차는 빠리쪽에서 정각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그길로 되돌아갔다는것이 알렸다.

마지막으로 다르따냥은 수색을 계속하던 끝에 담벽옆에서 찢어진 녀자장갑을 한짝 발견하였다. 장갑은 흙 한점 묻은데가 없이 생생하였다. 련인들이 녀자의 아름다운 손에서 앗아내고싶어하는 향기풍기는 장갑이였다.

다르따냥은 이마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고 가슴이 옥죄여들고 숨결이 가빠졌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나씨에부인은 집안이 아니라 맞은쪽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으니 이 집은 그 녀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것이라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또는 남편이 강짜를 부려서 빠리에 갇혀있을수도 있다고 자기를 위안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추측은 그의 마음속 불안감으로 하여 산산이 깨여지고 부서지고 뒤집혀졌다. 대참변이 일어난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르따냥은 미치다싶이 되였다. 그는 큰 길로 나가 아까 지나온 길을 되짚어 나루터로 달려가서 사공에게 물었다.

사공은 저녁 7시쯤에 검은 만또를 쓴 녀자 하나를 건네준 일이 있노라고 하였다. 그쪽에서 너무도 남들의 눈을 피하는것 같기에 자기는 더더욱 세세히 여겨보았는데 젊고 아름다운 녀자더라는것이였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사람들의 눈을 기이면서 쌩－끌루에 다니는 젊고 아름다운 녀자들은 많았지만 다르따냥은 배사공이 보았다는 그 녀자가 다름아닌 보나씨에부인이라고 확신하였다.

사공의 집에서 다르따냥은 등불빛에 다시한번 보나씨에부인의 편지를 읽어보았다. 정확하였다. 장소는 쌩－끌루에 있는 에스뜨레의 정각 맞은켠으로 되여있었다.

이 모든것은 그의 예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으며 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것을 증명해주었다.

그는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보았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정각에서 새로운 일이 생겼을수 있고 그러면 무슨 실마리가 잡힐수 있는것이였다.

골목길은 여전히 인적이 없고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변함이 없었다.

문득 그는 정원 안쪽에 있는 오막살이에 생각이 미쳤다. 거기서는 틀림없이 본것이 있을것이며 뭔가 말해줄수도 있을것이였다.

삽짝문이 걸려있으므로 그는 울바자를 넘어 개짖는 소리는 아랑곳없이 오막살이로 다가갔다.

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응대가 없다. 오막살이안은 정각과 마찬가지로 쥐죽은듯이 조용하다. 그러나 이 집이 마지막희망이였으므로 계속 두드렸다.

이윽고 안에서 가벼운 소음이 들렸다. 누가 들을세라 극력 조심하는것 같은 소리였다.

다르따냥은 문두드리는것을 그만두고 사정하기 시작하였다. 빌다싶이 간절히 애원하였다. 드디여 반나마 고삭은 덧문이 방싯이 열렸다. 그러나 방구석에서 타는 작은 등잔불이 다르따냥의 허리띠며 칼, 권총들을 희미하게 비치기 바쁘게 문은 도로 닫겨버렸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다르따냥은 로인의 머리를 가려보았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시오.》 그는 말하였다. 《난 지금 한사람을 기다리는중인데 그가 보이지 않아 걱정스러워 그럽니다. 혹시 이 어방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창문이 다시 천천히 열리면서 아까 그 얼굴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창백하였다.

다르따냥은 이름만은 밝히지 않고 로인에게 죄다 솔직하게 말하였다. 자기는 어떤 젊은 녀자와 정각부근에서 만나기로 되여있었다는것, 기다리다못하여 나무에 올라가보니 집안이 수라장이 되였더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로인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주의깊이 듣고있더니 다르따냥이 이야기를 마치자 일이 재미없다는듯이 설레설레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르따냥은 다급히 물었다. 《말씀 좀 해주시오!》

《여보시오.》 로인은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시오. 내가 본걸 그대로 다 말했다간 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뭔가 보았다는거지요?》 다르따냥은 물었다. 《그렇다면…》 다르따냥은 그에게 한삐스똘을 던져주면서 말하였다.

《말 좀 해주시오. 본대로 죄다 말해주시오. 내 귀족으로서 약속합니다만 당신의 말 한마디한마디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로인은 다르따냥의 진정한 슬픔이 어린 얼굴표정에 감동된듯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9시쯤 되였을가 거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난 무슨 일인가해서 문께로 다가가보았더니, 글쎄 웬 사람이 우리 집 정원엘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난 원래 가난뱅이라 도적맞힐 물건도 하나 없는지라 문을 활짝 열어주었지요. 그런데 보니 몇걸음앞에 세사람이 서있겠지요. 어둠속에 말을 메운 마차가 보이고 그밖에 또 말 세필이 보이고요. 그 세필 말은 귀족의 차림을 한 그 세사람의것인가 보더군요. 〈여러분, 무슨 일때문이신가요?〉 내가 물었지요.

〈당신 집에 사다리가 있을텐데?〉 우두머리인듯 한 사람이 말하더군요.

〈예, 파일을 딸 때 쓰는게 있지요.〉

〈그걸 우리한테 내주오. 당신은 안으로 들어가오. 한에뀌를 받소. 당신에게 폐를 끼친 값이요. 단지 명심할건 당신이 보고 들은걸 한마디라도 떠벌여댈 땐— 내가 아무리 업포를 놓아도 당신은 죄다 엿보고 엿들을테니까— 그땐 마지막인줄 아오!〉 이러면서 그 사람은 내게 돈을 던져주고는 사다리를 가지고 가더구만요. 그들이 가자 나는 삽짝문을 닫아걸고 일단 집안으로 들어왔다가 뒤문으로 도로 나왔지요. 그다음 어둠속으로 해서 몰래 딱총나무뒤에 가 숨었지요. 거기서는 아무도 모르게 죄다 볼수 있었습니다.

세사람은 마차를 소리가 안 나게 가까이 끌고오더니 안에서 웬 사람을 하나 내리워놓더구만요. 작달막한 키에 살집이 좋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허름한 검정옷을 입은 사람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조심 사다리를 올라가 가만히 방안을 들여다보더니 도로 내려와서 소곤거리더군요.

〈그년입니다.〉

좀전에 나하고 말하던 그 사람이 즉시에 그 집으로 다가가더니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디다. 그러는새에 다른 두사람은 사다리로 올라가구요. 늙은이는 마차문앞에 남고 마부는 마차에 메운 말들을 붙들고있고 하인은 다른 말들을 붙들고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요란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녀자가 창가로 달려와 창문을 열어제끼더구만요. 밑으로 뛰여내릴 생각이였던것 같은데 창밖에 있는 두사람을 보자 도로 뒤로 물러서고 두사람은 방안으로 뛰여들더구만요.

그이상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가구들이 마사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녀자가 사람살리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 소리도 인차 잠잠해집디다. 세사람은 창문께로 다가오더구만요. 그가운데 두사람이 녀자를 안고 사다리를 내려와 마차에 태우더군요. 늙은이가 뒤따라 마차에 오릅디다. 방안에 남은 사람은 창문을 닫고 인차 문으로 해서 나오더구만요. 다른 두사람은 이미 말에 올라 그를 기다리고있었지요. 그 사람이 녀자가 마차안에 있는가 하는걸 확인하고나서 말에 뛰여오르고 하인이 마부옆에 자리를 잡고 앉자 마차는 세사람에게 호송되여 쏜살같이 달립디다. 이게 전부웨다. 그다음 난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무서운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다르따냥은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서있었다.

분노와 질투의 두 악마가 그의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고있었다.

《나으리.》 젊은이의 말없는 절망이 고함이나 눈물보다 오히려 더 큰 감명을 불러일으킨듯 로인은 말하였다. 《너무 상심 마시오. 그 사람들이 그 녀자를 죽인건 아니니 중요한건 그게 아니겠나요.》

《당신은 그 우두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슷이라도 모르겠습니까?》 다르따냥은 물었다.

《거야 모르지요.》

《하지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했다니 얼굴을 보았을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생김새를 묻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큰 키에 몸은 여위고 얼굴이 검실검실하고 코수염도 눈도 까만데 외양을 보면 귀족입니다.》

《그럴테지.》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그놈이야! 또 그놈이야! 내게 붙어다니는 그놈의 마귀를 그저! 또 다른 사람은요!》

《어느 사람 말인가요?》

《땅딸보요.》

《예, 그 사람은 량반이 아닙니다. 내 장담합니다. 그 사람은 칼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막 대하던데요.》
《하인쯤 되는게군.》 다르따냥은 중얼거렸다. 《아, 가엾기도 하지! 놈들은 그 녀자를 어떻게 했는가?》
《당신은 일체 말을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요.》 로인이 말하였다.
《다시한번 약속합니다. 안심하시오. 난 귀족입니다. 귀족은 한입 가지고 두말 하지 않습니다.》
다르따냥은 미여지는 가슴을 안고 다시 나루터로 향하였다. 때로 그는 로인이 이야기하던 그 녀자가 보나씨에부인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다음날 루브르궁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 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녀자에게 좋아하는 사나이가 또 있어 질투심 많은 그 련인이 덮쳐들어 끌고간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절망에 싸여 모대기였다.
《아, 이런 때 그 친구들이 곁에 있었으면!》 그는 웨쳤다. 그러면 하다못해 그 녀자를 찾아내리라는 희망이라도 가질수 있으련만!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였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는가.
12시가 되여오고있었다. 이제는 뿔랑쉐를 찾아내야 했다. 다르따냥은 조금이라도 불빛이 보이는 주막이면 모조리 돌아가며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뿔랑쉐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여섯집을 두드려보고나서 다르따냥은 자기가 공연한짓을 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에게 아침 6시에 자기를 기다리라고 일렀으니 그가 지금 어디에 가있건 그에게는 그럴만 한 당당한 권리가 있는것이였다.
게다가 사건현장가까이에 있게 되면 무슨 단서가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르따냥은 여섯번째 주막에 들어가 상등포도주 한병을 청해가지고 제일 으슥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거기에 모여든 직공하인, 짐마차군들이 서로 주고받는 롱질과 욕질을 통해서는 랍치된 녀자의 종적을 알만 한것은 아무것도 얻어들을수 없었다. 그는 무료하기도 하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사서도 안되겠으므로 포도주 한병을 다 마시고 자리를 편히 잡고 앉아 잠을 자는수밖에 없었다. 다르따냥은 나이가 스무살, 그 나이에는 아무리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잠이라는 악마는 막

을길 없는 힘으로 엄습해오는것이다.
　아침 6시에 다르따냥은 잠에서 깨여났다. 불안한 하루밤을 보낸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마음이 개운치 못하였다. 길차비는 간단하였다. 그는 잠든 사이에 도적이 맞힌것이 없나 하여 몸을 더듬어보았다. 반지가 손가락에 끼여있고 지갑은 호주머니에 있으며 권총도 허리춤에 그대로 있다는것을 확인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포도주값을 물고 밖에 나섰다. 아침이니 어제 밤보다는 하인을 찾기가 헐할것 같았다. 과연 누눅하고 뿌연 안개속에서 그가 맨처음 띄여본것은 어제 밤에 그를 찾아헤매던 때에는 설마하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쳐버린 초라한 주막집문앞에서 말 두필을 붙들고 서서 기다리고있는 충실한 하인 쁠랑쉐였다.

제 25 장

뽀르또스

　다르따냥은 곧추 집으로 가지 않고 뜨레빌의 저택앞에서 말을 내려 급히 층계를 뛰여올라갔다. 어제 밤에 있은 일을 사실그대로 죄다 말할 결심이였다. 이번일과 관련하여 유익한 조언을 받을수도 있을것이고 또 뜨레빌은 거의 매일이다싶이 왕비를 만나므로 그쪽선을 통하여 왕비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시녀에 대한 소식을 더러 알고있을수도 있는것이였다.
　뜨레빌은 매우 심각한 얼굴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그 일을 사랑문제보다 더 심중한 그 어떤 문제로 보는것 같았다.
　《흠…》 다르따냥이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말하였다. 《주교의 작간이 틀림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가요?》
　《어떻게 할게 없어, 당분간은 내가 이미 말한대로 한시바삐 빠리를 떠나는것밖에 방법이 없어. 난 왕비님을 만나 그 녀자가 잃어진 일을 세세히 말씀드리겠네. 왕비님은 물론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계시

네.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분께서 뭔가 좀 밝혀내실수도 있을것이니 군이 돌아올 때에는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줄수가 있을거네. 날 믿게.》

다르따냥은 뜨레빌이 비록 가스꼰뉴출신이기는 하지만 좀처럼 약속을 하는 일이 없다는것, 그러나 일단 약속을 하면 약속한것보다 더 많은것을 해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는 지난날과 앞날에 대한 감사의 정에 넘쳐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뜨레빌대장은 대장대로 이 용감하고 결패있는 젊은이가 대견스러웠던지 그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었다.

다르따냥은 뜨레빌의 충고를 즉시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려장을 꾸리려 포쑈아여르거리의 자기 집으로 갔다. 집앞에 이른 그는 보나씨에가 잠옷바람으로 문간에 서있는것을 보았다. 조심성 많은 쁠랑쉐가 어제 저녁 속이 검은 집주인을 두고 하던 말이 생각나서 각별히 주의깊이 그의 얼굴을 여겨보았다. 담즙이 피속에 흘러든듯이 병적으로 누런 얼굴외에도 얼굴의 주름살들속에는 무어라 말할수 없는 음험한 빛이 떠돌고있었다. 사기군이 성실한 인간처럼 웃을수 없고 위선자가 진실한 인간처럼 울수는 없는것이다. 허위란 하나의 가면이며 가면이란 제아무리 교묘하게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주의깊이 살펴보면 진짜가 아니라는것이 인차 알리는법이다. 그리하여 다르따냥은 보나씨에의 얼굴이 가면이라고, 그것도 더없이 추악한 가면이라고 보았다.

다르따냥은 역겨운 생각에서 말도 건네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전날처럼 저쪽에서 그를 불러세웠다.

《허허, 젊은이.》 그는 말하였다. 《간밤에 재미가 괜찮았던 모양이지요? 벌써 아침 7시란 말입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습관이 좀 이상해졌군요. 남들이 집을 나서는 시각에 돌아오니 말입니다.》

《당신으로서야 그렇게 비난할만도 하지요.》 다르따냥은 대꾸하였다. 《절제의 본보기니까요. 하기야 젊고 아름다운 부인이 있으면야 행복을 찾아 뛰여다닐 필요도 없지요. 행복이 제 발로 집에 굴러들테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보나씨에씨.》

보나씨에는 백지장처럼 얼굴이 하얘져서 이그러진 미소를 띠였다.

《허, 당신은 롱이 대단하군요!》 그는 말하였다. 《그건 그렇다 하고 젊은 친구, 당신은 간밤에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까? 보아하니

길이 몹시 험했던가본데.》
그 소리에 다르따냥은 진흙투성이가 된 자기의 장화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길은 우연히 잡화상의 신발과 양말을 스치였다. 그것들 역시 꼭같은 진흙이 게발려있었다.
순간 한가지 생각이 그의 뇌리에 번쩍이였다. 뚱뚱한 몸, 작달막한 키, 희슥희슥한 머리, 검은 옷, 하인 비슷하게 생겼으며 무장한 세 사람이 마구 대하였다는 그 사람은 다름아닌 보나씨에가 아닌가.
남편이 자기 처를 랍치하는 일에 앞장선것이다.
다르따냥은 와락 달려들어 목을 눌러주고싶었으나 워낙 침착한 청년이였던지라 꾹 참았다. 그러나 그의 낯색이 험상해졌던지 보나씨에는 그만 질겁을 하여 뒤로 물러서려고 하였으나 마침 닫겨진 문짝앞에 서있었으므로 길이 막혀 그 자리에 서있을수밖에 없었다.
《당신이야말로 롱말을 잘하시는군요.》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하지만 내 장화를 닦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당신의 구두와 양말역시 솔질이 요구되는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 당신도 딴 재미를 보려고 어딜 돌아다닌셈인가요? 당신의 나세에 그건 허용될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젊고 아름다운 부인이 있는분이…》
《원, 무슨 말씀을!》 보나씨에는 대꾸하였다. 《난 어제 하녀로 쓸 녀자를 하나 수소문하려고 쌩－망데엘 좀 다녀왔을뿐인걸요. 하녀가 꼭 필요해서요. 그런데 요즘은 길이 어찌나 험한지요. 거기서 묻혀가지고 온 진흙을 아직까지 털어버리지 못하고있지요.》
보나씨에가 다녀왔다고 하는 곳은 다르따냥의 의심만 더 질게 해주었을뿐이였다. 보나씨에가 쌩－망데라는 지명을 댄것은 거기가 쌩－끌루와는 정 반대되는 방향이였기때문이였다.
이러한 추측은 다르따냥에게 얼마간 위안으로 되였다. 만일 보나씨에가 자기 처의 행처를 알고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잡화상의 입을 열어 비밀을 털어놓게 할수 있을것이였다. 이제는 그 추측을 확신으로 만들어야 하였다.
《보나씨에씨, 좀 무례한짓 같습니다만》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밤을 새운 날 아침만큼 갈증이 나는 때는 없지요. 난 지금 물을 마시고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당신네 집에 들어가 물 한모금 마십시다. 이웃끼리 그쯤한거야 거절하지 않겠지요?》
다르따냥은 주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

침대를 재빨리 살펴보았다. 이부자리는 구겨져있지 않았다. 보나씨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은것이였다. 그는 한두시간전에 집으로 돌아온것이였다. 자기 처가 끌려가는 곳까지 함께 갔든가 아니면 적어도 첫 역관까지라도 따라갔다온것이였다.

《고맙습니다, 보나씨에씨.》 청년은 물을 꿀꺽꿀꺽 다 마시고나서 말하였다. 《이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이제는 방에 올라가서 쁠랑쉐를 시켜 장화를 닦아야지요. 원하신다면 내 장화를 닦은 다음 당신의 구두도 닦아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야릇한 인사말에 어리벙벙해서 서있는 잡화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와버렸다. 그가 나가자 잡화상은 자기가 혹시 잘못 둘러친것이나 아닐가 하고 생각하였다.

층계우에서 다르따냥은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있는 쁠랑쉐를 만났다.

《어이구, 나리.》 그는 자기 주인을 보자 소리쳤다. 《또 변이 생겼습니다. 난 나리를 기다리기에 목이 빠질 지경입니다.》

《대관절 무슨 일인데?》 다르따냥은 물었다.

《나리가 안계시는 사이에 누가 왔댔는지 짐작도 못하실겝니다.》

《언제말인가?》

《반시간전에요. 나리가 뜨레빌각하의 저택에 가계시던 때지요.》

《그래 누가 왔댔나? 빨리 말하라구.》

《까부아씨가요.》

《까부아씨가?》

《예 예, 그분이요.》

《주교의 근위대장 말인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날 잡으러 왔던가?》

《내가 보기엔 그런것 같은데 인상은 아주 달콤합니다.》

《인상이 달콤하더라구?》

《그럼요. 꿀 한가지더라니까요!》

《정말인가?》

《그는 말하기를 주교가 나리를 만나보고싶어하니 저택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나?》

《보다싶이 나리는 지금 안계시니 갈수 없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뭐라던가?》
《오늘 낮중으로 나리를 꼭 자기에게 보내달라구요. 그리고는 귀속말로 덧붙이더군요. 〈주인님에게 전하게. 주교님께서는 그를 매우 좋게 보신다고, 이번 기회에 출세의 길이 활짝 열릴수 있다고 말이네.〉 하고 말입니다.》
《주교답지 않게 연극이 아주 서툴군.》 다르따냥은 쓰겁게 웃었다.
《내가 보기에도 수가 얕은것 같아서 한마디 했지요. 나리가 돌아오시면 통탄할게라구요. 〈주인은 어델 가셨나?〉 하고 묻기에 〈샹빠니의 뜨루아에 가셨습니다.〉했지요. 그랬더니 〈언제 가셨는가?〉 하기에 〈어제 저녁에 가셨습니다.〉했지요. …》
《뿔랑쉐, 이 친구.》 다르따냥은 그의 말을 꺾었다. 《자넨 정말 보배덩이야!》
《나리, 만일 나리께서 까부아씨를 만나실 생각이라면 아무때건 내 말을 뒤집어엎고 아무데도 간적이 없다고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난 거짓말을 한것으로 되겠지만 까짓거, 나야 귀족이 아니니 거짓말을 한들 뭬랍니까.》
《마음놓으라구, 뿔랑쉐. 자네에게 거짓말쟁이딱지가 붙는 일은 없을테니까. 자, 15분후에 우린 출발이네.》
《나도 방금 어디로 가버리자고 말씀드리자던 참이였습니다. 비밀인지는 몰라도 우린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네가 까부아에게 말해준 거기와는 반대되는 쪽이지. 그리고 자넨 그리모랑 무슈끄똥이랑 바쟁의 소식을 한시바삐 알고싶을테지? 내가 아또스랑 뽀르또스랑 아라미스랑 어떻게 되였는지 알고싶은것처럼?》
《그야 물론이지요, 나리.》 뿔랑쉐는 말하였다.
《그래서 난 당장이라도 떠날 차비가 되여있는걸요. 내 생각에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시골의 공기가 빠리의 공기보다 좋을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뿔랑쉐, 짐을 꾸려가지고 떠나자는거야. 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맨손으로 먼저 걸어서 가려네. 우린 병영에서 만나자구… 그리고 참, 자네가 우리 집주인을 바로 본것 같아. 그놈은 정말 개놈이야.》

《그렇다니까요! 내 말은 틀리는 일이 없답니다. 난 관상을 보고 다 아니까요.》

약속한대로 다르따냥이 먼저 집을 나섰다. 그는 행여나 하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세 친구의 집에 들려보았다. 그들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고 다만 아라미스에게 잘고도 우아한 필체에 향수내까지 풍기는 편지 한통이 와있을뿐이였다.

다르따냥은 편지를 건사하였다. 10분후 뿔랑쉐가 마구간으로 왔다. 다르따냥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 제손으로 안장을 얹었다.

《됐어.》 뿔랑쉐가 짐을 안장에 비끄러매자 그는 말하였다. 《이제 나머지 세마리에게 안장을 지워가지고 떠나자구.》

《아니, 말을 두필씩 가진다고 걸음이 빨라질것 같아서 그럽니까?》 뿔랑쉐가 비양조로 말하였다.

《그런게 아니지요, 뿔랑쉐선생.》 다르따냥은 대꾸하였다. 《살아있는 세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 태워오자는거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뿔랑쉐가 말하였다. 《하지만 대자대비하신 하느님께서 굽어살피시겠지요.》

《아멘!》 다르따냥은 말에 오르면서 말하였다.

병영을 나오자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갔다. 몽다르뜨르문으로 해서 빠리를 벗어나 쌩－데니너머에서 만나려는것이였다. 이 전략적기동은 정확히 수행되여 성과적으로 끝났다. 다르따냥과 뿔랑쉐는 삐에르피뜨에 동시에 들어선것이였다.

뿔랑쉐는 밤에는 어쨌든간에 낮에는 용감하였다.

하지만 타고난 조심성만은 한시도 잃지 않았다.

그는 지난번 려행에서 있었던 재변들은 하나도 잊지 않고있었으므로 만나는 사람모두가 원쑤로 보였다. 그러다보니 그는 줄곧 모자를 벗어가지고있었으며 그것으로 하여 다르따냥에게서 호된 꾸중을 들었다. 뿔랑쉐의 그와 같은 지나친 례절로 하여 그의 체면이 깎일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행인들이 뿔랑쉐의 사교술에 매혹되였던탓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매복이 없었던탓인지 그들은 샹띠이에 무사히 도착하여 지난번 려행때 들었던 그랑 쌩 마르땡려관으로 갔다.

려관주인은 청년과 두필의 예비말을 가진 하인을 보자 문간에서 정중히 맞이하였다. 이미 11리요나 되는 거리를 달려온 다르따냥은 뽀

르또스가 거기에 있건없건 우선 쉬고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또 오자마자 뽀르또스에 대하여 물어본다는것도 신중치 못한 행동인것 같았다. 이렇게 판단한 다르따냥은 말을 하인에게 맡기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채 외딴 방으로 들어가 제일 좋은 포도주와 훌륭한 식사를 청하였다. 아침을 청하는 본새가 손님을 처음 보는 순간에 느꼈던 주인의 존경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그리하여 눈깜빡할 사이에 아침상이 다르따냥앞에 차려졌다.

근위병들은 일류급의 귀족들속에서 뽑았으므로 하인을 거느리고 훌륭한 말 네필을 가진 다르따냥은 비록 제복은 수수하지만 이채를 띠지 않을수 없었다. 주인이 직접 그의 시중을 맡아나섰다. 그렇게 되자 다르따냥은 잔을 두개 가져오게 하고는 말을 걸었다.

《주인장.》 그는 잔 2개에 포도주를 따르면서 말하였다. 《난 제일 좋은 포도주를 청했더랬는데 만일 날 속였다면 녹아날건 당신이라는걸 똑똑히 알아두시오. 난 혼자서는 못 마시는 성미여서 당신이 함께 마셔줘야 하겠으니까 말이요! 자, 그럼 듭시다. 어느쪽도 섭섭치 않게 하자면 무엇을 위해서 마셔야 할가요? 그렇지, 당신네 려관의 번창을 위해서 마십시다.》

《황송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말하였다.

《황송할것까지는 없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이 축배속에는 내 리속이 더 많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흥하는 려관에서는 접대가 좋고 쇠하는 려관에서는 뭐나 다 뒤죽박죽이고 길손들은 주인의 희생물이 되는 법이지요. 그래서 나는 노상 나다니는 사람으로서, 그것도 주로는 이 길로 많이 다니는 사람으로서 려관들이 번창할것을 바라게 되는겁니다.》

《듣고보니 난 당신을 전에도 본것 같은 생각이 드는걸요.》

《그럴수밖에요! 난 거의 여라문번 샹띠이를 지나다녔는데 그가운데서 적어도 서너번은 당신네 려관에 들었댔으니까요. 가만 있자. … 그렇지, 한 열흘전에도 왔댔는걸요. 총사로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요. 생각나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친구 한사람이 낯도 코도 모르는 웬 녀석이 먼저 건드리는 바람에 서로 칼싸움을 벌렸지요.》

《예 예, 옳습니다!》 주인은 말하였다. 《그 일이 똑똑히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뽀르또스나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장, 그 친구에게 무슨 불쾌한 일이라도 생기지 않았는가요?》

《당신께서도 그 나리께서 길을 더 가지 못할 형편인걸 보았을게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만 그 친구는 인차 우리를 뒤따라오겠노라고 약속을 해놓고 종시 나타나지 않았으니 말이지요.》

《그분은 여기 계시는걸요.》

《뭐라구요, 여기 있다구요?》

《예, 우리 려관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모릅니다.》

《무엇때문에요?》

《돈 받을 일때문이지요.》

《공연한 걱정입니다. 그 사람은 빚을 깨끗이 갚습니다.》

《그렇다면 난 시름을 놓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숱한 빚을 지고있습니다. 그런데다 오늘 아침엔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뽀르또스나리가 자기에게 진 빚을 못 물게 되면 내게서 받아내겠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 리유는 내가 자기를 불러댔기때문이라는거지요.》

《그럼 뽀르또스가 상했다는겁니까?》

《그건 말씀드릴수 없군요.》

《왜 말할수 없다는겁니까? 그 친구 일이야 당신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요.》

《그렇지만 우리 처지에서는 아는것이라고 망탕 다 말해서도 안되거던요. 더군다나 혀바닥을 허투루 놀렸다간 죽을줄 알라고 나더러 을러메는판인걸요.》

《그럼 내 뽀르또스를 만날수 있겠습니까?》

《그야 어려울게 있습니까. 2층에 올라가 첫번째 방문을 두드리십시오. 두드리되 당신이라는걸 먼저 말해줘야 합니다.》

《나라는걸 먼저 말하라구요?》

《그럼요. 그러지 않았다간 큰일날수 있습니다.》

《내게 무슨 큰일이 생긴다는겁니까?》

《뽀르또스나리는 당신을 우리 집 일군인줄 알고 노해서 칼로 찌르거나 머리를 쏠수 있는겁니다.》

《당신이 그 친구를 어떻게 했기에 그럽니까?》

《돈을 물어달라고 했더랬지요.》

《아, 알만 하군요! 그 친구는 자기에게 돈이 없을 때 그런 말을 하면 골을 내지요. 하지만 내가 알기엔 그에게 돈이 있을텐데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지요. 우리 집에선 모든게 꼭 째여있어서 매주에 한번씩 결산을 하지요. 그래서 우린 주말에 계산서를 올렸던건데 그만 일이 안될 때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돈소리를 꺼내기가 바쁘게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문밖으로 내쫓는게 아니겠습니까. 하긴 전날밤 도박을 해서…》

《그 친구가 도박을 했다구요! 누구하고요?》

《그걸 누가 알겠나요. 길가던 어떤 나리님인데 그분이 한판 놀자고 청하더군요.》

《거기서 사달이 났군. 보나마나 그 친구 몽땅 날려버렸을겁니다.》

《나중엔 말까지도요. 그 손님이 떠날 차비를 할 때 보니 그의 하인이 뽀르또스나리의 말에 안장을 지우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서 어찌된 일인가고 물었더니 그쪽에서 대답하는 말이 싱겁게 남의 일에 삐치지 말라구요, 그건 자기 말이라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린 뽀르또스나리에게 제꺽 그 일을 알려드렸지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 같은 상놈들은 귀족의 말을 의심해서는 안된다, 귀족이 자기의 말이라고 했으면 그런줄 알라는게 아니겠습니까.》

《뽀르또스답군!》 다르따냥은 중얼거렸다.

《그래서 난》 주인은 뒤를 이었다. 《숙식비를 정 못 물겠으면 제발 나의 동업자인 〈애글도르〉려관주인한테로 옮겨가도록 선심을 써주십사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 려관이 나으니 여기에 그냥 있겠다는겁니다. 참으로 귀맛이 좋은 말씀이여서 난 더 우기지 않았지요. 그래서 난 그저 우리 려관에서 제일 좋은 지금의 방을 내주고 4층에 있는 깨끗한 방으로 올라가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했더니 그분은 말씀하기를 자신께서 사랑하시는 매우 지체높은 귀부인이 이제라도 찾아올수 있는데 그런 부인에게는 지금의 방도 너무 초라하다는게 아니겠습니까. 난 그분의 말씀이 리해는 되였지만 그냥 뻗쳤지요. 그분은 더 긴 말을 하지 않고 권총을 뽑아 탁자우에 놓더니 자기더러 딴 방이건 딴 려관이건 그 어디로 옮겨가라고 주제넘게 떠벌여대는 놈은 대갈통을 박산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겠지요. 이렇게 돼서 그분의 하인밖에는 누구도 그 방에 얼씬 못하지

요.》
《그럼 무슈끄똥도 여기 있다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떠난지 닷새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역시 매우 심기가 불편한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도중에 무슨 변을 입은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주인님보다 더 날래서 주인님을 위해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놓으니 그게 골치거리입니다. 부탁을 한대야 들어주지 않을걸 자기도 잘 아는지라 말도 않고 소용되는걸 가져가는판이거던요.》
《그럴겁니다.》 다르따냥이 대꾸하였다. 《난 이미전부터 무슈끄똥이 보기 드물게 충실하고 똑똑하다는걸 알고있었습니다.》
《그런건 난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충실하고 똑똑한 하인과 한해에 네번만 맞다들면 난 파산입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뽀르또스는 다 물어줍니다.》
《모르겠습니다. …》 주인은 미심쩍게 대꾸하였다.
《그 친구의 뒤를 돌봐주는 어떤 대단한 귀부인이 있는데요. 그 부인은 그쯤한 빚때문에 그가 단련을 받게 내버려두지는 않을겝니다.》
《내 짐작을 말씀드린다면…》
《무슨 짐작인데요.》
《짐작이 아니라 알지요.》
《뭘 안다는겁니까?》
《그저 아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지요.》
《뭘 확실하게 안다는겁니까?》
《그 귀부인이 누군가 하는걸 내가 안다 그 말씀입니다.》
《당신이요?》
《예, 내가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나리께서 딴데 가서 말이라도 내시면…》
《말하시오. 내 귀족으로서 약속하지요. 날 믿어서 후회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나리께서도 아시겠지만 사람이란 마음이 불안하면 별짓을 다하게 되지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다는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빚쟁이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한게 없

습니다.》
《그래서요?》
《뽀르또스나리님은 그 공작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편으로 부치라는거지요. 그분의 하인은 아직 돌아오기 전이였지요. 자신께서는 밖에 나갈수 없으니까 우리들에게 부탁할수밖에 없었지요.》
《계속하시오.》
《우편이란 절대로 믿을것이 못되여서 나는 편지를 우편으로 부치지 않고 마침 그때 빠리에 가기로 되여있던 우리 집 하인편을 리용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사람더러 편지를 공작부인에게 직접 전해드리라고 일러보냈지요. 그거야 편지때문에 그리도 마음쓰시는 뽀르또스나리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일이거던요. 안 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래, 나리께서는 그 귀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뽀르또스한테서 말로만 들었을뿐이지요.》
《그 공작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난 모른다니까요.》
《샤뜰래에 사는 검사의 부인이랍니다. 그 꼬끄나르부인은 나이가 적어도 쉰살은 잘되는데 아직까지도 강짜가 심하지요. 그리고 나로서 이상하게 생각되는건 귀부인이라면서 우르스거리에 산다는 그겁니다.》
《어떻게 그런걸 다 압니까?》
《부인은 편지를 받자 노발대발하면서 뽀르또스나리더러 바람쟁이라느니, 그분이 칼에 맞은것은 보나마나 어떤 녀자때문이라느니 하더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칼에 맞았는가요?》
《어이쿠, 내가 이거 무슨 소릴 했담!》
《뽀르또스가 칼에 맞았다고 했지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분께서는 나더러 그런 소릴 절대로 입밖에 내면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더란 말입니다.》
《어째서요?》
《어째서라니요! 그야 그분께서 상대방을 꿰창을 내주겠노라고 큰소리를 쳤더랬는데 일은 거꾸로 되였기때문이지요. 그렇게도 으

시댔지만 결과는 저쪽에서 그분을 꺼꾸러뜨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뽀르또스나리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분인지라 자기가 부상당한 일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단지 그 공작부인에게만 동정을 사려고 실토했을뿐이지요.》

《그러니까 그 상처때문에 누워있겠군요?》

《그렇지요. 얼마나 멋들어진 타격이였게요!》

《당신은 그들이 싸우는걸 봤습니까?》

《호기심이 나서 뒤따라가서 몰래 보았지요.》

《그래, 어떻게 싸우던가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두사람이 마주섰지요. 저쪽에서 공격을 하더군요. 얼마나 날쌘지 뽀르또스나리가 미처 막아낼 새도 없이 칼날은 벌써 그분의 가슴에 세치깊이로 들어박혔지요. 그분은 뒤로 벌렁 자빠지더군요. 상대방은 즉시에 칼끝을 그분의 목에 가져다대겠지요. 뽀르또스나리는 케가 글렀다는것을 알고 항복을 하더군요. 상대방은 그분의 이름을 묻습디다. 그래서 이름이 다르따냥이 아니고 뽀르또스라는것을 알자 그분을 부축해서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고는 말을 타고 가버리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르따냥을 노리고있었군요?》

《그런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그후 소식을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후로 난 그 사람을 한번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만하면 난 필요한걸 다 알았습니다. 뽀르또스의 방이 2층 1호실이라고 했지요?》

《예, 옳습니다. 우리 려관에서 제일 좋은 방이지요. 그동안이면 그 방에 열번도 더 손님을 들였을건데…》

《됐습니다, 안심하시오.》 다르따냥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뽀르또스는 꼬끄나르공작부인의 돈으로 다 물어줄겁니다.》

《아, 나리. 검사의 부인인지 공작부인인지 하는 그 부인이 자기의 돈지갑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될걸요. 부인은 뽀르또스나리의 부탁이며 배신행위에 이제는 신물이 난다면서 일전 한푼 안 보내주겠다고 딱 잘라매더라지 않습니까?》

《부인의 대답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까?》

《아니요. 우린 전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해드리면 그분께서

는 우리가 자기의 부탁을 어떻게 들어주었는가 하는걸 알아차릴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지금껏 그 돈을 기다리고있겠군요?》

《그래서 문제란 말입니다! 바로 어제 그분은 다시 편지를 썼는데 이번에는 그분의 하인이 우편으로 보냈지요.》

《당신은 그 부인이 늙고 못생겼다는거지요?》

《빠또의 말을 들어보면 적어도 쉰살은 되였고 영 못생겼다는겁니다.》

《그렇다면 마음놓아도 됩니다. 부인은 꼭 누그러질테니까요. 그리고 또 뽀르또스는 그렇게 많이는 빚을 지지 않았을게거던요.》

《많이 안 지다니요? 의사에게 물어줄 돈은 셈에 넣지 않고도 20삐스똘이나 되는데요, 허참! 그분은 씀씀이가 얼마나 헤픈지요. 호강스레 살아왔다는게 단박 알리던데요.》

《됐습니다. 애인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일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장, 걱정 말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대로 계속 잘 보살펴주시오.》

《나리께서는 그 부인이나 그분의 상처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분이 알면 날 죽여버릴것입니다.》

《떨지 마시오. 겉보기와는 달라서 실지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다르따냥은 이처럼 두가지 문제 즉 돈과 목숨에 대한 문제에서 주인을 다소 안심시켜놓고 층계를 오르기 시작하였다.

2층에 올라가니 복도에서 제일 두드러져보이는 문에 검은 잉크로 큼직하게 《1》이라고 씌여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다르따냥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제갈길이나 가라는 식의 거친 대답이 나왔으나 다르따냥은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갔다.

뽀르또스는 침대에 누워서 무슈끄똥과 한가로이 주패놀이를 하고있었다. 벽난로앞에서는 쇠꼬챙이에 꿴 꿩고기가 지글거리고 아궁이 량쪽구석에서는 두개의 쟁개비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토끼고기와 물고기료리냄새를 구수하게 풍기고있었다. 탁자와 장롱우에는 온통 빈병들이 빼곡 서있었다.

친구를 보자 뽀르또스는 기뻐서 환성을 지르고 무슈끄똥은 정중히 일어나서 다르따냥에게 자리를 내주고는 자기의 특별한 관심사로 되고있는 두개의 쟁개비를 보러 갔다.

《어이쿠, 군이로군!》 뽀르또스는 말하였다. 《어서 오게. 안됐네만 난 일어나지 않네. … 그런데.》 그는 저으기 불안한 표정으로 다르따냥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나?》

《못 들었는데요.》

《주인이 아무 말 안하던가?》

《난 주인에게 당신 방이 어딘가고 물어가지고 제창 올라온걸요.》

뽀르또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였다.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건가요, 친애하는 뽀르또스씨?》 다르따냥이 물었다.

《아, 글쎄 내가 적수를 세번 찌르고 네번째 타격으로 끝장을 내려던 참에 그만 돌에 걸려 자빠지면서 무릎을 접지르지 않았겠나.》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정말이라네. 그 건달놈으로서야 천만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난 그놈을 요정을 내버리는건데!》

《그래, 그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모르지. 혼쭐이 빠져서 꽁무니를 사리고말았지. … 그건 그렇고 다르따냥, 군의 일은 어떻게 됐나?》

《말하자면 무르팍때문에 당신은 자리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겁니까?》

《그런셈이지. 하지만 며칠 안있으면 일어날수 있어.》

《그런데 왜 빠리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갑갑해서 죽을지경이겠는데?》

《나도 그런 생각이야 있었지. 하지만 이 친구, 내 군한테 뭘 좀 털어놓을게 있네.》

《뭔데요?》

《다른게 아니고 방금 군도 말했다싶이 난 여기서 갑갑해 죽을 지경이라네. 호주머니에는 군한테서 받은 75삐스똘이 있겠다, 그래서 심심풀이로 려관에 든 귀족 한사람을 방으로 청해 한판 놀자고 했지. 그 사람은 찬성하더군. 그래서 75삐스똘은 나의 호주머니에서 그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넘어가고말았다네. 게다가 말까지 메워버

렸지. 그 이야긴 그만하고 군의 일은 어떻게 됐나?》
《락심할건 없어요. 뽀르또스씨, 만사가 다 잘될수야 없지 않는가요.》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속담에도 〈노름이 안되는 놈 사랑이 잘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사랑에서 지내 운수가 좋으니 노름이 안될수밖에 없는겁니다. 그러니 너무 윈심 쓰지 마시오. 그나저나간에 그 공작부인은 어떻게 된건가요? 당장 도와나서야 할 그 부인이 말이지요?》
《어떻게 될게 있나. 나야 사랑의 행운아니까…》 뽀르또스는 태연하게 말하였다. 《난 그 녀자에게 50루이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냈다네. 지금의 내 형편에서는 그만큼은 꼭 있어야겠기에 말이네.》
《그래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의 어느 령지에 가있는가부야. 회답이 없거던.》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이네. 회답이 없어. 그래서 난 어제보다 더 절절하게 써서 또 보냈다네. … 그건 그렇고,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 군의 이야기나 좀 들어보세나. 솔직히 말해서 난 군의 일때문에 은근히 걱정하던 참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친애하는 뽀르또스씨, 두루 보니 주인은 당신을 괜찮게 대해주는것 같군요.》
다르따냥은 끓는 쟁개비와 빈 병들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천만에!》 뽀르또스가 대답하였다. 《한 사나흘전에 그 뻔뻔스러운 녀석이 내게 계산서를 가지고오지 않았겠나. 난 그녀석을 계산서와 함께 문밖에 내쫓아버렸지. 그래서 난 지금 승리자로서, 일종의 정복자로서 이렇게 떡 버티고 앉아있는거라네. 언제 공격해올지 몰라 발톱까지 무장을 하고말이네.》
《그렇지만 당신은 이따금씩 기습전을 나가는것 같구만요.》 다르따냥은 병과 쟁개비들을 가리키며 웃으면서 말하였다.
《그건 내가 아니라네!》 뽀르또스는 대꾸하였다. 《망할 놈의 무르팍때문에 나야 까딱 움직일수가 없거던. 무슈끄똥이 주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량식을 끌어들이고있다네. 보다싶이 무슈끄똥이 이렇게 원병으로 와있으니 식량예비를 조성해야 하거던.》
《무슈끄똥.》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자네 내 청을 한가지 들어

줘야겠네.》

《무슨 청인데요, 나리?》

《우리 쁠랑쉐에게도 자네의 그 솜씨를 배워주라는거네. 나도 역시 봉쇄망속에 드는 신세가 될수 있지 않겠나. 그때에 자네가 지금 주인을 모시듯이 그가 나를 섬겨서 나쁠건 없을게거던.》

《별말씀을 다!》 무슈끄똥이 겸손하게 말하였다. 《거기에 특별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날쌔기만 하면 되는거요. 난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짬짬이 도적사냥을 했거던요.》

《아버지가 여느때는 무얼 하였나?》

《벌이가 괜찮은 일거리를 가지고있었지요.》

《어떤 일거린데?》

《구교도들과 신교도들이 전쟁을 하던 때의 일인데요. 량쪽이 자기들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피를 물고 싸우는걸 보자 아버지는 구교도로도 될수 있고 신교도로도 될수 있는 자기 식의 잡탕신앙을 궁리해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총을 메고 나서서 길가의 생울타리뒤를 어슬렁거리지요. 그러다가 혼자서 가는 구교도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머리속에는 즉시에 신교도의 신앙이 머리를 쳐들지요. 아버지는 총을 겨누고있다가 그 사람이 여라문발자국앞에 오면 말을 걸지요. 그렇게 되면 길손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돈지갑을 통채로 내놓게 된단 말입니다. 만일 신교도가 맞다들면 아버지는 구교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라서 어쩌다가 자기는 방금 15분전에 신교의 편에 섰던것일가싶어 스스로 놀라군 했던것은 두말할것 없지요. 자기의 신념에 충실한 아버지의 덕분으로 나는 구교도가 되고 형은 신교도가 되였다는걸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 존경할만 한 그 아버지는 어떻게 일생을 마쳤나?》

《비참하기 짝이 없는 종말이였지요. 어느날 아버지는 좁은 오솔길에서 신교도, 구교도들과 앞뒤로 맞다들게 되였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아버지한테 봉변을 당한 사람들이여서 아버지를 기억하고있었거던요. 그들은 한패가 되여 아버지에게 달려들어가지고는 나무가지에 매달았지요. 그다음 두사람은 가까운 마을의 객주집에 가서 장한듯이 그 일을 자랑했지요. 마침 거기서는 우리 형제가 앉아 마시고있었거던요. …》

《그래서 자네들은 어떻게 했나?》

《우리들은 그들이 지껄이는대로 내버려두었지요.》 무슈끄똥은 대답하였다. 《그랬다가 그들이 객주집에서 나와 제마끔 갈라져갈 때 형은 구교도가 가는 길목을, 나는 신교도가 가는 길목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시간후에는 만사가 끝났지요. 우리 형제는 각기 자기 할 바를 다했던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아버지의 선견지명에 얼마나 감복했는지 모릅니다. 만일을 생각해서 두 아들을 서로 다른 신도로 키웠으니 말입니다.》

《무슈끄똥, 자네 아버지는 정말 궁냥이 깊었던게 틀림없어. 그런데 자네 아버지가 여가에는 도적사냥을 했다지?》

《그럼요, 나리. 그리고 아버지가 덫을 놓고 낚시 던지는 법을 나에게 배워주었던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덜돼먹은 주인이 상것들이나 먹으면 먹었지 우리같이 밥주머니가 엷은 사람들은 도무지 삭여내지 못할 거친 음식들을 던져주기 시작하자 나는 슬그머니 옛날의 본업으로 되돌아갔지요. 왕세자의 수림속을 거니는척 하면서 덫을 놓고 못가에 숨어서 낚시를 던졌던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시다싶이 꿩이며 토끼며 잉어며 뱀장어 같은, 아무튼 병자에게 좋은 만문하고 영양이 좋은 음식들을 떨구지 않고있는겁니다.》

《그럼 포도주는?》 다르따냥이 물었다. 《누가 포도주를 대주나? 주인이?》

《뭐라고 해야 할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건 무슨 소린가?》

《주인이 대주는것이긴 하지만 그자신은 그런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무슈끄똥, 좀 자세히 말하게. 자네이야기는 아주 교훈적이거던.》

《그럼 이야기하지요. 나리, 언젠가 나는 려행을 하다가 우연히 에스빠냐사람을 만나게 되였지요. 세상구경을 많이 하였고 아메리카대륙에까지 가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니, 아메리카대륙이 탁자와 장롱우에 서있는 술병들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좀 참으십시오. 나리, 무엇이나 다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옳아. 무슈끄똥, 그럼 계속하게.》

《그 에스빠냐사람에게 메히꼬에 같이 따라갔던 하인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 그 하인은 나와 한고향이여서 우리는 인차 친숙해졌지요. 거기에다 우리는 성격도 매우 비슷하였습니다. 우리는 둘이 다 사냥을 제일로 좋아하였지요. 그래서 그는 거기 초원에서 토인들이 범이며 들소들을 잡는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그들은 보통의 올가미를 그 사나운 짐승들의 목에 던진다는것이였습니다. 처음에는 20～30걸음이나 되는 거리에서 그처럼 정확하게 바줄을 던진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인차 그것이 사실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지요. 그 친구는 서른걸음앞에 병들을 세워놓고 올가미를 던지는데 번마다 모가지를 딱딱 걸어채는게 아니겠습니까. 나도 열심히 련습을 했지요. 그래서 타고난 재간도 있겠다,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못지 않게 올가미를 던질수 있게 되였지요. 자, 이젠 리해됩니까? 우리 주인에게는 술이 그득그득한 광이 있는데 그는 열쇠를 절대로 몸에서 떼여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통기구멍이 있거던요. 그래서 그 통기구멍으로 나는 올가미를 던지지요. 나리, 탁자와 장롱우에 있는 술병들과 아메리카대륙사이에는 이런 관련이 있는겁니다. 자, 그럼 이젠 우리의 포도주를 맛보시고 감상이 어떤지 말씀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맙네, 고마워. 친구, 유감스럽게도 난 방금 아침을 먹었다네.》

《됐어, 무슈끄똥.》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우리 상이나 차리게. 우리들이 먹는 동안 다르따냥은 서로 보지 못하고 지낸 열흘동안에 자기가 겪은 이야기나 하라지.》

《그러지요.》 다르따냥은 대꾸하였다.

뽀르또스와 무슈끄똥이 회복기에 들어선 환자의 왕성한 식욕과 역경에 처한 사람들이 서로 느끼는 친근감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동안 다르따냥은 아라미스가 부상을 당하여 끄레브께르에 떨어지게 된 이야기, 아또스가 화페위조자의 루명을 쓰고 아미앵에 떨어진 이야기, 자기가 와르드백작을 꺼꾸러뜨리고 영국으로 갔던 이야기들을 차례차례 들려주었다.

하지만 다르따냥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중둥무이되고말았다. 그는 영국에서 훌륭한 말 네필을 가져왔는데 그가운데 한필은 자기것이고 나머지는 친구들의것이라는것, 뽀르또스의것은 이미 려관 마구간에 와있다는것을 말하였을뿐이였다. 바로 그때 쁠랑쉐가 들어와서 말들은 충분히 쉬였으므로 끌래르몽으로 떠나도 되겠다고 자기 주인에게 아뢰였다.

다르따냥은 뽀르또스에 대해서는 거의 마음을 놓을수 있고 나머지 두 친구가 어떻게 되였는지 한시바삐 알고싶었으므로 그의 손을 잡고 작별을 고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주일후에 다시 되돌아올테니 만약 그때까지 뽀르또스가 려관에 그대로 있는다면 그를 함께 데리고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뽀르또스는 그때까지 무릎이 낫지 못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게다가 그는 공작부인의 회답을 기다리기 위해서도 샹띠이에 남아있어야겠다고 하였다.

다르따냥은 그에게 하루빨리 기쁜 소식이 있을것을 축원하고 이미 말 한필을 덜어버린 쁠랑쉐와 함께 길을 떠났다.

제 26 장

아라미스의 론문

다르따냥은 뽀르또스에게 그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도, 공작부인에 대해서도 일체 말을 비치지 않았다. 우리의 가스꼰뉴청년은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는 허풍쟁이 뽀르또스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는체 하였다. 그는 그 어떤 우정도 비밀이 탄로나는것을, 특히 그 비밀이 자존심을 손상시킬 때에는 참지 못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게다가 우리는 그 누구의 생활을 환히 꿰뚫고있으면 언제나 그 사람보다 일정하게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다르따냥은 앞날의 정사를 계획하면서 아또스, 뽀르또스, 아라미스를 성공의 수단으로 삼기로 결심하였으며 자기의 세 친구를 조종할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줄들을 미리부터 걷어쥐는데 조금치도 반대가 없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 내내 하나의 모진 애수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있었으니 그는 젊고 아름다운 보나씨에부인을 줄곧 생각하게 되는것이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부언해야 할것은 그의 그 애수

는 놓쳐버린 행복에 대한 아수함보다도 가엾은 그 녀인에게 그 무슨 화가 미치지 않았겠는가 하는 불안때문이라는 그것이다. 그는 그 녀자가 주교의 복수의 희생물이 되였다는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는데 주교의 복수는 다 아는바와 같이 무시무시한것이였던것이다. 그는 어떻게 되여 자기가 주교의 호감을 사게 되였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으며 근위대장 까부아가 집에 있기만 하면 틀림없이 그에게서 그 원인을 알아낼수 있을것이라고 확신하고있었다.

사람이 집요하고 골똘한 생각에 잠겼을 때만큼 시간이 빨리 가고 길이 짧아지는 때는 없다. 그때에 사람은 외관상으로는 졸음에 취한것 같고 생각은 꿈 한가지다. 그래서 시간은 셈을 잃어버리고 공간은 원근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왔다, 이것이 전부다. 그 어간에 지나온 로정은 나무나 산, 들판의 어렴풋한 영상들이 너울거리는 희뿌연 안개밖에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러한 환각에 사로잡혀있다나니 다르따냥은 달리는 속도를 말의 결심에 내맡긴채 끄레브께르로부터 샹띠이까지의 예닐곱리요의 길을 갔으며 마을에 이르러서는 도중에 맞다든 모든것에 대하여 즉시에 다 잊어버렸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 고개를 쳐들던 그는 저번날 아라미스를 떨궈두고 갔던 주막집을 띄여보고 말을 속보로 내몰아 문앞에서 멈춰섰다.

이번에 그를 맞이한것은 주막주인이 아니라 안주인이였다. 다르따냥은 관상을 볼줄 알았다. 그는 안주인의 퉁투무레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일별하자 이 녀자와는 거짓을 꾸밀 필요가 없다는것을 대번에 깨달았다. 그처럼 무던한 외양을 한 녀자는 절대로 악할수가 없는것이였다.

《여보시오, 주인마누라.》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한 열흘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 친구 한사람을 여기에 남겨두고 갔더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수 없겠소?》

《곱게 생긴 젊은이, 나이가 스물세넷 되고 조용하고 삽삽하고 늘씬하게 생긴 그 사람 말이나요?》

《그밖에 또 어깨를 상했지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어데 있소?》

《나으리, 그 사람이야 여태 여기에 그대로 계시는걸요.》

《어랍쇼!》 다르따냥은 말에서 내려 뽈랑쉐에게 고삐를 던져주면서 부르짖었다. 《주인마누라, 당신이 날 살려주는구려! 그래, 내 친구 그 사람이 어디 있소? 난 그 친구를 안아보고싶어 그러오. 당신에게니 말이지만 난 그 친구를 한시바삐 보고싶어 못 견딜 지경이요.》

《안됐습니다만 나으리, 그 사람이 이런 시각에 과연 당신을 만나주겠는지 의심스러운데요.》

《그건 어째서? 그 친구한테 녀자라도 와있단 말이요?》

《맙시사, 무슨 그런 죄될 말씀을! 젊은이가 가엾기도 하지! 그런게 아니외다. 나으리, 그 사람한테 생뚱같이 녀자라니, 원.》

《그럼 도대체 누가 와있단 말이요?》

《몽디디에의 신부하고 아미앵수도원 원장이지요.》

《이거 큰일났군!》 다르따냥이 소리쳤다. 《그러니 그 친구 상처가 위독하다는거요?》

《그런게아니라 나으리, 정반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병을 앓고나서부터 원기를 되찾더니만 이제는 교직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데 있지요.》

《아, 그렇지.》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그 친구가 총사로 있는건 림시라는걸 내 그만 잊었댔군.》

《그러니 나으리는 그분을 기어코 만나야겠다는거나요?》

《한시가 급하오.》

《그럼 층계로 올라가서 오른쪽채 3층 5호실에 가보시우다.》

다르따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달려가자 층계가 나졌다. 지금도 오래된 주막집들에서 가끔 보게 되는 그런 바깥층계였다. 그런데 미래의 신부에게로 들어가는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아라미스의 방으로 가는 길들은 아르미드공원 못지 않게 경비가 엄하였다. 바쟁이 복도에서 파수를 서면서 어찌나 용맹스럽게 지켜섰던지 그는 다년간의 그런 시험을 거친 후 마침내는 자기의 숙망에 가까이 도달할수가 있었던것이다.

사실 바쟁은 언제나 성직자의 하인이 될것을 꿈꾸어왔으며 아라미스가 총사의 만또를 벗어던지고 법의를 입게 될 그 순간만을 늘 상상속에 그려보며 손꼽아 기다려왔던것이다. 그 순간은 가까이 왔다는 아라미스의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약속만이 그를 총사의 하인직에 붙잡아둘수 있었다. 바쟁의 말에 의한다면 총사의 하인으로 그냥 있다가

는 피할길 없이 신세를 망치게 된다는것이였다.
아무튼 바쟁은 지금 행복의 상상봉에 있었다.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번에 그의 주인은 자기의 약속을 저바릴수 없을것이였다.
육체적고통과 정신적고통의 결합은 학수고대하던 작용을 일으켰다. 몸도 마음도 동시에 괴로왔던 아라미스는 자기 신상에 겹쳐든 두가지 불행 즉 자기 애인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어깨의 상처를 하늘이 내린 징계로 간주하던 끝에 드디여 종교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이러한 정신상태에서는 바쟁에게 있어서 다르따냥의 출현보다 더 불쾌한것은 있을수 없었다는것은 알만 한 일이였다. 다르따냥은 그토록 오래동안 그의 주인이 휘말려들었던 세속의 소용돌이속으로 그를 다시금 끌어들일수 있는것이였다. 그는 사생결단하고 문을 지켜내기로 마음다지였다. 그런데 안주인이 이미 다 고자질을 한터에 아라미스가 지금 집에 없다고는 할수 없는 조건에서 나으리가 령혼을 구원하려고 한창 담론을 하고있는 때에 불쑥 뛰여들어 방해를 놓는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짓이라는것을 납득시키려고 꾀하면서 저녁때가 되기 전에는 끝날리가 만무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르따냥은 바쟁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감언리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자기 친구의 하인과 티각태각하기도 싫어서 그저 한 손으로는 그를 비켜치우고 다른 한손으로는 《5호》라는 패쪽이 붙은 문의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고 다르따냥은 방안에 들어섰다.
아라미스는 후렁후렁한 검은 옷에 승려들의 모자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둥그런 모자를 쓰고 종이두루마리들과 두툼한 책들이 한가득 쌓여있는 길다란 책상앞에 앉아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수도원원장이 앉아있고 왼쪽에는 몽디디에의 신부가 앉아있었다. 창문에는 휘장이 반쯤 쳐져있어 경건한 사색을 불러일으키기에 맞춤한 신비스러운 빛이 흘러들고있었다.
젊은 사람, 특히 젊은 총사가 거접하는 방에서는 의례히 눈에 띄게 마련인 물건들은 요술이라도 부린것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보매 그러루한 물건들이 보이면 자기 주인이 속세에 대한 생각에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가 두려워서 바쟁이 검과 권총, 깃털장식모자, 각종의 수예품, 레스들을 멀찌감치 감춘것 같았다.
그것들대신에 컴컴한 구석쪽벽에 어딘지 모르게 고문할 때 쓰는 채

찍처럼 보이는 웬 물건이 걸려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쳐들던 아라미스는 자기 친구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다르따냥이 깜짝 놀란것은 그가 자기의 출현에 별로 감동된것 같지 않다는 그것이였다.

《안녕한가? 다르따냥, 이 친구.》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군을 이렇게 보게 되니 난 정말 기쁘구만.》

《나도 같은 심정입니다.》 다르따냥이 대답하였다. 《내 눈앞에 보는게 아라미스씨가 옳은가 하는게 아직 미심쩍기는 합니다만.》

《나야 아라미스지, 틀림없는 아라미스라니! 그런데 그런 의심을 품게 된건 어째선가?》

《난 방을 헛갈렸나 해서 와뜰했더랬지요. 그래서 어떤 교직자의 방에 잘못 뛰여들었는가 했던건데 그다음에 여기 이 두분과 함께 있는것을 보고는 또 다른 착각을 일으켰지요. 당신이 중병에 걸린것만 같더란 말이지요.》

검은 옷차림의 두사람은 다르따냥이 무엇을 암시하는 말인지 알아차리고 사납게 노려보았으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혹시 내가 방해로 되는건 아닌가요, 아라미스씨?》 다르따냥은 계속하였다. 《가만 보니 당신은 두분앞에서 참회를 하는것 같은데.》

아라미스는 얼굴을 살짝 붉히였다.

《내게 방해가 된다구? 원 천만에, 정반대네. 친구, 맹세코 하는 말이네. 내 말이 진짜라는 증거로 건강하고 몸이 성한 자네를 보는 나의 기쁨을 표시할수 있게 해주게. …》

(이제야 알아맞혔군!) 다르따냥은 생각하였다. (그만해도 다행이지. 이보다 더 깊이 빠져들수도 있었거던.)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친구는 얼마전에 아슬아슬한 고비에 들었다가 겨우 벗어났던겁니다.》

아라미스는 두 성직자에게 다르따냥을 가리켜보이며 감동에 젖어 계속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 그렇다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겠군요.》

성직자들은 다르따냥에게 다같이 절을 하면서 대꾸하였다.

《난 이미 감사를 드린걸요, 여러분.》 다르따냥은 마주 절을 하면서 대답하였다.

《자넨 때마침 와주었네, 다르따냥군.》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군이 우리들의 론쟁에 한자리 끼여서 자기의 고견을 말해준다면 매우 고맙겠네. 아미앵수도원 원장과 몽디디에의 신부님 그리고 나— 이렇게 세사람은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관심을 끌어온 신학상의 일부 문제를 론하던중이라네. 그래서 군의 견해를 들어본다면 난 참으로 행복하겠네.》

《군인의 견해라는게 무슨 들을만 한게 있겠다구요.》 화제가 달라지는데 은근히 불안을 느낀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그러니 당신은 정말이지 이 두분의 해박한 지식을 전적으로 따르면 될것 같은데요.》

《아닐세.》 아라미스가 반박하였다. 《군의 견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금같이 귀중한것으로 될걸세. 론점은 뭐냐하면 수도원장님은 나의 론문은 대체로 교조적이고 훈계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게거던.》

《당신의 론문이라니요. 그러니까 당신은 론문을 쓴다는겁니까?》

《아무렴.》 아라미스는 대답하였다. 《승위를 받기에 앞서 시험을 쳐야 하니 론문은 꼭 필요한거네.》

《승위라!》 처음에는 주막 안주인의 말을, 다음에는 바쟁의 말도 안 믿었다. 다르따냥은 부르짖었다. 《승위라!》

그리고는 청천벽력같은 그 소리에 어리뻥뻥해져서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둘러보았다.

《말하자면》 아라미스는 저명한 귀부인의 침실에서 아침접견을 받는 사람과도 같이 안락의자우에서 우아한 자세를 고쳐취하고나서 피가 몰리지 않도록 쳐들고있는 녀자의 손처럼 희고 보동보동한 자기의 손을 홀린듯이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말하자면 다르따냥, 군도 방금 들었지만 수도원장님은 나의 론문이 교조적인것으로 될걸 바라신다는거네. 난 사변적인것으로 될걸 바라는데 말이네. 그래서 수도원장님은 아직 아무도 고찰한적이 없고 해석을 가할 여지가 (난 이걸 전적으로 인정하는바이네.) 보다 풍부한 주제—〈Utrague m̂anus in benedi cendo clericis inferio—ribus necess aria est…〉를 내게 권고한단 말이네.》

다르따냥이 어떤 박식가인가 하는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바이지만 그는 그 라틴어문구를 담담한 표정으로 다 들었다. 뜨레빌이 그가 끼고있는 금강석반지를 버킹함공작의 선물인줄로 알고 인용하던 라틴어문구를 듣던 때와 꼭같은 표정이였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라미스가 그의 리해를 도우려고 계속하였다. 《〈위계가 낮은 신부는 축복할 때 두손을 써야 한다.〉 이런거라네.》

《주제가 훌륭하지요!》 수도원장이 부르짖었다.

《훌륭하고도 교조적이지요!》 라틴어지식이 다르따냥만큼이나 깊었던 신부가 이렇게 긍정하고나서 수도원장을 빤히 지켜보았다. 그를 본따서 그의 말을 메아리처럼 받아외울 기회를 엿보는것이였다.

다르따냥으로 말한다면 두 성직자야 감동되거나말거나 그저 랭담하기만 하였다.

《그렇지요, 훌륭하고말고요. 더 이를데 없지요.》 아라미스가 계속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 성직자들과 성서에 대한 깊은 연구가 요구되거던요. 그런데 나는 학문이 깊은 두분 스님앞에서 공손히 인정합니다만 야간순찰이요, 궁중군무요 하면서 부득불 수업을 좀 게을리했거던요. 그래서 나는 마음에 드는 주제를 골라잡는것이 헐하겠단 말입니다. facilius natans(헤염치는자에게 헐하게－라틴어) 그렇게 힘든 신학문제들에 비하면 형이상학이나 철학에 비한 도덕과도 같은것으로 될만 한 그런 주제를 말이지요.》

다르따냥은 지루해서 못 견딜 지경이였다. 신부도 마찬가지였다.

《허두가 어떤가 말입니다.》 수도원장이 부르짖었다.

《허두가 어떤가 말입니다.》 신부가 무슨 말이든 한마디 께껴야 하겠으므로 이렇게 그의 말을 되받아외웠다.

《Quemadmoduminter Coelorum im̂m̂ensitatem̂》(무한대의 천국에 뛰여든것처럼)

아라미스는 다르따냥쪽에 눈길을 주다가 자기 친구가 턱뼈가 삐여져나가게 하품을 하는것을 보았다.

《우리 프랑스말로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원장님.》 아라미스는 말하였다. 《그러면 다르따냥씨는 우리의 이야기를 더 잘 평가할수 있을텐데요.》

《옳습니다.》 다르따냥이 받았다. 《난 먼길에 너무 지쳐서 라틴어가 통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군요.》

《좋도록 하지요.》 수도원장이 다소 실망하여 시들하게 말하는데 한편 신부는 너무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며 다르따냥에게 감사의 눈길을 던지고있었다.

《그럼 하던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구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수 있겠는지 봅시다. 보제는… 보제는 두손으로 축복을 하는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자기의 원쑤들을 격파하고있을 때 그는 자기의 두손을 받쳐달라고 요구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손으로 축복하는것이지요. 게다가 복음서에도 한손이 아니라 〈두손을 얹다.〉 라고 씌여있는것입니다.》

《두손을 얹는다 그겁니다.》 신부가 손으로 실지동작을 해보이면서 받아외웠다.

《그런가 하면 법왕들이 그 대리자로 되고있는 성자 베드로는 〈손가락들을 펴라.〉 고 가르침을 받고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알만 합니까?》

《알만 하고 말고요.》 아라미스는 이야기에 만족을 느끼면서 대답하였다. 《그런데 그가 매우 섬세하군요.》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수도원장은 되풀이하였다. 《성자 베드로는 손가락으로 축복을 합니다. 따라서 법왕도 역시 손가락으로 축복을 하지요. 그가 손가락 몇으로 축복할가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각각 하나씩— 그래서 세손가락이지요.》

모두 십자를 그었다. 다르따냥은 모두가 하는대로 따라하는수밖에 없었다.

《성자 베드로의 대리자 법왕은 세가지 신통력을 체현하고있고 그 나머지 낮은 급들은 대천사와 천사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제와 같은 제일 낮은 급들은 무수한 손가락들을 나타내는 귀얄을 가지고 축복하지요. 주제는 간단히 말해서 이런것입니다. 나라면 이 주제를 가지고 이만한 책 2권을 쓸겁니다.》 수도원장이 덧달았다.

그리고는 령감이라도 북받친듯 책상가운데가 무게를 못이겨 휘여져내릴만큼 부피 큰 책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다.

다르따냥은 흠칫 몸을 떨었다.

《물론 나는》 아라미스가 말을 뗐다. 《그런 주제의 매력을 인정은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내 힘에는 부친다는것을 고백하지 않을수 없군요. 난 다른 문구를 골라잡았습니다. 다르따냥군, 그게 군의 마음에 드는지 말 좀 해보라구. 다시말해서 〈주님에게 희생을 바치는자들이 다소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라는거네.》

《그만하시오!》 수도원장이 소리쳤다. 《그만하시오. 그건 이단이

나 갈소! 명심하시오, 젊은이. 당신은 사이비교리에 빠지고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자기를 망치고맙니다, 젊은이.》

《자기를 망치고말구요.》 신부가 자못 슬픈듯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받아외웠다.

《당신은 의지의 자유라는 그 치떨리는 문제를 건드리고있는데 그거야 악마의 유혹이지요.》

《그렇지만 원장님.》 아라미스는 자기에게 우박처럼 들씌워지는 론거들에 저으기 어리둥절해져서 또 입을 열었다.

《그대 주님에게 자기를 희생으로 바치고있는 당신으로서》 수도원장이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속세를 아쉬워한다는걸 어떻게 증명한다는겁니까? 〈하느님은 역시 하느님이며 속세는 악마이다.〉라는 말을 상기해보십시오. 속세를 아쉬워한다는것은 악마를 아쉬워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마지막결론은 이렇습니다.》

《나의 결론도 같습니다.》 신부가 말하였다.

《너무 이러지들 마십시오!》 아라미스가 또 말을 뗐다.

《악마를 아쉬워하다니, 불쌍도 하지.》 수도원장이 소리쳤다.

《악마를 아쉬워하다니! 아 젊은이, 악마를 아쉬워하지 마시오. 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신부가 신음하듯 말하였다.

다르따냥은 멍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는 자기가 정신병원에 와있으며 이미 완전히 미쳐버린 이 사람들처럼 자기도 금시 미쳐버릴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알아들을수 없었으므로 입을 다물고있을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아라미스가 점잖으면서도 짜증기가 다분히 섞인 어조로 말하였다. 《내 말은 내가 아쉬워한다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난 그런 말을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을것입니다. 그런 말은 진정한 신앙심에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수도원장은 두손을 하늘을 향하여 쳐들었다. 신부도 그대로 따라하였다.

《적어도 자기들이 실컷 먹다 남은것을 주님께 희생으로 바쳐서는 안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셔야지요. 다르따냥군, 내 말이 옳지 않은가?》

《아무렴, 옳다마다, 제길.》 다르따냥이 소리쳤다.

신부와 수도원장은 앉은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였다.

《이게 나의 출발점입니다. 이건 삼단론법으로 설명됩니다. 즉 속세는 매력을 잃지 않았다. 내가 속세를 떠난다는것은 결국 희생을 바치는것으로 된다. 성서에는 정당하게도 〈주님에게 희생을 바쳐야 한다.〉 고 씌여있지요.》

《거야 옳지요.》 론적들은 말하였다.

《그리고 또 나는》 아라미스는 아까 두손을 하얘지도록 쳐들고있던것처럼 이번에는 귀를 새빨개지도록 쥐여뜯으면서 계속하였다.

《그리고 또 나는 같은 주제로 론도를 지었습니다. 지난해에 부아뚜르선생에게 보여드렸더니 그 위대한 인간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댔지요.》

《론도라니, 원!》 수도원장이 경멸조로 말하였다.

《론도라니요!》 신부가 기계적으로 받아외웠다.

《한번 읊어보시오. 그걸 우리에게 읊어주시오.》 다르따냥이 소리쳤다. 《그게 어지간히 우리의 흥을 돋굴겁니다.》

《흥은 무슨 흥, 그건 종교적인 내용인걸.》 아라미스가 대꾸하였다. 《그건 시형식을 취한 신학이라네.》

《무슨 놈의 도깨비판인지!》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한번 들어보라구.》 아라미스는 지극히 겸손하면서도 저으기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였다.

너 이루지 못한 꿈을 통탄하며 슬퍼함이 웬말이냐
너 기쁨없는 운명을 이어감은 웬말이냐
너의 눈물을 조물주에게 바치는 그때
너의 슬픔은 끝이 나리니
너 슬퍼함은 웬말이냐

다르따냥과 신부는 북받치는 감격에 겨웠는데 수도원장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였다.

《신학의 글귀속에 숨은 속세의 악령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승려의 말은 준엄하니라.〉 라고 하셨지요.》

《훈계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신부가 말하였다.

《결국》 수도원장은 신부가 탈선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리고 서

둘러 끼여들었다. 《결국 당신의 론문은 고작해서 부인들의 마음이나 끌것입니다. 론문은 빠뜨류씨의 그 어떤 변론만큼이나 인기가 있겠지요.》
《저런 변 봤나!》 아라미스가 격하여 소리쳤다.
《그것 보시오!》 수도원장은 부르짖었다. 《당신에게서는 아직 속세의 목소리가 높거던요. 목청껏 울린단 말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은 친구, 속세의 인간이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과연 천복이 내려지겠는지 그게 걱정됩니다.》
《마음놓으십시오, 수도원장님. 내 일은 내가 책임질테니요.》
《속세의 자기 과신입니다.》
《수도원장님, 난 자기를 알고있고 나의 결심은 확고부동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한사코 그 주제로 작업을 계속하겠다는겁니까?》
《나는 다름아닌 바로 그 주제를 고찰하는것이 나의 천분이라는것을 느끼고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작업을 계속할것이며 당신께서는 래일이면 당신의 가르침대로 손을 댄 나의 수정작업에 만족을 느끼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작업을 하되 덤비지는 마시오.》 신부가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의 훌륭한 정신을 믿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수도원장이 말하였다. 《밭에 씨앗은 뿌려졌으니 씨앗이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거나 길바닥에 널리고 더러는 천국의 새들이 쪼아먹을가봐 우리가 걱정할건 아무것도 없지요.》
(두상태기, 그 뮟같은 라틴어랑 싹 걷어가지고 귀신한테나 물려가려무나.)
다르따냥은 기진맥진하여 생각하였다.
《그럼 나의 아들, 래일 또 봅시다. 안녕히.》 신부가 말하였다.
《래일 또 만납시다, 용감한 젊은이.》 수도원장이 말하였다. 《당신은 교회의 한개 홰불이 될것을 약속하시는데 하느님은 그 홰불이 탐욕의 불길로 되는것을 용서치 않으십니다.》
벌써 옹근 한시간째 조바심이 나서 손톱을 잘근잘근 깨물고있던 다르따냥이 이때는 손가락을 깨물기 시작하였다.
검은 법의를 입은 두사람은 일어서서 아라미스와 다르따냥에게 허리굽혀 절을 하고 문께로 향하였다.

처음부터 내내 거기에 서서 경건한 환희에 넘쳐 그들의 론쟁을 듣고있던 바쟁이 마주 달려나가 그들의 성서를 받아들고 정중히 앞서걸으면서 길을 틔워주었다.

아라미스는 그들을 바래려고 함께 층계를 내려갔다가 인차 다르따냥에게로 돌아왔다. 다르따냥은 아직도 멸떠름한 상태에 있었다.

단둘이 된 두 친구는 잠시 거북스러운 침묵을 지키였다. 그런데 누구든 침묵을 깨뜨려야 할것인데 다르따냥은 그 영광을 양보할 결심인듯 하므로 아라미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본바와 같이》 그는 말하였다. 《난 나의 고심이 어린 연구에로 되돌아갔네.》

《알만 합니다. 방금 그 어른도 말한것처럼 천복이 당신에게 내려진것 같군요.》

《속세를 버리려는 생각이 내게 떠오른지는 이미 오랬네. 군도 내게서 그런 말을 한두번만 들은게 아니지. 안 그런가, 친구.》

《듣긴 했지만 나는 롱담인줄만 알았지요.》

《그런 일도 롱담을 한다던가. 원, 사람두!》

《못할건 뭡니까! 우린 죽음을 가지고도 롱담을 하는걸요.》

《괜한짓이지. 다르따냥군, 죽음이라는건 파멸이나 구원에로 들어가는 대문이란 말이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발 신학론쟁은 그만둡시다, 아라미스씨. 당신이 방금전 론쟁에서 그만큼 얻어가졌으면 오늘 하루동안 새김질하기에는 충분할줄로 압니다. 나로 말하면 라틴어라는걸 언제 한번 알지도 못했거니와 몇마디 귀동냥한것마저 거의다 잊어버리고말았군요. 게다가 당신앞이니 솔직히 말합니다만 난 오전 10시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배가죽이 등에 가붙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차 점심을 하자구. 이 친구, 그런데 한마디 잊지 말아야 할것은 오늘이 금요일이니 이날에 난 고기를 입에 대지 않을뿐더러 쳐다보지도 않는다는거네. 만일 군이 내가 먹는것으로 만족하겠으면 사각형 지진것과 과일뿐이네.》

《사각형이라는건 또 뭘 말하는가요?》 다르따냥이 불만스럽게 물었다.

《그건 시금치를 말하는거지.》 아라미스는 대답하였다. 《좋아, 내 군을 위해서 점심상에 닭알을 더 올리도록 하지, 원래 이건 규칙을 심

히 어기는것으로 되지만. 닭알이라는건 앞날의 병아리니까 결국은 고기란 말이거던.》

《주연탁이 너무 호화롭긴 하지만 할수 없지요. 당신과 함께니 내가 양보할수밖에 없군요.》

《그 희생에 감사를 드리네.》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설사 그것이 군의 육체에는 리득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군의 령혼에는 의심할바없이 리득이 될거네.》

《그러니까 아라미스씨, 당신은 무조건 위계를 받겠다는겁니까? 그러면 우리의 두 친구는 뭐라고 하고 뜨레빌씨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도피분자라고 할것입니다.》

《난 위계를 받는게 아니라 거기로 되돌아가는거네. 만일 나를 도피분자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속세때문에 버린 교회와의 관계에서나 할 소리지. 군도 내가 울며 겨자먹기로 총사의 만또를 쓰게 된 이야기를 알지 않나.》

《모르는데요. 난 그런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그만두게 됐는지 모른단 말인가?》

《전혀 모릅니다.》

《그건 이렇게 된 일이라네. 성서에도 이르기를 〈서로서로 참회하라.〉고 했거던. 그래서 난 다르따냥군, 군앞에 참회하는셈이네.》

《난 미리부터 당신의 잘못을 벗겨드릴텝니다. 보시오, 내 마음씨가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신성한 일을 두고 롱을 하는게 아니라네, 친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들어봅시다.》

《난 아홉살때 신학교에 들어갔다네. 그때로부터 이러구러 세월은 흘러서 사흘후엔 내 나이 스무살이 되여 막 수도원장이 될판이였는데 그랬더면 아무 일도 없었을걸. 그런데 어느날 저녁 나는 여느때처럼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군 하던 어떤 집에 가있는데(어쩌겠나, 젊었는지라 약점을 드러냈지.) 내가 그 집 안주인에게 성인들의 전기를 읽어주는것을 늘 아니꼽게 지켜보군 하던 어떤 장교녀석이 아무 전갈도 없이 불쑥 방에 들어오더군. 나는 그날 저녁 마침 유지피의 이야기에서 한 대목을 번역하여 그 시를 나의 부인에게 읽어주던 참이였지. 부인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나의 어깨에 머리를 기울이고 나와 함께 시를 읽고있었거던. 그 자세가… 솔직한 말로 어지간히 방자스러

운 그 자세가 장교의 눈에 거슬렸던게야. 장교는 거기서는 아무 말도 없더니만 내가 밖에 나오자 뒤따라 나왔더군.

〈여보시오, 수도원장.〉 그는 나를 뒤쫓아와서 말하더군. 〈누가 당신을 몽둥이로 친다면 좋겠습니까?〉

〈여보시오, 그 물음에 난 대답할수가 없구만요.〉 내가 말했네. 〈지금껏 그 누구도 감히 나를 때릴념을 못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수도원장님, 앞으로 당신이 다시한번 오늘 우리가 만났던 그 집에 나타나면 그땐 내가 감히 매를 들것입니다.〉

난 보매 겁을 먹었던게야. 나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고 두다리가 후들거리더군. 나는 대답할 말을 찾았으나 종시 떠오르지 않아 입을 봉하고있었지.

장교는 그런 대답을 기다렸던지 내가 아무 말 못하는것을 보자 껄껄 너털웃음을 터뜨리고는 삑 돌아서서 도로 안으로 들어가더군. 난 학교로 돌아왔지.

난 진짜귀족이고 군도 알아차렸겠지만 피가 뜨겁다네. 모욕감은 무서운것이였네. 내가 모욕을 느낀것을 그 누구도 몰랐지만 나는 그것이 내 심장속 깊은 곳에 살아있으며 심장을 불태우고있다는것을 느꼈네.

나는 신부님들께 위계를 받기에는 아직 준비가 모자란다는것을 선포하였고 축복의 례식은 나의 청원으로 한해 뒤로 미루어졌다네.

나는 빠리에 있는 제일 뛰여난 검술교사를 찾아가 매일 그에게서 수업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네. 그래서 1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수업을 받았지. 그다음 내가 모욕을 당한 그날로부터 꼭 한해가 되는 날 나는 승복을 말코지에 걸어놓고 귀족다운 옷차림을 하고 내가 아는 어떤 부인이 주최하는 무도회에 갔지. 나의 적수도 거기에 올것은 뻔했거던.

아닐세라 장교는 왔더군. 나는 그가 한 부인을 정겹게 바라보며 한창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그 순간에 다가가 두번째 절 한중간에 끼여들었지.

〈여보시오.〉 나는 그에게 말했네. 〈말씀해주시지요. 당신은 아직까지도 내가 당신도 잘 아는 빠이앵거리의 그 집에 찾아가는데 반대이신가요? 당신은 아직까지도 내가 당신의 요구에 감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몽둥이찜질을 안길 작정이신가요?〉
장교는 놀라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네.
〈당신이 내게서 요구하는건 뭔가요? 난 당신을 모르겠는데.〉
〈그 새파란 수도원장 있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네. 〈성인들의 전기를 읽고 〈유지피〉를 번역하던 그 애숭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생각나는군.〉 장교는 비웃듯 히물거리며 말하였네. 〈그래, 당신은 뭘 바라는가요?〉
〈내가 바라는건 당신께서 짬을 좀 내서 나와 함께 거닐어주었으면 하는겁니다.〉
〈그게 정 소원이라면 래일 아침으로 합시다. 그때라면 내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가지요.〉
〈아니요, 래일 아침에 말고 지금 당장.〉
〈당신이 한사코 요구하신다면…〉
〈그렇습니다. 난 요구됩니다.〉
〈할수 없군요. 갑시다. … 숙녀 여러분.〉 그는 부인들에게 말하였네. 〈마음을 놓으십시오. 난 이 나으리를 제꺽 해치우고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절을 마저 불러드릴테니까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네. 난 그를 빠이앵거리로, 꼭 한해전 바로 그 시각에 그가 나에게 친절한 말을 해준(내 아까 이야기한 그 말 생각나지.) 바로 그 장소로 인도해갔지. 달빛밝은 아름다운 밤이였네.
우린 칼을 빼들었네. 난 한칼에 그자의 숨통을 끊어놨지. …》
《멋있군요!》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부인들은 자기들의 가수가 돌아오길 기다리기에 지쳐버렸지.》 아라미스는 뒤를 이었다.
《모두들 빠이앵거리에서 그가 칼날에 맞구멍이 뚫린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나의 소행이라는것을 알아차렸고 그 일은 일대 소동을 일으켰지. 그 일로 해서 나는 당분간 법의를 단념할수밖에 없게 되였던거네.
아또스와는 그무렵에 방금 사귄 사이였고 뽀르또스는 장검술수업의 여가에 몇가지 묘기술을 내게 가르치고있었네만 그 친구들이 총사의 만또를 입게 해달라는 상주문을 올리라고 날 설득시켰단 말이네. 국왕은 우라스포위전에서 전사한 나의 아버지를 몹시 귀애하셨거던. 그래서 이 만또가 나에게 하사된거라네. … 군도 이제는 내가 교회의 품

으로 돌아갈 때가 되였다는게 리해될거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좀더 일찍도 아니고 늦게도 아닌 바로 지금인가 그겁니다. 당신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무엇이 당신에게 그런 망칙한 생각을 불어넣었는가 말입니다.》

《다르따냥군, 이놈의 상처가 내게는 하늘의 징계로 생각되는것이네.》

《그 상처가요? 당치도 않은 말씀! 상처는 거의다 아물었고 내가 확신하는바에 지금 당신의 기본고통은 그것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때문인가?》 아라미스는 얼굴을 붉히면서 물었다.

《당신 심장의 상처때문입니다. 아라미스씨,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류혈적인 상처, 녀성이 입힌 상처때문이지요.》

아라미스의 눈이 불시에 번쩍거리기 시작하였다.

《걷어치우라구.》 그는 자기의 흥분을 무관심의 가면으로 감추면서 말하였다.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내가 실련을 당해서 속을 앓는다구! 어처구니없군! 군이 보기엔 내가 미친것 같나? 그것도 누구때문에? 내가 수비대에 있던 때 따라다닌적이 있는 그 무슨 녀직공이나 하녀따위때문에… 되지도 않을 소리!》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라미스씨. 하지만 난 당신이 그보다 높이 견줄줄 알았지요.》

《그보다 높이 견준다, 내가 그런 야심을 품을 재목이 되는가? 백수건달에다 아무 볼데도 없는 가난뱅이출신, 예속을 증오하고 사교계에 가면 자기를 개밥에 도토리처럼 느끼는 이 사람이.》

《아라미스씨, 아라미스씨!》 다르따냥은 믿어지지 않는듯이 친구를 바라보며 부르짖었다.

《나는 티끌로 돌아가려는거네. 생활은 모욕과 슬픔으로 가득 차있네.》 아라미스는 낯빛을 흐리며 계속하였다. 《생활을 행복에로 이어주는 실줄들은 인간의 손에 의해 하나둘 모조리 끊어져나가네. 특히 소중한 실줄들이 말이네. 아, 다르따냥.》 아라미스는 저으기 애수를 띤 목소리로 말하였다. 《내 말 들으라구. 군이 언제든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걸 극력 감추라구! 침묵—이건 불행한자의 마지막 기쁨이라네.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슬픔을 드러내보이지 말라구. 호기심 많은 인간들은 파리가 상처입은 노루의 피를 빨아먹듯이 우리들의 눈물을 빨아먹는다네.》

《허참, 이럴수가 있습니까, 아라미스씨.》 다르따냥이 제편에서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다. 《지금 당신은 내가 당한 일을 두고 이야기하는것만 같으니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그렇습니다. 난 내가 사랑하던 녀자, 우상처럼 받들던 녀자를 방금 랍치당했단 말입니다.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실려갔는지 모르고있습니다. 어쩌면 감옥에 있을수도 있고 또 어쩌면 죽었을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래도 군은 그가 군의 곁을 떠나는 갔지만 본의는 아니라는 위안이라도 있지 않는가. 그에게서 소식이 없다는건 군과 련계를 가지는게 금지되여있기때문이라는것을 알아야지. 비록… 내 경우는》

《당신의 경우라는건요?》

《아닐세, 아무것도 아니네.》 아라미스는 말하였다. 《아무것도 아니요. …》

《그러니까 당신은 이 세상을 영원히 포기한다는겁니까?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결심입니까?》

《영원한거네. 오늘은 군이 아직 나의 친구이지만 래일에는 한날 허깨비에 불과하거나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존재를 마친 인간일거네. 속세는 무덤구뎅이일뿐 그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야 어디! 당신은 온통 구슬픈 말씀뿐이군요!》

《할수 없지! 천분이 나를 인도해가는거네. 천분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는거네.》

다르따냥은 삐죽이 웃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라미스는 말을 이었다. 《내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있으니 둘이서 군과 우리의 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싶구먼.》

《그렇지만 나는》 다르따냥은 대꾸하였다. 《당신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싶은데 당신은 이미 세상만사와 너무도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사랑은 당신에게 경멸을 자아내고 친구들은 허깨비이고 세상은 무덤구뎅이고…》

《안타깝구만! 군자신이 차차 그걸 확신하게 될거네.》아라미스는 한숨을 지으며 말하였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버려두고 보나마나 당신의 그 녀직공이

든가 하녀가 또다시 배반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을것이 분명한 그 편지나 불태워버립시다.》

《편지라는건?》 아라미스가 재빨리 물었다.

《당신이 없는새에 날아왔고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편지가 나에게 있단 말입니다.》

《누구한테서 왔게?》

《모르지요. 눈물속에 세월을 보내는 어떤 하녀든가 가슴속에 재가 앉은 녀직공이든가… 혹시는 쉐브레즈부인의 하녀쯤 되겠지요. 그 녀자는 부인을 따라 부득이 뚜르로 돌아가면서 부디 위엄을 돋구느라고 향수 뿌린 종이에다 쓰고 공작의 문장이 새겨진 도장으로 봉을 했더군요.》

《군은 무슨 말을 하는건가?》

《아차, 야단났군! 아마도 내가 그걸 잃어버린게야.》 다르따냥은 편지를 찾는체 하면서 능청을 떨었다. 《세상은 무덤구뎅이이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녀자들도 다 포함해서 허깨비들이고 사랑도 당신 말마따나 구역질나는 감정인게 그래도 다행스럽지요.》

《아, 다르따냥군, 사람의 간을 작작 말리라구!》

《옳지, 있군. 이겁니다!》 다르따냥은 이렇게 말하면서 호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들었다.

아라미스는 후닥닥 일어나 편지를 와락 덮쳐서는 쭉 내리읽었다. 아니, 읽었다기보다는 통채로 삼키였다. 그의 얼굴은 환히 밝아졌다.

《보아하니 하녀들은 글재주가 보통이 아닌것 같거던.》 다르따냥은 짐짓 심드렁하게 말하였다.

《다르따냥군, 고맙네!》 아라미스가 기뻐서 날뛰며 부르짖었다. 《그 녀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뚜르에 돌아갔다누만. 그 녀자는 날 배반하지 않았거던. 그 녀자는 여전히 날 사랑한단 말이네! 이리 오라구, 친구. 이리 오라니까. 내 군을 안아보자구. 난 너무 행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야!》

이리하여 두 친구는 방바닥에 마구 널린 론문원고들을 사정없이 짓밟으면서 존대스러운 성 요한네스주위로 쿵당쿵당 춤을 추며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이때 바쟁이 시금치와 닭알부침을 들고 들어섰다.

《냉큼 달려가, 이 가련한것아!》 아라미스는 자기의 승려모자를 그

의 얼굴에 벗어던지면서 꽥 고함을 질렀다. 《방금 온 거기로 가란 말이야. 이 맛스러운 푸성귀랑 역스러운 닭알부침이랑 도로 갖다줘. 비지 넣고 곰한 토끼, 기름진 닭, 마늘을 둔 양고기볶음, 부르고슈의 오래 묵은 포도주 4병 제꺽 청해와.》

어쩌다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영문을 알수 없어 자기 주인을 멀거니 쳐다보던 바쟁도 맥나는듯이 닭알부침과 시금치를 마루바닥에 떨어뜨리고말았다.

《만일 당신이 왕중의 왕에게 〈Nan inutile destderium in oblatione〉인가 하는 그 매혹적인 일을 실행하고싶다면》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자기의 인생을 그에게 섬겨바치는데는 바로 지금이 안성맞춤이지요.》

《그런 알량한 라틴어도깨비한테나 가래! 자 마시자구, 친애하는 다르따냥군. 마시자구. 제기랄, 싫도록 마시면서 저쪽 형편이 어떤지 그거나 이야기해주게나.》

제 27 장

아또스의 안해

《이젠 아또스가 어찌 됐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다르따냥은 자기들이 떠나온 후 수도에서 있은 새 소식들을 자기에게서 죄다 듣고 쾌활해진 아라미스에게 진수성찬덕분으로 한사람은 자기의 론문을, 다른 한사람은 자기의 로독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였을 때 말하였다.

《과연 군은 그 친구가 무슨 변을 당했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는건가?》 아라미스가 이렇게 물었다. 《그렇게도 랭정하고 그렇게도 용감하고 그렇게도 칼쓰기에 능한 아또스가 아닌가 말이네.》

《옳습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거고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아또스의 용감성과 민첩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견해로는 검이란 차라리 창과 맞서도 맞설것이지 몽둥이와 맞설것이 아닌데 아또스는 노복들한테 뭇매를 맞지 않았겠는가 우려되거던요. 그것

들은 지독하게 싸워대는 족속들이여서 쉽게 손을 떼지 않는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바로 그렇기때문에 될수록 빨리 떠났으면 하는 겝니다.》

《나도 군과 함께 가도록 애써보겠네.》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내가 과연 말을 꽤 타내겠는가 하는게 미타하지만 말이네. 군도 어제 내 방벽에 걸려있는 채찍을 보았을테지만 어제 난 그걸 한번 써먹어보려고 했지만 너무 아파서 그놈의 훈련을 계속할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건 어째서인가 하면 말입니다, 아라미스씨. 그건 아직까지 아무도 총상을 채찍으로 고치려고 시도해본적이 없었기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당신은 병중이고 병이란 지력을 떨어뜨리거던요. 그러니까 난 당신을 리해합니다.》

《군은 언제 떠날텐가?》

《래일 새벽에요. 아무쪼록 오늘 밤 푹 쉬도록 힘써보시고 래일 상태가 허락하면 함께 갑시다.》

《그럼 래일 또 보세.》 아라미스는 말하였다. 《군은 몸이 쇠덩이 한가지지만 역시 잠이 요구될거네.》

이튿날 아침 다르따냥이 아라미스의 방으로 올라갔을 때 그는 창가에 서있었다.

《거기서 뭘 그렇게 내다보십니까?》 다르따냥이 물었다.

《저기 마부들이 고삐를 잡고있는 훌륭한 세필 말을 구경하는 중일세. 정말이지 저런 말을 타는 기쁨은 왕가들에게나 허용되겠지.》

《그렇다면 아라미스씨, 당신이 그 기쁨을 맡보십시오. 그중의 한마리는 당신의것이니까요.》

《무슨 꿈같은 소릴! 그래, 어느것이 내것이란 말인가?》

《아무놈이건 제일 마음에 드는 놈이지요. 난 아무것이나 가져도 됩니다.》

《지금 얹혀있는 저 값진 안장도 내것인가?》

《아무렴요.》

《군은 날 놀리는군, 다르따냥군!》

《당신이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난 더는 당신을 놀리지 않습니다.》

《저 금칠을 한 권총집이랑 비로도언치랑, 은장식을 한 안장이랑—

이게 다 내것이다?》

《당신것입니다. 그리고 발굽으로 툭툭 땅을 차고있는 저놈은 내것 그리고 갈갬질치는 저놈은 아또스의것이지요.》

《아, 세마리가 다 기딱막히게 훌륭해.》

《저것들이 당신의 기호에 맞는다니 난 정말 기쁩니다.》

《저것들은 아마 국왕전하께서 군에게 선물하셨겠지?》

《하여튼 주교만은 아닙니다. 이러나저러나간에 저 말들이 어디서 났는가 하는건 신경을 쓰지 말고 저가운데 한마리는 당신의것이라는 것만 알고계십시오.》

《난 빨간머리하인이 붙들고있는 저놈을 가질테네.》

《좋습니다!》

《장담하지만》 아라미스는 부르짖었다. 《내 저놈을 보니 아프던 게 싹 없어진것 같네! 저런 말이라면 난 몸에 총알이 서른개 박혀있어도 얼마든지 타낼거네. 아, 저 등자는 또 얼마나 멋있는가! 여 바쟁, 이리 오라구. 얼른!》

어깨가 축 처지고 잠에 취한 바쟁이 문가에 나타났다.

《내 칼을 닦고》 아라미스는 말하였다. 《모자를 손질하고 만또를 털고 권총들에 탄알을 재우라구.》

《그 마지막분부는 공연한것입니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당신의 권총집에는 장탄이 다 된 권총이 들어있는걸요.》

바쟁은 후 한숨을 지었다.

《그만하라구, 바쟁씨. 안심하라니.》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천국에 올라갈수 있는거라네.》

《우리 주인님은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였게요. 그분은 사교가 될수 있었고 잘하면 주교까지도 될수 있었거던요.》

《내 말 들어보라구, 바쟁. 잘 생각해보고 말해보란 말야. 글쎄 무엇때문에 교직자가 된단 말인가? 그런다고 전쟁을 싫어하게 되는건 아니거던. 이제 두고보면 알게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주교가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손에는 창을 들고 맨선참 전장에 뛰여들거야. 그럼 라발레뜨씨는? 그 역시 주교라면 그분의 종복한테 물어보라구. 그 사람이 주교에게 몇번이나 붕대를 감아줬는가고 말이야.》

《하긴…》 바쟁은 한숨을 지었다. 《나으리, 세상이 온통 거꾸로 뒤집히고만걸요.》

두 젊은이와 하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밑으로 내려갔다.
《내 등자를 잡아주게, 바쟁.》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특유의 우아하고 경쾌한 동작으로 안장에 뛰여올랐다. 그러나 말이 몇고패를 돌고 껑충거리자 기수는 상처가 얼마나 못 견디게 아파났던지 얼굴이 해쓱해지고 몸이 기우뚱하였다.
이것을 예견하여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있던 다르따냥이 달려가 붙들어주고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내 이럴줄 알았다니까요, 아라미스씨.》 그는 말하였다. 《치료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아또스를 찾는건 나 혼자 갈테니.》
《군은 청동을 부어넣은것처럼 끄떡없구만.》 아라미스는 대꾸하였다.
《뭘요, 나야 그저 운수가 좋을뿐이지요. … 그건 그렇고, 이제부터 내가 없이 당신은 어떻게 지낼텝니까? 세손가락이 어쩌니, 축복이 어쩌니 할일도 일체 없을거구요, 예?》
아라미스는 히죽이 웃었다.
《난 시나 쓸라네.》 그는 말하였다.
《알만 합니다, 알만 합니다. 쉐브레즈부인의 하녀가 보내온 그 편지처럼 향수를 듬뿍 친것 말이지요. 바쟁에게 작시법을 배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 마음의 위안을 얻을테니까요. 말에 대해서 말한다면 매일 조금씩 타보십시오. 그러느라면 당신은 다시 안장에 익숙될테니까요.》
《허, 그건 념려말라구!》 아라미스는 말하였다. 《군이 돌아올 때쯤이면 나도 임자들과 동행할수 있게 될테니까.》
그들은 작별하였다. 10분후 다르따냥은 아라미스를 바쟁과 안주인의 보호에 맡기고 아미앵으로 가는 길을 따라 말을 구보로 몰아가고 있었다.
아또스는 어떤 상태일지? 도대체 만나기나 하겠는지?
다르따냥과 헤여질 때 그의 상태는 막막하였다. 자칫하면 죽었을수도 있는것이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다르따냥은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으며 그는 몇번씩이나 한숨을 짓고 복수를 다짐하였다.
다르따냥의 세 친구들중에서 아또스는 제일 년장자였으며 그렇기때문에 기호나 취미로 볼 때 다르따냥과는 덜 가깝다면 덜 가까왔다. 그

렇지만 다르따냥은 다른 두사람보다 그를 더 존대하였다.
아또스의 고상하고 세련된 외모, 그가 흔히 잠겨들군 하는 그늘속을 이따금 밝게 비치는 정신적위엄의 섬광, 좌중을 천하에 둘도없이 유쾌한것으로 만들어주는 그 변함없이 한결같은 정신상태, 그의 야멸찬 익살, 만일 그의 희한하리만큼 보기 드문 랭정성의 결과라는것만 보지 않는다면 맹목적인것이라고도 할만 한 용감성—이 모든 특질들이 다르따냥에게서 존경심이나 친근감이상의 경탄을 자아냈다.
실지로 그는 중키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찌나 몸매가 날씬하고 그쯘하였던지 총사들속에 힘장사로 소문난 그 거인같은 뽀르또스와 겨루어 한두번만 이기지 않았던것이다. 날카로운 눈과 선이 곧은 코, 브루터스의 그것처럼 생긴 아래턱을 한 그의 얼굴은 위엄과 친절을 알릴듯말듯 띠는가 하면 아예 그의 관심밖의 두손은 자기의 두손을 편도비누와 향기로운 기름을 물쓰듯 하면서 끔찍이 돌보고있던 아라미스를 절망에 빠뜨렸으며 목소리는 웅심깊으면서도 음악적이였다. 그렇지만 무엇때문에 아또스가 눈에 띄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존재가 되려고 언제나 애쓰는가 하는것은 전혀 알수 없는 일이였다. 그것은 아마도 상류사회와 특권계층의 풍습을 손금보듯 알고있기때문일것이며 그의 일거일동에서 저절로 내비치는 훌륭한 교육의 영향때문일것이다.
가령 오찬을 차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또스는 매 손님들을 그들의 선조들이나 그들자신이 확보한 지위에 상당하는 자리에 모심으로써 상류사회의 그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베풀었다.
또 문장학으로 말한다면 아또스는 왕국의 모든 귀족들의 이름과 그들의 가계, 그들의 가정환경, 그들의 문장과 그 유래를 환히 꿰뚫고 있었다. 례의범절로 말한다면 그는 사소한 점에 이르기까지 모르는것이 없었다. 그는 대지주들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가를 알고있었으며 개사냥과 매사냥에 비상히 조예가 깊었다. 언젠가 한번은 매사냥의 명수로 알려져있는 루이13세와 사냥의 까다로운 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깜짝 놀래운 일도 있었던것이다.
당시의 모든 지체높은 고관대작들이 다 그러했듯이 그는 격검에 능하였으며 말을 타고 다녔다. 그뿐아니라 그가 받은 교육 또한 얼마나 다방면적이였던지 그 시절의 귀족들은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나 없었다. 추상적인 학문분야에서도 그는 지식이 깊었다.

그는 아라미스가 라틴어를 한마디 외우고는 장한듯이 우쭐하고 뽀르또스가 제사 다 알아들은듯이 너스레를 떨 때면 그저 히죽이 웃을뿐이였다.

아라미스가 무슨 문법상착오를 범하였을 때 그가 동사의 시칭을 바로잡아주고 명사의 격을 고쳐주어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도 두세번 있었다.

끝으로 그의 성실성은 흠할데 없는것이였다. 군인들은 신앙이며 량심을, 련인들은 지금 세월에는 그리도 엄격한 통제수단을, 가난뱅이들은 하늘이 정해준 계률을 희롱하는것쯤 우습게 알던 그 시절이였다. 한마디로 그는 매우 류다른 인간이였다.

그렇지만 그 세련된 성격, 고상한 존대, 세심한 두뇌가 마치도 늙은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육체적으로 쇠진하듯이 점점 세속에 기울어지는것을 볼수 있었다.

기분이 음울할 때면 (그것은 그에게 종종 있는 일이였다.) 그에게서 밝게 빛나던 모든것들이 꺼멓게 꺼져들어 그의 뛰여난 특질들은 짙은 어둠에라도 휩싸이듯이 자취를 감추어버리였다.

반신은 사라지고 인간만이 간신히 남았다. 아또스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서 개별적인 말마디들을 툭툭 힘겹게 던지면서 생기 잃은 눈으로 술병이며 고뿌 아니면 그리모를 몇시간이고 바라보는것이였다. 아또스의 매개 신호에 복종하기에 습관되였으며 자기 주인의 정기없는 시선에서 그의 사소한 요구라도 알아채기만 하면 즉시에 그대로 집행하는 그리모였다. 만일 그런 때 네 친구가 한자리에 모여앉게 된다면 그들의 공동의 이야기판에서 아또스가 맡는 몫이란 그가 가까스로 입에 올리는 말 두세마디가 전부였다. 그 대신 술은 네사람이 마실 량을 마시였으며 그러고도 도무지 마신 사람같지 않았다.

그저 미간이 찌프러지고 여느때보다 더 우울해질뿐이였다.

다르따냥의 캐여보기를 좋아하고 통찰력있는 머리는 이미 잘 알려진바이지만 그러한 그조차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고있었다. 그와 같은 극심한 랭담성의 그 어떤 원인을 찾아내거나 그것을 조장한 환경을 알아낼수 없었던것이다. 아또스는 언제 한번 편지를 받은 일이 없었으며 한번도 친구들이 미처 몰랐다고 할만 한 행동을 한적이 절대로 없었기때문이다.

그의 그와 같은 애수를 술때문이라고 볼것은 아니였다. 왜냐하면 그

는 오히려 애수를 이겨내기 위하여 마셨기때문이다. 술이라는 약은 우에서도 이미 이야기되였듯이 단지 그의 애수를 더욱 심화시켰을뿐이였다. 그와 같은 애수의 발작을 놀음탓으로 몰아붙일것도 역시 아니였다. 그 어떤 운명의 변덕에나 노래가 아니면 욕설로써 대답하는 뽀르또스와는 달리 아또스는 이겼을 때나 졌을 때나 매한가지로 심상하였다. 언젠가는 총사들속에 끼여앉아 하루저녁새에 1천삐스똘을 땄다가 그것을 금실로 수를 놓은 화려한 칼띠와 함께 몽땅 떼우고는 다시 또 그 모든것을 도로 찾은후에 100루이도르를 더 딴적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그의 아름다운 검은 눈섭은 한번 움씰하지도 않았고 두손은 자기의 진주빛갈을 잃지 않았으며 그날 저녁 즐겁게 벌어지던 이야기판은 의연 순조롭고 즐겁게 계속되였던것이다.

그의 얼굴에 비낀 어두운 그늘은 역시 우리의 이웃인 영국인들에게서 보게 되는 나쁜 날씨의 영향도 아니였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애수는 흔히 년중 제일 좋은 계절에 더 심하게 나타났기때문이다.

6월과 7월은 아또스에게 있어서 제일 고통스러운 달들이였던것이다.

오늘현재는 그에게 고민거리가 없는것이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어깨만 으쓱할뿐이니 그리고보면 애수의 원인은 다르따냥에게 들려오는 모호한 소문으로 미루어보건대 과거에 있었다.

아또스를 감싸고있는 신비의 그림자는 그를 더욱더 흥미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다. 지어 만취되였을 때에조차 그에게 던져지는 온갖 미묘한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나 입은 절대로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다.

《참, 안됐거던!》 다르따냥은 중얼중얼하면서 생각하였다. 《필시 불쌍한 아또스는 지금 죽은 사람인데 그건 나때문이란 말이야. 순전히 나를 위해 그는 이 일에 말려들었단 말이야.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몰랐고 털끝만치도 무슨 리득을 내다본건 아니였거던.》

《그분이 우리들의 생명의 은인이라는건 나으리.》 쁠랑쉐가 덧달았다. 《더 말할 필요도 없구요. 그분이 〈다르따냥, 빠지라구. 난 덫에 걸렸네.〉 하고 소리치던게 생각나시지요. 그리고는 권총 두자루를 다 쏘아버리고는 왱강쟁강 얼마나 무섭게 칼을 휘둘러대던지 그 소리는 꼭 스무사람이 아니, 독이 오른 스무놈의 귀신이 맞붙어돌아가는 소리같았지요.》

그 소리에 속이 달아난 다르따냥은 그러잖아도 모두발로 뛰고있던 말에 박차를 가하였다.

오전 11시쯤에는 아미앵이 보이더니 11시반에는 그 저주로운 려인숙대문앞에 이르렀다.

다르따냥은 신의 없는 주막주인에게 말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질 앙갚음을 들이댈 방법을 여러가지로 궁리해둔터였다. 하여 그는 모자를 이마우에 깊숙이 내려쓰고 왼손은 칼자루에 얹고 오른손에 든 채찍을 휘휘 내두르면서 주막에 들어갔다.

《당신 날 알겠소?》 그는 허리를 굽석굽석하면서 마중나온 주인에게 물었다.

《모르겠는데요, 각하.》 다르따냥의 어마어마한 장비에 기가 질린 주인이 대답하였다.

《저런, 당신이 날 못 알아보다니!》

《모르겠습니다요, 각하!》

《좋아, 그럼 내 두마디로 튕겨주지. 두주일전에 가짜돈을 뿌리고 다닌다고 감히 죄를 씌우자고 했던 그 귀족을 어떻게 했는가?》

주막주인은 낯이 새파랗게 질렸다. 다르따냥이 너무도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데다 쁠랑쉐 역시 그대로 본땄기때문이다.

《어이구 각하, 나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주막주인은 애처로운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난 그 실수덕에 톡톡히 값을 치른걸요. 난 왜 이리도 운수가 사나운지!》

《내가 묻는건 그 귀족이 어떻게 됐나 그거야.》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각하. 제발 부탁입니다. 우선 여기 좀 걸터앉으시구요, 어서요.》

분노와 불안으로 하여 말이 없는 다르따냥은 재판관처럼 위엄스럽게 앉았다. 쁠랑쉐는 그의 걸상등받이뒤에 거만하게 버티고 섰다.

《일은 이렇게 된겁니다요, 각하.》 주막주인은 공포로 하여 와들와들 떨면서 계속하였다. 《이제는 당신을 알아보겠군요.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귀족과 그 불운한 싸움이 붙었을 때 말을 타고 빠져나가신 분이 당신이지요?》

《그렇소, 나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실직고하지 않았다간 용서는 아예 기대할수 없다는걸 이제는 똑똑히 알겠지?》

《그럼 제발 내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십시오. 내 숨김없이 죄다 말

씀드릴테니요.》
《말하라구.》
《상부에서 내게 알려오기를 우리 주막에 유명한 화폐위조자가 몇명의 제 패당들과 함께 들것인데 그들은 모두 근위대원이나 총사들처럼 변복을 했다는게거던요. 당신들의 말과 하인 그리고 당신들의 외양에 대해서까지 세세히 알려주더군요. …》
《계속하시오, 계속.》 그 정확한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겠는가를 순간에 알아차린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그래서 상부의 명령대로 나는 그들이 보내준 6명의 보충인원과 함께 그 수상쩍은 화폐위조자들을 붙잡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책들을 취했던것이지요.》
《아직도!》 다르따냥이 못 견디게 귀에 거슬리는 화폐위조자 소리에 꽥 소리쳤다.
《그런 말 또 입에 올려 미안합니다만 각하, 그게 없이는 내가 청백하다는걸 밝힐 길이 없으니 어쩝니까. 상부에서는 을러메는데 당신도 아시다싶이 주막주인이란 상부와 관계를 잘 가져야 살수 있거던요.》
《다시한번 묻겠소. 그 귀족이 어디 있소? 그는 어떻게 됐소? 죽었소, 살았소?》
《각하, 좀 기다려주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도 나올테니요. 그래서 결국 당신이 알고계시는 그 일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당신께서 부랴부랴 떠나가신것도 정당화될수 있는 그 일 말입니다.》 주막주인은 능청스러운 어조로 슬쩍 덧붙이였으나 다르따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의 친구분 되는 그 귀족은 필사적으로 방어를 했지요. 그분의 하인은 불행하게도 상부에서 마부처럼 변복을 시켜보낸 병사들과 뜻하지 않게 싸움을 벌렸다가…》
《아, 이 개자식아!》 다르따냥은 소리쳤다. 《이제보니 네놈들은 모두 한패당이였구나. 내가 어째서 네놈들을 몽땅 쳐없애지 않는지 모르겠구나!》
《아니올시다, 각하. 우린 한패당이 아닌게고 당신은 이제 그걸 확신하게 될겁니다. 당신의 친구는— 이거 그분이 의심할바없이 지니고계실 존귀한 이름으로 불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어찌겠습니까, 우린 그 이름을 모르는걸요—그래서 당신의 친구분은 권총 두방에 병

사 둘을 쏘아눕히고 칼로 계속 방어를 하면서 퇴각을 했지요. 그때에 우리 사람 하나가 또 병신이 되고 난 칼날에 옆구리를 맞아…》

《닥치지 못할가, 이 백정놈아!》 다르따냥은 소리쳤다. 《아또스는 어디 있어? 아또스는 어떻게 됐어?》

《내 이미 말씀드린것처럼 그분은 퇴각을 하다가 각하, 움으로 내려가는 계단앞에 이르렀는데 문이 열려있었거던요. 그분은 열쇠를 뽑아가지고 들어가 안으로 문을 잠그어버렸지요. 누구나가 그분이 거기서는 달아나지 못한다고 믿었던지라 그렇게 하는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지요.》

《알겠어.》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죽일 필요는 없고 그저 잡아가두고 쇠만 잠그면 그만이다 그 소리군!》

《잡아가두고 쇠를 잠그다니요. 어이구 맙시사! 정말이지 맹세합니다만 각하, 그분은 제스스로가 갇히고 쇠를 잠근겁니다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보다 앞서 적지 않은 일을 해놓았지요. 병사 하나가 찔리워 죽고 둘이 크게 상했거던요. 죽은 사람과 부상자 둘은 그들의 패거리들이 날라갔는데 그다음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로 말한다면 정신을 차리자 현지사를 찾아가 있은 일을 자초지종 다 말씀드리고 포로는 어떻게 하라는가고 물었지요.

그런데 현지사나리는 아예 깜깜이란 말입니다. 무슨 낮도깨비같은 소린지 모르겠다, 자기는 내가 받았다는 그런 지시를 준적이 없다, 만일 내가 그런 무모한 음모에 현지사 자기가 그 어떤 관계라도 있는듯이 누구한테 지껄여댔다면 자기는 나를 목매달라고 명령하겠다는거지요.

나으리, 확실히 난 헛갈려서 왕청같은 사람을 붙잡았고 붙잡혀야 할 사람은 꽁무니를 사린것입니다.》

《도대체 아또스는 어디 있는가 말이야.》 행정당국이 이 일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알고 더욱더 분노가 치밀어오른 다르따냥은 소리질렀다. 《아또스는 어떻게 됐어?》

《나는 포로앞에 지은 죄를 한시바삐 씻지 못해 안이 달았지요.》 주막주인은 계속하였다. 《그래 난 그를 놓아줄 심산으로 움에 다가갔지요.》

《그런데 허참 나으리, 그는 사람이 아니라 갈데없는 악마더란 말입니다. 내가 놓아주겠다는 소리에 한다는 대답이 그건 다 함정이다, 자기는 나가지 않겠다 이러는게 아닙니까. 자기의 요구조건을 말하지

도 않으면서요. 난 대답하기를—나야 자기가 국왕의 총사에게 함부로 손을 댔다가 어떤 처지에 빠지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으니까요.—그래 난 대답하기를 요구조건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말하라고 했지요. 그는 말하겠지요. 〈우선 나의 하인을 완전무장시켜 돌려줄것을 요구한다.〉 그 분부는 지체없이 집행되였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우리들이 그 친구분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드릴수밖에 없었다는게 리해되시겠지요. 그렇게 돼서 그리모— 그 사람은 입이 헤픈 축이 아니지만 제 이름을 말해주더군요— 그리모씨는 상처를 입은 몸이였지만 움으로 내려갔지요. 그의 주인나으리는 그를 들여놓고 문을 닫아걸고나서 분부하기를 우리더러는 집에 올라가있으라는거지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는건가?》 다르따냥은 꽥 소리쳤다. 《아또스는 어디 있어?》

《움속에요, 나으리.》

《아니, 이 개자식아, 너 그 사람을 아직까지 움속에 가두고있다는거야?》

《이런 딱한노릇이라구야! 그런게 아닙니다요, 나으리. 우리가 그분을 움속에 가두어두다니 될법이나 한 일입니까. 당신께서 그분이 거기 움속에서 어떻게 하고계시는지 알기나 하신다면! 아 나으리, 만일 당신께서 그분을 요행 거기서 나오게만 해주신다면 난 죽는 날까지 당신에게 감사를 드릴것입니다. 당신을 자기의 수호신을 모시듯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있다? 내가 거기 가면 그 사람을 만날수 있단 말이지?》

《여부가 있습니까, 나으리. 그분은 떡 버티고앉아서 통 나오자고 하질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빵을 포크에 꿰서 통기구멍으로 들여보내주고 그분이 요구할 때면 고기도 들여보내줍니다만 그런데 이거 큰일이지요! 그분의 주요식사는 빵이나 고기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은 내가 두 젊은이를 데리고 움에 내려가보려고 했더니만 그분께서는 노발대발하면서 생야단이지요. 그분이 권총의 격철을 올리고 하인이 화승총격철을 올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우리가 그들더러 어쩌자고 그러는가고 물었더니 당신의 그 친구분은 대답하기를 자기들에게는 총탄 마흔발이 있으니 마지막 한발까지 다 날려

서라도 우릴 누구 하나 들여놓지 않겠다는거지요. 그래 난 나으리, 현지사에게 가서 하소를 했더니 거기서는 대답하기를 나는 응당한 벌을 받았다면서 우리 주막에 찾아오는 귀한분을 노엽혔다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교훈을 찾으라겠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르따냥은 우거지상이 된 주막주인을 보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으면서 말을 뗐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막주인은 계속하였다. 《우린 나으리, 깨깨 골탕을 먹고있지요. 왜냐하면 우린 식료품들을 죄다 움속에 건사하고 있으니까요. 병에 넣은 포도주, 나무통에 넣은 포도주, 맥주, 기름, 양념감, 돼지비게, 순대 몽땅 거기에 있거던요. 우린 움에 내려가는게 금지되여있으니 부득불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먹을것, 마실것을 일체 못 내드리는거고 그러니 영업은 하루하루 손해가 막심하지요. 만일 당신의 친구분이 움속에 한주일만 더 앉아계시면 우린 아주 파산입니다요.》

《백번 그래 싸지, 협잡군같으니! 그래, 우리의 외관을 보면 화페위조자가 아니라 방정한 사람들이라는걸 모르겠던가?》

《옳습니다, 나으리. 당신 말씀이 옳아요. …》 주막주인은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저 소릴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또 야단치기 시작했군요.》

《분명 누가 지분거렸겠지.》 다르따냥이 소리쳤다.

《그러니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막주인이 말하였다. 《지금 고귀하신 영국손님 두분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거요?》

《그래서 어쨌다는건 무슨 말씀입니까? 영국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청했단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 마누라가 아또스씨더러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해보았던게지요. 그 영국손님들이 요구하는 포도주를 내드리려고 말이지요. 그런걸 그분께서는 여느때처럼 딱 잘랐을게고… 맙시사, 또 법석소동이 시작됐군!》

아닌게아니라 움쪽으로부터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다. 다르따냥은 일어서서 절망에 빠져 두손만 쥐여짜고있는 주막주인을 앞세우고 화승총을 끄나든 쁠랑쉐를 대동하고 사건현장으로 다가갔다.

영국인들은 독이 오를대로 올라있었다. 그들은 먼길을 와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였던것이다.

《이거야 강도질이지 뭐야!》 그들은 외국어억양이 섞인 능숙한 프랑스말로 고아댔다. 《그놈은 점잖은 사람들이 제 물건을 처리 못하게 한단 말이요. 우리는 문을 부시고 들어갈테요. 그리고 그놈이 아주 실신했으면 우리가 그놈을 죽여버리면 그만 아니겠소!》
《여러분, 조용들 하시오!》 다르따냥이 허리춤에서 권총 두자루를 뽑아들면서 말하였다. 《이거 안됐지만 당신들은 아무도 죽이지 못합니다.》
《일없소, 놔두시오.》 문안에서 아또스의 침착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그 흰소리군들을 들여보내시오, 내 된맛을 보여줄테니.》
영국인들은 어지간히 담이 큰것 같았으나 우물쭈물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움속에서 그 어떤 굶주린 귀신이, 옛말에 나오는 그 어떤 힘장사 거인같은것이 틀고앉아있어 아무도 그의 동굴로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것만 같았다.
잠시 모두들 조용해졌으나 마침내 영국인들은 물러서는것이 창피스러웠던지 둘중에서 제일 독이 오른 쪽이 대여섯단 되는 계단을 내려가 돌벽이라도 능히 구멍을 낼것 같은 힘으로 냅다 문을 찼다.
《쁠랑쉐.》 다르따냥은 두자루 권총의 격철끝을 올리면서 말하였다. 《난 우에 있는 녀석을 말을테니 넌 밑의 놈을 말으란 말이야. 그래 여러분, 기어코 붙어보자는겁니까! 좋습니다, 붙어봅시다!》
《이게 뭐야!》 밑에서 아또스의 웅글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거 다르따냥군의 목소리가 들리는것 같은걸.》
《잘못 듣지 않았습니다.》 다르따냥은 역시 될수록 큰소리를 내려고 애쓰면서 대꾸하였다.
《나 다르따냥입니다.》
《좋구만!》 아또스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우린 그 희떠운 용사들을 멋있게 해제낄수 있어.》
영국인들은 칼을 잡았으나 그들은 독안에 든 쥐신세였다. 잠시 그들은 망설이는듯 하였으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존심이 머리를 쳐들어서 재차 가해지는 발길질에 문은 우지끈 부서지면서 활짝 열려지고 말았다.
《비키라구, 다르따냥. 비키래도!》 아또스가 고함쳤다. 《내 이제 쏘아갈길테니.》
《여러분.》 언제 한번 분별력을 잃은적 없는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해보십시오. … 아또스, 잠간만 기다리시오. … 여러분, 당신들은 너절한 일에 끼여들어가지고 총알에 만신창만 될것입니다. 나와 나의 하인이 당신들에게 세방을 안겨줄것이고 움속에서 또 그만큼 선사받을것입니다. 그밖에도 우리에게는 칼이 있는데 내 장담하지만 나와 저 친구는 칼 쓰는 솜씨가 괜찮습니다. 내게 방해만 놓지 않는다면 내 당신네 일도, 우리 일도 다 바로잡을텝니다. … 이제 당장 마실것이 나올테니 두고보시오!》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그 말이겠지.》 아또스의 비양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막주인은 등어리에 식은땀이 쭉 내돋는것을 느꼈다.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면〉이라는건 어떻게 됐다는 소린가.》 그는 속살거렸다.

《아직 남아있어, 제길!》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마음놓소. … 무슨 재간에 둘이서 움 하나를 다 마신단 말인가. … 여러분, 칼을 거두시지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도 권총을 허리춤에 도로 찔러야지요.》

《기꺼이.》

대답하면서 다르따냥은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나서 쁠랑쉐를 돌아보면서 총을 거두라고 손짓하였다.

이렇게 되여 안심이 된 영국인들은 두덜두덜하면서 칼들을 칼집에 꽂았다. 다르따냥이 그들에게 아또스가 갇히게 된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해주자 그들은 진짜배기신사들이였으므로 모든 잘못을 주막주인에게 돌리였다.

《자, 그럼 여러분.》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이제는 방으로 올라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내 담보하지만 10분후에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모든것이 다 상에 오를것입니다.》

영국인들은 허리를 굽혀보이고 물러갔다.

《자, 이제는 나 혼자뿐입니다, 아또스씨.》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제발 어서 문을 여시오.》

《이제 인차.》 아또스가 대답하였다. 삭정이단들이 떨어지는 소리, 통나무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포위속에 든 사람들이 제손으로 보루를 허무는 소리였다.

잠시후 아또스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는 주위를 피끗 둘러보

았다.
다르따냥은 친구에게 달려가 정겹게 얼싸안았다. 그리고나서 습기찬 피난처에서 데리고나오던 그는 그때에야 비로소 아또스가 비틀거리는것을 발견하였다.
《어디 다쳤습니까?》 그는 물었다.
《내가? 다치긴 뭘 다쳐. 그저 곤죽이 되게 취했을뿐이지. 세상에 이 지경이 되여보자고 나만큼 극성을 부린 사람은 하나도 없을거야. … 내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주인은 나때문에 적어도 150병은 손해봤을걸.》
《이거 큰일이군!》 주막주인이 아우성쳤다. 《하인이 주인이 마신 절반만큼만 마셨다 해도 난 파산입니다요.》
《그리모는 훈련이 철저히 돼서 감히 내가 마시는 술은 입에 댈념을 못했을게거던. 그치는 나무통의 포도주만 마셨다니. 옳거니, 그치가 마개막는걸 잊은게로군. 뭔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다르따냥은 폭소를 터뜨리는데 그 웃음소리에 주막주인의 오한은 삽시에 열로 바뀌여버렸다.
그때에 어깨에 총을 멘 그리모가 아또스의 등뒤에 나타나는데 그의 머리는 루벤스의 풍자그림에 나오는 술군처럼 건들거리고있었다. 그는 앞에도 뒤에도 그 무슨 기름같이 질쩍한것이 잔뜩 게발렸는데 주막주인은 그것이 자기 집의 상등올리브기름인것을 알아보았다.
일행은 커다란 홀을 지나 려관안의 다르따냥이 골라잡은 제일 좋은 방에 자리를 잡았다.
한편 주막주인과 그 마누라는 등불을 밝혀들고 그토록 오래동안 출입이 금지되였던 움으로 내달았다. 과연 거기서는 무시무시한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아까 아또스가 나올 때 뚫어놓은 구멍으로 해서 들어가보니 군사예술의 모든 규범에 맞게 삭정이단과 널판자, 빈 술통들을 쌓아서 구축한 보루뒤 여기저기에는 다 뜯어먹은 돼지넙적다리뼈와 둥둥 떠다니는 기름웅뎅이, 포도주웅뎅이들이 보이고 움의 왼쪽구석에는 깨여진 병쪼각들이 무리로 쌓여있었으며 마개가 열려져있는 나무통에서는 마지막피방울들이 뚝뚝 듣고있었다. 옛 시인의 표현을 빈다면 거기서는 격전장과도 같이 죽음의 황페가 군림하고있었다.
들보에 쉰틀나마 되게 매달았던 순대는 열틀되나마나 하게 남았다.

주막주인내외의 아부재기치는 소리가 움의 천정너머까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다르따냥의 가슴을 찔렀다. 아또스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주인의 슬픔은 분노로 변하였다. 절망감으로 하여 제정신이 아닌 주인은 고기를 매다는 쇠갈구리로 무장을 갖추고 두 친구가 사라진 방으로 뛰여들었다.

《포도주 가져와!》아또스가 그를 보고 말하였다.

《포도주라구요?!》 기가 눌린 주막주인이 부르짖었다. 《포도주라구요! 당신은 포도주를 100삐스똘어치도 나마되게 마셨단 말입니다. 난 파산입니다. 난 녹았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만 됐어!》 아또스는 말하였다. 《우린 목을 제대로 추기지도 못했는걸.》

《당신들이 그저 마시기만 했다면 그래도 약과지요. 그런데 당신들은 병들을 몽땅 까부셨더군요!》

《당신이 병무지에 날 밀치는통에 그게 무너져버린거지. 그러니 그건 제 잘못이거던.》

《내 기름이 몽땅 간 곳이 없단 말입니다.》

《기름이라는건 상처에 좋은 약이거던. 불쌍한 그리모가 당신한테 입은 상처를 치료해야 했던거야.》

《내 순대가 몽땅 거덜이 났더군요.》

《그놈의 움엔 쥐가 득실득실하더군.》

《몽땅 게워놓으시오!》 자제력을 잃어버린 주막주인은 소리쳤다.

《저런 날도적놈 봤나!》 아또스는 대꾸하면서 엉거주춤 일어서다가 도로 걸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힘이 진할대로 진한것이였다.

다르따냥이 달려가 그를 붙들어주고 회초리를 집어올렸다.

주막주인은 한걸음 물러서서 좔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이면 당신에게》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손님들을 더 깍듯이 모시는 법을 가르쳐줄테지.》

《하느님이라구요?! 차라리 악마라구 하시지요!》

《잘 듣소, 주인장.》 다르따냥은 으름장을 놓았다. 《당신이 계속 우리들의 귀청을 성가시게 긁어대겠다면 우리 넷이 같이 움속에 들어가 박힐테요. 그때에 가서 실지로 당신이 말하는것처럼 손해가 엄청난것인지 어떤지 보잔 말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주막주인은 기겁을 하며 동의하였다.

《난 자기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용서못할 잘못이란 없는게 아닙니까. 당신들은 지체 높으신분들이고 난 가난뱅이주막주인이니 당신들은 날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할게 아닙니까요.》

《오, 그렇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아또스가 말하였다. 《당신이 그렇게 나오니 나도 마음이 누그러지고 눈에서는 당신네 술통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오듯이 눈물이 쏟아지는구만. 우리는 걸보기처럼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요. 이리 가까이 오라구, 의논해보자구.》

주막주인은 머밋머밋하면서 다가왔다.

《무서워말구 가까이 오란 말이요.》 아또스는 말하였다. 《난 당신하고 회계를 하자고 갔을 때 책상우에 돈지갑을 내놓았댔어.》

《그렇구말구요, 각하.》

《그 지갑에는 60삐스똘이 들어있었댔어. 그 지갑이 어디 있어?》

《재판소에 바쳤지요, 각하. 그건 다 가짜돈이라기에.》

《그렇다면 그 지갑을 도로 찾아오고 60삐스똘은 자기에게 떼구란 말요.》

《그렇다면 당신도 잘 아시겠지만 각하, 재판소어른들은 일단 제 손에 들어온건 돌려주는 법이 없는걸요. 그게 만일 가짜돈이라면 그땐 행여나 기대를 가질수도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그건 진짜돈이였단 말입니다.》

《친구, 그런건 재판소를 재간껏 잘 구슬려보라구. 그런건 나하구 상관없으니까. 더구나 내겐 일전 한푼 남은게 없거던.》

《가만, 좀 있으시오.》 다르따냥이 끼여들었다. 《아또스의 말이 지금 어디 있소?》

《마구간에요.》

《그게 값이 얼마나 나갈가?》

《기껏해서 50삐스똘.》

《거기에다 장구들까지 합치면 80삐스똘이 된다구 치잔 말이지. 그걸 가지고 그것으로 끝내자구.》

《그건 무슨 소린가? 내 말을 판다구? 나의 바야제뜨를?》 아또스는 펄쩍 뛰였다. 《그럼 난 뭘 타고 길을 떠난단 말인가? 그리모를 타

고?》
《내가 당신에게 다른걸 가져왔지요.》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다른걸?》
《얼마나 멋있는거게요!》 주막주인이 소리쳤다.
《좋아, 만일 다른 더 훌륭한 젊은것이 있다면 그 늙은것을 건사하고 포도주나 가져오라구.》
《어떤걸 가져올가요?》 마음이 푹 놓인 주막주인이 물었다.
《움 맨 안쪽 살창옆에 있는걸 가져오게. 거기에 아직 25병 남은게 있어. 나머지는 내가 자빠지면서 다 깨먹었어. 6병 가져오라구.》
《허, 이건 사람이 아니라 밑빠진 술독이군!》 주인은 중얼거렸다. 《저 어른이 두주일만 더 여기에 있으면서 술을 마시고 값을 다 물어준다면 난 다 봉창을 하련만.》
《그리고 영국어른들한테도 꼭같은걸 네병 갖다주는걸 잊지 마시오.》 다르따냥이 덧붙였다.
《그럼 이젠》 아또스는 말하였다. 《우리 포도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르따냥, 다른 두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나 해주게.》
다르따냥은 무릎을 상하여 자리에 누워있는 뽀르또스와 그리고 두 신학자와 함께 책상에 앉아있는 아라미스를 만난 이야기를 하였다. 그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무렵에 주막주인이 주문받은 포도주 6병과 다행히도 움밖에 돌아가던 넙적다리 하나를 들여왔다.
《좋아.》 아또스가 자기와 다르따냥의 잔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말하였다.
《뽀르또스와 아라미스를 위해 마시자구. 그런데 이 친구, 군의 일은 어떤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 보기에 군은 안색이 매우 어둡거던.》
《유감스럽게도 그건 사실입니다.》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 네사람가운데서 내가 제일 불행한 인간이라는데 있지요.》
《군이 불행하다니, 다르따냥.》 아또스가 소리쳤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게 말하라구.》
《차차 하지요.》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차차라니! 지금은 왜 안된다는건가? 군은 내가 취한줄로 아는가?

똑똑히 들으라구, 친구. 난 술병을 마주했을 때만큼 머리가 맑을 때가 절대로 없다네. 어서 말하라구, 난 궁금해서 못 견디겠네.》
다르따냥은 보나씨에부인의 신상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또스는 침착하게 그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다르따냥이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말하였다.
《아무것도 아니라니.》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은 아또스의 입버릇처럼 된 말이였다.
《당신은 무슨 일이나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만, 아또스씨.》 다르따냥이 반박하였다. 《그건 사랑을 한번도 못해본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입니다.》
흐리멍텅하던 아또스의 눈에 확 불이 일었으나 그것은 한순간 번쩍하였을뿐 그의 눈은 다시금 원래 그대로의 뿌옇고 생기없는 눈으로 되돌아갔다.
《그 말은 맞아.》 그는 조용히 수긍하였다. 《나야 한번도 사랑을 못해봤으니까.》
《그렇다면 몰강스러운 아또스씨, 다정다감한 심장을 지닌 우리들을 비난하는것은 잘못된 일이라는것을 알아야지요.》
《다정다감한 심장이라는건 깨여진 심장이라네.》 아또스는 말하였다.
《당신은 뭘 말하자는겁니까?》
《내가 말하자는건 사랑이란 이긴자에게는 죽음이 차례지는 제비뽑기라는 그거네. 내 말 믿으라구. 친애하는 다르따냥군, 군이 졌다니 군은 아주 운수가 좋은셈이니 그리 알라구. 언제나 지라구—이게 나의 충고네.》
《그 녀자는 나를 무척 사랑하는것 같았거던요!》
《군에게 그렇게 보였을뿐이지.》
《아니라니까요. 그 녀자는 실지로 날 사랑했단 말입니다!》
《아직 어린애로군! 군처럼 자기의 애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지 않은 남자는 없고 자기 애인에게 속지 않은 남자도 없는거라네.》
《당신은 제외하고 말이지요. 아또스, 당신이야 언제 한번 애인을 가져본적이 없겠으니 말이지요.》
《그 말은 옳아.》 아또스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하였다. 《난 한

번도 애인을 가져보지 못했거던. 마시기나 하자구!》
《마시는것도 마시는것이지만 철학가선생님, 날 도와서 좀 가르쳐 주시오. 내게는 충고와 위안이 필요합니다.》
《위안? 뭘 위안한다는건가.》
《자기의 불행이지요.》
《그것도 불행인가.》 아또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였다.
《내가 어떤 한가지 련애사건을 말해준다면 군이 뭐라고 하겠는지 흥미있는걸.》
《당신이 겪은 일입니까?》
《또는 우리 친구들가운데 한사람이라고 해두지 뭐. 매일반이 아니겠나?》
《말씀하지요, 아또스씨. 들어봅시다.》
《마시기나 하자구, 듣기나새나.》
《마시면서 이야기하시오.》
《마시고 이야기하고 아닌게아니라 제격이군그래.》 아또스는 자기의 잔을 비우고 또다시 채우면서 말하였다.
《어서 말씀하시오.》 다르따냥이 재촉하였다.
아또스는 생각에 잠기였다. 그의 생각이 깊어지는데 따라 다르따냥이 보기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아또스의 취기는 보통술군이라면 이미 자빠져 곯아떨어질만 한 정도에 이르렀었다. 그는 마치도 현실속에서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이 취중의 몽유병속에는 무언가 무서운것이 있었다.
《군은 기어코 듣자는건가?》
《간절한 부탁입니다.》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좋네, 군의 소원대로 하자구.… 내 친구들중의 한사람이… 내가 아니고 내 친구들중의 한사람이란 말이네. 똑똑히 기억하라구.》 아또스는 시무룩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나와 같은 베리주의 태생이고 당돌로라 또는 몽모랑내 같은 명문출신의 어떤 백작이 스물다섯살났을적에 사랑 그자체처럼 매혹적인 열여섯난 처녀에게 반했는데 그 나이때에 특유한 순진성속으로 열렬한, 녀성으로서는 남다른 지성, 시인의 지성이 엿보였지. 그 녀자는 그저 마음을 끈게 아니라 취하게 만들었지. 그 녀자는 오라비라고 하는 신부와 둘이서 자그마한 고장에서 살았네. 그들은 타고장내기여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고장에

서는 그 누구도 몰랐지만 그 녀자의 미모와 오라비의 신부라는 지위만 보면서 그런것은 누구 하나 물어보려고도 안했거던. 들리는 소문에는 그들이 훌륭한 집안출신이였지. 그 지대의 소유주였던 나의 친구는 그 녀자를 간단히 유혹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손에 넣을수도 있었지. 그 고장을 쥐락펴락하는 주인이겠다, 뭐가 무서워서… 게다가 그 정체를 아무도 모르는 남의 일에 누가 참견해나서겠는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친구는 성실한 인간이다보니 그만에야 덜커덕 그 녀자에게 장가를 들어버렸네그려. 머저리, 바보, 얼간이같이!》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그 녀자를 사랑했다면서요?》다르따냥이 물었다.

《잠간만 기다리라구.》 아또스가 말하였다. 《그 친구는 그 녀자를 자기 성곽으로 데리고가서 온 주에서 첫째가는 부인으로 만들어주었지. 그리고 그 녀자는 공정하게 말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을 훌륭히 수행했다네.》

《어떻게 됐다는건지요?》 다르따냥은 물었다.

《어떻게 되긴? 어느날 백작부인은 남편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아또스는 조용한 목소리로 급급히 뒤를 이었다.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지. 백작은 도와주려고 그 녀자에게로 달려갔지. 그런데 옷이 그 녀자를 너무 조이고있는걸 보고 단도로 옷을 째다가 그만 얼결에 그 녀자의 어깨를 드러내버리지 않았겠나. 한번 말해보라구, 다르따냥군. 그 어깨에 무엇이 있었을것 같은가!》 아또스는 큰소리로 껄껄 웃으면서 말하였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르따냥이 대꾸하였다.

《나리꽃이였다네.》 아또스는 말하였다. 《치욕의 락인이 찍혀 있었다네.》

아또스는 손에 쥐고있던 잔을 단숨에 쭉 비웠다.

《끔찍한 일두!》 다르따냥은 소리질렀다. 《그럴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라네, 이 친구. 천사가 실은 악마였지. 가엾은 그 처녀는 절도범이던거야.》

《백작은 어떻게 했는가요?》

《백작은 제땅에서 권력이 무제한하였고 제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었지. 그는 그 녀자의 옷을 갈가리 찢어버린 다음 뒤결박을 지워서 나무에 매달려 했지.》

《하지만 아또스씨! 그거야 살인이 아닙니까?》 다르따냥이 소리쳤다.

《그렇지, 살인도 과분하지…》 죽음처럼 창백한 아또스는 말하였다. 《그런데 이게 뭔가? 내 잔이 비지 않았는가…》

아또스는 마지막 한병을 거머쥐고는 병아가리를 입술에 가져다대고 보통잔을 들이키듯이 꿀꺽꿀꺽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리고는 머리를 두손우에 얹었다. 다르따냥은 공포에 질려 그앞에 서있었다.

《이때로부터 나는 아름답고 시적이고 사랑에 빠진 녀자들과는 영원히 담을 쌓았다네.》 아또스는 몸을 일으키자 백작부인의 수수께끼같은 이야기는 마저 끝낼 생각이 없는듯이 말하였다. 《군도 그렇게 되길 바라네. 마시자구!》

《그래 그 녀자는 죽었는가요?》 다르따냥이 웅얼거렸다.

《여부가 있나!》 아또스는 말하였다. 《군의 잔을 달라구. … 이 건달군놈아, 햄을 가져와!》 그는 고함을 쳤다. 《우린 더 마실 형편이 못된단 말이야.》

《그의 오라비는요?》 다르따냥은 소심스럽게 물었다.

《오라비?》아또스는 되물었다.

《예, 그 신부 말입니다.》

《아 그렇지, 신부 말이지. 난 그놈도 목매달게 할 작정이였는데 그치는 선손을 써서 어느새 날쌔게 자기 교구에서 사라져버렸더란 말이네.》

《그래 당신은 종시 그놈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는가요?》

《보나마나 그 미인의 첫 애인에다 공범자이고 신부로까지 가장할만큼 식자도 있는 놈이였어. 그놈이 신부로 가장한건 순전히 자기의 정부를 시집보내서 그 운명을 지켜내려는 속심에서였겠지. 난 그놈이 릉지처참됐으리라고 믿네.》

《아,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무시무시한 이야기에 격동된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다르따냥군, 왜 햄을 들지 않나.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지경이야.》 아또스가 한쪼각을 잘라 젊은 친구의 접시에 놓아주면서 말하였다. 《움속에 이런 넙적다리 네짝이 없었던게 참 유감이거던. 있었다면 내 쉰병은 더 마셨을건데.》

다르따냥은 그 이야기를 더 계속할 힘이 없었다. 그는 머리가 돌것

만 같아서 머리를 두손우에 떨구고 자는척 하였다.

《젊은 친구가 술먹는 법을 다 잊어먹었군.》 아또스는 측은하게 그를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이 친구 제일 센축이댔는데.》

제 28 장

귀 환

다르따냥은 그 무서운 이야기에 격동되였으나 채 터놓지 않은 이야기에서는 아직 많은것이 석연치 않았다. 우선 그것은 곤드레만드레 취한 사람이 얼근히 취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르따냥은 부르고뉴포도주 두세병을 마신탓으로 머리속에 안개라도 떠돌고있는것 같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튿날 아침 눈을 떴을 때에는 어제 들은 이야기가 뇌수에 또박또박 아로새겨지기라도 한듯이 한마디 한마디가 생생히 기억에 떠올랐다. 애매한 점들은 완전한 확신을 얻고싶은 불같은 욕망을 더욱더 든장질만 했을뿐이였다.

그는 전날의 이야기를 되살릴 굳은 결심으로 친구를 찾아갔으나 아또스는 이미 정신을 완전히 차리였었다. 즉 그는 남의 속은 귀신같이 꿰뚫어보는 반면에 자기 속은 절대로 내비치지 않는 인간으로 되여있었다.

그는 다르따냥과 악수를 하면서 제먼저 그의 생각을 앞지르는것이였다.

《난 어제 너무 취했댔네, 친구.》 그는 말을 뗐다. 《난 오늘 아침 입안의 혀가 가까스로 돌아가고 맥박이 더 빨라진걸 보고 그걸 알았구만. 내가 옛말에나 있을것 같은 허튼소리들을 수태 지지거렸을게 틀림없거던.》

이렇게 말하고 그가 자기를 빤히 지켜보는 바람에 다르따냥은 당황하였다.

《그런 일은 없었는걸요.》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내 기억하건대 당신은 특별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한게 없었습니다.》

《그렇소? 모를 일인걸. 내 생각에는 내가 군에게 한가지 매우 비참한 이야기를 해댄것 같으니 말이지.》

그리고는 젊은 친구의 심장속 맨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는듯이 지그시 바라보았다.

《하긴》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내가 당신보다 더 취했을수도 있지요. 난 아무것도 생각 안나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또스를 조금도 만족시키지 못한듯 그는 계속하였다.

《군도 알겠지만 이 친구, 사람들은 각자 제나름으로 취하거던. 어떤축들은 슬퍼하고 어떤축들은 즐거워하거던. 가령 난 말이네 마시면 슬퍼져서 한때 나의 어리석은 유모가 내 머리속에 깊이 박아넣은 무시무시한 일화들을 이야기하기 좋아한단 말이네. 이건 내 결점, 솔직히 말해서 치명적인 결점이지. 그러나 그것만 떼버리면 난 깨끗이 마신다네.》

이런 말을 하는 아또스의 목소리가 어찌나 천연스러웠던지 다르따냥의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아, 그렇지, 옳습니다!》 다르따냥은 다시금 자기에게서 빠져달아나려고 하는 진실을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말하였다. 《정말이지 우리가 교형수이야기를 했던것이 꿈속에서처럼 어렴풋이 생각나는군요.》

《그렇단 말이지! 그것 보라구!》 아또스가 얼굴이 창백해지는 속에서도 웃으려고 애쓰면서 말하였다.

《내 그럴줄 알았지. 교형수들은 항시적으로 날 괴롭히는 악몽이거던.》

《그렇지, 그렇지.》 다르따냥은 계속하였다. 《이젠 생각이 나는군요. … 무슨 얘긴가 하면… 잠간만… 어떤 녀자 이야기겠는데요.》

《그럴테지.》 아또스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서 말하였다. 《내가 지껄여대기 좋아하는 금발머리녀자에 대한 이야기로군. 내가 그 이야기를 한다는건 내가 곤드레만드레 취했다는걸 의미한다네.》

《옳습니다.》 다르따냥은 대꾸하였다. 《키크고 아름답고 눈이 파란 금발머리녀자입니다.》

《그리고 목매달았구…》

《당신의 친지들중의 한사람으로서 명문거족인 제 남편 손에 죽었지요.》 다르따냥은 아또스를 뚫어지게 보면서 말하였다.

《이렇다니, 알지도 못하는 소릴 하다가는 이렇게 애매한 사람에게 그림자를 던지기가 십상이거던.》 아또스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자기 실책을 후회하듯이 말하였다. 《그만두자구, 다르따냥군. 내 다시는 마시지 않겠네. 그건 참말로 더러운 버릇이거던.》

다르따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건 그렇구.》 아또스는 불시에 화제를 돌리였다. 《군이 가져온 그 말 말이네, 고맙네.》

《마음에 들던가요?》 다르따냥은 물었다.

《마음에 드는데 견딜힘이 좀 약하더구만!》

《잘못 보았습니다. 난 그걸 타고 한시간반도 못되는 사이에 10리요를 달렸는데 그러고도 그놈은 마치 쌩 쑬리삐스광장주위를 한바퀴 돈것 같은 모양새더란 말입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난 공연한짓을 했는가!》

《공연한짓이라니요?》

《그렇게 됐다네. 난 그걸 처분해버렸거던.》

《어떻게요?》

《이렇게 된 일이라네. 난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군은 업어가도 모르게 잠을 자고 난 할일이 있어야 말이지. 난 어제 마신 술기운이 아직 채 가셔지지 않았댔지. 그래서 난 홀로 내려갔지. 가보니 거기서는 우리가 아는 영국인들가운데 하나가 말거간군과 흥정을 하고있더군. 어제 그의 말이 죽었던거네. 내가 다가가 듣노라니 주홍색 거세말 한필에 100삐스똘을 내겠다는게거던. 〈여보시오.〉 나는 그에게 말했지. 〈내게도 말을 팔게 있는데요.〉 〈훌륭한 말이지요. 어제 당신의 친구분이 데리고있는 하인이 고삐를 잡고있던 그 말 아니요?〉 〈당신 생각에는 그놈 값이 100삐스똘 나갈것 같습디까?〉 〈나가다마다요. … 그래 당신은 말을 그 값으로 내게 팔겠습니까?〉 〈아니지요, 난 그걸 걸고 당신과 놀아보자는겁니다.〉 〈나하구요?〉 〈골패 말입니다.〉 이렇게 락착이 됐고 난 말을 떼운거라네. 하지만 그 대신 난 다음판에서 안장을 땄다네.》

다르따냥은 얼굴을 찌프렸다.

《섭섭한가?》 아또스는 물었다.

《터놓고 말해서 그렇습니다.》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싸움이 시작되는 날 그 말들을 보고 우리들을 알아보게 되여있었던겁니다. 그것들은 선물이고 주목을 끌기 위한 표적이였던겁니다. 당신은 부질없는짓을 했단 말입니다, 아또스씨.》

《됐네, 이 친구. 군이 내 립장이 돼보라구.》 총사는 말하였다. 《난 갑갑해서 죽을 지경이였구 또 까놓고 말해서 난 영국말들을 좋아 안하거던. 만일 누군가가 우릴 알아보는데만 문제가 있다면 사실말이지 안장만 가지고도 넉넉할거네. 그게 퍼그나 눈에 띄거던. 말로 말한다면 그것이 없어진것이 정당화될수 있는 구실을 찾아보잔 말이네. 말이라는건 결국 아무때건 죽기마련이거던! 내 말은 코병이나 옴 같은것으로 죽었다고 보잔 말이네.》

그러나 다르따냥의 얼굴은 그냥 침울하기만 하였다.

《유감인걸!》 아또스는 계속하였다. 《보아하니 군은 그 짐승들을 매우 소중히 여겼던 모양이지만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어쩐다?》

《당신은 무슨 일을 또 저질렀다는겁니까?》

《난 내 말을 잃자 군의 말도 마저 잃을 생각이 들더란 말이네.》

《그렇지만 그 생각은 실천에 옮기지 않았을줄로 믿습니다.》

《천만에, 난 즉시에 그 생각을 행동에로 옮겼네.》

《그래서요?》 다르따냥은 가슴이 한줌만 해서 소리질렀다.

《그래 또 놀아서 떼웠지.》

《내 말을요?》

《군의 말을 7 대 8로 한점차이로 말이네. … 속담에 뭐랬더라?》

《아또스씨, 당신은 정말이지 머리가 돌았댔구만요.》

《다르따냥군, 난 어제 나의 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던 때 이런 말을 했어야 할것이였지, 오늘이 아니고. 난 모든 장구들과 함께 말을 떼웠거던.》

《막 소름이 끼칩니다!》

《가만 좀 있으라구. 아직도 또 있다네. 내 만일 절제만 있다면 훌륭한 노름군이 됐을건데 난 술을 마실 때처럼 절제가 없거던. 그래서 말이네…》

《하지만 뭘 가지고 또 논단 말입니까? 당신에게야 더는 남은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게 아니지, 이 친구. 없는게 아니야. 우리한텐 그 금강석이 있거던. 군의 손가락에서 번쩍거리는걸 내 어제 봤다네.》

《이 금강석이요!》 다르따냥은 소리치면서 급급히 반지를 더듬어 보았다.

《내게도 한때 자기의 금강석이 있었기때문에 금새를 볼줄 아네만 난 거기에다 1천삐스똘을 매겼다네.》

《설마》 다르따냥은 공포로 하여 새까맣게 질려서 침울하게 말하였다. 《한마디로 나의 금강석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요?》

《정 반대라네, 이 친구. 한가닥 희망을 걸데는 이제는 그 금강석밖에 없었다는걸 알아야지. 난 그걸 가지고 장구들과 말을 도로 찾고 그우에다 돌아갈 로비까지 벌수 있었을거던.》

《아또스씨, 난 막 지긋지긋합니다!》 다르따냥은 소리쳤다.

《그래서 말이네, 난 그 영국인에게 군의 그 금강석 이야기를 했지. 알고보니 그 량반도 거기에 주목을 돌렸더군. 사실상 친구… 뭣때문에 그러는가 말이네! 군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손가락에 끼고있으면서 아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길 바라거던! 그렇겐 되지도 않아!》

《그만하시오, 그만하시오.》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당신의 랭담성에는 정말 사람이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네, 우린 그 금강석을 열몫으로 갈라서 그러니까 한몫에 100삐스똘씩 쳐서 놀았다네.》

《아, 어처구니없군요! 당신은 그런 롱으로 날 시험해보자는겁니까?》

다르따냥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말하였다.

《롱이라니, 난 롱이 아니라네. 제길! 군이 내 립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내 좀 봤으면 좋겠네. 난 두주일동안 사람의 얼굴 한번 못보고 술병들과만 이야기하느라 아주 야생화되여버렸네.》

《그건 내 말을 노름판에 댈만 한 구실이 못됩니다.》 다르따냥은 으스러지게 두주먹을 부르쥐고 반박하였다.

《마지막을 들어보라구. 100삐스똘짜리 열몫을 한꺼번에 대고 열판을 하네, 복수전은 없을내기. 그런데 열세번째판에 난 몽땅 떼웠네. 열세번째만에 그만… 13이라는건 내게는 언제나 재수없는 수자라네… 바로 6월 13일에…》

《이거야 분통이 터져서 어디!》 다르따냥은 책상에서 일어서면서 소리쳤다.
《참으라구.》 아또스는 말하였다. 《내게는 자기 계획이 있었다네. 그 영국인은 괴짜거던. 아침에 난 그치가 그리모와 이야기하는걸 봤는데 그다음 그리모가 내게 아뢰는 말이 그치가 그리모더러 자기에게 와서 일하라고 꼬드기더라는게거던. 이렇게 돼서 난 그리모를 걸고 말없는 그리모를 열등분해가지고 그치와 놀았지.》
《거참, 신통한 생각이군요!》 다르따냥은 저도 모르게 웃음보를 터뜨리며 말하였다.
《그리모를, 바로 그리모를 걸었단 말이네. 알겠나! 그래서 통털어서 값이 1삐스똘도 싸지 않을 그리모를 100삐스똘짜리 10묶으로 쳐서 내댄 덕에 금강석을 따냈거던. 자, 이래두 완강성은 미덕이 아니라고 할텐가!》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지만 이건 정말 재미있군요!》 다르따냥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허리를 그러안고 웃으면서 소리쳤다.
《물론 군은 리해하겠지만 난 사기가 오른김에 군의 금강석을 걸고 제창 또 놀기 시작했거던.》
《아니, 그건 또 뭡니까!》 다르따냥은 다시금 얼굴이 침울해져서 말하였다.
《난 군의 안장을 따고 그다음엔 군의 말을 따고 그다음엔 내 안장을, 다음엔 내 말을 땄다가 나중엔 또 졌다네. 간단히 말해서 난 군의 안장을 다시 따고 그다음 내 안장을 땄다네. 사태는 이렇다네. 그 판은 얼마나 잘 나오던지. 그래서 난 그것으로 끝내고말았다네.》
다르따냥은 어깨우의 주막집을 통채로 내려놓기라도 한듯이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러니까 금강석은 내 관할하에 남아있다는거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적으로 군의 관할하에 있지, 친구. 게다가 덤으로 우리 안장 두개까지.》
《하지만 말도 없이 안장은 해서 뭘합니까?》
《그 문제로 말한다면 내게 한가지 생각이 있네.》
《아또스씨, 사람을 그만 놀래우시오.》
《이보라구 다르따냥, 군은 노름을 해본지가 오랜것 같은데?》

《그리고 노름에는 꼬물만치도 흥미가 없구요.》
《흰소리 작작 하라구. 그래서 말이네, 내 말은 군은 놀아본지가 오랬고 따라서 군은 운수가 좋을게다 그 소리라네.》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쩌자는건가요?》
《어찌라는가?… 그 영국인은 자기 짝패와 함께 아직 여기에 있다네. 내 가만보니 그치가 안장을 잃은걸 몹시도 알찌근해한단 말이네. 그런가하면 군은 자기 말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내가 군이라면 말에게 안장을 맞세우겠네.》
《하지만 그 사람은 안장 한틀만 가지고는 하자고 안할걸요.》
《둘을 대지 뭐. 제길, 난 군과 같은 리기주의자가 아니라네.》
《당신이라면 하겠습니까?》 다르따냥은 그의 확신성에 저도 모르게 물들어가면서 주저주저 말하였다.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네만 딱 한판만.》
《그런데 말을 잃어버린 나로서는 안장만이라도 살리는것이 비상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금강석을 대지 뭐.》
《어이구, 그건 사정이 다르지요. 그것만은 죽어도 안됩니다!》
《이거야 어디!》 아또스는 말하였다. 《난 군에게 쁠랑쉐를 대라고 권고하고싶네만 하지만 그 비슷한 일은 이미 겪어봤으니까 영국인이 응하지 않을거야.》
《이것 보시오, 아또스씨.》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난 아무것도 절대로 모험에 내맡기고싶지 않아 그럽니다.》
《유감인걸.》 아또스는 랭랭하게 말하였다. 《영국인은 삐스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네. 제발 한판만 결심하게나! 한판이라는건 눈깜빡할새야!》
《그러다 내가 지면요?》
《군은 이긴다네.》
《그래도 지게 되면요?》
《그땐 안장을 주면 될게 아닌가.》
《에라, 될대로 되겠지—딱 한판입니다!》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영국인을 찾으러 나간 아또스는 마구간에서 그를 만났다. 영국인은 부러움에 찬 눈으로 안장을 살펴보고있었다. 절호의 기회였다. 아또스는 자기의 조건을 내놓았다. 안장 두틀에 말 한필 또는 100삐스똘,

두가지중에서 아무쪽이나 택한다는것이였다. 영국인은 재빨리 셈을 놓아보았다. 안장 두틀이면 합해서 300삐스똘이 된다. 영국인은 제꺽 동의하였다.
  다르따냥은 부들부들 떨면서 골패를 던지였다. 3끗이 나왔다.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아또스는 가슴이 덜컥하였으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을뿐이였다.
  《친구, 판은 개판이네. … 손님, 당신은 말과 안장을 다 차지하게 됐군요.》
  영국인은 성수가 나서 뒤섞을 수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얼마나 승리의 신심에 넘쳐있었던지 골패를 책상우에 던지고는 그것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르따냥은 불쾌감을 감추기 위하여 얼굴을 돌리였다.
  《어랍쇼!》 아또스가 여느때와 같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정말 놀라운걸! 이런 일은 내 일생에 겨우 네번밖에 없었다니, 두점!》
  영국인은 돌아다보자 깜짝 놀라서 벙어리가 되고 다르따냥도 돌아다보자 너무 기뻐서 벙어리가 되였다.
  《그렇다니.》 아또스는 계속하였다. 《겨우 네번, 한번은 끄데끼씨댁에서, 또 다음번은 우리 집, 우리 성곽에서… 말하자면 내게 성곽이 있었던 그때, 세번째는 뜨레빌각하의 저택에서 그분이 우리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때, 끝으로 네번째는 술집에서 내가 직접 골패를 던져서 100루이도르의 값을 떼웠던 그때였지.》
  《저 다르따냥씨, 결국 당신은 자기의 말을 도로 찾으신다는겁니까?》 영국인이 물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다르따냥이 대답하였다.
  《그럼 난 도로 딸수가 없겠군요?》
  《우리야 복수전을 안하기로 약속했지요. 기억을 잘 더듬어보십시오.》
  《그건 사실입니다. 말은 당신의 하인에게 전달될것입니다.》
  《잠간만.》 아또스가 말하였다. 《실례지만 여보시오 손님, 내 친구에게 몇마디 할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지요.》
  아또스는 다르따냥을 한옆으로 데리고갔다.

《뭡니까? 유혹자선생님.》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뭘 또 어쩌자는겁니까? 나더러 노름을 계속 하라는거지요, 옳지요?》

《그런게 아니라 난 군더러 잘 생각해보라는거네.》

《잘 생각해요?》

《군은 말을 도로 찾자는거겠지, 그렇지?》

《물론이지요.》

《군은 잘못 생각하고있네. 나라면 100삐스똘을 가지겠네. 군은 말 한필 혹은 100삐스똘에 안장 두틀이라고 했지.》

《옳습니다.》

《나 같으면 100삐스똘을 가지겠네.》

《그렇지만 난 말을 가지겠단 말입니다.》

《내 거듭 말하지만 군은 잘못 생각하고있다니. 둘이서 말 한필을 가지고 우린 어쩐다는건가. 난 군의 뒤자리에 앉지는 못하겠단 말이네. 우린 자기의 형제들을 잃어버린 에이몬의 두 아들 같을게거던. 그렇다고 군이 그 멋들어진 준마를 타고 나하고 나란히 가면서 거들먹거려서 날 노엽히자고는 안할게고. 나라면 가타부타없이 100삐스똘을 가지겠네. 빠리까지 대여가자면 우리에겐 돈이 필요한거네.》

《아또스씨, 그 말이 내게는 천금같이 소중한겁니다.》

《그게 공연한짓이란 말이네. 친구, 말이라는건 가다가 발이 걸채울수도 있고 발을 접지를수도 있는게거던. 말은 무릎마디털이 다 빠져나갈수도 있고 코병에 걸린 말이 먹던 구유의 먹이를 먹을수도 있는거지. 그렇게 되면야 말은 없어지는거고 보다 정확하게는 100삐스똘이 날아나버리지. 주인은 자기 말을 먹여살려야 하지만 100삐스똘은 반대로 자기 주인을 먹여살리거던.》

《그러나 우리가 집엔 뭘 타고간단 말입니까?》

《제길, 우리 하인들의 말을 타고가지. 우리 외관만 보고서도 누구나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건 알거야.》

《자기의 준마들을 타고 멋을 부리는 아라미스와 뽀르또스와 나란히 다 시들어빠진 그따위 말들을 타고가는 우리의 외관이 과연 볼만하겠군요.》

《아라미스와 뽀르또스와 나란히!》 아또스는 폭소를 터뜨렸다.

《왜 그럽니까?》 다르따냥은 자기 친구가 그처럼 즐거워하는 까닭을 알수 없어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던 이야기나 계속하자구.》 아또스는 말하였다.

《그러니까 당신 생각에는…》

《100삐스똘을 받으라는거네. 다르따냥, 100삐스똘이면 우린 이달말까지 풍청거릴수 있거던. 우린 몹시 지쳤으니 좀 쉬여서 나쁠게 없지.》

《쉰다구요?… 어이구, 그건 안됩니다. 아또스씨, 난 빨리 빠리에 돌아가서 그 불행한 녀자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 일도 그렇지 않은가 말이네! 그래 군은 그 일에서 말이 쟁쟁소리가 나는 금화만큼 쓸모가 있을것 같은가. 100삐스똘을 가지라구. 친구, 100삐스똘을 가지란 말이네!》

다르따냥은 그렇잖아도 양보할것인가 말것인가 망설이던 참이였다. 그런데 아또스의 마지막 그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게다가 그는 자기 고집만 세우면 아또스가 자기를 리기주의자로 보지 않겠는가 두려웠다. 하여 그는 한걸음 양보하여 100삐스똘을 가지기로 결심하였으며 영국인은 즉석에서 그에게 돈을 지불해주었다.

이리하여 두 친구의 출발을 방해하는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주막주인에게는 아또스의 늙은 말외에 6삐스똘이 더 빚으로 남아있었다. 다르따냥과 아또스는 쁠랑쉐와 그리모의 말을 타고 가고 하인들은 안장들을 머리에 이고 걸어서 갔다.

아무리 변변치 못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주인들은 자기 하인들을 얼른 따라앞서서 끄레브께르에 먼저 도착하였다. 벌써 멀리서부터 그들은 창가에 앉아서 지평선우에 뭉게뭉게 떠도는 먼지를 수심에 잠겨 바라보고있는 아라미스를 보았다.

《여, 아라미스! 어째서 그렇게 멍청해서 앉아있는가?》 두 친구가 소리쳤다.

《저런, 이거 다르따냥이 아닌가… 이건 또 아또스.》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난 이 세상 모든 행복은 얼마나 일시적인가 그리고 방금 먼지구름속으로 사라진 나의 영국말은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 모든것은 단명한다는 산증거로 된다는 생각에 잠겼댔네. 우리의 모든 생활은 erat, est, fuit(있었다, 있다, 있을것이다.)라고 세마디 말로 표현할수 있는거라네.》

《달리 말한다면?》 사태의 진상을 간파한 다르따냥이 물었다.
《달리 말한다면 난 머저리노릇을 했다는거네. 걸음새를 보면 구보로 한시간에 5리요는 넉넉히 축낼 말을 60루이도르에 팔아버렸으니!》
다르따냥과 아또스는 너무 우스워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였다.
《안됐네만 날 나삐 생각지 말아달라구, 다르따냥군.》 아라미스는 말하였다. 《가난은 법이라는걸 모르거던. 게다가 난 누구보다도 화를 많이 입었거던. 그놈의 뻔뻔스러운 거간군놈은 내게서 적어도 50삐스똘은 훔쳐먹었으니 말이네. 참 자네들은 참으로 극진하구만! 자기들은 하인들의 말을 타고오면서 자기들의 그 훌륭한 준마들은 고삐를 잡고 자주 쉬우면서 조심조심 끌고 오게 했으니 말이네.》
좀전부터 아미앵으로 통하는 길에 보이던 웬 유개마차 한대가 바로 이때 주막집앞에 와서 멎고 머리에 안장들을 인 쁠랑쉐와 그리모가 거기에서 어정어정 기여나왔다. 마차는 빈차로 빠리로 돌아가던 길이였는데 두 하인을 태워주는 값으로 마차부에게 도중 내내 마실수 있게 해주었던것이다.
《이건 어떻게 된건가? 》아라미스는 그들을 보자 놀라서 물었다. 《안장뿐인가?》
《이젠 알만 한가?》 아또스가 말했다.
《친구들, 자네들은 나와 꼭같이 행동했네그려. 나도 안장은 건사했다네. 어째선지는 나도 모르겠어. … 여, 바쟁! 내 새 안장을 가져다가 이 나리들의 안장곁에 놓으라구.》
《그런데 당신은 자기의 신부들을 어떻게 떨구어버렸는가요?》 다르따냥이 물었다.
《이튿날 나는 두분을 오찬에 초청했다네. 말이 난김이니 말이지만 여기에는 훌륭한 포도주가 있거던. 그래서 포도주를 들입다 퍼먹였더니 나중엔 신부는 나에게 군복 벗는걸 엄금하고 수도원장은 자기도 총사대에 들어갈수 있게 주선해달라고 부탁하게끔 되였거던.》
《그렇지만 론문은!》 다르따냥이 소리쳤다. 《난 론문을 철회할것을 요구합니다.》
《그때로부터》아라미스는 계속하였다. 《나의 생활은 아주 즐겁게 흘러갔다네. 난 한행이 단음절로 된 서사시를 쓰기 시작했거던.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온갖 사물의 기본우점은 바로 그 어려움속에

있거던. 내용은 사랑, 내 자네들에게 첫 노래를 읊어주지. 그건 400행으로 되여있지만 잠간새에 읽힌다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아라미스씨.》 시라면 라틴어만큼이나 증오하는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당신은 어려움의 우점에다 간결함의 우점까지 더 보태시지요. 그러면 당신은 자기의 서사시의 우점이 적어도 두가지는 된다는것을 확신할수 있을걸요.》

《그밖에도》 아라미스는 말을 이었다. 《서사시는 고결한 정열이 넘친다네. 자네들자신이 그걸 확인하게 될거네. … 그러니까 나의 친구들, 결국 우리는 빠리로 돌아간단 말이지? 아주 좋아, 난 차비가 돼있어! 우리는 그 장한 뽀르또스를 다시 보게 됐군. 난 기뻐!

난 그 어리숙한 거인을 얼마나 보고싶어했는지 자네들은 상상도 못할거야! 그 친구만은 자기 말을 팔아먹지 않을거야. 설사 그 값으로 왕국 하나를 통채로 내준대도 말이요. 난 그 친구가 새 안장까지 얹은 자기 준마에 앉아 으시대는 모양을 한시바삐 보고싶어 못 견디겠거던. 그 친구는 모골대제 완연할게야. 틀림없다니. …》

세 친구는 말들이 좀 숨을 돌릴수 있게 한시간동안 휴식하였다. 아라미스는 주막주인과 회계를 마치고나서 바쟁을 그의 두 동료가 올라가있는 유개마차에 태웠다. 하여 모두는 뽀르또스를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뽀르또스는 이미 완쾌되여 다르따냥이 전번에 왔을 때처럼 창백하지 않았으며 네사람분점심이 차려진 식탁에 혼자 앉아있었다. 점심상에는 먹음직스럽게 만든 고기료리와 상등포도주병들, 싱싱한 과일들이 올라있었다.

《어서들 오라구, 친구들.》 뽀르또스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하였다.

《자네들은 발이 좀 길구만. 난 방금 식탁에 앉은 참이니 모두들 나하고 같이 점심을 하자구.》

《이것 봐라!》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보아하니 저 술병들은 무슈끄똥이 투승으로 낚아낸것들이 아니구만.》

《난 몸보신을 한다네.》 뽀르또스는 말하였다. 《난 몸보신을 한다 그 말이라네. 그놈의 저주로운 탈구만큼 몸을 허약하게 만드는건 아무것도 없거던. 아또스, 자넨 다리가 탈구되여본 일이 한번이라도 있는가?》

《그런 일은 없네만 우리가 페루거리에서 싸움이 붙어서 내가 칼에 찔려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두주일 또는 두주일반후에는 지금의 자네와 꼭같은 상태였던게 생각나누만.》

《그건 그렇구 이 식탁은 자네 혼자만을 위한게 아닌것 같은데 어떤가. 친애하는 뽀르또스?》 아라미스가 물었다.

《그렇네.》 뽀르또스는 대답하였다. 《이웃에 사는 몇몇 귀족들이 오기로 되여있었는데 방금전에 자기들은 못 온다고 사람을 띄워 알려오지 않았겠나. 자네들이 그들대신 앉으라구. 그런다고 내가 손해볼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 여 무슈끄똥, 걸상들을 가져오고 술은 이만큼 더 있어야겠어.》

《자네들은 지금 우리가 뭘 먹고있는지 알겠나?》 아또스가 잠시후 이렇게 물었다.

《거야 모르겠나요.》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송아지고기지요.》

《난 양의 등심이야.》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난 암닭의 가슴팍고기.》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친구들, 모두 틀렸어.》 아또스가 정색하여 말하였다. 《자네들은 말고기를 먹고있다네.》

《걷어치우시오!》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말고기라니!》 아라미스가 욕지기가 나는듯 오만상을 찌프리고 말하였다. 아무 말도 없는것은 뽀르또스 혼자뿐이였다.

《맞아, 말고기야. … 그렇지, 뽀르또스? 우린 말고기를 먹고있지? 어쩌면 안장까지 곁들였을지도 몰라.》

《아니네, 친구들. 난 안장만은 건사하고있네.》 뽀르또스는 말하였다.

《정말이지 우린 모두 친구답거던.》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꼭 약속이라도 한것 같으니까.》

《별도리가 있더라구?》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그놈의 말은 나의 손님들을 난처하게 만드는데 난 그분들의 체면을 떨어뜨리고싶지 않더란 말이지.》

《게다가 당신의 공작부인은 아직까지도 온천에 가있을게거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따냥이 물었다.

《아직까지 거기 가있다니!》 뽀르또스는 대답하였다. 《그리고 또

한가지—그 말이 도지사의 눈에 얼마나 들었던지—내가 오늘 오찬에 초대한 손님들중의 한분이라네—난 그놈을 그분에게 섬겨바치고말았다네.》
《섬겨바치다니!》 다르따냥이 소리쳤다.
《맙소서! 그렇네. 섬겨바쳤지.》뽀르또스는 말하였다. 《어찌겠나. 그놈의 말이 150루이도르는 나갈것이 틀림없는데 그 노랭이는 80루이도르이상은 내지 못하겠다고 뻗치지 않겠나.》
《안장은 떼놓고?》 아라미스가 물었다.
《안장은 떼놓고.》
《보라구, 친구들.》 아또스가 말하였다. 《뽀르또스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들가운데 누구보다도 유리하게 일을 처리했거던.》
순간 집이 떠나갈듯 한 폭소가 터지고 가련한 뽀르또스는 어찌된 영문이지 몰라 쩔쩔매다가 모두가 그렇게 재미있어하는 까닭을 알게 되자 여느때와 같이 요란스럽게 거기에 합세해나섰다.
《그리고보면 우린 모두 돈이 있다 그 말이군요?》 다르따냥이 물었다.
《난 빼놓으라구.》 아또스가 말하였다. 《난 아라미스의 에스빠냐 포도주가 어찌나 맛있던지 하인들의 유개마차에 그걸 60병 실으라고 분부했더니 내 돈주머니가 홀쭉해졌거던.》
《그리고 난…》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난 마지막한푼까지 다 털어서 몽디에교회당과 아미앵수도원에 바친데다가 당장 물어야 할 얼마간의 빚 말고도 나와 자네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것이 우리모두에게 유익할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돼서 아침기도를 부탁했거던.》
《그리고 탈구된 내 다리는?》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자네들 생각엔 그게 내 돈을 안쓰고 가만있을것 같은가? 무슈끄똥이 입은 상처는 내놓고 말이네. 난 그것때문에 하루에 두번씩 의원을 불러와야 했다니. 게다가 그놈의 의원이라는것은 머저리같은 무슈끄똥이 의원들에게만 보일수 있는 곳에 총알을 맞았다는걸 구실로 내게서 돈을 두곱절로 받아먹었거던. 내 그녀석에게 앞으로 그런 부상은 경계하라고 이르긴 했네만.》
《알겠네.》 아또스가 다르따냥과 아라미스와 눈길을 맞추고 말하였다. 《내 보건대 자네는 그 불쌍한 녀석을 너그럽게 대해주었어. 선

량한 주인이란 바로 그래야지.》

《간단히 말해서》뽀르또스는 뒤를 이었다. 《내가 쓴 돈을 다 청산하고나면 내겐 30에뀨쯤 남네.》

《난 10삐스똘 되네.》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자네들에 대면 우린 백만장자 한가질거야.》아또스가 말하였다. 《다르따냥, 군의 100삐스똘가운데서 지금 얼마나 남았는가?》

《100삐스똘가운데서요? 우선 그가운데서 50삐스똘은 당신에게 주었지요.》

《내게 주다니?》

《이런 속상할데라구야!》

《아, 맞아. 생각나는군! 틀림없이 받았어.》

《6삐스똘은 주막주인에게 물어주고요.》

《그 짐승같은 놈에게! 그놈에게 무엇때문에 6삐스똘을 준단 말인가?》

《그거야 당신이 나더러 물어주라구 하지 않았습니까?》

《자네 말이 맞아. 난 너무 마음이 후하거던. 간단히 말해서 얼마 남았나?》

《25삐스똘.》 다르따냥이 대답하였다.

《난 말이네.》 아또스는 호주머니에서 몇푼 안되는 부스레기 잔돈을 꺼내면서 말하였다. 《난 말이네. …》

《당신은 빈털터리군요. …》

《아닌게아니라 너무 적어서 공동재산에 합칠 형편이 못되누만.》

《그럼 우리 돈이 통털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자구. 뽀르또스는 얼만가?》

《30에뀨.》

《아라미스는?》

《10삐스똘.》

《다르따냥군은?》

《25삐스똘.》

《다하면 얼만가?》 아또스는 물었다.

《475리브르지요.》 재빨리 계산한 다르따냥이 대답하였다.

《빠리에 도착할 때쯤엔 우리에겐 400리브르 실히 남네.》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안장들은 셈에 넣지 않고 말이네.》

《그런데 기병대의 말들은 어떻게 한다?》 아라미스가 물었다.
《어떻게 하긴? 하인들의 말 네필을 우리는 주인들을 위해서 두필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노름판에 댄단 말이네. 그리고 400리브르는 말이 안 차례진 사람들가운데 한사람에게 말 한마리값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제 주머니들을 몽땅 털어서 나머지돈을 전부 손이 잽싼 다르따냥군에게 맡긴단 말이네. 그러면 저 친구는 그걸 가지고 처음 맞다드는 도박장에 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다 되는거지.》
《어서 점심들이나 먹자구.》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다 식겠네.》
이렇게 하여 앞날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놓은 네 친구는 점심을 먹었으며 그들이 먹다가 남긴것은 무슈끄똥, 바쟁, 쁠랑쉐, 그리모제씨들에게 차례졌다.

빠리에서는 뜨레빌씨의 편지가 다르따냥을 기다리고있었다. 편지는 그의 청원이 이루어져 국왕은 그의 총사대 입대를 너그러이 허락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있었다.
그것은 다르따냥이 가슴속에 소중히 품고있는 유일한 꿈(물론 보나씨에부인을 찾으려는 열망은 제외하고 하는 말이다.)이였으므로 그는 환희에 넘쳐 겨우 반시간전에 헤여진 친구들을 찾아 내달렸으며 시름에 겨운 얼굴로 깊은 수심에 잠겨있는 그들을 만났다. 그들도 의논을 하려고 아또스의 집에 모여있었는데 그것은 다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보게 되는 일이였다.
뜨레빌씨는 국왕께서 5월 1일에 군사행동을 개시할 확고한 결심이므로 그들은 즉시 모든 장비품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방금 알려온것이였다.
네 철학자들은 당황망조하여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다. 뜨레빌씨는 군기문제를 두고 흥정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던것이다.
《당신들 생각에는 장비품들을 다 갖추는데 얼마나 들것 같습니까?》
《어이구, 말도 말라구!》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우린 방금 계산을 해보았네만 물론 스파르타인들처럼 얼추 계산한거지만 어쨌든 우리들 매 사람앞으로 적어도 1 500리브르가 필요하다네.》
《1 500 곱하기 4이면 6 000리브르야.》 아또스가 말하였다.

《내 생각엔》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한사람이 1 000리브르씩만 있으면… 하긴 난 스파르타인들처럼이 아니라 궁정내수사관원처럼 엄격히 계산했지만.》

궁정내수사관이라는 소리에 뽀르또스는 활기를 띤것 같았다.

《됐어, 내게 한가지 계획이 있네.》

《거 괜찮구만. 하지만 내겐 계획같은게 쥐뿔만큼도 없네.》 아또스가 랭랭하게 대꾸하였다.

《다르따냥으로 말한다면 친구들, 저 친구는 우리 대렬에 들어오게 되였다는 행복감때문에 리성을 잃어버린거네.》

《4 곱하기 2이면 8이지.》 아라미스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품들을 갖추는데는 8 000리브르가 필요하거던. 하긴 안장은 이미 있는거지만. …》

《그리고 또…》 다르따냥이 뜨레빌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가면서 문을 닫고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아또스가 말하였다. 《그리고 또 저 친구의 손가락에서 번쩍거리는 훌륭한 금강석이 있거던, 제길! 다르따냥은 제 손가락에 그런 보물을 끼고있으면서 곤경에 처한 의형제들을 그냥 모르는체 하기에는 너무도 훌륭한 동무거던.》

제 29 장

장비품준비를 위하여

네사람가운데서 누구보다도 골머리가 아픈것은 다르따냥이였다. 사실상 그는 근위병으로서 명문출신의 총사대원들보다 장비품을 갖추는것이 훨씬 헐하였다. 그렇지만 다르따냥은 독자들도 이미 간파했을것이지만 남달리 선견지명이 있고 거의 린색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뽀르또스 못지 않게 허영심이 강하였다. 자기의 허영심을 충족시킬 걱정외에 그에게는 보다 덜 리기적인 성격의것이기는 하나 다른 근심거리도 동시에 있었던것은 사실이다. 그는 보나씨에부인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수소문을 해보았음에도 불구하

고 아무것도 알아낼수 없었던것이다. 뜨레빌씨는 왕비에게 그 녀자에 대한 말을 비쳐봤지만 왕비는 잡화상의 젊은 부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탐색을 시작하자고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이라는것이 너무도 막연한것이여서 다르따냥을 조금도 안심시키지 못하였다.

아또스는 두문불출이였다. 그는 장비품을 구하는 일때문에 한걸음도 나가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한것이였다.

《우리에게는 아직 두주일이 남아있지.》 그는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별수 없지. 그 두주일이 다 지나가도록 내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게 되면 난 제 이마빡에 깜장콩알을 쏘아박는걸 바라지 않는 순결한 카톨릭교도답게 주교의 근위병 네명 아니면 영국인 여덟명과 싸움을 걸테야. 그래서 그가운데 한놈이 날 죽일 때까지 싸우겠단 말이네, 수량상으로 보면 그건 절대로 피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국왕을 위해서 죽었다고 할것이며 따라서 난 장비품을 갖출 필요도 없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것으로 되거던.》

뽀르또스는 뒤짐을 지고 방안을 오락가락하면서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줄곧 웅얼거리고있었다.

《난 나의 계획을 실천하고야말테다.》

아라미스는 침울한 얼굴로 머리는 되는대로 질끈 동인채로 말이 없었다.

이와 같은 상서롭지 못한 모든 표징들은 그들의 기분상태가 완전히 저기압이라는것을 명백히 말해주고있었다.

하인들은 그들대로 자기 주인들과 슬픔의 운명을 함께 나누고있었다. 무슈끄똥은 건빵만 말리고있고 언제나 마음이 신앙에만 쏠리고있던 바쟁은 교회당에서 일체 나오지를 않았으며 쁠랑쉐는 먼산만 바라보고있고 그리모는 모두의 우울한 기분에는 아랑곳없이 주인에게서 훈련받은대로 굳이 침묵만을 지키면서 바위돌을 울릴만큼 침통하게 한숨을 쉬고있었다.

세 친구는 (왜냐하면 우에서 이미 이야기된바와 같이 아또스는 장비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발자국도 걷지 않기로 맹세했던것이다.) 아침 일찍 집을 나왔다가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돌아오군 하였다. 그들은 이 거리, 저 거리를 어정거리면서 마치도 어느 길손이 떨어뜨린 돈지갑이라도 찾듯이 길바닥의 돌덩이 하나하나를 유심히 여겨보고있었다. 어찌보면 그들은 누군가의 흔적을 찾아 뒤를 밟는 사람들같았다.

그들은 그렇게도 주의깊이 눈에 맞다드는 모든것을 살펴보았던것이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는 《어때? 아무 소득도 없단 말인가?》라는 의미가 력력한 절망의 눈길로 서로 쳐다보군 하였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착안하고 그 생각만을 끈지게 해오던 뽀르또스가 맨처음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존경할만 한 뽀르또스는 정력적인 인간이였다. 다르따냥은 어느날 뽀르또스가 쌩－레교회당쪽으로 가는것을 보고 무슨 륙감이라도 작용했던지 그의 뒤를 밟기 시작하였다. 교회당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뽀르또스는 코수염을 꼬아붙이고 턱수염을 쓰다듬었는데 이것은 언제나 그가 크게 용단을 내렸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다르따냥은 그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면서 뒤따라들어갔다. 뽀르또스는 둥근 기둥에 기대섰다. 다르따냥은 그가 모르게 같은 기둥 반대쪽에 기대섰다.
마침 신부가 설교를 하고있어서 교회당안은 만원이였다. 그런 정황을 리용하여 뽀르또스는 몰래 녀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무슈끄똥이 애써 수고한 덕분에 그의 외모는 그의 마음속에 가득차있던 우울한 심사를 결코 드러내보이지 않았다. 그의 모자가 좀 헐고 깃털색이 좀 날고 수실들이 좀 컴컴해지고 레스들이 몹시 너덜너덜해진것은 사실이지만 어스름속에서 그런 소소한것은 눈에 알리지 않았으며 뽀르또스는 변함없이 미남자 뽀르또스였다.
그들 둘이 기대선 둥근 기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걸상에서 다르따냥은 한물이 다 진 어떤 미인이 검은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것을 보았다. 얼굴에 저으기 황이 끼고 뼈가 저으기 두드러졌으나 자세는 꼿꼿하고 거드름스러웠다. 뽀르또스의 눈길은 슬그머니 그 녀자에게 가서 멎었다가 다음에는 더 멀리 교회당안쪽으로 옮겨졌다.
한편 부인쪽에서는 줄곧 얼굴을 붉히면서 번개처럼 빠른 눈길을 바람쟁이 뽀르또스에게 던지군 하였으나 그때마다 그의 눈길은 즉시에 교회당안을 짐짓 열심히 더듬기 시작하는것이였다. 이 수법이 검은 모자를 쓴 부인의 비위에 거슬렸던것이 분명하였다. 부인은 피가 지도록 입술을 깨물고 코끝을 긁적거리고 절망에 싸여 걸상우에서 안절부절 못하였다.
이것을 보고 뽀르또스는 또다시 코수염을 꼬고 턱수염을 쓰다듬고는 합창대좌석 가까이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부인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아름다울뿐아니라 보매 지체도 높은 녀자같았다. 그 녀자의 뒤에는 무릎방석을 가지고온 흑인아이와 부인이 읽고있는 기도서를 넣었던, 문장을 수놓은 주머니를 받쳐든 하녀가 서있었기때문이다.

검은 모자를 쓴 부인은 뽀르또스의 눈길이 쏠리는 방향을 추적하다가 그것이 빨간 비로도방석을 가지고있으며 흑인아이, 하녀들을 대동하고있는 부인에게 계속 가서 멎는것을 보았다.

한편 뽀르또스는 연기를 재치있게 계속해나갔다. 그는 눈을 끔쩍거리거니,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대거니, 사람의 간을 살살 녹일만 한 미소를 던지거니 하였다. 사실 그 미소에 배척당한 미인은 간이 다 녹았던것이다.

드디여 그 미인은 《다 내탓이지.》라고나 말하듯이 제 가슴을 두드리면서 《흥.》 하고 어찌나 큰소리를 냈던지 빨간 방석을 가진 부인까지도 포함해서 모두가 그쪽을 돌아다보았던것이다. 뽀르또스는 자기 성격을 살려나갔다. 즉 그는 죄다 깨달았으나 못 들은체 하였다.

빨간 방석의 부인은 실지로 절색이였으며 그 녀자를 진정으로 위험한 경쟁자로 보고있는 검은 모자의 부인과 그 녀자가 검은 모자의 부인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하고있는 뽀르또스 그리고 다르따냥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다르따냥은 그 녀자가 바로 멍과 깔레 루브르에서 보았으며 얼굴에 허물이 있는 자기의 추적자가 밀레디라고 부르군 하던 바로 그 녀자임을 알아보았던것이다.

다르따냥은 빨간 방석의 부인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면서 뽀르또스의 거동이 하도 재미나서 계속 살피였다. 그는 검은 모자의 그 부인은 쌩－레교회당에서 그닥 멀지 않은 우르스거리에 사는 검사부인이라고 단정하였다.

계속 관찰해가던 그는 그밖에도 뽀르또스가 검사부인에게 자기가 샹띠이에서 당한 패배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심산임을 알아맞혔다. 그때 부인은 자기의 돈지갑을 놓고 너무도 완강하게 나왔던것이다.

그런데 다르따냥은 또한 그 누구도, 단 한명도 뽀르또스의 친절성에 응하는 사람이 없다는것을 발견하였다. 그 모든것은 단지 몽상이며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환상과 몽상을 떼여놓고 참다운 사랑, 진정한 질투심을 생각할수 있단 말인가!

설교는 끝났다. 검사부인은 성수그릇에로 향하였다. 뽀르또스는 부인을 앞질러가서 그릇에 손가락을 잠글 대신 손을 통채로 담그었다.

검사부인은 뽀르또스가 자기를 위해 수고해주는줄만 알고 방긋이 웃음을 지었으나 그 녀자를 기다리고있는것은 너무도 뜻밖이고 가혹한 실망이였다. 그 녀자가 자기에게서 세걸음 되나마나한 거리에 이르자 뽀르또스는 홱 돌아서서 방금 자리에서 일어나 흑인아이와 하녀를 대동하고 지금 막 다가오고있는 빨간 방석의 부인에게 눈길을 주었다.
빨간 방석의 부인이 곁에 이르렀을 때 그가 그릇에서 성수에 젖은 손을 꺼내자 아름다운 신도는 자기의 가냘픈 손가락으로 뽀르또스의 솥뚜껑같은 손을 살짝 다치고는 상긋이 웃어보인 다음 십자를 긋고 교회당을 나갔다.
이것은 너무하였다. 검사부인은 그 부인과 뽀르또스 사이에는 사랑관계가 있다는것을 더는 의심치 않았다. 그 녀자가 지체높은 부인이라면 졸도라도 할것이지만 그 녀자는 한날 검사부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북받치는 분노를 억누르고 총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것으로 만족할수밖에 없었다.
《아유, 그럴줄 몰랐군요. 뽀르또스씨! 그러니 이젠 내게 성수를 권하지 않는다는거지요?》
그 목소리에 뽀르또스는 백년 깊이 들었던 잠에서 깨여나기라도 한듯이 흠칠하였다.
《부… 부인이!》 그는 소리쳤다. 《당신이 옳습니까? 당신의 주인님이신 사랑스러운 꼬끄나르씨는 어떻게 지내시는가요? 그 사람은 지금도 그전과 같은 깍쟁이인가요? 내 눈은 대체 뭘하고있었담? 설교가 계속된 그 두시간동안 난 왜 당신을 보지 못했을가요?》
《난 당신에게서 두걸음앞에 앉아있은걸요.》 검사부인은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이 방금전에 성수를 섬겨준 그 아름다운 부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다보니 나를 못 본게지요.》
뽀르또스는 짐짓 당황한체 하였다.
《허, 그랬댔군요.》 그는 말하였다. 《당신은 다 봤군요. …》
《소경이 아닌 다음에야 못 볼수 있겠어요?》
《옳습니다.》 뽀르또스는 건성으로 말하였다. 《공작부인은 나의 벗이지요. 남편의 강짜가 너무도 심해서 우리는 좀처럼 만나기가 힘들거던요. 그래서 그 녀자는 오늘 이 한적한 곳의 초라한 교회당에 오겠노라고 기별을 띄웠더군요. 순전히 날 만나자고 말입니다.》
《뽀르또스씨.》 검사부인은 말하였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한

손을 5분동안만 실례할수 없을가요? 난 당신과 이야기할게 있어요.》
《거야 어렵겠습니까? 부인.》 뽀르또스는 묘한 수를 들이댈 차비를 하면서 히물거리는 노름군과도 같이 저 혼자 몰래 눈을 끔쩍이면서 대답하였다.
이때 밀레디를 뒤따르던 다르따냥이 그들곁을 지나갔다. 다르따냥은 고개를 돌리자 뽀르또스의 의기양양한 시선을 보았다.
(저것 보지!) 다르따냥은 경망스러웠던 당시의 경박한 관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론을 내리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 뽀르또스만은 지정된 기일내에 반드시 장비품들을 갖출테지.)
뽀르또스는 키의 조종대로 움직이는 배처럼 검사부인의 팔이 잡아끄는대로 이끌려서 앞뒤 량쪽이 회전문으로 막힌 외진 곳의 쌩－마글루아르수도원 마당까지 갔다. 낮에는 무엇인가를 쩝쩝 씹고있는 거지들이나 장난에 미친 아이들밖에 볼수 없는 곳이였다.
《아, 뽀르또스씨!》 검사부인이 그곳의 고정방문객들외에는 아무도 엿보거나 엿들을 사람이 없다는것을 확신하자 소리쳤다. 《아, 뽀르또스씨! 당신은 녀자들을 호리는 솜씨가 여간 아닌가봐요.》
《내가요? 부인.》 뽀르또스는 가슴을 쭉 펴면서 물었다.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좀전에 보내던 신호랑, 성수랑은 뭐예요? 그 흑인아이와 하녀를 데린 그 부인은 대체 누구예요? 못해도 왕비쯤은 되겠던데요.》
《틀렸습니다.》 뽀르또스는 대답하였다. 《기껏해서 겨우 공작부인인걸요.》
《그럼 문앞에서 그 녀자를 기다리고있던 몸종이랑 마부석에서 대기하고있던 으리으리한 제복차림의 마부가 모는 마차랑은요?》
뽀르또스는 하인도 마차도 보지 못했지만 꼬끄나르부인은 녀자의 질투심 많은 눈으로 죄다 본것이였다.
뽀르또스는 빨간 방석의 부인을 애초부터 왕녀로 괴여올리지 못한것이 후회되였다.
《아, 뽀르또스씨.》 검사부인은 한숨을 쉬면서 말하였다. 《당신은 아름다운 녀자들의 총아지요!》
《당신도 리해하겠지만》 뽀르또스는 대답하였다. 《자연이 선사한

이만한 외모를 가졌으니 나는 사랑놀음에서 부족이라는걸 모르지요.》
《맙시사! 남자들은 얼마나 건망증이 심할가요!》 검사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소리쳤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녀자들의 건망증만이야 하겠습니까?》 뽀르또스는 대답하였다.
《난 말이지요. … 난 당신의 희생물이였다는것을 주저없이 말할수 있습니다. 부인, 난 부상을 당하여 죽게 되였는데 의사들은 오려고도 하지 않지, 명문가의 후예였던 당신의 우정을 철석같이 믿고있던 내가 샹띠이의 빈한한 주막집에서 처음에는 상처때문에, 다음에는 굶주림때문에 다 죽게 되였을 때 당신은 내가 써보낸 절절한 편지들에 한번도 회답을 해주지 않았거던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뽀르또스씨. …》 검사부인은 가장 지체높은 부인들이 그런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생각하면 자기가 확실히 잘못했다는것을 느끼면서 중얼거렸다.
《난 당신을 위해서 남작부인을 희생했소.》
《나도 그건 알고있어요.》
《그리고 백작부인도 있구요.》
《아 뽀르또스씨, 날 용서하세요!》
《공작부인도 있었지요. …》
《뽀르또스씨, 제발 너그럽게 봐주세요!》
《좋습니다, 부인. 내 입을 다물지요.》
《하지만 우리 주인은 대부금이라면 아예 들으려고도 않으니 어떡해요.》
《꼬끄나르부인.》 뽀르또스는 말하였다. 《당신이 나에게 써보낸 첫 편지를 상기해보십시오. 난 그것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것입니다.》
검사부인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지었다.
《그건 당신이 대부해달라고 부탁한 액수가 정말이지 너무도 엄청났기때문이였어요.》
《꼬끄나르부인, 난 당신을 더 믿었던것입니다. 만일 공작부인께서 편지를 보았더라면… 그 녀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녀자들의 평판문제를 언제나 념려하기때문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녀자에게 써보냈다면 그쪽에서는 당장에 1 500리브르를

보내주었을것입니다.》
검사부인은 눈물을 쏟았다.
《뽀르또스씨.》 부인은 말하였다. 《정말이지 난 톡톡히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 앞으로 그런 처지에 또 놓이게 되면 나에게 요구만 하면 될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부인!》 뽀르또스는 짐짓 격노한체를 하면서 말하였다. 《제발 돈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사람이 시시해지는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더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거군요.》 검사부인은 뜨직뜨직 애달프게 말하였다.
뽀르또스는 도고하게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어쩌나, 그게 당신의 대답이군요. 난 그게 리해돼요.》
《부인, 당신이 나에게 가한 모욕을 상기해보십시오. 그것은 여기에 묻혀있습니다.》 뽀르또스는 손으로 심장을 힘껏 누르면서 말하였다.
《정다운 뽀르또스, 내가 그걸 씻어드릴테니 믿어주세요.》
《나의 부탁이라는것이 고작해서 뭣이였던가요?》 뽀르또스는 매우 순박한 얼굴로 어깨를 으쓱 추며 뒤를 이었다. 《꿔달라는것, 기껏해서 꿔달라는것이였지요. 결국 나도 분별이 없는 인간은 아니니까. 당신은 부자가 아니고 당신의 남편은 가난뱅이 원고들한테서는 보잘것 없는 마지막푼전을 짜내고있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백작부인이라거나 후작부인 또는 공작부인이라면 사정이 다르지요. 아, 그땐 당신의 행동은 용서가 다 뭐겠습니까!》
검사부인은 모욕감을 느꼈다.
《뽀르또스씨, 똑똑히 알아주세요.》 부인은 반박하였다. 《나의 돈궤가 그것이 아무리 검사부인의 돈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그 모든 몰락한 알랑쇠들의 돈궤보다는 훨씬 더 빼곡이 차있을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꼬끄나르부인, 당신은 나를 두곱절로 모욕한셈이구만요.》 뽀르또스는 검사부인의 손에서 자기 손을 뽑으면서 말하였다. 《당신이 그렇게 부자라면 당신의 거절은 변명할 구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라고 하는 말은 문자그대로 리해하면 안돼요.》 검사부

인은 열이 오른 자기가 그만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다. 《난 부자라기보다 돈을 좀 쓰는 정도예요.》

《여보시오, 부인.》 뽀르또스는 말하였다.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제발. 당신은 날 포기했던겁니다! 우리 둘사이의 우정은 일체 끝났습니다!》

《그건 배은망덕이예요!》

《어이구, 당신은 뭔가 또 불만스럽다는거군요!》

《당신의 그 아름다운 공작부인에게나 썩 가세요! 내 더는 당신을 붙들지 않을테니.》

《좋습니다. 내 보기에 그 부인은 어지간히 생겼더군요!》

《이보세요, 뽀르또스씨. 내 마지막으로 물어요. 당신은 아직 날 사랑해요?》

《그러지 마시오, 부인.》 뽀르또스는 슬픈 목소리를 한껏 꾸미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제 전쟁에 나갈것이고 내 예감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때 난 죽을것인데…》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검사부인은 오열을 터뜨리면서 소리질렀다.

《그걸 생각하면 난 무엇인가 자꾸 마음에 걸리거던요.》 뽀르또스는 점점 더 침통한 얼굴이 되면서 말하였다.

《차라리 당신에게 새로운 사랑놀음이 시작되였다고나 하시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난 진심으로 말하는겁니다! 그 어떤 새로운 대상도 난 흥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 이 심장 깊은 곳에서 난 여전히 당신에게로 끌리거던요. 그러나 당신은 아시다싶이 아니, 혹시는 모르실수도 있지만 두주일후엔 우리가 그 운명적인 전쟁에 나가게 되여있어서 난 장비품준비로 눈코뜰새가 없는것입니다. 난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 친척들을 만나러 브레따슈의 벽지로 다녀와야 하는겁니다.》 뽀르또스는 사랑과 린색사이에 마지막대결이 벌어지고있는것을 간파하였다. 《그런데 당신이 좀전에 교회당에서 본 그 공작부인의 령지가》 그는 계속하였다. 《우리 령지와 나란히 있기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게 된답니다. 아시다싶이 려행길이란 둘이 함께 가야 언제나 훨씬 짧아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럼 당신은 빠리에 친구들이 없는게지요?》

검사부인은 물었다.

《난 얼굴들만 알았댔구만.》 뽀르또스는 또다시 서글픈 표정을 띠면서 대답하였다. 《이제와서 나는 잘못 알았댔다는것을 깨달았지요.》

《뽀르또스씨, 당신에겐 친구들이 있어요!》 검사부인은 자기 감정의 폭발에 스스로 놀라면서 소리쳤다. 《당신은 우리 고모의 아들, 그러니까 나의 사촌오라비예요. 당신은 삐까르디의 누아이옹에서 왔어요. 당신은 빠리에서 몇가지 소송건이 제기되고있는데 대리인이 없단 말이예요. 당신은 이걸 다 기억할수 있겠어요?》

《똑똑히 기억하지요, 부인.》

《점심때를 맞춰서 오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우리 주인은 일흔여섯살이라는 그 나이예요. 여간만 눈치가 빠르지 않답니다.》

《일흔여섯이라구요? 제길, 참 멋들어진 나이로군요!》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당신 말은 다된 나이라는게지요. 옳아요. 뽀르또스씨, 가엾은 우리 주인은 어느 시각에 날 홀몸으로 남길지 몰라요.》 검사부인은 의미심장한 눈길을 뽀르또스에게 던지면서 말하였다. 《다행히도 결혼계약에 따라서 재산은 부부가운데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부 넘어가게 되여있답니다.》

《통채로?》 뽀르또스가 물었다.

《통채로요.》

《이제 보니 당신은, 정다운 꼬끄나르부인, 선견지명이 있는 녀성이군요.》 뽀르또스는 검사부인의 손을 따뜻이 잡으면서 말하였다.

《그럼 우린 화해한셈이지요, 정다운 뽀르또스씨?》 검사부인이 으쓱해져서 물었다.

《일생토록.》 뽀르또스가 같은 어조로 대답하였다.

《그럼 안녕, 나의 배반자!》

《안녕, 나의 바람쟁이!》

《래일 또, 나의 천사!》

《래일 또, 내 인생의 광명!》

제 30 장

밀 레 디

다르따냥은 몰래 밀레디의 뒤를 따랐다. 그는 그 녀자가 마차에 오르는것을 보았으며 그 녀자가 마차부에게 쌩―재르맹거리로 가자고 분부하는것을 들었다.

힘센 말 두필이 끄는 마차를 도보로 뒤따른다는것은 부질없는 일이였다. 그리하여 다르따냥은 페루거리로 향하였다.

쎄느거리에서 그는 쁠랑쉐를 만났다. 쁠랑쉐는 당과류진렬장앞에 서서 매우 먹음직스러워보이는 빵을 황홀한 눈으로 살펴보고있었다.

다르따냥은 그에게 뜨레빌씨의 마구간에 가서 말 두필에다 안장을 얹어가지고(한필은 다르따냥자신을 위한것이고 다른 한필은 쁠랑쉐를 위한것이였다.) 자기를 뒤따라 아또스의 집으로 오라고 명령하였다. 뜨레빌씨는 자기의 마구간들을 다르따냥이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게 전적으로 내맡겼던것이다.

쁠랑쉐는 비여 꼴롱비에거리로 가고 다르따냥은 페루거리로 갔다. 아또스는 집에 앉아 자기가 삐까르디에서 가져온 상등에스빠냐포도주를 쓸쓸하게 마시고있었다. 그는 다르따냥앞으로 잔을 가져오도록 그리모에게 신호를 하고 그리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묵묵히 명령을 집행하였다.

다르따냥은 아또스에게 교회당에서 뽀르또스와 검사부인사이에 있은 일을 죄다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그 친구는 한창 장비품들을 갖추는 로상에 있을것이라는 자기의 짐작을 말하였다.

《나로 말한다면》그 말을 듣자 아또스는 말하였다. 《난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네. 어쨌든 나의 장비품구입에 드는 돈을 부담하는건 녀자들이 아닐테니까.》

《그렇지만 아또스씨, 당신의 그 미모, 체모, 귀족신분이면 왕녀나 왕비라도 호릴수 있을텐데요.》

《다르따냥군은 아직 너무 어리구만!》 아또스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하였다.

그리고나서 그는 그리모더러 한병 더 가져오라고 신호를 하였다.

이때에 쁠랑쉐가 방싯이 열려있는 문으로 조심스레 머리를 들이밀고 말들은 준비되였다고 자기 주인에게 말하였다.

《무슨 말 말인가?》 아또스는 물었다.

《뜨레빌씨가 나에게 산보때 쓰라고 두필을 빌려주었는데 난 그걸 타고 쌩－재르맹에 갈 작정입니다.》

《쌩－재르맹에 가서는 뭘하려고?》 아또스는 또 물었다.

그리하여 다르따냥은 교회당에 갔다가 거기에서 검은 만또를 걸치고 관자노리에 허물이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로 하여금 항시적으로 생각에 잠기게 하던 녀자를 다시 보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말을 바꾸면 군은 그 녀자에게 반했구만, 전에 보나씨에부인에게 반했던것처럼.》 아또스는 이렇게 말하고는 인간의 나약함을 애석히 여기듯 코웃음치듯이 어깨를 으쓱하였다.

《내가요? 당치도 않은 말씀!》 다르따냥은 소리쳤다. 《난 그저 그 녀자와 관계되여있는 비밀을 밝혀내는데 흥미가 있을뿐입니다. 우리는 녀자쪽에서도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그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지만 그 녀자가 나의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것 같이만 생각되거던요. 어째선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군의 말이 맞아.》 아또스는 말하였다. 《하지만 난 종적이 없어졌다고 해서 구태여 찾아헤매기까지 할만 한 녀자는 여태 보지 못했어. 보나씨에부인이 사라졌으면 저만 손해지. 그러니 제 스스로 나타나라는거네.》

《아니지요. 아또스씨, 당신은 잘못 생각하십니다.》 다르따냥이 반박하였다. 《나의 가엾은 꽁스땅스를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있으며 그 녀자가 가있는 곳만 안다면 설사 그것이 이 세상 끝이라고 할지라도 난 달려가서 그 사람을 원쑤들의 손에서 구출할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거던요. 그 녀자를 찾으려는 나의 모든 시도는 헛물만 켰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기분전환을 해야지요!》

《좋아, 좋아. 밀레디와 실컷 재미를 보라구. 사랑스런 다르따냥군! 그것이 군을 즐겁게 해줄수만 있다면 난 충심으로 그걸 바라네.》

《내 말 들으시오, 아또스씨.》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두문벌을 받은 사람처럼 집안에만 꾹 박혀있지 말고 말을 타고 나랑 같이 쌩－재르맹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 아또스는 대꾸하였다. 《난 제 말이 있을 땐 타고다니지만 제것이 없을 땐 타지 않는다네. 걸어서 다니지.》

《할수 없군요. 그런데 난 말이지요.》 다르따냥은 그의 옹고집에 탄복을 금치 못하면서 말하였다.

아마 다른 사람이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 그는 의심할바없이 성을 냈을것이였다.

《난 말이지요. 당신만큼 긍지가 높지 못해서 아무 말이건 닥치는대로 타고다니거던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또스씨!》

《잘 가라구.》 총사는 그리모에게 새로 가져온 술병마개를 따라고 신호를 하면서 말하였다.

다르따냥과 쁠랑쉐는 말에 올라 쌩－재르맹으로 향하였다.

아또스가 보나씨에부인에 대해서 한 말들은 가는 도중 내내 다르따냥의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젊은이는 특별히 다감한 축은 못되였지만 아름다운 잡화상부인은 그의 심장에 너무나 깊은 흔적을 남기였다. 그 녀자를 찾기 위해서라면 그는 실지로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갈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지구는 둥글고 하도 끝이 많아서 그는 어느쪽으로 가야 할지 알수 없는것이였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지금 당장은 밀레디는 누구인가 하는것을 그는 알아내고싶었다. 밀레디는 검은 만또의 그 사람과 말을 주고받았으니 그것은 그 녀자가 그 사람을 알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르따냥은 첫번에 보나씨에부인이 랍치당했을 때와 꼭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녀자를 랍치한것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확신이 굳어졌다. 말하자면 다르따냥이 밀레디를 찾는 일이자 곧 꽁스땅스를 찾는 일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것을 절반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거짓말이 아닌것이였다.

이런 생각에 골똘하며 이따금씩 말에 박차를 가하면서 가다보니 다르따냥은 어느새 길을 다 와서 쌩－재르맹에 당도하였다. 10년후에 루이14세가 고고성을 터뜨릴 운명을 지닌 정각을 지나서 행여나 아름다운 영국녀자의 흔적이라도 찾을가 하여 이쪽저쪽 두리번거리면서 한적한 거리를 가던중 다르따냥은 문득 당시의 풍습대로 거리

쪽으로 난 창문은 하나도 없는 아담한 집채의 꽃으로 장식을 한 아래층 로대에서 앞뒤로 오락가락하고있는 어떤 사람을 보았다. 쁠랑쉐가 먼저 그를 알아보았다.

《나으리.》쁠랑쉐가 말하였다. 《저 사람을 알만 하신가요? 멍청해서 우리쪽을 바라보는 저 사람 말이웨다?》

《모르겠구나.》 다르따냥은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얼굴은 확실히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구나.》

《그렇다니까요!》 쁠랑쉐는 말하였다. 《저건 가련한 류뱅, 와르드백작의 하인이거던요. 한달전 깔래에서 항장을 찾아가던 때 나으리께서 멋있게 본때를 보인 그 백작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이젠 나도 저 사람을 알아보겠구나. 그런데 네 생각엔 저 사람이 널 알아볼것 같은가?》

《나으리, 그때 저 사람은 너무 얼이 빠졌댔으니까 날 똑똑히 기억했을게 뭡니까?》

《그렇다면 가서 말을 걸어보아라.》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이야기하면서 그의 주인이 죽었는지 슬그머니 알아내라.》

쁠랑쉐는 말에서 뛰여내려 곧장 류뱅에게로 다가갔다. 류뱅은 실지로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던지 두 하인은 눈깜빡할 사이에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여 흉금을 터놓기 시작하였다. 그사이에 다르따냥은 말을 골목길로 돌려세워 집을 에돌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을양으로 개암나무덩굴뒤에 숨었다.

그가 바자너머로 살피려는데 뒤미처 마차바퀴소리가 들리더니 밀레디의 마차가 그의 맞은편에 와서 멎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마차에는 밀레디가 타고있는것이였다. 다르따냥은 발견되지 않고 죄다 볼수 있도록 말모가지에 낮추 몸을 굽혔다.

밀레디의 아름다운 금발머리가 마차 창문밖으로 나오더니 젊은 녀인은 하녀에게 뭔가 분부를 하는것이였다.

나이가 스무살에서 스물두어살까지 되여보이는 어여쁜 하녀는 당시의 관습대로 지체높은 부인의 녀종답게 잽싸고 날래게 자기가 앉아있던 발판에서 뛰여내려 방금 다르따냥이 류뱅을 본 그 로대로 향하였다.

하녀의 뒤를 눈으로 쫓던 다르따냥은 하녀가 로대로 다가가는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녀자가 금시 로대에 다가서려는 때에 공교롭게도

안에서 누군가가 류뱅을 찾는 바람에 로대에는 뿔랑쉐가 혼자 남아서 자기 주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있었다.
하녀는 뿔랑쉐에게로 다가가자 그를 류뱅으로 오인하고 쪽지편지를 내밀었다.
《당신의 주인님에게 전하세요.》 그 녀자는 말하였다.
《나의 주인님에게요?》 뿔랑쉐는 어리둥절하게 되물었다.
《그래요. 매우 급한 일이니 얼른 받으라요.》이런 말을 남기고 하녀는 어느새 벌써 방향을 돌려세운 마차의 발판에 뛰여오르고 마차는 떠나갔다.
뿔랑쉐는 손에 쥔 쪽지편지를 뱅뱅 돌리다가 여러 생각말고 복종해야 한다는 습관대로 로대에서 뛰여내리자 골목길로 접어들어 스무나문걸음 가다가 다르따냥과 마주쳤다. 다르따냥은 죄다 보고있다가 지금 맞받아오는 길이였다.
《나으리, 당신에게 오는겁니다.》 뿔랑쉐는 그에게 편지를 주면서 말하였다.
《나에게?》 다르따냥은 물었다. 《내게 오는게 틀림없는가?》
《틀림없는가구요, 제길! 그 하녀는 〈당신의 주인님에게 전하세요.〉 했거던요. 그런데 내게야 주인님이 당신밖에 없는거고. 그러니까… 허참, 그놈의 하녀는 계집애가 잘 생겼던데요!》
다르따냥이 편지의 봉을 뜯고 읽어보니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큰 한 부인이 당신께서 언제면 수림속 산책을 단행하실수 있게 되겠는지 알고저 합니다. 래일 〈황금들판〉려관에서 진홍색제복차림의 종복이 당신의 답변을 기다릴것입니다.》

《이것 봐라!》 다르따냥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신통하게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나도 밀레디도 꼭같은 한사람의 건강에 관심하는것 같거던.)
《여 뿔랑쉐, 와르드씨는 어떻게 지낸다던가?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그는 아직 죽지 않았지?》
《죽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그는 네군데 찔린 상태에서 그만하면 건강합니다. 이건 나으리를 탓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만 당신께서

는 고녀석한테 칼로 네번씩이나 타격을 안기셨기때문에 아직도 매우 쇠약하거던요. 피를 거의 다 흘렸던게지요. 내가 생각했던것처럼 나으리, 류뱅은 날 알아보지 못하다보니 우리들이 겪은 모험담을 내게 자초지종 죄다 말해주더군요.》

《좋아. 쁠랑쉐, 넌 하인들중의 왕이야! 자, 말을 타라구. 마차를 따라가자구.》

마차를 따라잡는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5분후에 그들은 길섶에 서있는 마차를 보았다. 문앞에는 사치스럽게 옷차림을 한 기마객이 서있었다.

밀레디와 기마객은 얼마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렸던지 다르따냥이 마차의 반대쪽에 멈춰섰을 때 하녀를 내놓고는 아무도 그가 와있는것을 모르고있었다. 그들은 다르따냥이 모르는 영어로 말하고있었다. 어조로 미루어 그는 영국미녀가 몹시 격노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 녀자의 마지막손짓을 보면 이야기의 성격을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 녀자가 얼마나 신경질적으로 자기 부채를 거머쥐였던지 부인용인 그 자그마한 장식물은 산산이 부서져 날아나버렸던것이다.

기마객은 너털웃음을 터뜨리고 그것을 보며 밀레디의 부아를 더욱 돋군것 같았다.

다르따냥은 자기가 끼여들 때가 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다른쪽문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모자를 벗었다.

《부인.》 그는 말하였다. 《제가 도와드리지요. 보아하니 이 기마수가 당신을 노엽힌 모양이더군요. 한마디만 말씀해주시면 례절을 잘 모르는 이 사람을 혼뜨검을 내줄텝니다.》

다르따냥이 말을 떼기 시작하자 밀레디는 깜짝 놀라 그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여보세요.》 다르따냥이 말을 마치자 밀레디는 능란한 프랑스어로 대답하였다. 《나와 다투고있는 이분이 나의 오라버니만 아니였다면 난 기꺼이 자기를 당신의 보호에 맡길거예요.》

《아, 그렇다면 실례했습니다!》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부인, 당신은 내가 그런줄 몰랐던걸 리해하시겠지요.》

《이 싱겁둥이야, 무엇때문에 중뿔나게 남의 일에 참견이요?》 밀레디가 자기의 친척이라고 말한 그 기마객이 마차문에 몸을 기울이면서 말하였다. 《어째서 제 갈길을 가지 않는거요?》

《싱검둥이는 당신이요!》 다르따냥은 자기도 말목에 몸을 굽히면서 자기가 서있는 문쪽에서 대꾸하였다. 《내가 제 갈길을 가지 않는건 내가 여기에 멈춰서고싶었기때문이란 말이요.》

기마객은 영어로 자기 누이에게 뭐라고 몇마디 하였다.

《난 당신과 프랑스어로 말하고싶단 말이요.》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당신도 미안한대로 같은 프랑스어로 내게 대답해주시오. 당신은 이 부인과 사촌간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당신이 내게는 사촌이 아니란 말입니다.》

밀레디가 녀성특유의 소심성으로 하여 방금 시작된 언쟁을 미리 막고 일이 너무 크게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가 직접 개입해나설것으로 예상되였으나 도리여 반대로 그 녀자는 마차안으로 깊숙이 몸을 젖히고 침착하게 마차부에게 분부하였다.

《집으로 가자.》

예쁘장하게 생긴 하녀가 다르따냥의 미모에 현혹되였던지 불안스러운 눈길을 그에게 피끗 던지였다.

마차는 떠나가고 남자들만 남아 맞서게 되였다. 그들을 갈라놓는 물질적장애는 이제 더는 없었다.

기마객은 마차를 뒤따라서 떠나갈 눈치였으나 다르따냥은 분노가 더욱더 세차게 불타올랐다. 그는 그 기마수가 아미앵에서 노름으로 자기의 말을 따내고 아또스에게서 금강석반지를 따낼번 했던 바로 그 영국인인것을 알아본것이였다. 다르따냥은 말고삐를 잡아채여 그를 멈춰세웠다.

《여보시오.》 그는 말하였다. 《가만 보니 당신은 나보다 더한 바람쟁이군요. 혹시 당신은 우리사이에 자그마한 싱갱이질이 있었던 일을 잊은게 아닙니까?》

《어이구, 이거 당신이군요!》 영국인은 말하였다. 《이제 보니 당신은 노상 노름이군요— 이런 노름, 저런 노름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뿐만아니라 당신은 내가 봉창할것이 있다는것을 튕겨주었습니다. 당신이 검도 골패고뿌만큼 날쌔게 다루는지 한번 봅시다.》

《당신은 나에게 검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실텐데요.》 영국인은 말하였다. 《혹시 당신은 적수공권의 사람앞에서 자기의 용감성을 시위해보자는게 아닌가요?》

《당신의 집에는 검이 있을줄 아는데요.》 다르따냥이 반박하였다. 《그런건 아무렇건 내게 둘이 있으니 원하신다면 그가운데 하나를 내가 떼여드리지요.》

《뭐 그럴것까지야.》 영국인은 말하였다. 《내게 그러루한 물건들은 넉넉히 있는걸요.》

《아주 좋습니다, 존경할만 한 신랑감선생!》 다르따냥은 대꾸하였다. 《제일 긴것을 골라잡아가지고 오늘 저녁 그걸 나에게 구경시켜주시오.》

《당신은 그걸 어느 장소에서 보시겠습니까?》

《룩셈부르그궁전뒤에서요. 거기는 그러루한 산책에 들어난 곳이지요.》

《좋습니다. 내 그리로 가지요.》

《언제요?》

《6시에.》

《참, 말이 난김에 하는 말인데 당신에게는 친구가 한두명 있겠지요?》

《나에게는 친구가 셋씩이나 되고 그들모두는 나와 한패가 되는걸 영광으로 생각할것입니다.》

《셋이요? 멋있습니다! 신통한데요!》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내게도 꼭 그만큼 된답니다.》

《그럼 이젠 당신이 누군가 하는걸 말씀해주시지요.》 영국인이 물었다.

《난 다르따냥이라고 가스꼰뉴의 귀족이고 데제싸르각하중대의 근위병입니다. 당신은요?》

《나는 윈터경이라고 쉐필드남작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남작각하.》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너무 까다로운건 사실이지만.》

그리고나서 그는 말에 박차를 가하여 전속으로 내몰아 다시 빠리로 돌아갔다.

이런 경우에 언제나 그러듯이 다르따냥은 곧장 아또스의 집으로 갔다.

아또스는 길다란 쏘파에 드러누워 그자신의 표현을 그대로 빈다면 자기의 장비품들이 제발로 굴러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다르따냥은 있은 일을 죄다 그에게 이야기하였다. 와르드백작앞으

로 된 편지에 대해서만은 침묵을 지키였다.

아또스는 그의 이야기를 듣자, 특히 자기가 이제 영국인과 맞서게 된다는것을 알자 희열에 넘치였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바이지만 그는 항상 그것을 꿈꾸고있었던것이다.

두 친구는 즉시에 하인들을 뽀르또스와 아라미스에게 띄워 사연을 죄다 알리였다.

뽀르또스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들고 이따금 훌쩍 뛰여 물러서기도 하면서 벽에 대고 타격을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여전히 자기의 서사시와 씨름질하던 아라미스는 서재에 문을 닫아매고 들어박혀 결투의 시각까지 제발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아또스는 그리모에게 신호로 술병을 요구하였다.

다르따냥으로 말한다면 그는 우리들이 앞으로 보게 될 한가지 자그마한 계획을 혼자 속으로 굴리고있었으니 그것은 그의 입가에 언뜻언뜻 스치면서 그의 생각깊은 얼굴을 환하게 비쳐주는 미소로 미루어보아 그 어떤 즐거운 모험을 약속해주고있었다.

제 2 부

제 1 장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

지정된 시간에 네 친구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염소들이 풀을 뜯고있는 룩셈부르그궁전뒤의 울타리를 둘러친 공지로 갔다. 아또스가 몇푼 쥐여주자 목동은 물러갔다. 하인들에게는 망을 볼것이 위임되였다.

얼마후 한무리의 사람들이 묵묵히 공지로 다가오더니 울타리안으로 들어가 총사들과 만났다. 그다음 영국풍습에 따라 자기 소개들이 있었다.

최고신분의 출신들인 영국인들은 자기 적수들의 괴이한 이름들을 듣자 놀라기만 한것이 아니라 불안을 느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겠군요.》 세 친구가 자기 이름들을 소개하자 윈터경이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들이 누군지 여전히 알수 없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는 싸우지 못하겠습니다. 그거야 목동들이나 가질 이름들이지요.》

《당신께서 알아맞히신 모양인데 선생, 이건 다 꾸며낸 이름들입니다.》 아또스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우린 더욱더 진짜이름들을 알고싶군요.》 영국인이 대꾸하였다.

《그렇지만 당신은 우리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노름을 놀았고》 아또스가 말하였다. 《게다가 우리의 말까지 두필을 땄거던요.》

《그건 사실입니다만 그때 우린 돈이나 내댔지만 이번엔 생명을 내대는 일이거던요. 노름이야 아무하고나 할수 있지만 싸움은 동등한 자

격으로 해야 하는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야.》 아또스가 이렇게 말하고 4명의 영국인들 중에서 자기와 대결하게 되여있는 사람을 한쪽으로 불러내여 자기 이름을 귀속말로 대주었다.
뽀르또스와 아라미스도 꼭같이 하였다.
《당신은 만족합니까?》 아또스가 자기 적수에게 물었다. 《그만하면 나를 당신과 칼을 겨루는 영광을 지니기에 충분한 신분으로 인정하는가요?》
《인정합니다.》 영국인은 허리를 굽석하며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그럼 내 이제 당신에게 한가지 말해줄것이 있습니다.》 아또스는 랭랭하게 계속하였다.
《뭔데요?》 영국인은 놀라면서 물었다.
《당신은 내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는편이 나을걸 그랬습니다.》
《왜요?》
《왜냐면 그건 사람들이 나를 죽은 사람으로 치부하고있기때문이고 나에게는 내가 살아있다는것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랄만 한 까닭이 있기때문이며 이제 나는 나의 비밀이 세상에 퍼지지 않도록 어차피 당신을 죽일수밖에 없기때문이지요.》
영국인은 아또스가 롱을 하는줄로만 알고 그를 빤히 바라다보았으나 그는 롱같은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여러분, 준비되였습니까?》 아또스는 자기 동무들과 적수들에게 모두거리로 물었다.
《준비되였습니다.》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이 일제히 대답하였다.
《그럼 시작합시다!》
그 즉시에 8자루의 칼이 석양의 빛발속에서 번쩍였다. 싸움은 처음부터 치렬하였으니 그것은 2중으로 원쑤인 사람들로서는 전적으로 자연스러운것이였다.
아또스는 격검훈련장에라도 온것처럼 아주 침착하고 규칙적으로 싸웠다.
뽀르또스는 샹띠이에서의 사건으로 지나친 자기 과신이 뚝 떨어져나갔는지 맡은 역을 아주 교활하고 조심스럽게 수행하였다.
자기 서사시의 세번째 노래를 마무리하게 되여있는 아라미스는 시

간이 매우 급한 사람처럼 서둘렀다.

맨처음 아또스가 자기의 적수를 죽이였다. 그는 타격을 한번밖에 가하지 않았으나 그가 이미 경고했던대로 그 타격은 치명적인것으로서 칼은 적수의 심장을 꿰뚫었던것이다.

다음으로 뽀르또스가 자기 적수를 풀밭에 쓰러뜨렸다. 그는 적수의 허벅다리를 찔렀던것이다. 영국인은 더 저항할념을 못하고 그에게 칼을 바쳤으며 뽀르또스는 칼을 두손으로 받쳐들고 마차에 가져갔던것이다.

아라미스는 얼마나 드세게 적수를 압박하였던지 상대방은 쉬나문걸음 밀리던 끝에 마침내는 꽁지 빠지게 줄행랑을 놓아 좋아라고 떠들며 웃어대는 하인들의 속으로 숨어버렸다.

다르따냥으로 말한다면 그는 솜씨있게 슬슬 방어를 하여 상대의 맥을 다 뽑은 다음 드세찬 타격으로 그의 칼을 손에서 떨구어버렸다. 영국남작은 자기가 무장해제당한것을 깨닫고 몇걸음 후퇴하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다르따냥은 휙 몸을 날려 그의 옆에 가서 목에 칼을 들이댔다.

《여보시오, 난 당신을 죽일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는 영국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내 손아귀에 들어있는겁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누이를 생각해서 당신에게 목숨을 선사합니다.》

다르따냥은 희열에 넘치였다. 그는 미리 구상하였으며 그 생각으로 하여 몇시간전에 그의 얼굴에 그처럼 기쁨의 미소를 자아냈던 계획을 실현한것이였다.

그처럼 점잖은 사람을 상대하고있다는 사실에 감동된 영국인은 다르따냥을 와락 그러안고나서 세 총사에게 별의별 곰살가운 말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뽀르또스의 적수는 이미 마차로 날라갔고 아라미스의 적수는 꽁무니를 뺐으므로 모두는 죽은자를 처리하는 일에 달라붙었다.

상처는 치명적인것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뽀르또스와 아라미스가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그의 허리춤에서 불룩한 돈주머니가 떨어졌다. 다르따냥이 그것을 집어 윈터경에게 내밀었다.

《내가 그걸 해선 뭘합니까? 제길!》 영국인이 물었다.

《고인의 가족들에게 돌려주시오.》 다르따냥이 대답하였다.

《가족들이 그따위 부스레기돈 돌아다나 볼것 같습니까? 그들은 년리 1만 5천루이도르를 상속으로 받고있는걸요. 이 지갑은 건사했다가 하인들에게나 주시지요.》
다르따냥은 지갑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럼 나의 젊은 친구—당신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는걸 허락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윈터경은 말하였다. 《당신만 좋으시다면 나는 오늘 저녁중으로 당신을 나의 누이 클라리크부인에게 소개할텝니다. 나는 그 역시 자기의 호의를 당신에게 선사하기를 바라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는 궁정에서 어지간히 환대를 받기때문에 앞으로 그 애의 말 한마디가 당신에게 쓸모가 있을것입니다.》
다르따냥은 만족감으로 하여 얼굴이 붉어졌으며 동의의 표시로 허리를 굽혀보였다.
이때 아또스가 다르따냥에게 다가왔다.
《군은 그 지갑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는 다르따냥에게 귀속말로 물었다.
《난 그걸 당신에게 줄 생각인데요! 아또스씨.》
《나에게? 그건 어째서?》
《그거야 당신이 그 지갑의 주인을 죽였기때문이지요. 이건 승리자의 전리품이거던요.》
《나더러 원쑤의 상속자가 되라는건가? 군은 도대체 날 뭘로 아는건가?》
《전쟁의 관습이 그런겁니다.》 다르따냥은 말하였다. 《결투라고 해서 그 관습을 따라서 안될건 뭔가 말입니다.》
《나는 지어 격전장에서도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어.》 아또스가 반박하였다.
뽀르또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라미스는 찬성이라는듯이 히죽이 웃었다.
《정 그렇다면》 다르따냥이 말하였다. 《윈터경이 말한대로 이 돈을 줍시다.》
《좋네.》 아또스는 동의하였다. 《하인들에게 주되 우리 하인들에게는 안되네. 영국인들의 하인들에게 주게.》
아또스는 돈지갑을 집어 마차부에게 던지였다.
《당신과 당신의 동무들에게 주는거요!》

피천 한잎 못 가진 사람의 이와 같이 고상한 행동에는 뽀르또스마저도 탄복을 금치 못하였으며 후날 윈터경과 그의 친구가 사방에 소문을 퍼뜨리고다닌 프랑스사람의 넓은 도량은 그리모와 무슈끄똥, 쁠랑쉐, 바쟁 제씨들을 셈에 넣지 않는다면 말그대로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냈다.

다르따냥과 헤여지면서 윈터경은 누이의 주소를 대주었다. 그 녀자는 국왕광장에서 당시치고는 신식이라고 할수 있는 구역의 6호동에서 살고있었다. 그리고나서도 윈터경은 제가 직접 젊은이를 소개해주겠다면서 데리러 집에 오겠노라고 스스로 자청해나섰다. 다르따냥은 즉시에 아또스의 집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이제 밀레디를 방문할 일로 하여 우리 가스꼰뉴청년의 머리는 매우 착잡하였다. 그는 그 녀자가 자기 운명에서 지금껏 얼마나 기이한 역할을 놀았던가를 상기하였다. 그는 그 녀자가 주교의 끄나불들가운데 한사람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었으나 그러면서도 무엇인지 종잡을수 없는 막연한 감정에 사로잡혀 마음은 어쩔수없이 그 녀자에게로 끌리는것이였다.

그가 우려하는것은 혹시 밀레디쪽에서 그가 멍과 루브르에서 맞다들렸던 사람이라는것을 알아보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알아보기만하면 그 녀자는 그가 뜨레빌씨의 벗이며 따라서 국왕에게 몸도 마음도 끝없이 충실한 인간임을 알아차릴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녀자앞에서 몇가지 우점을 잃어버리게 될것이다. 지금은 피차간에 서로에 대해서 거의 파악이 없는 조건에서 노름의 승산은 량쪽이 대등한것이다. 밀레디와 와르드백작사이에 시작된 정사로 말한다면 비록 백작이 젊고 인물좋고 부유하며 주교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있다고는 하지만 자기 과신에 빠져있는 다르따냥은 그런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스무살이라는 나이 그자체가 간단한것이 아니며 따르브태생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한것이다.

다르따냥은 우선 집으로 가서 빈틈없이 깐깐히 몸을 가꾸었다. 그다음 그는 다시금 아또스를 찾아가서 여느때와 같이 그에게 자초지종죄다 이야기하였다. 아또스는 그의 계획을 다 듣자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유감스러운 생각도 없지 않은듯 조심하라고 일렀다.

《그게 뭔가 말이야!》 그는 말하였다. 《군은 군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씨 착하고 아름답고 리상적이였던 녀자를 방금 잃어버리기 바쁘

게 다른 녀잘 쫓아다니다니!》
다르따냥은 옳은 비난이라는것을 느꼈다.
《보나씨에부인을 내가 심장으로 사랑했지만》 그는 반박하였다. 《밀레디는 리성으로 사랑하는겁니다. 내가 그 녀자의 집으로 뚫고들어가려는 기본목적은 그 녀자가 궁정에서 어떤 역할을 노는가 하는걸 알아내자는겁니다.》
《어떤 역할을 노는가! 그렇지만 군이 나에게 들려준 말들로 미루어보면 그걸 짐작하기 어렵지 않거던. 그 녀자는 주교의 밀정인거고 군을 함정으로 유인하여 목숨을 빼앗을 녀자에 지나지 않다네.》
《흥… 정말이지 아또스씨, 당신은 사물을 너무 암담하게 보시는군요.》
《어찌겠나. 친구, 난 녀자라는걸 애당초 믿질 않는거고. 내겐 그럴만한 까닭이 있거던. 특히 금발머리녀자들을 더 믿지 않아. 군은 나보고 밀레디가 금발이라고 했던것 같은데?》
《그 녀자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금발입니다. 그런 금발은 내 보다보다 처음인걸요.》
《가엾은 다르따냥군!》 아또스는 한숨을 내그으며 말하였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난 어떻게 된 판국인지 밝히고싶은겁니다. 그래서 필요한걸 다 알아내면 난 물러서겠습니다.》
《밝혀보라구.》 아또스는 랭담하게 말하였다.
윈터경은 약속된 시간에 나타났다. 아또스는 미리 예고를 받고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 윈터경은 다르따냥 한사람밖에 보지 못하였으며 8시가 거의 다 된 때였으므로 즉시에 그를 데리고 나왔다.
밑에서는 훌륭한 말 두필을 메운 호화로운 마차가 대기하고있다가 눈깜빡할새에 그들을 국왕광장까지 날라갔다.
클라리크부인은 침착하게 다르따냥을 맞이하였다.
그 녀자의 저택은 한껏 사치를 뽐내고있었다. 전쟁때문에 영국인들 대부분이 이미 프랑스에서 쫓겨갔거나 쫓겨가기 전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레디는 저택을 꾸리는데 막대한 돈을 들이밀고있었으니 이것은 영국인들 전반에 대한 추방령도 그 녀자만은 다치지 못한다는것을 명백히 말해주고있었다.
《바로 이분은》 윈터경은 다르따냥을 소개하였다. 《내 목숨을 손안에 쥐고있으면서도 그 유리성을 리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젊은 귀

족이요. 우리는 2중으로 원쑤였는대도 말이지. 내쪽에서 먼저 그에게 모욕을 가한데다 난 또 영국인이거던. 누이, 누이가 다문 얼마간이라도 나에게 정이 있다면 이분에게 사의를 표시해주오!》

밀레디는 가볍게 얼굴을 찌프렸다. 그 녀자의 이마우로 알릴듯말듯 주름이 스쳐지나고 입술에는 얼마나 미묘한 미소가 나타났던지 다르따냥은 그 복잡한 표정변화를 보자 저도 모르게 흠칫하였다.

오라비는 그때 마침 자기의 조끼에 매달리는 밀레디의 애완용원숭이를 애무하느라고 돌아섰기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

《반가와요!》 밀레디는 지극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것은 다르따냥이 방금전에 띄여본 저조한 기분상태의 표현에 괴이하게 모순되는것이였다.

《나는 영원히 변함없을 감사의 마음을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때 영국인이 다시 돌아서서 자기들이 벌린 결투에 대해서 사소한 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세히 말하기 시작하였다. 밀레디는 매우 주의깊이 그의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의 감정을 숨기려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르따냥은 그 이야기가 그 녀자에게는 불쾌감을 자아낸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수 있었다. 그 녀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해쓱해졌다 하면서 자기의 조꼬만 발로 방바닥을 안타깝게 또닥거리군 하였다.

윈터경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는 이야기를 마치고 쟁반을 받친 에스빠냐포도주병과 잔들이 놓여있는 식탁으로 다가섰다. 그는 잔 두개에 포도주를 부어놓고 다르따냥더러 마시라고 손짓하였다.

다르따냥은 영국인의 건강을 위하여 마시는것을 거절한다며는 그에게 혹독한 모욕으로 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하여 그는 식탁으로 가서 잔을 잡았다. 그런데 눈으로 밀레디를 계속 좇던 그는 거울속으로 그 녀자의 얼굴이 판판 달라진것을 보았다. 아무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그 녀자는 지금 얼굴표정이 표독살스럽게 되여 볼썽이 사나왔다. 그 녀자는 악에 받쳐 손수건을 깨물었다.

이 순간에 다르따냥이 지난번에 이미 본적 있는 애젊고 예쁘장한 하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하녀가 윈터경에게 뭐라고 하자 윈터경은 긴급한 일이 있어 먼저 실례해야겠다고 량해를 구하면서 누이더러 자기를 대신하여 사과할것을 다시한번 당부하였다.

다르따냥은 그와 악수를 하고 또다시 밀레디에게로 다가갔다. 그 녀자의 얼굴은 어느새 벌써 상냥스러운 표정을 띠고있었으나 손수건에 남아있는 몇개의 빨간 얼룩은 그 녀자가 자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그 녀자의 입술은 산호처럼 빨간것이 아름다왔다.

이야기는 다시 활기를 띠였다. 밀레디는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온것 같았다.

그 녀자는 다르따냥에게 윈터경은 자기의 사촌오빠가 아니라 시동생일뿐이라는것, 자기는 그 집안의 맏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는 과부가 된 자기와 아이 하나를 남겨놓고 죽었다는것, 윈터경이 결혼을 하지 않는 한에는 그 애가 유일한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 모든것은 모종의 비밀을 감추고있는 장막이 존재하고있으며 자기는 아직 그것을 제끼지 못하고있음을 말해주고있었다.

반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다르따냥은 밀레디가 자기와 같은 동포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그 녀자는 프랑스말을 얼마나 정확하고 맵시나게 하였던지 그 점에서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다르따냥은 자기의 충실성을 납득시키려고 달콤한 말들을 수없이 늘어놓았다. 가스꼰뉴청년이 떠벌이는 객담들을 들으면서 밀레디는 호의적인 미소를 띠고있었다. 드디여 물러갈 시간이 되였다. 다르따냥은 인사를 하고 하늘의 별이라도 딴것 같은 행복감에 싸여 객실을 나섰다.

층계에서 그는 마주올라오는 하녀와 마주쳤다.

하녀가 지나치다가 그를 가볍게 다치고는 귀밑까지 빨개져서 그에게 얼마나 우아한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던지 용서는 즉시 그 자리에서 선사되였다.

이튿날 다르따냥은 다시 나타났으며 어제 저녁보다 더 환대를 받았다. 이번에는 윈터경이 오지 않았으므로 온 저녁 밀레디가 혼자 손님을 대상하였다. 보매 그 녀자는 젊은이에게 몹시도 흥미가 끌리는듯 어디 태생이며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주교를 위해 복무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것들을 물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다르따냥은 스무살 나이치고는 매우 조심스러웠으므로 자기가 밀레디를 수상하게 보았던것을 상기하였다. 그는 주교를 극구 찬양하고나서 자기가 뜨레빌씨에 대해서 아는것만큼 까부아

씨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진작 국왕의 근위대가 아니라 주교의 호위대에 들어갔을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밀레디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다르따냥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영국에 가본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다르따냥은 뜨레빌씨의 위임으로 말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교섭차로 거기에 다녀온적이 있으며 지어 4필을 견본으로 가져오기까지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과정에 밀레디는 입술을 두세번 깨물었다. 가스꼰뉴청년이 교묘하게 작간을 한것이였다.

전날 저녁과 같은 시각에 다르따냥은 물러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또다시 예쁘장한 케티(이것이 하녀의 이름이였다.)와 맞다들었다. 하녀는 속이 빤드름히 들여다보이는 표정으로 다르따냥을 쳐다보는것이였다. 그는 밀레디생각에 너무나도 옴해있었으며 밀레디와 관계되는 일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것이다.

다르따냥은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밀레디를 찾아갔으며 올 때마다 밀레디는 더욱더 살갑게 그를 맞아주었다.

매일 저녁 혹은 현관에서 혹은 복도에서 혹은 층계에서 그는 예쁘장한 하녀와 마주치군 하였다.

하지만 우에서 이야기된것처럼 다르따냥은 가련한 케티의 그와 같은 집요성에 아무런 주의도 돌리지 않았다.

제 2 장

검사댁에서의 오찬

한편 결투에서 멋들어지게 자기 역할을 수행한 뽀르또스는 결코 검사댁에서의 오찬을 잊지 않았다. 이튿날 12시가 지나서 무슈끄똥이 그의 옷에 마지막으로 솔질을 하자 뽀르또스는 무슨 일에서나 운수가 탁 트인 사람의 시틋한 얼굴로 우르스거리로 향하였다.

그는 심장이 높뛰였으나 젊고 초조한 사랑에 쫓기는 다르따냥의 심

장처럼은 뛰지 않았다.

그렇다. 그의 피를 끓게 하는것은 다른 불안, 보다 더 리기적인 불안이였다. 이제 그는 마침내 그 신비스러운 문턱을 넘어서 꼬끄나르씨의 피묻은 돈들이 한단 또 한단 톺아오른 그 생소한 계단을 톺아오르게 되는것이였다.

그는 스무번도 더 공상속에서 그려보던 길죽하고 깊숙한 신성불가침의 돈궤, 자물쇠가 드리워있고 녹이 쓸고 방바닥에 얼어붙은듯이 놓여있는 돈궤, 그가 그처럼 많이 말로만 들어왔으며 좀 시들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우아함을 간직하고있는 검사부인의 자그마한 손이 그의 휘둥그래진 눈앞에 열어젖힐 돈궤를 현실로 보게 된것이였다.

그밖에도 의지가지없는 방랑객, 가정도 재산도 없는 인간, 주막과 려인숙, 술집들에 습관된 병사, 잘 먹는것을 좋아하며 대체로는 우연히 차례지는 빵쪼각으로 만족할수밖에 없었던 그는 드디여 가정적분위기속에서 점심을 맛보고 가정적안락을 즐기고 늙은 검객들이 말하듯이 진땀을 흘리게 만들수록 재미난다는 주부들의 잔시중에 자기를 내맡길수 있게 된것이다.

사촌오라비의 자격으로 나타나 매일 풍성한 식탁에 마주앉고 늙은 검사의 누렇게 뜬 이마의 주름살을 펴주고 젊은 서기들에게 무사의 까다로운 동작들을 배워주면서 그들의 펜대들을 좀 닳아먹게 하고 그들이 시간당으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 한달동안 꼬박이 저축한 돈을 따내는것— 이 모든것은 그에게 몹시도 매혹적이였다.

물론 뽀르또스는 검사들이 좀스럽고 탐욕적이며 린색하다는 추문이 나돌고있다는것을 상기하였다.

그러나 뽀르또스는 언제나 절약심이 더러 발작하군 하는것을 검사부인에게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것이라고 간주하였거니와 그것만 제외한다면 그 녀자는 대체로 마음이 후하였으며(물론 검사부인치고 그렇다는 말이지만) 그는 그 집이 유족하게 살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런데 문앞에서 그는 몇가지 의문에 휩싸였다.

집의 출입구는 별로 매력이 없었다. 복도는 악취가 풍기고 어지러웠으며 옆집마당에서 약간의 빛이 흘러드는 살창문이 하나 나있는 층계는 어두컴컴하였다. 2층에는 그랭—샤뜰레감옥의 중앙출입구처럼 커다란 쇠못들을 촘촘히 박은 작은 나들문이 있었다.

뽀르또스는 문을 두드렸다. 한광주리 되게 헝클어진 머리칼을 얼굴

우에 드리운 키크고 창백한 서기가 문을 열고 그가 억센 힘을 드러내 보이는 큰키와 일정한 사회적지위를 가리키는 군대제복 그리고 풍족한 생활에 습관되였음을 말해주는 혈색좋은 얼굴을 존대하는데 습관된 사람임을 명백히 말해주는 얼굴로 굽석 절을 하였다.

그보다 키가 좀 작은 두번째 서기가 뒤따라 나타나고 그보다는 키가 좀 큰 세번째 서기가 그뒤로 또 그뒤로는 열두어살 되여보이는 미성년이 나타났다.

서기가 세명반이면 당시 치고는 사무소를 찾는 고객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총사는 오후 1시에나 오기로 되여있었으나 검사부인은 12시부터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자기 정부의 심장 그리고 어쩌면 위주머니가 지정된 시간보다 일찍 그를 이끌어올것이라고 타산한것이였다.

하여 꼬끄나르부인이 집에서 층계의 휴단판에 나와서자 그와 거의 같은 시각에 손님이 문앞에 나타났으며 존대스러운 안주인의 출현이 그를 매우 난감한 처지에서 구원해주었다. 서기들은 호기심에 넘쳐 빤히 쳐다보는데 그는 이렇게 상하가 다 우르르 떨쳐나선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리벙벙하여 입을 꾹 다물고 서있었다.

《나의 사촌오라비랍니다!》 검사부인은 소리쳤다.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뽀르또스씨!》

뽀르또스라는 이름이 응당한 작용을 하여 서기들은 웃음보를 터뜨렸으나 뽀르또스가 홱 돌아서는 바람에 모두의 얼굴은 다시금 심각한 표정을 띠였다.

검사의 서재로 가자면 지금 서기들이 서있는 현관을 나와서 서류들이 가득 쌓여있는 어둑컴컴한 사무실을 지나야 하였다. 사무실을 지나자 손님과 안주인은 부엌을 오른쪽으로 끼고 지나서 객실에 들어섰다. 서로서로 통하게 되여있는 그 모든 방들은 뽀르또스에게서 결코 달가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것이 아니였다. 활짝 열려있는 문들을 통하여 오가는 말들을 한마디한마디 다 엿들을수 있는것이였다. 그밖에도 지나는결에 주의깊은 눈길을 얼핏 부엌에 던진 그는 검사부인에게는 수치일, 그에게는 커다란 실망으로 되는 일이지만 성찬을 앞두고 마땅히 이 폭식의 전당을 지배해야 할 이글이글 타는 불길도 흥성거림도 부산스러움도 일체 없음을 확신하게 된것이였다.

검사는 손님이 온다는것을 미리 예고받은듯 뽀르또스가 나타난데 대

하여 아무런 놀라움도 드러내보이지 않았다.
뽀르또스가 어지간히 넉살좋게 그에게 다가가서 깍듯이 절을 하자 그는 말하였다.
《우린 친척간이라던지, 뽀르또스씨?》 검사는 이렇게 말하고 걸상 팔걸이에 의지하여 엉거주춤 일어났다.
검사는 빼빼 마르고 초췌한 늙은이로서 그의 시들어빠진 몸을 완전히 감춰주는 품넓은 검은 조끼를 입고있었다. 그의 자그마한 재빛눈은 두개의 황옥처럼 반짝거렸으며 그의 얼굴에서 아직까지 생명이 깃들어있는 곳은 그 눈과 노상 찡그려가지고있는 입이 전부인것 같았다. 불행하게도 두다리는 그 뼈다귀부대에 봉사하기를 이미 거절하기 시작하였으며 대여섯달전부터는 그것이 더욱 악화되여 존경할만 한 검사는 사실상 자기 처의 노예로 되여있었다.
사촌오라비는 무난히 영접되였으나 그것이 전부였다.
두다리만 든든하였다면 꼬끄나르씨는 자기들의 친척관계를 인정받으려는 뽀르또스의 그 어떤 시도도 물리쳐버렸을것이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척간이지요.》 뽀르또스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였다. 하긴 뽀르또스는 남편쪽의 열렬한 환영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다.
《처견으로 그런것 같던데요.》 검사는 비양조로 물었다.
그 비양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뽀르또스는 그것을 순박성으로만 간주하고 숱짙은 코수염속으로 싱긋 웃었다. 순박한 검사란 쉽지 않다는것을 잘 알고있던 꼬끄나르부인은 해죽이 웃고나서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졌다.
뽀르또스가 온 첫순간부터 꼬끄나르씨는 자기의 참나무사무탁 맞은편에 서있는 커다란 장에 불안스러운 눈길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뽀르또스는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자기가 오매불망 그려보던 바로 그 돈궤라는것을 알아맞혔으며 현실은 자기의 공상을 훨씬 릉가한다는 사실에 속으로 쾌재를 올렸다.
꼬끄나르씨는 족보를 더 깊이 파고드는것을 그만두고 불안스런 시선을 장으로부터 뽀르또스에게로 옮기면서 단지 이렇게 말했을뿐이였다.
《사촌오라비는 전장으로 떠나기에 앞서 다문 한끼라도 우리와 함께 점심을 나누는 영광을 베풀어주리라고 믿는바요. 안 그렇소, 꼬끄나르부인?》

이번에는 직방 위주머니에 타격이 가해져서 뽀르또스는 아플 정도로 그것을 느끼였으며 꼬끄나르부인도 그것을 느낀듯 다음과 같이 말했던것이다.

《우리가 푸대접을 하게 되면 사촌오라비는 더는 우리 집에 오지 않을거예요. 그렇지만 푸대접하는 일은 없을게고 오라비는 전장으로 떠나기 전까지 자기에게 차례지는 거의 모든 자유시간을 우리에게 바쳐달라는걸 부탁하고싶어요.

오라비로서는 빠리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도 짧고 우리를 찾아보는 일도 그만큼 적을게거던요!》

《아이구, 내 다리, 불쌍한 내 다리야! 너희들은 어데 갔단 말이냐?》 꼬끄나르씨는 웅얼거리고나서 애써 웃으려고 하였다.

왕성한 식욕을 충족시킬 희망이 금시 무너져내릴것 같던 위기일발의 순간에 때맞추 뻗쳐진 이 구원의 손길은 뽀르또스로 하여금 검사부인을 머리에 떠이고다니고싶을 정도의 감사의 정으로 차넘치게 하였다.

곧 오찬시간이 되였다. 모두들 부엌맞은켠의 커다란 식당으로 옮겨갔다. 서기들은 집안에 풍기는 여느때 없던 냄새를 맡고 군인같은 정확성을 가지고 나타나 쪽걸상들을 들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서있었다.

《답답하군!》 뽀르또스는 세사람의 굶주린 얼굴들을 일별하자 생각하였다. 애숭이는 보이지 않았는데 필경 일반식탁으로 밀려난것이였다. (답답하단 말이야! 내가 누이의 립장이라면 저따위 식충이들은 두지 않겠어. 저것들은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여 옹근 6주일동안 먹을것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같지 않은가.)

꼬끄나르씨가 나타났다. 꼬끄나르부인이 그를 바퀴달린 의자에 태워 밀고왔다. 뽀르또스는 얼른 도와나서서 그 녀자의 남편을 식탁으로 밀어다주었다.

검사가 식당에 들어서자 그의 턱과 코구멍은 그의 서기들이 그랬던것과 꼭 마찬가지로 움직거리기 시작하였다.

《허, 이것 봐라!》 그는 말하였다. 《냄새가 죽여주는걸!》

(제길, 이 작자들은 이놈의 국에 뭐가 특별한게 있다는거야?) 뽀르또스는 량은 많지만 기름 한방울 없고 군빵쪼각 열개가 말라이군도처럼 드문드문 떠있는 멀건 국을 보자 생각하였다.

꼬끄나르부인이 할쭉 웃자 모두는 그 녀자의 신호에 따라 급급히 자기 자리들을 차지하고 앉았다.

검사부인은 맨먼저 꼬끄나르씨의 접시에, 다음으로 뽀르또스의 접시에 푸고 그다음에는 자기 접시를 채운 다음 국은 없이 맨 군빵쪼각들을 초조하게 기다리고있는 서기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때 식당문이 삐걱 열리고 뽀르또스는 빠끔히 벌려진 문틈으로 애숭이서기를 보았다. 한축 끼울 자격을 상실한 소년은 자기에게 차례진 빵을 먹으면서 부엌냄새와 식당냄새를 동시에 들이키고있었다.

국다음에 하녀는 삶은 통닭을 들여왔다. 얼마나 희한스러웠던지 좌중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자 눈알들이 거의 이마우로 기여나올 지경이 되였다.

《우리에게 차례지는 이 모든건 당신 오라버니의 덕택이라는걸 의심할 여지가 없지.

당신이 자기 친척들을 끔찍이 여긴다는게 대번에 알리누만.》 검사가 슬픈 미소를 띠며 말했다.

불행한 닭은 여윈데다가 그 어떤 뼈다귀도 절대로 꿰뚫어내지 못할 두껍고 잔털이 꺼실꺼실한 가죽으로 덮여있었다.

늙은 몸이 편안히 죽으려고 깊숙이 들어가 숨은 닭을 홰대우에서 찾아내느라고 한참 신고했던것이 분명하였다.

(빌어먹을!) 뽀르또스는 생각하였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나는 늙마를 존중하지만 삶거나 구운건 례외란 말이야.)

그는 모두가 자기와 동감인가를 확인하려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웬걸, 정반대로 그는 그 현란한 닭, 그가 그처럼 경멸로 대한 닭을 한입에 삼킬듯이 이글이글 불타는 눈들을 보았다.

《아 꼬끄나르부인, 고맙소. 당신은 진짜 주연을 베풀었구만. 어, 이거 배가 터지겠는걸!》

오찬이 진행되는 동안에 꼬끄나르씨는 국 한접시, 시꺼먼 닭의 다리 두개, 살이 조금 붙어있는 하나밖에 없는 양고기뼈를 먹었다.

뽀르또스는 그것을 조롱으로 단정하고 막 코수염을 비비꼬고 눈섭을 찌프리려는데 꼬끄나르부인의 무릎이 그더러 인내성을 발휘하라고 몰래 충고하였다.

이 침묵과 식사의 중단은 뽀르또스로서는 전혀 리해할수 없는것이였다. 서기들에게는 반대로 무시무시한 의미를 한가득 띠고있었다. 검

사의 시선과 검사부인의 미소에 복종하여 그들은 식탁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그보다 더 천천히 자기 나프낀들을 접어놓고는 절들을 하고 문께로 향하였다.

《가라구, 젊은이들. 가서 일들 해야지. 일은 소화에 리롭다네.》 검사가 점잖게 말하였다.

서기들이 물러가기 바쁘게 꼬끄나르부인은 일어나서 찬장에서 치즈 한덩이와 모과쨤, 그 녀자가 손수 꿀을 두고 만든 편도빵을 꺼냈다.

그 숱한 음식들을 보자 꼬끄나르씨는 오만상이 되였으며 뽀르또스는 자기가 아직 점심전이라는것을 상기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콩료리가 아직 식탁우에 있는가 하여 살펴보았다. 그것은 종적이 없었다.

《이거야말로 성찬이 아닌가!》 꼬끄나르씨는 걸상우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소리쳤다. 《성찬이라니, 주연이 왔대도 울고가겠어.》

뽀르또스는 빵과 치즈에 포도주까지 곁들여 점심을 먹게 된다는 기대에서 그의 앞에 놓여있는 술병을 쳐다보았으나 포도주는 없었다. 빈병이였다. 꼬끄나르부인은 병이 빈것을 못 본체 하였다.

(좋아, 참자.) 뽀르또스는 혼자 생각하였다. (어쨌든 신호는 있었으니까.)

그는 쨤을 한순갈 퍼먹고는 검사부인이 손수 만든 빵을 물어뜯기 시작하였다.

(제물은 바쳤겠다.) 그는 혼자 계속 생각하였다. (아, 만일 내가 꼬끄나르부인과 함께 그 남편의 장안을 들여다볼 희망만 품지 않는다면 까짓것!)

꼬끄나르씨는 그가 향연이라고 이름한 호화로운 오찬을 한참 즐기고나자 휴식의 필요성을 느끼였다. 뽀르또스는 휴식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것을 기대하였으나 귀신이나 물어갈 검사는 그런 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부득불 그를 서재로 날라가는수밖에 없었으며 그는 몇번이나 고함을 친 끝에 자기 장앞에 이르게 되였으나 그러고도 미타하여 그는 장의 가생이우에 발을 올려놓고야 마음을 놓았다.

검사부인은 뽀르또스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화해의 지반을 닦으려고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당신은 한주일에 세번은 집에 와서 점심을 할수 있을거예요.》

《고맙습니다만.》 뽀르또스는 대답하였다. 《난 뭘 악용하는걸 좋아하지 않는걸요. 게다가 장비품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거던요.》
《아, 그렇군요!》 검사부인은 신음하였다. 《그 말썽거리 장비품때문에!》
《유감스럽게도 그건 사실입니다.》 뽀르또스는 그루를 박았다. 《그 장비품때문이지요!》
《그 장비품이라는게 당신네 련대에서는 어떤게 들어가요? 뽀르또스씨.》
《아, 얼마나 많게요.》 뽀르또스는 말하였다. 《당신도 아시다싶이 총사들은 정예의 군대거던요. 그러니만큼 근위병이나 스위스인들에게는 필요도 없는것들이 많이 요구되거던요.》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예요? 한번 꼽아보세요.》
《글쎄 그건 말이지요. 총액을 말한다면…》 뽀르또스는 개별적인 품목이 아니라 차라리 총액을 놓고 다투는편이 낫겠다는 타산으로 말을 뗐다.
검사부인은 속이 한줌만 해서 뒤말을 기다렸다.
《총액이 얼마예요?》 검사부인은 물었다. 《내 생각에는 기껏해서…》
그 녀자는 숨이 넘어갈듯싶어서 말을 중둥무이하였다.
《아무렴요.》 뽀르또스는 말하였다. 《2천 500리브르는 넘지 않을테지요. 좀 아끼기만 하면 2천리브르로 굼땔수 있을것도 같습니다만.》
《원, 세상에. 2천리브르라구요!》 그 녀자는 비명을 질렀다. 《우리 집 재산을 몽땅 다 털어도 안되겠군요!》
뽀르또스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얼굴을 찌프리고 꼬끄나르부인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이런걸 묻는건 당신의 장비품에 어떤것들이 속하는지 알고싶기때문이고.》 그 녀자는 구구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또 나는 상업계에 친척들과 고객들이 많기때문에 당신에게 소용되는 물품들을 당신이 사는 절반값으로 살수 있다고 믿기때문이예요.》
《아, 그렇군요.》 뽀르또스는 대꾸하였다. 《그렇다면 사정이 다르지요.》
《그렇구말구요. 친애하는 뽀르또스씨! 그러니까 우선 당신에겐 말

이 필요하겠지요. 안 그래요?》
《옳습니다. 말이 필요하지요.》
《좋아요. 당신에게 맞춤한것이 내게 있답니다.》
《참, 잘됐군요!》 뽀르또스는 기쁨에 넘쳐 말했다. 《그럼 말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다음엔 내겐 마구가 일식으로 또 필요한데 그건 총사가 직접 제 손으로 사야 할 물건들이거던요. 하긴 그건 300리브르이상은 안 먹겠지만.》
《300리브르라구요? 하다면 할수 없군요. 300리브르라, 300리브르…》 검사부인은 한숨을 지으며 말하였다.
뽀르또스는 헤벌쭉 웃었다. 독자들은 기억하겠지만 그에게는 버킹함공작이 선사한 안장이 이미 있었다. 결국 그 300리브르는 순전히 제 호주머니에 채울것을 혼자 속으로 타산한것이였다.
《그밖에도》 그는 계속 꼽아내였다. 《내 하인의 말이 필요하고 내게는 트렁크가 필요합니다. 무기는 당신이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건 내게 있으니까요.》
《하인의 말이요?》 검사부인은 주저주저 되받아외웠다. 《이보세요, 이보세요. 뽀르또스씨, 그건 지나친 사치가 아닐가요?》
《그렇단 말이지요, 부인!》 뽀르또스는 도고하게 말하였다. 《당신은 날 무슨 거렁뱅이로 아는겁니까?》
《원, 별말씀을 다! 내가 말하자는건 훌륭한 노새가 때로는 말 못지 않게 름름해보이기도 하니까 무슈끄똥을 위해서 훌륭한 노새를 물색해내기만 하면…》
《좋습니다. 훌륭한 노새로 칩시다.》 뽀르또스가 말하였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내 언젠가 매우 지체높은 에스빠냐 고관대작들을 본 일이 있습니다만 그 수원들을 보니 전부 노새들을 탔더군요. 그러되 당신도 리해하시겠지만 꼬끄나르부인, 노새는 울긋불긋한 모자와 방울들로 장식이 되여야 합니다.》
《걱정말아요.》 검사부인은 대꾸하였다.
《그럼 트렁크문제인데요.》 뽀르또스는 계속하였다.
《오, 그것 역시 당신은 걱정 안해도 되겠어요!》 꼬끄나르부인이 말하였다.
《우리 주인에게 트렁크가 대여섯개 있으니 제일 좋은걸 고르세요. 그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인이 려행할 때면 특별히 잘 가지고 다닌답

니다. 그건 이 세상이 전부라도 들어앉을만큼 크답니다.》

《그러니까 그 트렁크는 비였겠군요?》 뽀르또스는 순진하게 물었다.

《물론이지요. 비였지요.》 검사부인이 역시 순진하게 대답하였다.

《여보시오, 부인. 내겐 내용이 가득찬 트렁크가 소용된단 말입니다!》

꼬끄나르부인은 다시금 한숨을 짓기 시작하였다. 아직 몰리에르가 자기의 수전노를 쓰지 않은 때였다. 결국 꼬끄나르부인은 아르빠공의 선배로 된셈이였다.

간단히 말해서 나머지 장비품들도 이러루한 론의를 거치게 되였으며 그 결과로 꼬끄나르부인은 현금으로 800리브르를 내고 뽀르또스와 무슈끄똥을 영광에로의 길로 태우고 갈 말과 노새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게 되였다.

이러한 약속들을 받아낸 다음 뽀르또스는 꼬끄나르부인과 작별하였다. 물론 부인은 눈웃음으로써 뽀르또스를 더 붙잡아두려고 꾀하였다. 뽀르또스는 군무를 핑게댔으므로 검사부인은 부득불 그를 국왕에게 양보할수밖에 없었다.

총사는 시장기를 가시지 못한채 기분이 몹시 상한 기색으로 자기 집에 돌아갔다.

외국장편소설 **세 총사(상)**

저 자	알렉싼드르 듀마
역 자	현 상 률
편 집	리 혜 란
표 지	리 수 길
편 성	리 설 희
교 정	김 경 희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2
인 쇄	주체101(2012)년 4월 10일
발 행	주체101(2012)년 4월 20일

ㄱ—16617ㄴ 값 260원